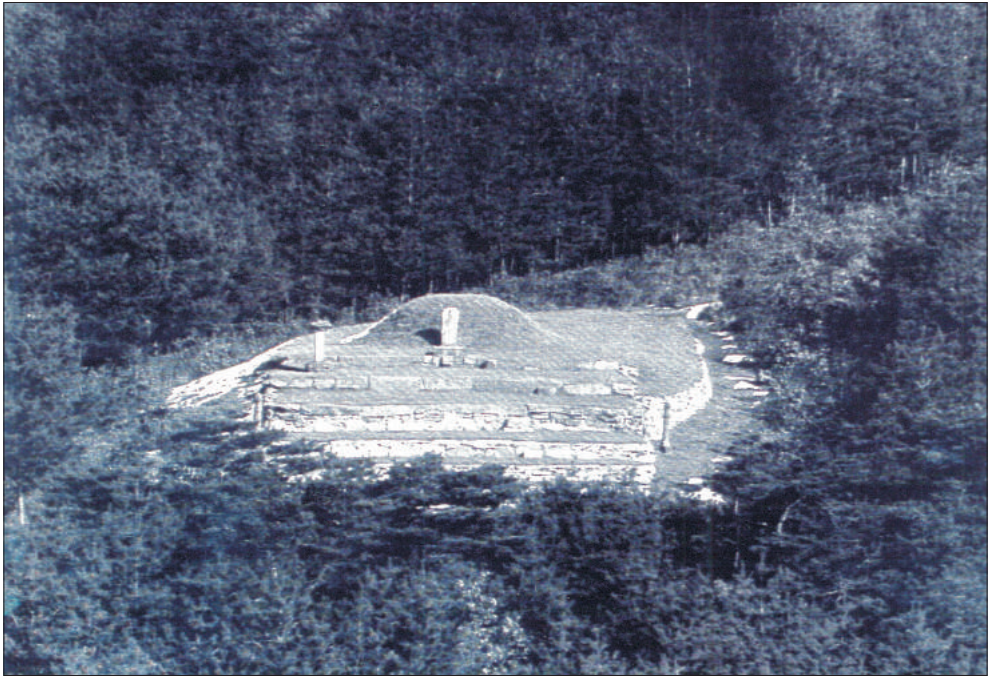


儒州春秋

2020年版 通卷第23輯



文化柳氏大宗會



始祖 大丞公(휘 車達) 墓所
1943年 당시의 柳陵, 黃海道 九月山



燒失되기 전의 始祖 大丞公齋室
敬思樓, 黃海道 九月山 墓下



柳陵 全景(黃海道 九月山)



柳陵앞의 保存遺蹟標識碑



大東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길 21-1(동호동 614)



東雞祠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학봉리 789)



五代壇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계류리)



慕省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1(계류리)



文化柳氏大宗會旗



文化柳氏大宗會館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6번길24(유천동)



文化柳氏由來碑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산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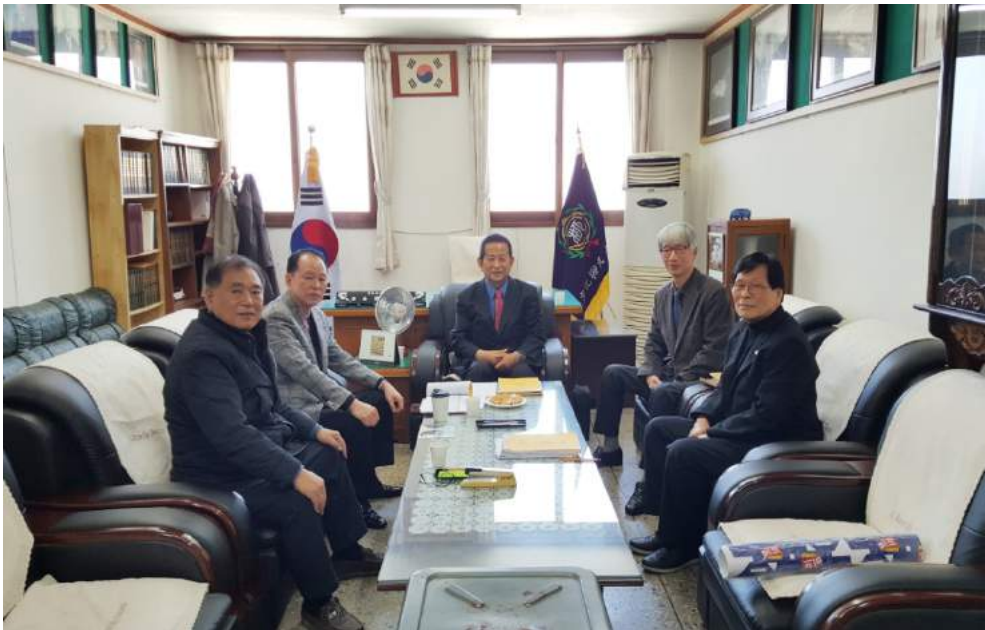


2020 庚子年 文化柳氏大宗會 新年賀禮式
(2020. 1. 9)

2020庚子年
文化柳氏大宗會新年賀禮式



2020 庚子年 新年賀禮芳名
(2020. 1. 9)



文化柳氏大宗會 監查
(2020. 3. 11)



文化柳氏 慕省祠標識石 除幕式
(2020. 5. 14)



文化柳氏 慕省祠標識石 除幕式을 마치고 記念撮影
(2020. 5. 14)



慕省祠 享祀 享 獻官記念撮影
(2020. 10. 31)



慕省祠 享祀 享 祭官記念撮影
(2020. 10. 31)



慕省會總會에서 柳元福 功勞牌授與
(2020.10.31)



慕省會總會에서 柳浩彬 善行賞授與
(2020.10.31)



慕省會 監查
(2020. 10. 14)



儒州春秋編輯會議
(2020. 12. 15)

大宗會 任員團



顧問 興洙



顧問 暎烈



顧問 瑤鎮



顧問 來鉉



顧問 三男



顧問 浩倓



顧問 濟求



名譽會長 箕桓



會長 三鉉



副會長 在殷



副會長 在英



副會長 秀澤



副會長 秉鉉



副會長 秦春



副會長 台紀



副會長 石鉉



副會長 金烈



副會長 台烈



副會長 鍾烈



副會長 在萬

大宗會 任員團



副會長 在寬



副會長 志瓚



副會長 在廣



副會長 在仲



副會長 愚翔



副會長 周永



副會長 民城



副會長 在聖



副會長 正雄



副會長 柱善



副會長 樊烈



副會長 金丸



副會長 益鉉



副會長 志誠



副會長 濟奉



弘報理事 朱桓



監事 志燕



監事 在侏



事務總長 承鉉

卷 頭 辭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流水와 같은 歲月은 어느덧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冬至가 지나 庚子년도 年末이 얼마 남지 않은 節侯입니다.

오늘도 국내외 世界 여러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宗親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宗親 여러분! 庚子年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防疫守則 준수관계로 부득이 大宗會 이사회와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公文으로 대신함과 동시에 始祖님을 비롯하여 先祖님께 올리는 享祠도 간소하게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崇祖穆宗하면서 숭고한 慕先育英 精神의 함양과 文化柳氏大宗會의 융성한 발전을 위하여 宗親 여러분과 함께 渾身の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遺業과 聖訓을 남기신 先世의 훌륭한 遺德을 높이 찬양하고 崇祖思想과 宗族 상호간의 敦睦을 위해서 해마다 宗親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先世의 遺文과 遺筆, 狀碣, 傳記 그리고 여러 宗中の 크고 작은 行事와 紀行, 隨筆, 提言, 動靜 등 여러 가지의 記錄들이 수록된 宗報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宗親 여러분과 함께 儒州春秋 제23집 발간을 祝賀하면서 그동안 玉稿를 보내주신 有志 宗親 여러분의 崇祖孝親 精神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來年에도 보다 次元 높은 宗報발간을 위해 더욱 더 心血을 기울여 나가도록 努力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옛말에 幸福은 健康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文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발전과 덕목의 秘訣은 단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宗親 서로가 보듬어 주는 “단합” 하나뿐이라는 愚見을 말씀드리면서 庚子年 한 해의 부푼 計劃들을 갈무리 하시고 明見萬里의 幸福하신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所望합니다.

『崇祖孝親의 꿈을 銘心하고 가꾸어 나갑니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世界 여러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宗親 여러분 家庭에 무한한 幸福이 증만하시기를 祝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



儒州春秋 第23輯 目次

卷頭辭		柳三鉉	15
目次		大宗會	17
特輯		柳承鉉	21
公示	庚子年 新年賀禮式	柳承鉉	24
	2020庚子年 大東書院 享祀後記	柳金丸	27
	文化柳氏 慕省祠標識石 除幕式	柳承鉉	31
	柳寬順烈士 殉國 100週忌 追慕祭	柳三鉉	34
先蹟探究	抱川을 빛낸 文化柳氏 名賢들	柳金烈	36
	龔庵(농암) 柳壽垣(류수원)	柳民城	49
	文化柳氏 『松壕遺集』 蔚山博物館 寄贈記	柳福壽	55
	潮溪先生實記 編輯後記	柳洋烈	74
	文陽君 柳公(諱 希霖) 功臣教書	柳基昌	76
	忠清水使 竹軒柳公(諱 持敬) 不祧廟奉安文	柳在豐	85
	孝子 柳世勛(恥軒公) 行狀	柳瑢鎮	88
	壬亂功臣의 分流와 宣武功臣 文興君 柳思瑗	柳在萬	92
	湖南義兵史 創刊에 즈음하여	柳金丸	101
	柳公權 先祖와 同名異人인 唐代 柳公權에 관한 考察	柳志世	107
	文肅公의 雅樂譜序	柳在英	114
	王建의 西南海戰鬪 軍糧	柳在均	121
	靈巖郡 叅事 柳秉夏南坡公의 行蹟	柳在均	133
	大丞公15世 部令公(諱 江生)의 記錄	柳在仲	140
	褒彰完議文	柳在成	143
	文柳光山世蹟	柳在休	146
	獨立運動家 柳弼烈 烈士	柳在坪	153
	正郎公(諱 以安)의 事蹟	柳世鉉	158
	大東祠와 九月山 柳陵	柳晏重	162

	잊을 수 없는 自隱齋 參拜記	柳晏重	166
	甲午東學革命 參與者 柳濟億의 行蹟	柳正坤	172
狀碣譯註	文原君(諱 應龍) 一代에 대한 詳察	柳三鉉	175
	咸鏡兵馬節度使 柳公(諱 敬先)에 관한 詳察	柳在聖	180
	壬辰倭亂시 殉節한 贈吏曹參判(諱 柳湜) 一代記	柳在澍	186
	烈婦孺人朴氏墓碣銘并序	柳世鉉	195
	此軒公(諱 寅淑)의 事蹟	柳昌鉉	199
	中樞副使 柳公(秀男)의 事蹟	柳濟福	202
宗史宗事	하정공과종중《청백리 하정 류관 전기》발간	柳浩燮	205
	清白吏 夏亭 柳寬傳記 祝刊辭	柳三鉉	209
	忠景公派 少尹公后 醒谷公 大邱宗會 紹介	柳成烈	211
	遯翁 柳公(諱 漣)의 無憫齋記	柳大杰	213
	文化柳氏夏亭公派 大世居地 靈岩茅山村 入鄉由來	柳金丸	215
	文化柳氏 殷坊山聚葬公園 紀實碑	柳在九	227
	松庵公(諱 灌)과 烏竹軒 三人詩	柳鶴善	229
動 靜	大賢 前大宗會長 逝去	柳淙鉉	233
	柳炳賢將軍(전 合參議長) 逝去를 哀悼함	柳承鉉	236
	柳根昌將軍(전 國家報勳處長)의 逝去를 哀悼하면서	柳三鉉	238
人物紹介	자랑스런 柳門의 젊은 後裔들	柳承鉉	240
宗中論壇	21世紀 享祀와 宗會의 哲學, 科學的 意義	柳澤烈	245
	家門의 傳統을 重視하는 兩班家	柳浩昌	270
	創氏改名이 과연 親日인가!	柳浩命	273
宗中常識	生活禮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柳鍾烈	280
漢 詩	臘暮雪雱 外	柳永熙	284

孤雲 崔致遠 詩 外	柳成烈	286
朝鮮朝 漢詩科擧大典(乙科 及第)	柳種烈	288
追慕 望菴先生 逝去 400週年 外	柳在豐	290
陝川海印寺 外	柳淙鉉	292
漢詩解釋 한글世代를 위한 漢文과 漢詩의 해석방법	柳志世	298
詩 歌 봄 오는 소리 外	柳相議	308
생각나는 어린시절	柳在珪	313
四君子 外	柳志卓	314
세평가(世評歌) 外	柳昌鉉	319
삶이란 外	柳鳳九	320
노을은 水平線 너머로 外	柳濟福	322
散文漫筆 朱子十悔訓	柳景化	325
삶의 香氣	柳子孝	327
공 트 純愛記	柳麟杰	330
紀行文 日本의 教育·文化 視察記	柳柱善	335
讀後感 삶의 智慧	柳相議	339
年例報告	柳承鉉	345
儒州春秋 第23輯 編輯을 마치면서	柳承鉉	367

【特輯】

【公示】

第20-1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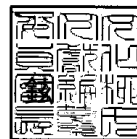
功勞牌

姓名：柳元福
生年月日：1948年 1月 4日

貴宗께서는 大丞公 33世孫으로 透徹한 崇祖穆宗의 信念으로 大小宗事に 寄與하시고 특히 始祖 大丞公과 上世의 五代位牌를 모신 慕省祠를 찾아오는 後孫들에게 不便함에 없도록 그 入口에 커다란 慕省祠標識石을 세움으로써 文化柳氏 宗親들에게 崇祖精神을 한층 더 高揚케 하는데 그 功勞가 至大하셨습니다. 이에 그 훌륭한 事行을 致賀하고 기리고자 全宗親의 뜻을 담아 이 牌를 드립니다.

2020年 10月 31日

文化柳氏大宗會長 柳三
慕省會長



第20-2號

功勞牌

姓名：柳浩彬
生年月日：1951年 12月 26日

貴宗은 老父母님을 모시고 生活하면서 始祖 大丞公과 上世의 五代位牌를 모신 溪流2里 里長으로서 慕省祠를 찾아오는 文化柳氏 宗親들에게 不便함이 없게하기 위하여 道路擴張과 慕省祠標識石을 세울수 있도록 住民들과 함께 渾身の 努力한 功勞가 至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隣近 地域에 施人布德하는 그의 奉仕精神과 善行功績은 宗親社會의 큰 龜鑑이 되므로 그 事行을 높이 致賀하고 勸勉하는 뜻에서 全宗親의 뜻을 모아 本賞을 드립니다.

2020年 10月 31日

文化柳氏大宗會長 柳三
慕省會長



2020年度 大宗會獎學金 授與

2020년 7월 15일 文化柳氏大宗會 獎學生選拔審査委員會를 개최하였다. 柳三鉉 大宗會長, 柳濟求 貞肅公派會長, 柳在英 文淑公派會長, 柳承鉉 事務總長이 참석하여 獎學生選拔審査를 하였다.

금년에는 총 10명이 접수되어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으로 총 8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은 柳守英(夏), 柳慧秀(左), 柳穎湄(貞), 柳受妍(判), 柳稅斌(忠/判), 柳丞桓(忠/典), 柳太煥(忠/部), 柳景鞠(忠/少)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獎學金 授與式과 각종 行事가 취소되어 개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獎學證書는 2020년 7월 30일 우편으로 발송하고, 獎學金은 2020년 7월 31일 계좌이체로 이체하였다.

獎學生 대표로 柳受妍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사를 보내왔다. “문화류씨대중회의 배려와 은혜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대승공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문화류씨 가문을 빛내도록 수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요지였다.

비록 獎學金 授與式은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獎學證書와 獎學金이 잘 전달되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獎學金 授與式이나 여러 行事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獎學生 答辭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계명대학교 독일어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대승공 36세손 판사공파 류수연입니다.

오늘 문화류씨대중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있어 오늘 이 장학금은 일가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로 받는 값진 장학금인 만큼 대승공의 후손으로써 책임감과 큰 보람 그리고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류씨 대중회는 저와 같은 후손들에게 뿌리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대중회의 일원으로서 문화류씨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문화류씨 후손들에게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중회의 배려와 은혜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대승공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문화류씨 가문을 빛내도록 장학생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만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5일

장학생 대표 류 수 연 올림

庚子年 新年賀禮式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承鉉

2020년 庚子년 新年賀禮式이 1월 9일 文化柳氏大宗會 대회의실(3층)에서 三鉉 대
종회장과 瑑鎭·濟求고문, 在英·秀澤·台紀·金烈·台烈·志瓚, 在廣·愚翔·金丸·
獎烈·柱善·益鉉 부회장을 비롯해서 相議·寅權·在均·在復·在成·鳳九 이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事務總長의 司會로 新年賀禮式이 거행되었다.

大宗會 三鉉회장은 동쪽에서 솟아 오르는 힘찬 太陽처럼 庚子년에는 종친여러분
모두가 萬福雲興(萬가지 福이 여러분 가정에 구름처럼 몰려옴)하시면서 보람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始祖 大丞公을 비롯한 先祖님들께서 우리 後孫들이 오늘도 全世界 여러 곳에서 서
로 화목한 모습으로 崇祖敦睦하면서 생활하는 후손들의 면면을 보실 때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庚子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 생활하시더라도 文化柳氏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文化柳氏大宗會의 발전적인 공통분모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 바란다는 당부 인사도 있었다.

모쪼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가 부족한 면은 덮어 주면서 우리 다함께 先祖님들
께서 남겨주신 遺業들을 永世傳承하자는 말씀과 함께 부족한 저도 大宗會 발전에 밀
알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庚子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웃고 더 행복해 하시는 보람된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祝願한다고 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祝辭순서로 秀澤부회장, 瑑鎭·濟求고문, 台紀부회장께서 2000년 새해 文
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德談 인사가 있는 후 하례식에 참석한 종친 모두의 간략한 自己
紹介 인사로 훈훈하고 화목한 庚子년 新年賀禮式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금년에도 2020년 庚子年 新年賀禮式 芳名記가 新年賀禮式場 입구에 마련되어 있어 색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고 그 반응도 너무나 좋았다.

곧이어 秀澤부회장의 先唱으로 萬歲三唱(대한민국 만세, 大丞公을 비롯한 先祖님 만세, 文化柳氏大宗會 무궁한 발전과 참석한 종친 모두의 건강을 祈願하는 만세) 이 있었다.

한편 오늘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文化柳氏大宗會 무궁한 발전과 先祖님의 遺德을 기리고 후손들의 건강을 축원하는 "至誠떡" 컷팅의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事務總長으로부터 大東祠와 東鷄祠 享祀에 종친 모두가 참석해달라는 공지에 이어 특히 2019년도에 慕省祠에서 大丞公(諱 車達)始祖님의 位牌奉安후 향사를 올린 감명 깊은 그 첫해였다고 말하면서 2020년에도 많은 종친들이 참석하셔서 九月山 柳陵에는 참배하지 못한 아쉬움을 그리면서 성원을 당부한다는 공지사향도 있었다.

곧이어 이날 賀禮式 참석한 會長團, 任員, 全宗親의 순으로 新年賀禮 合同 記念寫眞 촬영을 마친후 오찬에 들어가 台烈 부회장으로부터 庚子年 새해를 맞아 우리 文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는 乾杯 제의로 自祝과 和슴의 분위기 속에서 新年賀禮式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益鉉부회장으로부터 庚子年은 쥐의 해로서 쥐에 대한 觀察 습성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德談이 있는 후, 忠/少 天安公회장을 역임한 大宗會 원로이신 能菴 在豐翁의 故事成語로 德談말씀은 더욱 뜻깊고 유익한 신년하례식을 빛나게 해주었다.

庚子年 새해에는 더 한층 文化柳氏大宗會의 무궁한 발전과 종친 모두의 건강과 각 가정의 건영을 축원한다.



2020庚子年 新年賀禮式 團體記念寫眞(2020.1.9)

2020庚子年 大東書院 享祀後記



文化柳氏 光州·全南宗親會長(大丞公33世) 柳 金 丸

大東書院春享祭官分定

初獻 柳金丸 文化柳氏 大東書院 保存會長

亞獻 柳光烈 文化柳氏 檢漢城公後

終獻 柳根春 文化柳氏 忠景公後

陳設 柳在傑 文化柳氏 左相公派 西山公後

執禮 柳晏重 文化柳氏 中門祇候使公派 靖簡公後

祝 柳秀榮 文化柳氏 夏亭公派 茅軒公後

奉香 柳基燮 文化柳氏 檢漢城公派

奉爐 柳寬烈 文化柳氏 忠景公後

司樽 柳贊吉 文化柳氏 夏亭公派 清溪公後

奉爵 柳進先 文化柳氏 中門祇候使公派 靖簡公後

奠爵 柳在革 文化柳氏 左相公派 西山公後

贊引 柳浩德 文化柳氏 左相公派 西山公後

學生 柳在均 文化柳氏 夏亭公派 南齋公後

原

享祀推進委員：事務總長 柳京鉉, 財務理事：柳澤烈

至誠이면 感天이라

새벽 5시경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하늘이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기 예보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더니 다행히 향사 후 오후 6시경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 했습니다. 매해 음력 2월 15일(양력 3월 9일)은 비교적 흐린 날씨였는데 금년 향사 일은 비가 문제가 되지 않고“코로나 19바이러스”가 엄습(掩襲)해 오고 있었지요.대승공 시조님의 향사 일인데 걱정이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줄손은 젊어서부터『至誠이면 感天』이란 句節을 信念으로 삼고 살아 왔기에 내 생애동안 습관화 되어버린 인생 목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여섯 문자는 쉬운 글자로 여겨지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문자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살다보면 간혹 전염병(傳染病) 및 상상외의 사건 등이 휘몰아쳐 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하지만 금년 2월 중순처럼 별안간 찾아 온 불청객“코로나 19”란 괴질(怪疾)은 한국은 물론 지구촌을 긴장 시키고 있는 괴물이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庚子년 대동사에서 봉행되는 대승공 74회 향사일은 전국적인 행사이기에 우리 임원들은 延期論과 取消案을 두고 몇 차례 검토한 결과 결국 取消案을택하기로 했고, 전국 종친들에게 “2020년도 大東祀 香祀 취소 안내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마음속에는 아무리 여건이 불안해도 享祀를 생략하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님을 알고 光州·全南에 거주하는 임원 개개인 의견을 모아 향사 당일에 祭官 15명 정도만 參?祀하기로 의결하고 分定表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享祀 당일아침 사무총장 경현씨의 승용차로 大東祀에 가려고 준비 중에 갑자기 “스마트폰” 벨이 울려 받아보니 三鉉 대총회장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총회장과 통화시 “기제사”처럼 몇 사람만 모여 간단히 봉향 할 계획이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염려가 되어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향사비 까지 보내 주고 承鉉 총장도 몇 차례 연락을 주어 감사했습니다.

향사 15여일 전 전국 종친들에게 “大東祀 향사 취소 안내문”을 통보한 바 염려전화를 많이 주셔서 고마움을 숨길 수 없어 이 상황을 향사 전에 제관에게 알렸습니다.

모두가 반가워서 박수치며 흐뭇 해 하였습니다.

전화를 주신 종친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정했던 제관보다 光州圈에 거주하시는 종원과 서울에서 하정공파종회 임원(류호섭, 류제영)이 갑자기 참석해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류경현사무총장 부인께서도 나와서 제물준비 등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참례에 참여해 종친분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2주일 동안 무사하시기를 합장 기원도 했습니다. “至誠이면 感天”이란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전국에 계신 종친 여러분들의 가정에 大丞公 始祖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종친 여러분! “至誠이면 感天”이란 구절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다가오는 2021 辛丑年을 기다리며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고 화평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庚子年 簡素化한 大東祠 享祀 獻誠內譯

(단위 : 원)

區分	直派別	獻誠後孫名	獻誠額	住 所	郵便番號	備 考
1	大宗會	柳 三 鉉	500,000	문화류씨 대종회장	34976	향측대
2	大東祠 大保存會	柳 金 丸	100,000	광주·전남종친회장 겸 대동사 보존회장	61685	향측대
3	夏亭公派	柳 秀 澤	100,000	하정공파 종회장	04624	"
4	夏亭公派 高陽公宗會	柳 民 城	300,000	하정공파 고양공종회장	04624	"
5	忠景公派	柳 根 春	300,000	(주)삼태특수건설사대표 광주·전남종친회 부회장	61158	"
6	夏亭公派 約齋公宗會	柳 民 城	200,000	하정공파 약재공종회장	12506	"
7	夏亭公派 茅崗公宗中	柳 和 善	200,000	하정공파 모강공종회장	58401	"
8	左相公派 西山公宗會	柳 在 佺	100,000	좌상공파 서산공 판관공종회장 광주·전남종친회 부회장	61253	"
9	左相公派 西山公宗會	柳 在 佺	100,000	좌상공파 서산공 감찰공종회장	61253	"
10	中門祇侯使 公派	柳 晏 重	100,000	광주전남종친회 부회장	62318	"

區分	直派別	獻誠後孫名	獻誠額	住 所	郵便番號	備 考
11	夏亭公派 淸溪公宗會	柳 太 鉉	100,000	대동사보존회 전회장 광주·전남종친회 고문	61611	"
12	夏亭公派 豪林門中	柳 在 吉	100,000	광주·전남종친회 이사 하정공청계공파호림공회장	61933	"
13	夏亭公派	柳 浩 燮	100,000	하정공파 사무총장	04624	"
14	夏亭公派 高陽公宗會	柳 濟 榮	100,000	하정공파 고양공종중 사무총장	04624	"
15	夏亭公派	柳 秀 榮	100,000	광주·전남종친회 부회장	61667	업무비
16	夏亭公派	柳 相 杰	100,000	광주·전남종친회 이사	61667	업무비
17	夏亭公派 淸溪公宗會	柳 贊 吉	50,000	광주·전남종친회 간사	62219	향측대
18	忠景公派	柳 浩 林	50,000	충경공파 죽헌공 종회		"
	合 計		2,700,000			

文化柳氏 慕省祠標識石 除幕式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 承 鉉

慕省祠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곳 포천이 낳은 巨儒이고 萬人의 존경을 받는 碩學인 大丞公의 후손으로서 朝鮮朝의 開國功臣 左議政(휘 曼殊)의 17대손 龍西公(휘 奇一)께서 爲先의 誠意가 독실하여 墳墓(분묘)를 실전한 先祖의 紙榜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매 9월 그믐날(晦日.회일) 享祀하기를 24년만인 지난 1899년(己亥)에 지금의 포천시 신북면 계류2리 방축골에 있는 先塋곁에 設壇을 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오늘날 文化柳氏五代壇 始初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抱川 방축골에는 文化柳氏五代壇 聖地가 있고, 매년 음력 9월 15일 始祖이신 大丞公을 비롯한 先賢들의 位牌를 모시고 享祀를 올리는 慕省祠 聖所가 있는 곳으로서 山勢와 樹林이 무성하고 경내가 넓은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에 慕省齋를 慕省祠로 격상, 개칭하였고. 2012년 慕省會 이사회에서 五代壇 향사일을 매년(음력) 9월 말일(晦日)에서 9월 15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慕省會 이사회와 總會에서 慕省會定款 第2條의 규정에 의거 2019년부터 始祖 大丞公의 향사를 慕省祠에서 올리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13일(음9월 15일)에는 慕省祠 懸板式과 始祖 大丞公(휘 車達)의 位牌奉安式을 마친 후 獻官 모두가 우리 고유의 金冠祭禮服을 입고 300여명의 祭官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마쳤다.

지금까지 慕省祠의 연혁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마는 大路에서 文化柳氏五代壇과 慕省祠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좁고 굽은 관계로 찾아오는 종친들이 늘 불편함을 느껴왔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9월 26일 慕省會 이사회(대중회 4층)에서 연말에 직선도로가 개통되면

그 입구에 慕省祠標識石 설치의 건을 논의 중에 忠/部令公宗中(柳在仲회장)에서 흔쾌히 標識石 寄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2019년 말 柳浩彬 이장(左/贊成公宗중)을 비롯하여 포천시와 주민들의 협조로 좁고 굽었던 도로를 넓혀 직선도로로 확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慕省會와 左相公派宗중, 監役公소宗중(左/贊成公宗중)에서 각각 100만원씩을 부담하여 300만원을 계류2리 마을에 찬 조송금하였다.

文化柳氏 慕省祠 標識石(높이3.44m, 폭1m, 두께40cm)은 시가 1,500여만원의 대형조형물로서 益山공예 柳元福 대표(대승공33세, 忠/部令公宗중 부회장, 대종회 이사)가 제작, 기증하였다. 이날 제막식은 柳承鉉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始祖 大丞公 先祖님과 殉國先烈에 대한 묵념이 있는 후 柳三鉉 대종회장으로부터 내빈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문화류씨 모성사표지석

대종회장은 인사말에서 柳元福 寄贈者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면 이제 文化柳氏標識石이 文化柳氏五代壇과 慕省祠를 찾아오는 후손들에게 큰 里程標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標識石 大形造形物을 기증한 柳元福 대표는 우리 文化柳氏 始祖님을 비롯한 先祖님들의 位牌를 모신 慕省祠에 성의를 표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大丞公을 비롯한 先祖님의 位牌를 모시고 향사를 올리는 文化柳氏 慕省祠의 歷史에 한 획을 긋고 길이 남을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고자 한다.



표지석 제막식(2020.5.14)



표지석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2020.5.14)

柳寬順烈士 殉國 100週忌 追慕祭



柳寬順烈士紀念事業會顧問/名法博 柳三鉉

2020년은 柳寬順烈士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중 모진拷問에도 불구하고 獄中에서 우리 나라의 自主獨立을 외치다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에 지하독실 어두운 監房에서 18歲의 꽃다운 나이에 殉國한지 100週忌가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日帝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獄中에서 大韓獨立 萬歲를 외쳤던 우리 겨레의 등불이기도 하였던 柳烈士의 100週忌追慕祭가 지난 9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柳寬順烈士 追慕閣(충남기념물 제58호)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보훈처장, 천안시장, 류관순기념사업회장과 광복회장, 유족대표 등 각계각층의 내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追慕辭, 獻花, 萬歲三唱을 끝으로 柳寬順烈士 殉國 100週忌 追慕祭를 마쳤다.

우리 모두는 烈士의 숭고한 자주독립의 애국혼과 거룩한 殺身成仁의 獻身的인 精神을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불어넣고 이를 後世에 길이 전하고 되새기면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인 동시에 거룩하신 大韓의 딸 柳烈士에 대한 報答의 길이라고 오늘도 다짐한다.



柳寬順烈士 影幀



柳寬順烈士 影幀



柳寬順烈士 追慕閣앞에서
헌화(2020.9.28.)



追慕閣 앞에서 萬歲三唱(2020.9.28.)

【先蹟探究】

抱川을 빛낸 文化柳氏 名賢들



文化柳氏 左相公派宗會長 柳金烈

1. 序

경기도 포천은 山水가 秀麗한 景觀이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는 人心 좋은 곳이다.

그리고 포천은 領相을 지내신 文僖公(휘 柳洵)과 愚伏堂(휘 塏)같은 名賢들이나 綺羅星 같은 先賢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고 文鄉으로 이름이 높이기도 하다.

한 지역의 歷史와 文化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배출한 인물탐구 또한 중요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포천문화원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포천을 빛낸 人物들에 관한 學術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論文들도 발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抱川邑·郡誌, 역대 文化류씨세보 등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 포천을 빛낸 文化柳氏 名賢들을 다음과 같이 그 記錄 등을 考察하고자 한다.

2. 抱川을 빛낸 文化柳氏 名賢들

포천지역은 歷代 名賢의 遺蹟이 많으며 또한 뛰어난 名賢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기도 한다.

이중에 포천을 빛낸 名賢은 당연 文化柳氏가 으뜸이며 左相公派 贊成公의 후손들이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니 그 유래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文化柳氏는 高麗 開國功臣 柳車達을 始祖로 하고 이 고장에서 文化柳氏가 크게 번

창하는데 기여한 인물은 大丞公13세손 左議政 柳曼殊이시다.

포천 자작리에 처음 時居한 분이 柳淙인 바 그는 大丞公15세손으로 柳曼殊의 孫이요 商議中樞院事 原之의 둘째 아드님이시다.



贊成公(諱 柳淙)의 墓

류종(柳淙 1388~1445)은 대승공15세손으로 고려 우왕 14년에 한양에서 태어났다. 世宗朝에 蔭仕로 行首를 거쳐 楊口縣監, 稷山縣監, 漢城判官, 永柔縣令을 역임하였다. 公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포천 왕방산 아래 자작리에 터를 잡고 살았다. 슬하에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思溫은 縣令이고, 차남 思恭은 洗馬를 지냈다. 3남 思忠은 奉直郎이고, 4남 思問은 中軍司正이며 5남 思義는 鐵山郡守로 포천을 중심으로 자손이 많이 번창하였다. 이곳에 墓를 쓰고 후에 政丞이 3인이 난다 하였다는데 과연 손자 洵(洵)과 증손 埶(埶)이 領議政에 올랐고, 외손으로 이덕형(李德馨)이 또한 領議政에 올랐다. 墓는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방축동에 있다.



洗馬公 贈領議政(諱 柳思恭)의 墓

류사공(柳思恭 1413~1469)은 大丞公16세손으로 柳淙의 차자이며 老圃堂 柳洵의 부친이다. 公은 門蔭으로 출사하여 南部錄事를 거쳐 世子翊衛左洗馬를 지냈다. 비록 지위가 顯達하지는 못하였으나 德義를 널리 베풀어 君자의 풍도가 있었다.

領議政 柳洵의 顯達로 文川府院君에 봉해지고 후에 議政府領議政에 追贈되었고 家門과 후손의 번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료를 보면 조부 柳淙은 左贊成에 贈職되었다. 부친 柳思恭은 文川府院君에 봉해지고 領議政에 贈職되었다. 또한 장자 柳應龍은 司馬試에 급제 후 司憲府監察, 刑曹佐郎, 司憲府持平, 京畿都事, 司僕寺僉正, 軍器寺正, 兵曹參議와 禮曹參判, 吏曹參判 등을 두루 역임하고, 中宗元年(丙寅, 1506)에 反正功勳으로 奮義靖國功臣에 책록된 다음 文原君에 봉해졌다. 다음 기록을 보면 조선 英祖때 10대손까지도 그 혜택을 받았음을 살필 수 있다.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선비를 시험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장전(帳殿)에 충의(忠義)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정국공신 柳洵의 10대손이고 하나는 임진왜란 때 효절(孝節) 이억기(李億棋)의 7대 손이니 의소묘수위관(毅昭廟守衛官) 두 과(窠)에 아울러 특별히 차임(差任)하게 하라”하였다.」

墓는 계류리 방축동 선영에 있다.



司僕寺正公(諱 柳思忠)의 墓

류사충(柳思忠1418~1483)은 大丞公16세손으로 류종(柳淙)의 3남이며 가산면 방축리에 이주하여 장자 진(津)은 進士이고 차자 지(池)는 生員이며 삼자 지(止)는 參奉이다.

公은 집 북쪽에 亭子閣을 세우고 그 속에서 세월을 보내며 지내던 어느 날 조카 순(洵)에게 亭子의 이름을 지어 달라 청하니 조카가 말하기를 叔父와 화포(和圃 洵의 父親)께서 君子이며 소나무로 亭子를 지었고 소나무 역시 君子이니 三君子가 亭子에서 가끔 술상을 준비하고 詩를 읊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亭子 이름을 君子亭(君子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이곳 언덕을 君子亭 고개라 부르고 있고 그의 16대 후손이 君子장 기문을 소유하고 있다. 벼슬이 봉직랑(奉直郎)인데 증손 류경선(柳敬先)에 영달로 시복시정(司僕寺正)에 贈職되었다.

墓는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둔방동에 있다.



判書公(諱 柳思義)의 墓

류사의(柳思義 1424~1489)는 대승공16세손으로 세종6년(甲辰 1424)에 태어났다. 字는 정로(正路). 류종(柳淙)의 5남으로 愚伏 류전(柳堧)의 증조부로서 모친은 계림이씨(鷄林李氏)이다.

公은 鐵山郡守 등 2개군의 태수를 지냈으며, 손자 지선(智善)의 榮貴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追贈되었다. 배위는 한양조씨(漢陽趙氏)로 조갱(趙廣)의 따님이다. 슬하에 6남 1녀를 두었다. 묘는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선영이다.



領議政 文僖公(諱 柳洵)의 墓

류순(柳洵 1441~1517)은 대승공17세손으로 조선시대 文臣으로 字는 希明이요 號는 老圃堂, 諡號는 文僖이다. 어려서부터 집에 책이 없어 남의 것을 빌려 밤새도록 공부하고 詩文에 뛰어나고 大義를 통달하여 公은 18세(세조4년 戊寅)의 弱冠에 金陵賦(金陵賦)를 지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1459년(世祖5년 己卯)에 나이 19세로 司馬試에 壯元하고 1462년(세조7년 壬午)에 式年文科에 等第하여 承政院注書, 成均館主簿를 拜命하고, 藝文館奉敎를 겸하다가 戶曹佐郎 知製敎로 옮기고, 1466년(세조11년 丙戌)에 연이어 重試와 拔英試를 모두 급제하여 聞望이 융성하였다.

1469년(예종5년 己丑)에 吏曹正郎, 1474년(성종5년 甲午)에 藝文館應敎, 1478년(성종9년 무술) 弘文館直提學. 弘文館副提學, 承政院同副承旨, 1483년(성종14년 계묘) 弘文館副提學을 거쳤으며 동년 7월에는 徐居正. 盧思愼. 許琮 등과 더불어 黃山谷詩集을 번역하였다.

그해 8월에 嘉善大夫로 승진됨과 동시에 全羅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1484년(성종15년 甲辰) 大司憲, 1485년(성종16년 乙巳) 禮曹參判, 忠淸道賑恤使, 1487년(성종18년 丁丑)부터 1489년(성종20년 己酉)까지 3曹(兵曹, 刑曹, 工曹 등)의 參判을 역임하고, 지난 1487년(18년 정축) 4월 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89년(성종20 정축) 五衛都摠府副摠管, 1490년(성종21 경술) 司憲府大司憲, 同知中樞府事, 開城府留守, 1492년(성종23년 壬子)에 成均館大司成, 同知中樞副事, 1494년(성종25년 甲寅)에 知中樞府事 겸 藝文館提學, 1495년(연산1년 乙未) 刑曹判書 겸 知春秋館事, 同知經筵事, 吏曹判書 겸 藝文館提學, 藝文館編修, 1497년(연산3년 丁巳) 五衛都總府都摠管, 1498년(연산4년 戊午) 漢城府判尹, 1499년(연산5년 己未) 刑曹判書, 1500년(연산6년 庚申) 議政府左參贊, 1501년(연산7년 辛酉) 戶曹判書 겸 同知經筵事, 1502년(연산8년 壬戌) 議政府右贊成, 1503년(연산9년 癸亥) 議政府右議政 겸 經筵監春秋館事, 1504년(연산10년 甲子) 議政府左議政, 議政府領議政, 1506년(중종2년 丁卯)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奉文城府院君, 1509년(중종4년 己巳) 누차 進正으로 領議政사퇴. 奉文城府院君, 1510년(중종5년 庚午) 賜几杖, 1514년(중종9년 甲戌) 領議政 再제수, 1516년(중종11년 丙子) 領議政 사퇴. 奉文城府院君. 1517년(중종12년 丁丑) 77세를 一期로 별세. 諡는 文僖이다.

公은 의약, 지리에도 밝고 특히 字學에 정통했다. 묘는 남양주시 무둔산 팔야리(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에 있다. 墓碣銘은 泚川君 강혼(姜渾)이 撰하고 墓誌銘은 議

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신용개(申用漑)가 撰했다.

류연(柳演 ~1508)은 大丞公 17세손으로 류사의(柳思義)의 아들로 愚伏 柳塏의 조부이다. 司馬試에 급제하였다. 배위는 宜寧南氏로 감찰 남용신(南用信)의 따님이다.

포천 자작리에서 거주하며 슬하에 인(仁善), 은선(恩善), 예선(禮善), 지선(智善), 정선(貞善)등 5명의 아들을 두었다. 손자 柳塏의 영귀(榮貴)로 贊成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포천 무이산 오리동에 있다.



柳仁善孝友碑

류인선(柳仁善1492~ ?)은 대승공18세손으로 中宗朝의 선비이다. 류종의 증손이며 柳演의 장자이다. 1492년(성종23)에 포천 자작리에서 태어났다. 字는 공숙(公叔)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해 아버이를 정성껏 섬겼으며, 아버이가 돌아가시자 묘 앞에 묘막을 짓고 3년간 侍墓를 하였다. 또한 5형제가 한 집에 살면서 우애가 깊어 칭송이 자자했다. 1535년(중종30 乙未) 3월 경기도 관찰사 윤은필(尹殷弼)이 장계(狀啓)를 올려 정려(旌閭)의 명이 내려졌다. 1540년(중종35 庚子) 한성판윤 金安國 등이 천거하여 사산 감역(四山監役)에 제수되었다. 배위는 豊山金氏로 후사가 없어 그의 아우 형조판서 智善의 차남 첩(堞)을 입계하였다. 1549년(명종4년 己酉)에 孝友門으로 정려가 내려지고, 집

앞에 있는 샘 우물도 孝友井이란 액호가 내려졌다. 봉래 楊士彦이 孝友門傳을 지었으며 陶谷 李宜顯이 續傳을 지었다. 자작리에 소재한 柳仁善孝友碑는 1986년 4월 포천시 鄉土遺蹟제4호로 지정되었다. 묘소는 신북면 무이산 오리동 선영에 있다.

류예선(柳禮善)은 대승공 18세손으로서 左贊成에 증직된 柳演의 3남으로 포천 자작리에서 출생하였다. 학행으로 서사(書仕)하여 金城縣令을 지냈고 아들 柳堧이 귀하게 되어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백형 인선(仁善)을 비롯하여 5형제가 자작리 한 마을에서 한 우물을 함께 마시면서 살았는데, 효성과 우애가 뛰어나 칭송이 자자하였다. 배위는 청주양씨로 진사(進士) 양세보(楊世輔)의 따님이다. 4남2녀를 출생하였는데, 장남은 식(埴)으로 현령을 지냈고, 차남 전(堧)은 영의정을 지냈다. 3남은 말(埴)이다. 4남은 언(堰)이다. 장녀는 허곤(許滾)에게 출가하여 영의정을 지낸 이덕형(李德馨)을 출생하였다. 묘소는 신북면 무이산 오리동 선영에 있다.

류지선(柳智善:1498~1577)은 대승공18세손으로서 柳演의 넷째아들로 포천 자작리에서 태어났다. 1522년(중종17 壬午)에 生員에 급제하고 1531년(중종26 辛卯)에 文科에 급제하여 承文院 副正司에 보직되었다. 그 후 著作, 博士, 司憲府監察에 이르렀고 戶曹, 禮曹, 工曹, 兵曹의 佐郎을 두루 거치면서 春秋館記事官을 겸임하였다. 1539년(중종34 己亥) 書狀官으로 明나라 燕京에 다녀왔다. 1547년(명종2 丁未)에 謝恩使로 明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이듬해 2월에 大司諫에 제수되고 얼마 후 承政院에 들어가 同副承旨, 右副承旨, 左承旨를 거쳐 都承旨에 이르고 6월 兵曹參議에 遞任되었다. 이후 江原道 觀察使, 戶曹參議, 慶州府尹을 거쳐 嘉善大夫에 陞進되고 判決事, 清洪道 觀察使, 刑曹參判, 五衛都摠府副摠管, 黃海道觀察使, 外職으로 驪州牧使, 仁川府使, 鐵原府使, 漢城左尹, 開城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1575년(선조8년 乙亥)에 同知中樞府事로 옮기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公은 천성이 온후하여 형제간에 우애가 독실하였으며 성실과 신의로써 사람을 대하고 명확하고 결단성 있게 일을 처리함은 물론 청렴과 근신으로 스스로 지켜 고루한 시속을 따르지 않았다. 1577년(선조10년 丁丑) 향년 80세로 卒逝하였다. 묘는 포천 두흙동(豆洽洞) 南쪽기슭 未坐丑向原에 안장하였다. 墓表는 조카 柳堧이 지었다



咸鏡兵馬節度使(諱 柳敬先)의 墓

류경선(柳敬先1519~1575)은 대승공19세손으로서 柳思忠의 증손으로 진(津)에 손자이고 繼胤의 아들이다. 1519년(중종14 己卯)에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에서 출생하였다. 字는 흠중(欽仲)이다. 1543년에 武科에 급제하였으며, 1556년(명종11 丙辰) 觀射別試에 급제하였다. 明宗때 郎將, 都

摠府都事를 거쳐 雄川縣監, 濟州判官, 梁山郡守 등을 지냈다. 청렴과 근검으로 백성을 다스려 치적이 드러났다. 선조 때에는 濟用監僉正을 거쳐 漢城府庶尹 慶源府使를 역임하였으며, 1573년(선조6 癸酉)에 忠淸水使에 전임되고, 이듬해 會寧府使, 咸鏡北道兵馬節度使로 전임되었다. 그는 성품이 아름답고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여 칭송이 높았으며, 經書를 두루 읽어 사리에 밝았다. 公職에 임하면서 근엄하고 청렴하게 행실하여 널리 칭송되었다. 1575년(선조8 乙亥)에 57세로 卒逝하였다. 墓는 가산면 금현리 선영에 있다. 배위는 宗室 니성군(尼城君) 存光의 따님으로 자식이 없어 三從弟 愚伏堂 柳堧의 次子 裕緒를 系子하였다 그 후 후손들은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세거하고 있다. 1986년 4월 포천시 鄉土遺蹟 제13호로 지정되었다.



領議政 文貞公(諱 柳堧)의 墓

류전(柳堧:1531~1589)은 대조공19세손으로 조선 중기에 대표적인 文臣이다.

1552년(명종7 壬子)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이듬해 別試文科에 급제하여 槐院(槐院)에 발탁되어 權知副正字(權知副正字)를 제수 받고 옮겨 基주가 되었다. 학식과 필재가 뛰어나 大提學 鄭士

龍의 추천으로 호당에 선발되어 문원생활을 하였다. 얼마 후 禮文官檢閱로 선임되었으며, 春秋館에 들어가 議事를 맡아 보았다. 1556년(명종11 丙辰) 重試에 급제하여 弘文館著作으로 발탁되었다. 다음에 弘文館典籍으로 승진하고 1558년(명종13 戊午) 다시 博士를 거쳐 修撰으로 승진되었다. 1563년(명종18 癸亥)에 校理로 승급 되었다가 兵曹正郎과 刑曹正郎을 역임하고 다시 修撰으로 옮겼다. 그후 弘文館副應敎. 司憲府執義. 承政院同副承旨. 弘文館副提學. 1575년(선조8 乙亥)에 都承旨로 발탁되었다. 곧 禮曹參判. 承文院提學. 兵曹參判. 都摠府摠管. 司憲府大司憲. 資憲大夫에 올라 禮曹判書를 역임했고 다시 正憲大夫에 올라 兵曹判書가 되었다. 이 당시 李珣와 더불어 尹元衡. 이기(李芑)등 간당을 몰아냈다. 1583년(선조16 癸未)에 漢城府判尹을 역임하고 1585년(선조18 乙酉)에 右議政으로 특별히 승진되었다. 1588년(선조21 戊子)에 謝恩使가 되어 燕京에 다녀와서 左議政에 오르고 이듬해 領議政을 제수하였다. 그해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뒤 平難功臣 2등에 추록되어 始寧府院君에 추봉되었다. 司憲府執義 벼슬에 있을 때 東西의 어느 편당에도 가담하지 않고 國政을 잘 이끌었다. 諡號는 文貞이다. 처음에는 香積山아래 안장하였다가 일동면 길명리 金珠山밑으로 移葬하였다. 諡狀은 예조판서 金履翼이 지었다.



儒城君(諱 柳熙緒)의 墓

류희서(柳熙緒:1559~1603)는 大丞公20세손으로서 愚伏 柳堧의 장남으로 1559년(명종 14 己未)에 포천 자작리에서 출생하였다. 1579(선조12 己卯)에 진사에 급제하고 1585(선

조18 乙酉)에 謁聖文科에 급제하였다. 1588년(선조21 戊子)에 司憲府監察이 되고 1592년(선조25 壬辰)에 임진왜란 때 도원수(都元帥)의 從事官이 되어 왜적을 격퇴하는데 많은 功을 세웠다. 이듬해 兵曹佐郎에 제수되었다. 이어 司憲府持平, 掌令, 사가원 정언, 世子시강원, 문학을 역임하고, 禮曹參議에 승진하였다. 다시 承政院으로 전직하여 동부승지, 우부승지, 거처 장예원 판결사가 되었다. 이듬해 2월에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부임하였다가 11월에 彈劾을 받아 사직하였다. 12월에 복직하여 都承旨가 되었다.

1603년(선조36 癸卯) 刑曹參判에 승진하여 儒城君에 봉해졌다. 같은 해 8월 火賊에게 횡사(橫死)하니 향년 45세였다. 京畿道觀察使가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儒城君 柳熙緒가 선영에 省墓 차 포천에 내려와 있던 중 火賊 30여명이 달려들어 칼로 가슴을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합니다” 하였다. 王은 承政院에 전지를 내려 이르길 “柳熙緒가 도적에게 피살되었다니 비록 정시(停市)는 할 수 없으나 금일 열렸던 경연은 쉬도록 하라”하였다. 뒤에 靖難原從勳에 책봉되고 議政府左贊成 겸 兩館大提學에 증직되었다. 配位 南陽洪氏는 부제학 洪仁慶의 따님으로 1남4녀를 두었으며, 묘소는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금주산 先親墓하에 있다.

류유서(柳裕緒:1564~1592)는 大丞公20세손으로 함경병마절도사 柳敬先의 아들로 1564(명종19 甲午)에 출생하였다.

1589년(선조22 己丑)에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28세에 불행이도 임진왜란에 禍를 입어 애석하게도 괴황지기(槐黃之期)에 나가지 못했다. 生父는 領議政 文貞公 柳堧의 次子이다. 묘는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선영이다.

류박(柳舶:1585~1628)은 대승공21세손으로 병마절도사 柳敬先의 손이며 류柳維緒의 아들로 字는 濟而이다. 1616년(광해8 丙辰)에 武科에 올라 外職으로 監利城縣 겸 北靑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으며 향년 44세에 卒逝하셨다. 배위는 安東權氏 사과(司果) 협(協)의 따님이다. 墓는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선영이다.

류주(柳主 1576~1637)는 大丞公 21세손으로서 愚伏 柳堧의 손자로 字는 濟孺, 號는 鶴洞이다. 1603년(선조36 癸卯) 進士에 급제한 후 蔭仕로 世子翊衛司와 義禁府의 요직을 거쳐 固城郡守로 나갔다. 1613(광해5 癸丑) 인목대비 사건 이후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으며. 1617년(광해9 丁巳) 司僕寺僉正에 제수되었을 때도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辭職하고 귀향하였다. 1637년(인조15 丁丑)에 향년 62세로 卒逝하였다. 墓는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금주산 선영에 있다. 그의 후손은 주로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와 가평군 하면 현리. 그리고 연천군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東海處士 龍西公(諱 柳基一)의 墓

류기일(柳基一 1845~1904)은 大丞公30세손으로 愚伏堂 柳堧의 11대손이다. 구한말 文人으로 소흘읍 고모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吏曹判書를 역임한 柳秉喆의 둘째 아들이다. 號는 龍西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7살 때에 어머니가 病으로 위중할 때 分(糞)을 맛보아 가며 근심하였다. 어른들이 모란(牡丹)을 들고 글을 지으라고 하니 즉석에서 “牡丹花多發하니 富貴又繁華”라고 지었다. 일찍이 金平默의 門下에서 수업했고 또한 중년이후에는 弟子 양성에 힘썼다. 송조모현(崇祖慕賢)의 정신이 두터워 선대의 읽어버린 묘소 10位를 추모하기 위하여 계류리에 설단을 했고 삼성당리에 성현 追慕壇을 만들어 매년 壇享을 받들기도 하였다.

또한 포천에 巨儒로써 많은 문집을 남겼다. 늙어 父親喪을 당하여 吉地를 구하고자 3개월간이나 찾아다녔고 人家가 드문 高山에서 시묘(待墓)까지 했다. 결국 몸이 쇠약해져 병으로 59세에 卒逝하였다. 墓는 신북면 계류리 방축골에 있다. 山仰壇에 배향하고 儒林이 매년 9월13일 향사를 하고 있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포천을 빛낸 우리 文化柳氏 名賢들(16분)에 관한 記錄 등을 대략 적으로 살펴보았는 바 부족한 면면들은 추후에 좀 더 상세하게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포천시 신북면 방축골에는 文化柳氏五代壇 聖地가 있고, 매년 음력 9월 15일에는 文化柳氏 始祖이신 大丞公(휘 車達)을 비롯한 先祖들의 位牌를 모시고 享祀를 올리는 慕省祠 聖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경기도 포천은 우리 文化柳氏 후손들에게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고장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자 한다.

參考資料

- 孝友門傳(蓬萊 楊士彥)
- 續孝右門傳(陶谷 李宜顯)
- 萬姓歷代始祖統譜典故大方(大正13년 漢陽書院)
- 大東奇聞(大正15년. 漢陽書院)
- 海東人物志 乾坤編(檀紀4302년. 回想社)
- 歷代文化柳氏世譜
- 歷代文化柳氏左相公派譜
- 抱川邑.郡誌
- 抱川文化院誌
- 韓國名賢遺蹟(1982.韓國忠孝思想顯彰會)
- 儒州春秋(文化柳氏大宗會)
- 抱川을 빛낸 人物研究(抱川文化院)



龔庵(농암) 柳壽垣(류수원)



文化柳氏 夏/高陽公宗中會長(大丞公32世) 柳 民 城

悲運의 實學者 龔庵 柳壽垣

龔庵 柳壽垣은 1694년(肅宗20년. 甲戌)에 충북 충주 신당동에서 부친 柳鳳庭과 경주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通德郎 柳鳳庭은 농암이 3살 때 3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이곳은 아마도 외가인 김씨세가인 듯 한데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의 本貫은 文化로 夏亭公 柳寬의 11대손이다. 그의 조부 柳尙載는 大司諫을 역임하였으며 柳尙載의 형님인 約齋 柳常運은 領議政을 세 번이나 역임하였고 約齋의 아들인 晩庵 柳鳳輝는 英祖 연간 左議政을 지냈던 분이니 당대 최고의 名門 家門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少論계 家門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와 숙부가 소론계 영수인 남구만, 최석정과 학적 인연이 깊었던 만큼 柳壽垣의 학적 배경에는 實學精神 회복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할 수 있다.

당시 文化柳氏는 당파적으로 少論이었고, 그리하여 柳壽垣은 少論의 중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사실 柳壽垣은 少論 중에서도 급진파라고 할 수 있다. 柳壽垣에게는 치명적인 身體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머거리였던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귀가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 훗날 英祖와의 對話에서도 筆談으로 할 정도였으니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신체적 결함은 그를 더욱 과격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柳壽垣의 종숙인 柳鳳輝는 英祖 즉위년에 右議政과 左議政을 역임하였지만, 英祖는 그를 끝내 조선 팔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땅 경원으로 유배를 보내고 말

았다. 그 이유는 柳鳳輝가 “景宗이 즉위한 뒤 ‘金昌集 등 4명의 老論 대신들이 延祜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을 시키라고 강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老論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에 제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柳鳳輝를 종속으로 두었으니 柳壽垣 역시 老論에게 있어서는 견제의 대상이었다.

류수원은 20세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24세에 정시 文科에 급제하였으니 가히 天才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다.

조선시대 과거 평균 합격 연령이 41세였으니 24세에 합격한 것은 그가 뛰어난 자질과 열심히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柳壽垣의 급진성은 경종에 의해 正6品の 正言으로 임명받은 후 나타났다.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국정이 어지러운 것은 바로 少論 온건파인 領議政 趙泰耆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領議政 趙泰耆는 少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景宗대에 老論 4대신의 입장을 받아들여 英祖의 왕세제 책봉을 묵인한 인물이었다.

이로 인하여 趙泰耆는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갔고 左議政 崔錫恒이 龔巖을 지방으로 출보하여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龔巖은 예안현감, 병조좌랑, 낭천현감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고 이후 국가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저서 迂書를 저술하였다.

그후 英祖3년 병조좌랑, 거창, 문의현감을 거쳐 英祖11년 평안도 泰川縣監에 부임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자신의 경세를 실험하여 몇 달 만에 觀察使가 볼만한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英祖13년 領議政 李光佐와 判書 尹珣 등이 龔巖을 추천하였다.

두 사람은 迂書의 내용이 역대제도와 이해득실 국조의 전장연혁에 능통하며 식견이 크게 뛰어나다고 아뢰었다.

英祖는 承政院에서 구해 바친 迂書를 읽고 비국의 폐단을 논한 글은 탁월한 견해이며 패초의 폐단 역시 절실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龔巖을 중용하려던 시도는 少論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으나 임금마저 높이 평가한 迂書의 존재가 높은 평가를 얻어 龔巖의 이름

이 세간에 크게 들어나게 되었다.

이어 英祖17년에 영조는 시급한 당습억제와 당론 유발요소 척결을 위하여 龔巖의 입시를 명하고 龔巖은 官制序陞圖說을 지어 올리고 임금을 바로 대면하여 본인의 주장을 설명하였고 임금은 이를 당쟁의 주요 타겟인 이조전랑과 한림직에 대한 개혁의 정지 작업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폐단의 시정에 급급하여 그의 개혁론은 부분적으로 끌어와 활용했을 뿐 개혁의 근본적인 실현은 집권층의 정치적 이해 타산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여 당대의 經世家로 임금에게까지 경륜과 재주를 인정받은 龔巖은 그 포부를 펼칠 수 있는 현직에 중용되지 못한 채 지방직이나 비변사 낭청으로 그의 벼슬은 끝나고 말았다.

후에 나주에 유배가 있던 少論 尹志는 나주목사 등을 포섭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영조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것의 시발이 나주벽서사건이었고 이는 미수에 그치었다, 영조는 자신의 최대 약점인 景宗과의 관계를 건드린 이 사건에 대하여 격노하였고 직접 국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나갔다. 탕평의 군주 英祖는 이미 없었다. 그 과정에서 나주벽서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 인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은퇴하여 향리에 은거하던 龔巖이 검거 되었고 농암은 영조 앞에서 당당히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 결과 그는 다음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부인은 자결하고 나머지 가족은 관노로 편입되었다.

이에 約齋公 증중은 約齋公 묘소 아래 시신조차 없어진 龔巖의 遺墟碑를 세워 이를 기리고자 한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龔菴 柳壽垣先生 遺墟婢

농암 류수원선생은 류봉정의 아들로 肅宗20년(서기 1694년) 충청도 충주 목에서 출생하였으며, 할아버지는 大司諫을 역임한 류상재, 큰할아버지는 영의정 約齋 柳尙運, 당숙은 左議政 만암 柳鳳輝 이시다.

약관21세에 進士試에 합격하고 25세에 文科급제 하여 관계에 진출하여 순탄한 앞날이 예상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지방관으로 전전하여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심한 귀머거리가 되어 필답에 의존하였다.

선생의 혁신적인 부국안민의 방책이 담긴 迂書 5권의 저술은 당시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문벌의 피해를 제거하고 양반계급의 특혜를 줄이고 사농공상의 제한을 없애 모든 국민이 평등한 신분으로 능력에 맞는 직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제개혁을 통하여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육부가 정사를 관장하여 명령계통을 일원화하고 필요 없는 부서의 통폐합을 주창하였다..

선생의 사상은 근대성을 띠었고 국운응성의 방책이어서 당시 임금인 英祖는 迂書를 읽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술은 선유의 말들을 뽑아 공교로움만 구하는데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만을 기록하였으니 참으로 귀하다 하겠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것은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 아닌 글로서 이를 기술하였으니 이는 실로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집권세력인 老論의 주적이 되어 나주괘서 사건에 연루, 대역죄인으로 무고되어 극형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부인은 자결하고 자손은 노비가 되었다.

선생은 스스로 명문가의 자제로 기득권을 부정하고 당쟁에 연루되지 않고 불편부당 하였으며 본인과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 오직 국가와 백성을 위한 주장을 하다가 뜻을 펴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가는 근대화의 기회를 잃었다.

선생이 가신지 300여년 오늘의 세대는 그때와 얼마나 다른가.

이름만 다른 기득권 세력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정치의 폐해는 옛날과 다름없되 스스로의 희생을 무릅쓰고 감히 개혁을 실천하려는 위정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부끄럽고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롭다.

이에 무덤조차 흔적 없는 선생의 뜻을 기려 이 작은 표석을 세운다.

2015년 중추절 約齋公宗會長 民城 삼가 아뢰

집권 세력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는 柳壽垣은 英祖를 비롯한 집권 老論에게 중용될 수 없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본격적으로 사회 개혁에 대한 구상과 집필을 하였다. 나라가 왜 이리 어려워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는 깊이 하였다.

그의 이런 구상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迂書이다.

迂書는 龔巖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후 禁書로 지목되어 폐기되고 몇몇 사람들에게 의하여 은밀히 읽혀졌고 저자 목록이 삭제되어 이 책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서적으로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다.

1942년 위당 정인보선생이 임진, 병자 兩難이후 피폐한 국가를 복구하기 위한 경세의 학자로 류형원, 김육, 이원명, 류수원, 이익, 정상기, 정약용, 홍대용을 거론하면서 세상에 龔巖 柳壽垣이라는 학자가 알려졌고 1962년 한영국교수로 하여금 迂書가 龔巖의 저술임을 밝혀내었다.

그리하여 농암의 저술이 학계에 소개된 것이 일천하여 그분의 저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서는 조선후기 사회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뛰어난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이 사족 지배체제에 토대를 둔 조선 사회 전체를 흔들만큼 혁신적이었고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방법으로 제시한 상공업 진흥론은 당대의 어떤 주장보다도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것이었다.

조선의 학문이 이념적 측면이 강하였지만 우서는 매우 현실적이어서 사회병폐의 기본 요인이 사족과 문벌사회의 형성 때문으로 보고 사농공상의 실현으로 사족의 상업종사 허용을 통해 국가의 富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농공상'에 따른 신분 차별이 나라가 가난하고 백성이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분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나라와 백성은 富國安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농공상이라는 편벽되고 고루한 강제성이 나라의 변화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는 학문에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양반 사대부들이 유생(儒生)이라고 자처하면서 온갖 편법과 험잡으로 벼슬자리를 구한 다음 권력과 세도를 부려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바로 老論을 자임하는 양반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결국, 양반들 역시 놀고 먹을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하고 특히 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훗날 그를 한국형 중상주의의 원조로 평가하는 것이다. 英祖는 그의 '迂書'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중용하고자 하였으나 노론 대신들의 집요한 반대로 그를 우대할 수 없었다.

상공업 진흥론은 당대의 어떤 주장보다도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文化柳氏『松壕遺集』蔚山博物館 寄贈記



文化柳氏 左/西山公宗中會長(大丞公32世) 柳 福 壽

本論에 앞서

필자는 유주춘추제19집(2016년판)에 “壬亂日記『松壕遺集』국역발간의 역사적 의의와 敎訓”이란 주제로 원고를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임란일기『송호유집』은 국역발간으로만 그치지 않고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2017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 有形文化財 제37호로 지정되었다.

유형문화재가 된『송호유집』은 울산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게 되었으며, 기탁절차를 거쳐 2018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에 영원히 기증하게 되었다.

한편 울산박물관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博物館으로 온 膳物의 증표』란 표지명으로 ㉠권과 ㉡권을 편집, 2019년 11월 5일 “寄贈者の 날” 기념행사일을 기해서 반질(頒帙) 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울산박물관에서는 제 ㉢권에 수록된 많은 유물 중 『松壕遺集』에 대하여 대승공19세 松壕公(휘 汀)의 일생과 『송호유집』이 관리 되어온 일련의 과정과 박물관에 기증 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증자의 특별원고”를 요청, 약2개월여에 걸쳐 작성, 제출하였는 바 이것이 『박물관으로 온 선물의 증표』 ㉢권에 특집으로 실린 바 있다.

우리 울산의 入鄉祖이신 晚風亭公(휘 光先)의 次子 松壕公과 장손 霽湖公(휘 伯春) 先祖의 임란일기는 경상좌도의 壬亂史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동 연구에 더없이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기쁨을 전국(X60만?)에 계신 종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I. 머리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군대가 돋보이지 않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에는 나뭇잎이 질푸르기 때문에 소나무가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의 강력한 힘이 돋보이고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떨어지면 소나무가 변함 없이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태평성대에는 忠臣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에 위기나 전란이 닥쳐오면 그 상황은 달라진다. 여름에 짙은 녹음 속에 묻혀있던 소나무가 겨울이 되면 제 모습을 나타내듯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혼란을 대처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忠臣과 烈士들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임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430여 년 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들이 바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몸으로 맞서 싸웠던 忠臣이요 烈士이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수많은 기록들이 불타 없어졌는데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상황을 짐작 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

이 글에서 증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 松壕公(휘 柳汀)의 文集이 바로 그것이다.

松壕公은 한양에서 태어나 10살 때 울산으로 移居하였다 아버지 晚楓亭公(휘 光先)이 형조참판으로 재직 중 乙巳土禍에 휘말려 울산으로 유배를 왔던 것이다. 그 후 松壕公이 56세 되든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 榮春, 손자 泰英, 조카 伯春을 데리고 倡義하여 의병을 진두지휘하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왜적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宣祖30年(1597 丁亥) 公께서 61세 되든 해 팔공山 전투에서 국난을 외면하지 않고 몸바쳐 싸우다가 마침내 戰死하게 된다. 그러나 公의 위대한 충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公의 그 충절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된 적도 없었기에 후손으로써 아쉬움이 없지 않으며, 公께서 평소에 추구해 왔던 것이 무엇이었는데를 일찍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욱 크다.

따라서 “文化柳氏『松壕遺集』 博物館寄贈 이야기”에서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문집의 내용을 근간으로 가능한 한 사실적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은 것 중 가장 처참했던 임진왜란에 대하여 松壕逸稿를 중심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먼저 公의 家系와 行蹟, 詩의 作品世界와 龍蛇日記를 살펴봄으로써 公께서 義兵 투쟁을 하다가 殉節하신 시대적 使命과 그 숭고한 精神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公께서 남긴 많은 記錄들이 처음에는 遺集의 형태로 되었다가 다시 逸稿의 형태로 재판집 된 과정과, 작품 138題 168首의 詩와 몇 편의 散文을 통해 公의 思想도 살펴보면서 公께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하여도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松壕遺集』과 그 보존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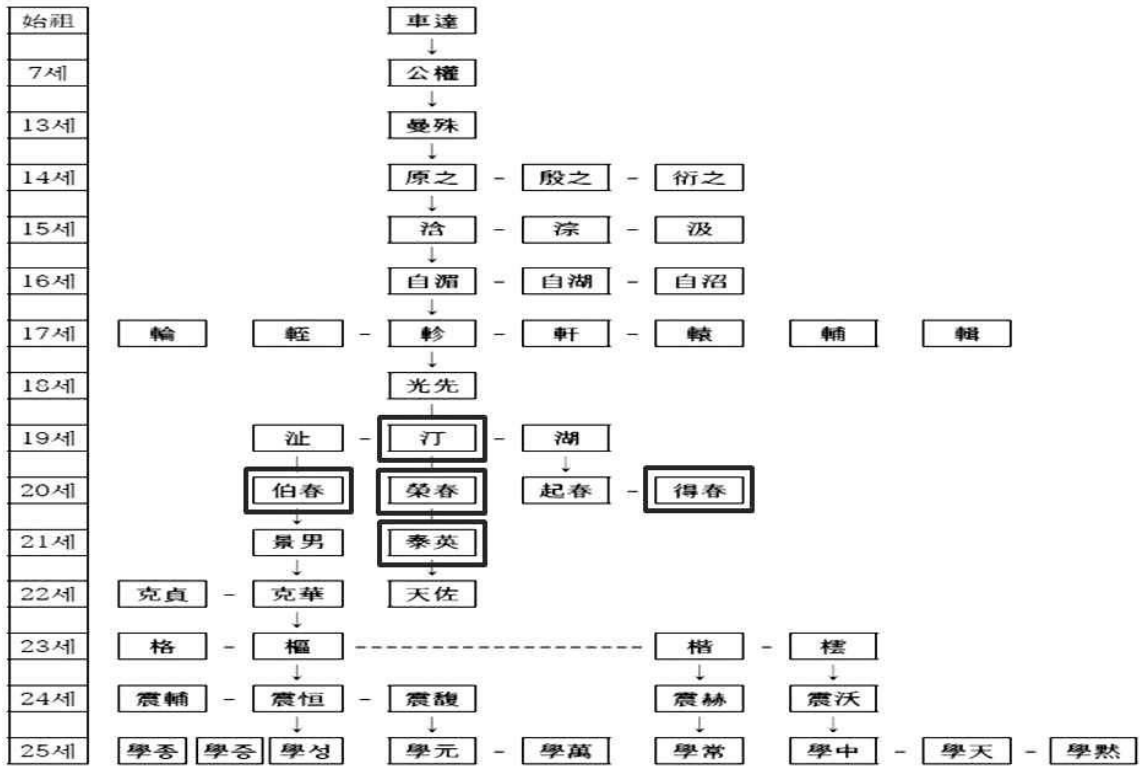
1. 『松壕遺集』

가. 公의 家系

松壕公(휘 汀)의 字는 汝元이요, 號는 松壕다. 本貫은 文化柳氏이며, 高麗朝의 開國功臣인 大丞公(휘 車達)이 그 始祖이다. 대승공7세인 公權은 叅知政事로 諡號는 文簡公이고, 13세인 曼殊는 朝鮮朝의 開國으로 左議政에 올랐다, 14세 原之는 商議中樞院使로 吏曹判書에 贈職되었다.

公의 高祖(휘 滄)는 基州縣監으로 吏曹判書를 贈職하시고, 曾祖(휘 自湄)의 號는 西山인데 世宗朝에 文科 급제 후 司憲府監察을 지냈고 端宗의 遜位에 守節하심으로써 東鶴寺 肅慕殿과 梁山에 있는 七賢祠에 배향되어 있다. 祖父(휘 軫)께서는 府使를 역임하였다. 부친(휘 光先)은 號가 晚風亭인 바 刑曹參判으로 明宗朝에 있었던 乙巳士禍시 直言으로 見責을 당하여 烏山으로 유배되었다. 얼마 후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蔚山에서 여생을 마쳤다. 蔚山, 梁山, 慶州지역에 文化柳氏가 世居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다. 이상은 公의 行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이며, 公의 家乘世系는 아래 도표와 같다.

松壕公 柳汀의 家系圖



※晚楓亭誌의 晚楓亭世系圖에 의거해서 작성한 柳汀家系圖.

나. 公의 生涯와 忠義精神

公은 中宗32年(1537 丁酉) 서울에서 태어나 仁宗원年(1545 乙巳) 부친께서 울산 伴鷗亭으로 유배된 후 이듬해인 明宗원年(1546 丙午) 부친을 따라 울산에 정착하였다. 公은 51세가 되던 1587年(丁亥) 부친의 유명에 따라 경주 서면 深源에 별장을 경영하여 松壕精舍를 지었다. 深源은 深源사지가 있는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일대인 바 그 주변에는 청도 雲門寺가 있어 公이 지은 詩의 詩題로 등장하기도 한다. 당시 경주 府尹 具思孟(1531~1604)이 지은 「松壕上樑文」에는 “이 숙부와 이 조카는 本分과 가난을 편안하게 여겨 한번도 官府에 들어 간 적이 없고, 先祖의 遺業을 물려받아 잘 계승하였으니 온통 은둔에 뜻을 두었도다.” 라고 하여 松湖정사가 은둔지로 적합한 곳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곳 深源에서 柳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詩(송호유집 국역본 上 p.111 참조)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이곳의 한적한 은둔 생활도 잠시, 공과 주위 인물들은 倭亂의 조짐을 알고 戰時 준비에 몰두하게 되었다. 1590년 3월 20일 崔弘國 金仁濟 曹德驥 鄭世雅 鄭三顧가 방문하여 時事가 심상치 않은 정황을 전하며 變亂에 대비할 방도를 묻자 공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은 변함없는 하늘의 道이고, 나라의 존망은 인간사에 으레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草野의 미천한 신분인 바 지금 太平聖代를 당하여 감히 난리에 대한 우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때에 따라 변화를 관찰하고 기회를 보아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 하였다.

공께서 이 말은 훗날 쉬지 않고 戰場을 누비다가 殉節한 인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하고 조심스러워 『周易』에 통달한 隱者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1590년 7월 15일 金光福, 金春龍, 정삼고, 김인제, 정세아, 조덕기, 금난수 7인이 遊覽 가는 길에 찾아와 하룻밤 묵으면서 時事를 논하였는데 이로부터 戰爭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 朱砂山에 올라가 金庾信의 遺蹟을 보면서 금난수 등 9인과 感慨하여 겨운 분위기의 酬唱詩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詩는 다음과 같다.

酬國誠心自少年	나라 위한 정성은 소년 시절부터 품었고
丈夫高節命于天	대장부 높은 절개 하늘로부터 타고났네
丹心可學金元帥	열렬한 충정 김 원수를 배울 만하니
一片心懷一國全	가슴속 일편단심 온 나라 온전하였네.

여기서 느껴야 할 중요한 사실은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약 2년 전부터 지역 선비들은 戰亂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금난수 등 모든 이의 次韻詩에서도 닥쳐올 變亂에 대한 비장한 각오와 감회가 느껴진다.

마침내 1590년 12월 10일 공은 古羅(현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를 하였다. 變亂의 기미가 보이자 그 대비책 마련을 위하여 깊은 산중으로 옮긴 것이다. 고라는 부친이 수년 전에 별장을 경영해 둔 곳이었다. 공은 종 萬金 등에게 물방아를 설치하게 하고, 저장해 두었던 곡식 90가마니를 찢고 다시 80석을 사오게 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古羅의 上玉里에는 무쇳골, 먹방골, 장터와 下玉里에는 遁世洞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신라말기 서라벌에서 난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1천여 호가 넘게 살았다고 한다. 추정해 볼 때 공은 이곳에서 식량뿐

만 아니라 모든 병기들도 준비한 듯 하다. 이사를 마친 공은 곧장 심원의 송호정사로 돌아왔으며, 그 후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전까지 儒生들과 수없이 많은 모임을 가지며 교유하면서 時局에 대한 우려를 詩로 읊곤 하였다.

이듬해인 1591년 11월 28일에는 윤희명과 장희춘이 편지와 함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쇠 185근을 보내왔고, 松壕公은 이에 답하며 주조한 장창(長鎗) 176자루를 실어 보냈다. 아래에서는 壬辰倭亂이 일어난 후 공의 중요한 행적들만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 ◎ 1592년(宣祖25년) 4월 14일 조카 伯春이 밤중에 와서 어제 왜구(倭寇)가 많은 軍事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부산을 함락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 ◎ 1592년 4월 15일 마을 사람들 모두를 불러모아 姓名을 기록하니 건설한 남자가 116명, 노약자가 107명이고, 여자는 건설한 자가 98명, 노약자가 128명이었다. 朴仁國을 左營將으로 삼아 건설한 남자를 통솔하게 하고, 沈希齡을 右營將으로 삼아 여자와 노약자들을 통솔하게 하였다.
- ◎ 1592년 4월 16일 염색한 포백(布帛 : 베 종류와 비단 종류) 30필로 軍服을 만들고 붉은 명주 10척으로 旗를 만들어 守義將이라 썼다.
- ◎ 1592년 4월 19일 경주 府尹 尹仁涵으로부터 領兵大將 임명장을 받았다.
- ◎ 1592년 4월 23일 白鶴嶺에서 심희대, 박인국, 윤희명 등과 함께 왜적을 맞아 싸워 수십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한 것을 시작으로 1597년 9월 18일까지 孔巖·汶川·南川·佛國寺·願遠寺·武龍山·鶴城館·影池·蓮巖 등으로 陣地를 옮겨 다니고, 고라와 심원 등지에서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조달하며 수십여 차례 전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 ◎ 1592년 6월 경주에서 열린 蚊川會盟에 참가하였다

이상은 1590년 3월 20일부터 1597년 9월 22일까지 장장 7년 6개월 동안 柳汀이 기록한 日記의 주요내용이다. 松壕公 殉節 후 조카 백춘과 손자 태영이 이를 이어 1636년 12월29일까지 기록한 것을 합치면 총 50여 년 동안의 國難克服 日記인 셈이다.

이 기간의 기록 중 특기 할 사항은 1592년 8월 11일 日記에 담긴 선조의 敎書

이다. 壬辰倭亂이 일어난 지 불과 20여일 만인 5월 3일 한양을 빼앗긴 宣祖는 8월 2일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하였고, 의주에서 약 한달 간 머물면서 延陵府院君 李好閔에게 命하여 敎書를 짓도록 하였다(그 내용은 생략, 국역 松壕遺集 196쪽 참고) 8월 18일 公은 行在所에서 보내온 1140여 글자에 달하는 이 반교문(頒敎文)을 조카 백춘에게 한문과 한글로 베껴 쓰도록 하였다. 마을의 노소 남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읽고 또 읽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고, 듣는 이들도 감격하여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박인국·심희대·류백춘도 함께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늘어서서 절하니 士卒들도 적개지심이 생겨 조금도 해산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 반교문이 송호우 집에 기록되어 있어 이 日記는 壬亂史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 ◎ 1594년 10월 13일 永川의 蒼巖에서 激戰 중에 軍糧米를 운반하던 아들 榮春이 殉節하였다.
- ◎ 1594년 10월 18일 손자 泰英이 전쟁에 합류하였다.
- ◎ 1596년 2월 9일 영남의 左右義兵將들에게 通文을 보내 3월 3일에 일제히 대구 營營中에 모이기로 하고, 각처의 장수들과 明나라 장수 楊鎬. 董一元. 解生 등이 敵兵 수 천명과 八公山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 ◎ 1596년 3월 3일에는 여러 義兵將들과 八公山會盟에 참여하였으며, 열읍의 義兵將들이 벌과 구름처럼 운집하였다. 류백춘 .남득이. 이준. 박회무. 이시발. 문희성. 박태회. 등 8인에게 나누어 출생 년도와 거주지와 성명을 기록하게 하여 운집된 인원이 安東 외 62개 지역에서 422명(『송호유집』 국역본 238~259쪽 참조)에 이르렀다. 참고로 八公山 전투에 참여한 울산지역 거주 의병장들은 장희춘, 윤희명, 서인충, 김흡, 류정, 류백춘, 류태영, 이응춘, 이봉춘, 박손, 이응벽의 11명이다. 또한 松壕公은 3월20일 天使將 李訥과 激義將 李汝良에게 기회를 놓칠 것을 염려해서 빨리 합류할 것을 바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무렵 영남 좌우도의 각 지역에서 왜군과 수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의병들은 통문이 전달되면 진지를 옮겨가며 수 많은 적을 무찔렀다.
- ◎ 1597년 9월19일 八公山에서 진을 쳤다. 작년 3월 모여든 義兵將 수보다 갑절이 나 많았다. 義兵將들이 다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들이 國難을 당한 때에 다행이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한 사람이 빠진 것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 성상께서 주

신 무궁한 은혜를 다 갚도록 합시다. 힘쓸지어다. 제군들이여! 곰처럼 용맹하고 힘차게 걸어 군부의 은혜를 갚도록 맹세합시다 라고 하였다.

- ◎ 1597년 9월 22일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龍驤의 元帥들과 敵陣으로 달려가 박인국에게 앞을 막게 하고 창을 써서 7~8차례 힘을 다하여 전투를 벌려 죽인 자가 10여 급이었다. 愛馬 神駒가 갑자기 오른쪽 발이 꺼꾸러질 즈음에 적의 탄환이 가슴으로 날아와 맞으니 박인국이 급히 말갈레를 잡아 군영으로 돌아 왔다. 流血이 소매를 붉게 물들이니 손자 태영과 백춘이 손으로 눌렀다. 탄환이 왼팔 바깥쪽에 맞았기에 옷을 벗어 덮어 가리고 적중으로 뛰어 들어가 수십여 급을 베니 적병이 일시에 무너져 흩어졌다. 천사장 이눌도 적의 탄환에 맞아 숨이 끊어지려 하니 영남 좌도 義兵將들이 하염없이 슬퍼하였다.
- ◎ 1597년 9월 23일 松壕公께서 탄환에 맞은 부위가 바람과 추위에 더쳐서 군영 속에서 별세하시니 향년 61세였다. 모두 다 망극한 슬픔으로 통곡하였다. 신구가 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八公山 수십여 고개를 오르더니 세 번 1백여 척을 뛰고서 죽었다. 군사들이 팔공산 雲峴에 묻고 나무를 베어 세우고 '義馬塚'이라 썼다. 10월 초 1일에는 공을 고라로 운구하였고, 10월 28일 송호정사 앞 산등성이 子坐原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이상과 같이 松壕公은 戰亂 중에도 때에 맞추어 농번기에는 군사들을 농사에 임하도록 하여 군량미를 준비하고, 전투에서 사살한 적군을 휘하 副將의 이름으로 관아에 보고하는 등 善行을 베풀었다. 공은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여러 戰功을 올렸으나 이를 다 소개하지 못함이 아쉽기도 하다. 국난을 당해 나라를 위하여 3대(松壕公 柳汀, 아들 영춘, 손자 태영)와 松壕公의 조카 백춘, 득춘 등 친족 5명이 목숨을 바친 것도 위대하지만, 이들이 그 동안 몸소 겪은 사실을 記錄으로 남긴 일은 더욱 귀중하다 하겠다.

2. 『松壕遺集』의 보존경위

가. 필사본 『松壕遺集』과 『四義士實記』의 탄생

『松壕遺集』은 송호공의 증손인 天佐(1610~1640)가 당시 나이 27세 되던 1637년(仁祖15(1637 丁丑) 등사해서 상.하권으로 엮은 것이다. 이 유집은 초고의 형태로

편차가 없었으며 결락된 부분도 많았다. 그 후 유집을 정리하고 보충하여 1911년에 『사의사실기』에 수록하게 되었는데, 1권과 2권은 詩文과 日記를 잘 정리하였으며, 3권과 4권은 부록으로 松壕公과 관련된 글을 35편이나 더 추가해 놓았다. 그 중 行狀은 柳光睦이 짓고 壇碑銘은 金鴻洛이, 遺墟碑文은 孫厚翼이 지었다. 이와 같이 遺集을 礎稿로 삼아 산삭(刪削)한 것을 『사의사실기』에 逸稿로 수록하면서 완전한 文集의 형태가 갖추어 지게 되었다. 『송호유집』 필사본 상·하권이 국역되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波瀾萬丈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松壕遺集』은 公의 증손인 天佐가 丙子胡亂 중이던 仁祖14년(1636 丙子) 12월 29일 雙嶺陳 전투에서 殉節한 부친 智軒公(휘 泰英)의 屍身을 수습하려다 실패하고 돌아와 仁祖15년(1637 丁丑) 居喪하는 중에 정리하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高祖父 晚風亭公(휘 光先)의 「晚風亭遺考」 7권, 曾祖父 松壕公의 「송호역이변론」 6권, 조부 蘿巖公(휘 英春)의 「蘿巖性理辯論」 5권, 先考 智軒公의 「智軒음영」 2권, 再從祖 霽湖公(휘 伯春)의 「재호선우천석의」 8권이 있었으나 모두 亂離 중에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다행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에 쓴 日記는 남아 있었고 천좌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략 베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며 후손된 사람으로서 가슴이 멘다. 이렇게 정리된 『송호유집』은 기나긴 세월 속에 보관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오랜 전란을 거치며 후손들이 생명보전에만 급급하던 중, 이 책을 우리 家門의 外裔인 모씨가 빌려가서 여러 차례 독촉하여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송호公의 8세 傍孫인 寓山(휘 觀模)는 士林과 連名으로 慶州府尹에게 訴請하여 訴訣로 慶州서면의 金得鎰 家에서 책을 되돌려 받았다. 남의 書箱中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던 이 책이 憲宗 원년(1935 乙未)에 비로소 本家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 외도된 『松壕遺集』과 표절의 경위

그 후 『송호유집』은 1980년 7월 15일자 동아일보에 東溪 李彦春의 증손인 이정희가 자기 先祖 李彦春 將軍의 東溪實記를 記事化하고 原本 考證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음으로서 『동계실기』가 『송호유집』을 표절(剽竊) 했음이 온 천하에 들어 났다. 亂中日記의 내용은 모두 같고 柳汀과 柳伯春의 자리에 李彦春과 그의 아들 이상립을 끼워 넣어 표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본 우리 일문은 크게 놀라고 당황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 일문이 소중히 간

직하여 모시고 있는 송호公 할아버지의 『송호일기』와 똑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柳承烈 회장의 주선으로 『송호일기』의 原本을 가지고 상경하여 동아일보 기사 집필자인 임연철기자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이현종 박사에게 확인하게하니, 신문에 실린 내용과 같이 기재된 의사들 중 일부의 성명만 바뀌었을 뿐 모든 記錄이 꼭 같음을 보고 어느 쪽이든 다른 日記를 모사 간출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1980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사실 내용과 더불어 다시 실리게 되었다.

그 후 柳汀, 윤홍명, 이대임, 이눌, 서인충, 김석현, 이응벽, 이계수, 박진남, 장희춘, 박봉수, 김응하, 이경연 등 13의사의 실기를 모두 조사 해 보아도 소위 동계실기라는 것에 기록된 이언춘, 이상립 父子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어 이 『동계실기』가 『송호일기』를 표절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것 외에도 표절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자료가 10여개 되는데 지면이 허락지 않아 생략한다. 표절의 시기를 짐작 해보자면 앞서 언급한 우리 柳門의 외예가 되는 경주 서면의 김득일이 松壕 日記 원본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을 때 표절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 책장속에 묻힌 세월 180년

憲宗 원년(1835 乙未)에 本家를 찾아온 『송호유집』은 우리 先祖들의 끈질긴 집념으로 되찾은 책이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당시 入鄉祖이신 晚楓亭公(휘 光先) 할아버지께서는 경주, 울산, 양산 지역에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었기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晚楓亭公을 사모하기 위하여 晚楓亭契라는 契 모임을 만들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유지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 아래 훌륭한 세 아들이 태어나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모두 다 文武를 겸비한 선비가 되었으니 忠君愛民 정신이야 두 말할 필요도 없을 따름이다.

이처럼 本 遺集은 보관 조건이 좋지 못한 상태로 조선 말기를 지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쳤지만, 후손들이 先祖가 이룬 업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戰亂 속에서도 이를 잘 보관해 온 것은 晚楓亭 할아버지의 훌륭한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 이렇게 빛바랜 책으로 180여 년을 지냈으니 천좌 할아버지께서 거상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쓴 기간까지를 포함하면 380여 년 동안 자손들이 책을 보관 해 온 셈이다. 이 어찌 감탄스럽지 않겠는가?

Ⅲ. 한국국학진흥원 寄託과 國譯의 동기

1. 국학진흥원 寄託과 國譯本 발간

가. 寄託의 動機

外裔가 빌려간 책을 천신만고 끝에 돌려받아, 술한 세월의 풍상을 격어 지나온 180년여의 낡은 책장 속에서 壬亂의 아픔만큼이나 『松壕遺集』도 빛이 바래고 표지가 찢겨나가는 수난을 격어 왔다. 그나마 우리 후손들은 이제까지 연명해온 遺集을 난리 속에서도 지켜 오신 先祖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서 형용하기가 어려울 따름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울산광역시 史料조사위원회 박채은 위원은 2009년 12월경 우리 門中의 원로이신 在河 종원에게 귀문에 귀중한 목판과 古書가 있다고 하니 한국국학진흥원에 의뢰하여 검정 후 보관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하였다. 이후 同 진흥원과 연락이 되었고, 동년 12월 말 국학진흥원 권진호 박사팀 일행은 우리 門中을 방문하여 목판98점을 조사하고 좋은 역사적 자료임을 인정하여 국립국학진흥원에 기탁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문회는 이사회를 거쳐 2010년 1월 28일 목판류 98점을 기탁 하였고(西山先生實記 책판원본 34장, 七賢祠誌 책판원본 53장, 晚楓亭현판 1장, 晚楓亭記 1장, 望北軒 1장, 時習堂 1장, 逸詩 1장, 柱聯 6장) 그 후 또 다시 『송호유집』 필사본 원본 상·하권 2책의 기탁이 논의되어 조사를 거친 후 2013년 4월 11일자로 기탁 하였다.

나. 『松壕遺集』의 國譯

『송호유집』이 한국국학진흥원의 좋은 환경에서 보관 된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국학진흥원은 2014년 3월초 국역 할 것을 제안하여 왔다. 이유인즉, 『송호유집』이 기탁된 후 약1년 동안 내용을 살펴보니 임진왜란 당시 영남 좌우도에서 義兵을 일으켜 참여한 인물들과 전투상황, 시대적인 情緒 등을 일자별로 이렇게 소상히 기록된 문집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국역하여 당해 門中은 말할 나위도 없고 史學者들과 壬亂義兵 후손, 모든 국민이 내용을 공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 이었다. 우리 문중에서는 대 환영이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수 많은 人命과 財産을 빼앗겼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임진왜란의 진실을 국역을 통해 알게 됨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국고에서 일부 비용을, 우리 門中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014년 3월 20일 국학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번역시작 후 약 15개월여가 지난 2015년 7월에는 한국국학진흥원 번역 관계자들과 晚風亭 회의실에서 출판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번역완료에 대한 후속 업무사항을 주제로 하여, 국역본에 기록될 번역자 및 해제자, 발행인, 교정작업 및 발행부수 등을 협의하였다.



「송호유집」 국역 본



「송호유집」 원본 上 「송호유집」 원본 下



임진년4월14일 일기

2. 國譯發刊에 대한 門中의 역할

2015년 8월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교정을 의뢰 해 왔다. 물론 국역작업 중 많은 교정작업은 했겠지만 門中 차원에서 검토 해 달라는 부탁이다. 약 1년 반이 걸려 내어 놓은 성과물이다. 우리 門中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많은 양을 누가 모두 교정을 볼 것인가 걱정이 앞섰다. 고민 끝에 젊은이들은 생업에 쫓기다 보니 여유도 없고, 한문도 짧으니 門中 어르신들이 좋을 것 같았다. 평소 門中일을 협의하고 걱정하는 필자를 포함한 사랑방모임 6인이 있다. 6명의 모임 회원에게 교정작업을 제안했더니 모두 다 긍정적이었다. 국역본으로 6권을 복사하여 각자 한 권씩 나누어 가졌으며 15일 후에 교정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작업을 3개월 동안 각자 4회씩 반복 교정을 보아 번역오류, 토씨 등 하나 틀림없이 교정을 보았다.

마침내 인쇄작업에 들어갔고 모두 1,300부를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300부는 국학진흥원에서 소유하고 1,000부를 우리 문중에서 수령했다. 약 2년여에 걸쳐 완성된 국역 『松壕遺集』을 보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영남 좌·우도의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성취감이 만연했다.

2015년 12월 2일 국역 『松壕遺集』이 도착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반질(頒帙) 작업이다. 보내야 할 곳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소를 모두 파악하여 3월부터 반질하기 시작하였다. 제일 많은 책을 보낸 곳은 사단법인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후원회였으며, 각 宗中 사무실과 대학도서관, 壬辰亂史를 연구하는 역사학교수, 저명인사 등에게도 배부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이 부족하여 우리 門中 각 가정에는 배부 수를 통제하였다. 遺集이 반질 되자마자 축하의 전화가 빗발쳤다. 각 대학교수님들의 감사 전화가 많았고, 향후 壬辰亂史 연구에 많이 활용함과 동시에 왜곡된 壬辰亂史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IV. 蔚山博物館 기탁과 寄贈의 동기

1. 『송호유집』의 임시반출과 지정문화재 신청

1,000여권의 국역 『송호유집』을 반질하고 나니 임진란사를 연구하는 각계 학자들과 후손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좋았다. 격려의 전화도 많았지만 우리 후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국역된 것을 읽어 보니 松壕 할아버지께서 文武를 겸한 지력과 통솔력은 한발 앞서가는 의인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울산지방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사랑방 모임에서 협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2016년 3월 10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에게 기탁고서 임시반출 공문을 발송하였다. 반출 사유로는 울산지방문화재 지정승인 및 古書 出刊년도 전문기관검정을 받기 위함으로 이유를 붙였다. 동년 4월 초순 국학진흥원으로부터 『송호유집』 상·하권이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 귀중한 상자에 넣어 예쁜 보자기로 싸서 반출 되었다. 동년 4월 18일 신청 절차에 따라 복구청 문화체육과를 거쳐 울산광역시 담당 學藝士에게 전달 되었다.

2016년 6월 10일 문화재지정 1차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울산시청 본관4층 대회의실에 우리 文中대표로 사랑방모임 6인이 참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심사위원은 양명학 문화재 조사위원장 외 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였다. 그 후 몇 차례 위원들의 조사를 마친 후 2016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우리도 큰 寶物을 가졌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23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市 지정문화재 지정서 수여식을 晚風亭 정자에서 門中 임원들과 함께 이희진 문화재 주무관이 參判公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시 지정문화재 등록 일자는 2017년 1월 19일부이며, 울산광역시 시장으로부터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됨에 따라 그 보관 장소를 울산박물관에 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다 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수여식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 『松壕遺集』의 蔚山博物館 기탁

이제 『송호유집』은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국학진흥원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므로 절차에 따라 임시반출에서 영구반출로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2017년 3월 2일 답신 공문과 함께 국학진흥원 학예사 2명이 우리 문종을 방문하여 정리작업을 마무리하였다.

2017년 3월 8일 기탁하기 위하여 우리 문종 일행은 기탁 할 『송호유집』 원본 두 권과 국역본 한권, 칠현사지 한권, 청계유고 한권을 준비하여 이미 통보된 방문절차에 따라 오전 11시에 도착하니 조규성, 최보연 학예연구사가 배웅을 나왔다.

학예연구사를 따라 박물관장실로 들어가니 신광섭관장님은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이하였고 준비된 다과를 하면서 관장님께서 중요하고 귀중한 古書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기탁과 기증의 차이점, 박물관에 유물을 보관 할 때는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감정의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별 소장 시 도난의 우려가 염려되는데 기탁 또는 기증을 하면 그런 염려가 없다는 점, 박물관 수집자료는 사진 각종 유물자료 무엇이건 가능하며 기증 할 유물이 있으면 연락만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국내 기탁 또는 기증한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 전에 많은 고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기증을 결정하게 되고 유물을 기증하고 나면 다들 마음 편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환담을 하였다.

환담이 끝난 후 『송호유집』 기탁절차가 시작되었고 이미 준비된 기탁서류에 참판공문회 문회장인 필자가 모든 내용을 작성 후 서명하였다.

그 후 조규성, 최보연 두 분은 흰 장갑을 끼고 『松壕遺集』을 조심스레 들어내어 함께 열람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은 遺物이라 책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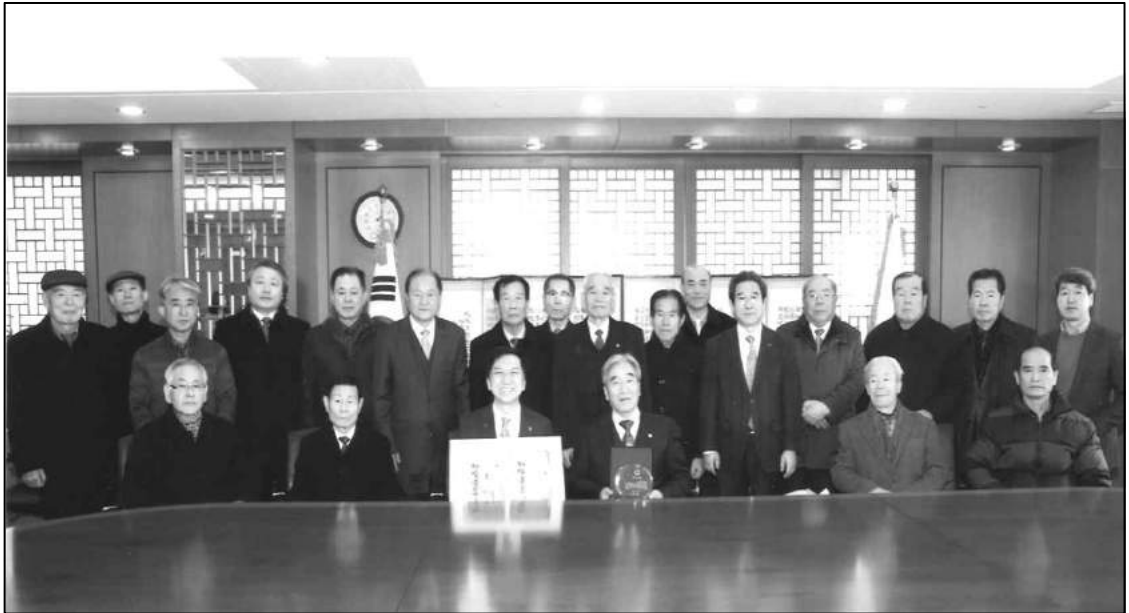
본 관장님은 요즘 복원기술이 발달 되어있으니, 최대한 원래 상태를 회복해 보겠다고 하였다. 우리 사랑방모임(한영, 인술, 복수, 활열, 흥열, 재하) 일행은 기증에 대한 숙제를 고민하면서 관장님께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송호유집 원본 울산박물관 기탁 기념사진]

3. 『송호유집』 原本 울산박물관 寄贈

2017년 3월 8일 기탁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일행은 2017년 두 차례의 이사회 때 『송호유집』의 기증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당위성도 여론이 모아졌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을 연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하였다.



[송호유집 울산광역시 기증 기념사진]

2017년 12월 9일 참판공 문회는 정기총회에서 여러 의결사항 중 『송호유집』을 산박물관 기증의 건을 제2호 의안으로 심의하였다.

의장은 심의 제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송호유집』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향후 우리 문중에서 영구 보존할 설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탁된 유물을 우리 후손이 반출할 경우가 희박하며 반출했다 하더라도 도난의 염려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니, 박물관에 기증 할 것을 의안 상정하였다.

연이어 활열 이사님께서 기증의 당위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였고 특히 향온 향습 등 모든 유물의 보존 관리에 대하여 우리 문중과 비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 의장은 기증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우리 門中은 총회에서 결정된 기증 내용을 박물관에 통보하고 기증 의사를 밝혔 다. 울산박물관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달하였고 연이어 『송호유집』 기증 전달식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송호유집』이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 되었을 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직접 기증하는 절차를 선택하고 박물관에서는 市長 과 시간 조정 작업을 하였다.

마침내 울산박물관에서 연락이 왔다. 1월 26일 오전 10:00시 5층 시장 접견실에서 기증 절차에 따라 전달식을 한다는 통보였다. 따라서 문중 행사임을 감안하여

문중 어른신을 포함한 임원님들 20여명도 동참 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울산, 양산, 부산 등 종종 이사님들이 참석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울산광역시 신관1층 휴게실에서 문회장을 포함한 21명이 참석하여 신광섭 박물관장의 안내로 시간에 맞추어 시장 접견실에 도착 하였다.

잠시 후 김기현 시장이 들어오고 서로 간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茶 한잔을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시장님은 『송호유집』이 임란일기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였다. 필자는 짧은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말할 수 없어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렸다.

전쟁 중 남긴 日記도 중요하지만 한 집안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와 조카까지 여러 사람이 창의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한 후 전달식이 시작되었다.

주변에는 시장 의전팀과 박물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팀들이 陣을 쳤고 각 언론사와 TV촬영기자들이 접견실을 메웠다.

연이어 박물관장의 사회로 오동나무상자 속에 담겨있는 『송호유집』 원본 2책이 뚜껑을 열면서 공개되었고, 參判公門會長이 김기현시장에게 문화재를 기증하였다.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기자들은 취재에 열을 올렸고 카메라는 『송호유집』원본과 행사 진행상황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김기현시장과 류복수 문회장은 흰 장갑을 끼고 『송호유집』 原本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김기현시장님이 우리 門中 會長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그 후 우리 종원宗員 전체가 기념촬영을 하였고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유물관람을 하였다.

V. 울산박물관에 대한 우리 문중의 바람

2018년 1월 26일(금)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7호 『松壕遺集』은 우리 門中에서 기증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문화재가 되었다. 좋은 일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마음 한 구석 섭섭한 생각은 남아 있다. 2월 1일부로 寄贈書를 수령했으며 이로 인해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2018년 3월 15일부로 울산광역시에 반환 하였다. 이제 松壕公(柳汀) 할아버지의 壬亂日記 『松壕遺集』은 울산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著者는 文化柳氏左相公派 參判公宗中 松壕公 柳汀이다.

울산박물관에서는 새 주인을 만나 허물어진 표지를 현대적 기술로 원상 복원한

다고 한다.

부디 깨끗하게 단장하여 울산시민의 곁에 선 보일 것을 기대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희생을 당한 우리민족의 생명과, 돈으로 환산 할 수도 없이 많은 재산을 약탈당한 7년 전쟁의 이야기를 송호유집에 실린 내용을 근간으로 골고루 시민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임진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도 현재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이 왜곡된 임진란사 부분을 비교 분석하여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또한 『송호유집』 국역본을 읽어본 사람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부탁이 있다면 학자들의 더 깊은 관심과 연구로 울산박물관에서 주최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함이 어떨지 감히 제안해 본다.

VI. 맺는 말

이상으로 松壕公 柳汀의 家系와 그의 생애 및 충의정신, 『松壕遺集』의 보존경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고 국역된 동기, 울산광역시 문화재 지정, 울산박물관으로의 기증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松壕公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기미를 알고 전쟁 준비를 한 것과 전쟁이 일어나자 아들과 조카와 손자를 데리고 倡義하여 왜적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은 단순히 일어난 전쟁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견했다는 것을 공께서 남긴 文籍을 보고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松壕公이 아버지를 따라 울산에 온 후 벽지에서 청빈한 선비로 忠君愛民 精神을 잃지 않고 일생을 바친 것 역시 부친 晚楓亭公의 가르침과 家風으로 뿌리깊게 내려온 전통에 의한 修養의 결과였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의 遺集인 松壕逸稿 내에 기록된 龍蛇日記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란 후 오랜 세월 동안 지리적으로 항상 외침만 받아오던 우리민족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선조와 같은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先祖의 업적에 부끄럽지 않도록 三綱五倫의 기본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허물어져가는 국가관의 정립과 국민정신 개혁에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내용에서 언급된 바 없는 松壕의 조카인 守門將 得春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守門將公은 임란 시 義兵을 일으켜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선조가 임진년 의주로 蒙塵 할 당시 族從인 희담(希聃)과 희분(希奮)을 따라 임금을 扈從한 공로를 인정받아 宣武原從三等功臣에 책훈되었다. 守門將公을 포함한 松壕의 아들, 조카, 손자의 5의사는 양산 七賢祠와 울산 忠義祠에 함께 奉享 되어있다.

임진왜란 이후 430여년간 우리 문화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헐벗고 민생고에 허덕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 조상도 섬기고 문화재도 발굴하고 있다. 松壕遺集 역시 세상에 뒤늦게 알려졌지만 지금이라도 책장 속에서 벗어나 자기 본연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同 文集이 울산박물관에 기증되어 보관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울산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 松豪遺集 上.下
- 四義士實記
- 晚楓亭誌
- 慶州壬亂義士倡義錄
- 七賢祠誌
- 蔚山宣武原從功臣遺事

潮溪先生實記 編輯後記



文化柳氏 夏/前高陽公宗中會長 柳 洋 烈

視 時節變易的 天地一瞬 制御不能而知也 觀時俗舛差的
不人道常視昭布 可知也 我 先祖 潮溪先生之 天稟純粹
志節強直 知行公平正直 高明廣大也 山海夫子 南冥曹先生
之 高弟也 嘉靖癸亥 謁 南冥曹先生 于 山天齊 受 小學
近思錄 性理之書 專精爲己之學矣 老先生之 旨訣繼承 盡力
躬行 又與 崔守愚堂 道義之交 麗澤相資 先生之文章節行
傳於 後世者不計數 惜於遺文學皆 湯失於壬辰兵燹 今在者
百不一二云 萬古冤枉而孰加於是也 噫

己丑之事尚忍言哉 彼群小人 敢逞懷私怨以無根不理之設
百般羅織讒言無辜被慘禍也 辛而 曾孫 諱 時新 收拾遺文
社友間 諸集粗川散在資料成一冊 二百有餘年矣 先生十世孫
世永 在永(其世 在世) 兄弟 鳩若干財刊印刷之 更子年而 又
過百年也 光復以後 西潮氾濫 漢文漸次浪色沈滯之 顛倒於
價值觀喪失於人間性而 祖上傳來之美風良俗度外視 蔓延
西洋頹廢風潮 此際 人倫道德 倫理綱常 回復次元 須吾後孫
痛感其節義而 亦將無忝也 故以 前冊之現代人難解漢文
容易理解國譯編纂矣 以此 冒懼愚犯螳螂拒轍敢冊尾結言。

癸未 潮溪先生 十二代孫 洋宇(洋烈) 謹識

조계선생 실기 편집후기

시절의 쉬이 변함을 보면 천지는 한순간을 제어하지 못함을 알 것이고 시속의 어긋남을 보면 인도는 뚜렷한 규범을 밝혀 펴지 못함을 알 것이다. 나의 선조 조계선생은 타고난 천성이 순수하고 지절이 강직하며 지행이 공평·정직하고 광명정대 하였다. 조계선생은 산해부자 남명 조식선생의 고족제자였다. 가정 계해(1563)년에 노 선생을 산천재에서 알현하고 소학과 근사록 등 성리에 관한 서책을 수업하고 오로지 위기지학에 전일 하였으며 노선생의 경의사상을 계승하여 힘을 다 하여 몸소 실천하였다.

또 최우수당(영경)과 도의지교로 학문과 덕을 닦았다.

조계선생의 문장과 절행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나 애석하게도 류문 모두가 임진의 병난에 없어지고 잃어버려서 지금에 있는 것이 백에 한둘도 안 된다. 만고에 원통한일이 이보다 누가 더할 것인가?

슬프다! 기축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저 소인배들이 감히 제 마음대로 사사로운 원한을 품어 근거 없고 이치 없는 말을 온갖 방법으로 엮어매고 아첨하는 말로 무고를 지어내어 참화를 입은 것이다.

다행하게도 증손 휘 “시신”께서 류문을 수습하고 사우 간에 여러 문집에서 흠어진 자료를 얻어 책을 만든 지 200년이 흘렀고 조계선생 십세손 “세영, 재영” 형제가 약간의 재물을 모아 활판인쇄한지가 경자(1900)년이니 또 100년이 지났다.

광복이후 무분별한 서조의 범람으로 한문이 점차 퇴색되고 침체되어 가치관이 전도되고 인간성이 상실되며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은 도외시되고 서양의 퇴폐풍조가 만연한 요즘 인륜도덕과 윤리강상을 되찾는 차원에서 모름지기 우리 자손은 그 절의를 뼈저리게 느껴 또한 끝까지 욕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역을 하여 이 책을 펴낸다.

이로써 당랑거철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책 끝에 말을 마친다.

계미 조계선생 12대손 양우(양렬) 근지

文陽君 柳公(諱 希霖) 功臣教書



文化柳氏 檢/文陽君宗中會長(大丞公30世) 柳 基 昌

教 贈忠勤貞亮扈 聖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

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貳師文陽君行

嘉善大夫禮曹叅判柳希霖書

王若曰板蕩識忱臣忠勤旣著於終始雨露霑宿草

褒錄寧間於存亡茲予一人不忘 九原難

作惟卿著龜重望金玉佳姿藹鬱聲 碧梧

之鵠峙清修操履出丹穴之鳳毛未死耿耿之

丹心已生種種之白髮屬者草動塵起戎馬生

郊 ?

先朝寵以三等然豈於良足矣常思以德報之俾也

可忘曰篤一念之靡懈久而彌著何惜十字之

追褒狗馬盤中歃血方新於今日麒麟閣上圖
形已阻於重泉益用恫然無以共者王言錫爵
只施勸勵之方吾且尊官惟有褒贈之典肆在
先朝已策勳爲扈

聖功臣三等今又陞錄爲衛聖功臣二等圖形垂後
前受階外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一階嫡
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無子則甥姪女婿
超一階如奴婢四口田三十結銀子七兩表裏
一段內廐馬一匹等物通計

先朝已受之數至可領也於戲勒鐘鼎而播美益增
流光指山河而垂盟爰及于後服此玉汝之寵
章□有不朽者存故茲教示想宜知悉

증 증근정량호성갈충진성동덕찬모위성공신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검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이사 문양군 행가선대부 예조참판 류희림(贈 忠勤貞亮
扈聖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功臣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知經筵 春秋館
成均館事 世子貳師 文陽君 行 嘉善大夫 禮曹叅判 柳希霖)에게 내린 교서(敎書)

임금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야 진실한 신하를 알 수 있듯이,
충성스럽고 근실함이 이미 시종 드러났으며,
비와 이슬의 은택이 거친 풀을 적시듯 공이 컸으니,
포상의 기록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어찌 다르랴?
이에 나 한사람이 잊지 못할 뿐인가,
저승에서 다시 살아오지 못함에서다.
오직 경은 시귀(蓍龜)처럼 명망이 무거웠고,
금옥(金玉)처럼 자품이 아름다웠도다.
모두 우려렸던 명성은 벽오동에 앉은 고니와 같았고,
청렴결백한 행실은 신선 굴에서 나온 봉황과 같았네.
생전에 진심으로 잊지 못했는데,
이제 백발이 종종 생겨나도다.
근래 지방에서 소란이 자자하고,
변방에서 난리가 그치지 않도다.

□□□□□□□□□□□□

선조(先朝) 전대 조정, 곧 선조(宣祖) 임금께서 총애하사 3등으로 책훈(策勳) 하셨으나 그러나 어찌 진실로 만족하다 이르겠는가? 항상 그 덕을 갚고자 하는 생각을 가히 잊으랴?

돈독한 한결같은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오래토록 더욱 드러나는 바,
어찌 열 글자로 정한 아름다운 시호로서 표창함을 아깝게 여기겠는가?
구마반(狗馬盤) 가운데 피를 마시며 맹서함이 오늘날 새로운데,
기린각(麒麟閣) 위에 초상을 그려 걸려는데 저승길이 막히었네.
더욱 슬픈 것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음이로다.
선왕께서 벼슬을 내림은 한갓 권려(勸勵)의 방도로서 베푸는 것이고,

내가 또 벼슬을 높여준은 오직 포증(褒贈)의 은전이 있음에서이다.

전대 조정에서 이미 책훈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으로 책정되었으나 이제 또 올려서 위성공신(衛聖功臣) 2등으로 책정하고 초상을 걸어 후세에 전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전에 받은 품계 외에 한 품계 벼슬을 올리도록 하렸다.

그 부모(父母)와 처자(妻子)에게도 또한 한 품계를 올리고, 적장손(嫡長孫)은 대대로 연이어 그 녹봉(祿俸)을 받도록 하고, 유면(宥免 : 赦罪)이 영세(永世)토록 전하게 할 것이며, 만약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이나 여서(女壻)에게 한 품계를 올려줄 지어다.

그리고 노비(奴婢 : 男奴女婢) 4인, 전(田) 30결, 은자(銀子) 7량, 표리(表裏 : 衣服) 1벌, 내구마(內殿馬) 1필 등 이상이다. 전대 조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니 와서 받아 가렸다.

아아! 공훈을 종정(鍾鼎)에 새기었으니 훌륭한 명성이 널리 퍼져 광영이 더욱 더할 것이며, 산하(山河)를 두고 맹서하였으니 이 맹약이 후세에 길이 전하리라.

이 옥여(玉汝)의 총장(寵章)이 썩지 않고 전할 것이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아 마 내 뜻을 잘 알 것이다.

※ 本 考는 나의 12代祖 文陽君의 功臣敎書인 바 原文을 複寫하는 과정에서 희미하고 부실하였으나, 이를 翠石(前 常任副會長 淙鉉) 族丈이 整理하고 翻譯함(寄稿者註).

教諭文

禮曹判書兼知經筵兼禁府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
宰文陽君柳希霖書

王若曰臨危執勒勒克輪扈蹕之勤勞疏爵誓山河戎將勒鍾
之勲烈肆申甄錄用賁泉塗惟卿善不廷名清而容物私深
肅括存探履之端方蘊藉謙冲誠襟懷之沉靜始明經而拾
紫俄歷試而分符松竹歲垣風霜栢看出納唯允司喉舌指
銀臺黜陟以公專方面於崇幕委注莫非艱大歷駁都是清
要逮執徐之艱虞值長蛇之隲突國未堪乎多艱予不樂乎
焉君蒼黃巴蜀之行深慙下殿播越奉天之幸始驗增埤有
老成之蓋臣用筋力此為禮鉤陳玄武嚴警衛而後先木主
星宮奉周旋而奔奏造次顛沛之不舍寧為身謀儉阻艱難

之備非異人任立朝見畢公之正色殉國認裴度之忠
 洎反正於京師秩亞卿於宗伯老智不老思竭力而效勞夙
 夜在公期鞠躬而盡瘁確乎不拔之節竊然自守之風年近
 呂尚之封齊天胡不憚時惟彥博之致仕國將奈何至今追
 錄元功終古難忘宿德命司勳於周等甄積勞於漢官肆策
 勳為扈聖功臣三等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一階無
 子則甥侄女壻加階嫡長世襲不失其祿甯及永世仍賜奴
 婢七口田六十結銀子五兩表裡一段內厩馬一匹至可領
 也寵贈斯加哀榮攸在畝形雲閣想當時之儀容賜祭冥途
 念今日之英爽於戲勳莊盟府丹書鐵券之益彰名載史編
 太常景鐘之不滅倘或精靈之不昧眼此追揆之異恩故茲
 敬示想宜知悉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姜籀製

韓道書

고 예조판서 류희림에게 증직하는 교서 敎故 禮曹判書 柳希霖 贈職書

萬曆 32년 10월 일(宣祖 38년 1604년)

강주제 (姜籊製 1567-1651)

한호서 (韓濩書 1543-1605)

왕은 말하노라. 위험을 당하여 능히 굴레와 고삐를 잡고 임금의 행차를 수행한 노고(勞苦)를 바침은 작위를 내리고 산하에 맹서하고 본받아 장려하고 종정(鐘鼎)에 새길 큰 공훈이며 아주 여러 차례 자세히 기록하고 무덤을 아름답게 할 일이다.

王若曰臨危執羈勒。克輸扈蹕之勤勞。疏爵誓山河。式獎勒鍾之勳烈。肆申甄錄。用賁泉塗。

오로지 경(卿)은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맑고 관대하며, 마음이 넓고 깊으며 공경하고 법도가 있으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단정하며, 온후(溫厚)하고 겸허하며, 마음속의 회포가 차분하고 조용하며, 처음 명경과에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더니 오래지 않아 식년시를 거쳐 임금의 부절(符節)을 나누어 받았도다.

惟卿善不近名。清而容物。弘深肅括。存操履之端方。蘊藉謙冲。識襟懷之沉靜。始明經而釋褐。俄歷試而分符。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곧은 것은 사간원과 바람과 서리 같은 강경한 사헌부에서 왕명의 출납에 오로지 진실로 하였으며, 은대(銀臺, 승정원)에서 임금의 목과 혀의 역할을 담당하고(승지를 말함), 인재 등용과 무능한 자를 내침에 공정하게 하였으며, 아가위 나무 장막(지방관이 선정을 베푸는 처소를 말함)에서 오로지 관찰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일을 맡김에 은총을 베풀었다.

松竹薇垣。風霜栢府。出納惟允。司喉舌於銀臺。黜陟以公。專方面於棠幕。委任實出眷注。

역임(歷任)한 것이 모두 청환(淸宦)과 요직이었으며, 진년(辰年)의 고생과 근심(임진왜란을 말함)에 이르러 긴 뱀(잔인한 왜적을 말함)이 들이받아 무너뜨린 일을 맞아

나라가 많은 재난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임금의 됨을 즐겨하지 않고, 매우 급하게 파촉(중국의 사천지방을 뜻하는데, 험준한 곳을 뜻하는 뜻)으로 가게 되어 심히 부끄럽게 궁전을 내려와 봉천(중국의 지명, 당나라의 덕종의 일을 비유한 것)으로 임금의 거동을 옮겼다.

歷敷都是清要。逮執徐之艱虞。值長蛇之隳突。國未堪乎多難。予不樂乎爲君。蒼黃巴蜀之行。深慙下殿。播越奉天之幸。

어려움이 겹쳤는데 저 노성(老成: 경력이 많은 노련한 신하)의 충신[류희림을 의미]이 힘을 쏟아 예를 지켰으며, 하늘의 별들과 같이 엄중하게 앞뒤에서 경계하고 보호하였으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받들어 일을 주선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자기 몸을 위해 도모하기보다는 험하고 고생스러움을 두루 겪으며 왕의 일이 아닌 것이 없었다.

始驗增埤。有老成之蓋臣。用筋力以爲禮。鉤陳玄武。嚴警衛而後先。木主星宮。奉周旋而奔奏。造次顛沛之不舍。寧爲身謀。險阻艱難之備嘗。莫非王事。

조정에서 서서는 필공(畢公, 주 문왕의 아들)의 정색(正色)을 보였고[엄하게 정사를 행한 것을 의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에 있어서는 배도(褻度, 당나라 때 난을 평정함)의 충성스런 마음을 알았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 서울로 돌아와서 예조에서 참판이 되었다.

* 행정: "도성(都城)으로 돌아와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제수(除授)되었더니 정유(丁酉, 1597년)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체임(遞任)되었다."

立朝見畢公之正色。殉國認褻度之忠心。泊反正於京師。秩亞卿於宗伯。

노년의 지혜가 낡지 않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 밤낮 조정에 출근하였고, 몸과 마음을 바쳐 나랏일에 힘썼다. 단단하고 굳세어서 뺄리지 않는 절개가 있었고 빼어나게 스스로의 지조를 지키는 풍모가 있었다. 나이가 여상(呂尙: 태공망. 여든 살에 장수가 됨)이 제에 봉해진 나이에 가까워 하늘이 어찌 공을 빼앗아갔는가. 문언박(복송 때 재상)이 치사(致仕: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한 때와 같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

* 류희림: 1601년에 82세로 사망. 문언박은 91세로 죽었음.

老智不耄。思竭力而效勞。夙夜在公。期鞠躬而盡瘁。確乎不拔之節。巖然自守之風。年近呂尚之封齊。天胡不憖。時猶彥博之致事。國將奈何。

이제 으뜸의 공적과 영구히 잊기 어려운 숙덕(宿德: 오래도록 쌓은 덕망)을 추록(추가하여 기록함)하고, 주나라의 사훈(司勳: 주(周)나라 때 공상(功賞)의 일을 맡은 벼슬)에게 명하고 한나라 관리에게 쌓은 공로를 살피게 하여 이에 책훈(공훈을 찬양함)하여 호성공신(임금을 호종한 공신) 3등으로 삼는다. 더욱 사랑을 주고, 슬픔과 영광을 기린다. [살아서는 영예롭게 여기고 죽어서는 애통하게 여긴다, 는 뜻.]

只今追錄元功。終古難忘宿德。命司勳於周等。甄積勞於漢官。肆策勳爲扈聖功臣三等。寵贈斯加。哀榮攸在。

형상을 운각(雲閣)에 그려 당시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고, 무덤에 제사를 내려 오늘날의 영명(英明)함을 기념하라.

圖形雲閣。想當時之儀容。賜祭暝途。念今日之英爽。

오호라, 공훈은 맹부(충훈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의 공적을 기록하여 두는 것)에 간직하고, 단서철권(丹書鐵券: 공신에게 주던 붉은 글씨로 쓴 녹권(錄券))은 더욱 드러나게 하고, 이름은 역사책에 실고, 태상(太常: 조선 때, 나라 제사와 시호의 일을 맡던 관아)은 큰 종에 공훈을 새기어 사라지지 않게 하라.

於戲。勳藏盟府。丹書鐵券之益彰。名載史編。太常景鍾之不滅。

만약 정령께서 어둡지 않으시면 이 추장(追獎: 지난 공적을 포상함)의 특별한 은혜에 감복하시라. 그러므로 이처럼 교시하니 마땅히 잘 알리라.

倘或精靈之不昧。服此追獎之異恩。故茲教示。想宜知悉。

충남대학교 류주환 교수 번역

忠清水使 竹軒柳公(諱 持敬) 不祧廟奉安文



文化柳氏 忠/前天安公會長 柳在豐

1. 忠清水使 竹軒柳公(휘 持敬) 不祧廟奉安文

忠清水使竹軒柳公不祧廟奉安文

恭惟我公文化之柳參判之子忠景之後器局雄偉孝友至極丁酉再亂志決殉國軍糧募集兵器鑄造曳橋一戰大敵是討甲子渡江進擊麻田賊勢由此不能保全上嘉厥功丹書鐵券緬憶當世其忠得勸丁卯胡亂公在珍島大駕播遷扈從安保仁祖嘉尚特除水使寤寐思忠敢忘聖旨丙子胡亂公年已老奮然赴幕代攝蕩掃收拾散卒至于礪山聞成講和痛哭而還上爲致賀除授五衛追贈考妣優渥聖惠召命屢下沒身不赴因命不祧俾碣追慕事載史乘於赫可磨式陳明禮百世不蹉

忠清水使竹軒柳公不祧廟常享祝文

需世之學救亂之忠卓犖貞節百世始終

2. 충청수사 죽헌류공(휘 지경) 부조묘 봉안문(譯文)

삼가 아뢰건데 우리 죽헌공은 문화류씨로서, 참판공의 아들이요 충경공의 후손이신데, 재능 높고 도량이 크며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셨습니다.

정유재란에 나라 위해 죽기로 뜻을 굳히어, 군량을 모으고 병기를 주조하셨으며, 예교의 한 전투에서 큰 왜적을 토벌하셨습니다.

갑자 이괄(李适)의 반란에 강을 건너 마전으로 진격하니, 적군의 형세가 이로 말미암아 붕괴되었습니다.

주상께서 그 戰功을 가상하여 단서와 철권을 내리셨으니, 지난 당시를 생각건대 백세토록 그 충성을 권장하오리다.

정묘호란에 공께서 진도에 계셨는데 달려가

서, 주상의 어가 파천을 호종하며 편히 모셨습니다.

인조대왕께서 가상하시고 특별히 水使를 제수하셨으니, 자나 깨나 충성을 생각하여 감히 성상의 뜻을 잊으리까. 병자호란에 公의 나이 이미 늙었으나, 분연히 군막으로 달려가 전임 대신 적병을 소탕하고, 흩어진 병졸을 수습하여 여산에 이르렀으나, 강화가 이루어진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왔습니다.

주상께서 치하 하시고 오위장을 제수하시는 한편, 선고와 선비에게 증직의 임금의 두터운 은혜가 내렸으며, 관직으로 소명이 자주 내렸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不祧의 銘과 아울러 碑를 세워 추모토록 하시고, 사적이 국사에 실렸으니 혁혁하여 가히 없어지겠습니까. 공경히 갖추어 향사를 받드오니 백세토록 길이 전하리다.

3. 忠清水使 竹軒柳公(諱 持敬) 不祧廟常享祝

세상에 쓰인 학문이요 국란을 구제한 충성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군신 절의 백세토록 길이 전할 것입니다.



竹軒柳公 影堂 竹軒祠 羅州市 多侍面 佳雲里 紋岩 後麓 墓下



竹軒柳公墓所 羅州市 多侍面 佳雲里 紋岩 後麓 亥坐

※ 本稿는 朝鮮 仁祖朝에 忠清水軍節度使를 역임한 나의 先祖이신 竹軒柳公(諱 持敬)의 不祧廟인 竹軒祠에 公의 位牌를 모시고 처음 향사를 받들 때의 奉安文과, 매년 향사시 독축하는 常享祝文이다.

이 두 祝文은 근세의 유학자로서 成均館大學校 翰林院長을 지낸 誠齋 羅鉀柱 선생이 지었다. 그의 저서인 誠齋遺集에서 本文을 발췌해준 大宗會 전 常任副會長의 배려에 재삼 사의를 표한다(寄稿者 註).

孝子 柳世勛(恥軒公) 行狀



文化柳氏大宗會 顧問(大丞公33世) 柳 琿 鎮

휘 세훈(世勛) 자 신재(愼哉) 호 치헌(恥軒) 대승공 21세 忠景公派 盤谷公 적(績)의 5대손이며 옥(沃)의 장자로 1564년 4월 4일에 경남 합천군 야로면 상곡리에서 출생하셨다.

치헌공(恥軒公)은 뛰어나게 총명하여 5세 때부터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알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 10세 때부터 덕망과 기량이 일찍 완성되어 학문과 덕행을 닦는데 충실하셨으며 부모님을 봉양함에 있어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며 새벽에는 문안 인사를 드리고 겨울에는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며 여름에는 부채 질하여 자리를 시원하게 해 드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였다. 하루 종일 단정히 앉아 경전에서 깊이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구하는데 침식을 잊을 지경에 이르렀다.

1584년 부친이 중한 병에 들자 밤낮으로 울고 분(糞)을 맛보시고 색깔과 맛을 의원에게 알려 탕약을 지어 올리고 하늘에 빌어 자신이 부친 대신하기를 원하였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하세(下世)하시자 통곡하여 목이 쉬고 숨이 끊어질 듯하다 소생하셨다. 7일 동안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있으니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미음을 권하자 억지로 먹었으나 넘어가지 아니하니 어머니가 탄식하며 하늘이 낸 성품이라 어쩔 수 없구나 하시었다. 그때 公의 나이 21세였다.

부친의 장사를 지내는 절차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준수하였으며 검안산 자락에 모시고 묘(墓) 아래에 여막(廬幕)을 짓고 낮에는 상석(床石) 밑에서 밤에는 짚자리에 엎드려 너무도 많이 울어 눈물이 나지 않고 피가 나왔다. 묘소(墓所)에서 어머니 계시는 집까지 5리가 넘었으나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 에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밤중이라도 달려가 찾아보았다. 삼년 동안 질

대(經帶)를 풀지도 벗지도 아니하였으며 조석(朝夕)은 보리죽 한 그릇을 마셨을 뿐이다.

부친 삼년상을 겨우 마치자 어머니 상을 당해 지극한 정성으로 부친상 때와 같이 행하였으며 묘소는 검안산 언덕으로 모셨다. 여막에서 죽만 마시고 피눈물로 운 것이 6년을 한결같이 하여 뼈만 남아서 끓어앉아 절하고 상식(上食) 할 때 울지를 못하였으며 금년이라는 종이 부축을 하여 일으키고 하였다. 거의 죽어가면서도 상을 마치니 주변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우당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으며 1597년 정유재란 때는 화왕산성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쳤다.

1615년(광해군7년) 본군 군수(本郡 郡守)가 公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관찰사에게 보고하니 관찰사는 公의 행적을 조정에 알려 조정에서 정려(旌閭)와 함께 판하사구(判下四句)가 내려졌다.

즉, 시병(侍病)에 상분(嘗糞)하고 거려(居廬)에 읍혈(泣血)하고 철죽(啜粥)을 6년 하고 애훼(哀毀)를 여일(如一)이라 이는 公께서 52세 때 일이다.

위 글은 병을 간병할 때 분(糞)을 맛보고 묘역 초막에 거처하며 피눈물을 흘렸고 6년 보리죽을 마셨으며 슬픔 때문에 여위어 뼈만 남게 되었다.

조정에서 내려진 판하사구(判下四句) 16자의 글귀는 사람들의 이목을 빛나게 하였으나 公이 살아계실 때는 판하사구(判下四句)의 현판을 달지 못하게 하였으며 두릉동 이암산 아래로 이사하여 치헌(恥軒)이 란 현판을 걸어놓고 살았으며 판하사구(判下四句) 정려문은 아랫마을 장계리에 있다가 후손들이 살고있는 야로면으로 이건(移建)하였다.

공께서 자녀를 훈계할 때 국가에 충을 부모에게는 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라 하였다. 매일 새벽에 닭이 울면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부모를 배알(拜謁)한 연후에 각각 자기 일을 하게끔 하였다.

공은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특히 소학(小學) 및 근사록(近思錄)을 독실히 읽어 마음을 닦고 몸을 다스리는 것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백가제서(百家諸書)를 탐구하여 정밀분석하고 주역(周易)과 춘추(春秋)에 조예가 깊어 公의 문하에 출입한 사류(士類) 중에 명사가 많았다.

정인홍(鄭仁弘)과는 사돈 간으로 자주 왕래하였으나 그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 인연을 끊고 만나지 않으니,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 후 정인홍이 역적으

로 몰려 참수당하자 주변에서는 그 선견지명에 감복하였다.

1631년 10월 6일에 공개서 下世하시니 향년 68세였다. 부음(訃音)을 들은 본군(本郡) 선비들은 물론 이웃 고을 선비들도 통곡하며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公의 지극한 행적(行跡)과 아름다운 덕은 동국신속삼강행실록(東國新續三綱行實錄)에 기록되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역사에 빛나고 비문에 기록되어 천추(千秋)에 빛날 것이다.

배위 파평 윤씨(坡平 尹氏)는 대승(大承)의 따님으로 천성이 착하며 효도와 공경을 겸비하였으며 슬하에 9남 2녀를 두셨다. 公의 훈계를 잘 받은 자녀 모두 효성이 지극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8남 돈검(敦儉)의 장자 문빈(文彬)은 고을에서 소문난 효자였다.

공의 손자 문빈은 청주 한씨(淸州 韓氏) 명익(溟翼)의 따님과 결혼하였는데 한씨(韓氏) 또한 효녀였다. 시집오기 전인 17세 때 아버지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오시지 않자 한씨는 고을 관아에 가서 원님께 눈물로 호소하니 원님이 한씨의 효성에 감동하여 장정을 모아 아버지를 찾아보도록 허락하였다. 한씨는 장정들과 10여 일을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가 개울을 지날 무렵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모래더미가 무너지더니 그 속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나왔다. 아버지 시신을 안고 관아에 가서 사인을 밝힌 후 아버지를 죽인 범인들을 잡아다 복수를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조정에서 한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효행정려를 하사하였으며 그의 가륜한 효행은 동국신속삼강행실록(東國新續三綱行實錄)에 기록되었다.

한씨는 효를 중히 여기는 가풍(家風)을 지닌 집안으로 시집와 남편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님을 모셨으며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씨와 문빈의 효행은 고을에 널리 알려졌다.

1722년 남편 문빈이 별세하자 한씨는 미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순절(殉節)하였다. 이 열행(烈行)이 조정에 알려져 열행정려(烈行旌閭)의 명이 내려지고 남편 문빈에게는 효행정려(孝行旌閭)가 내려졌다. 한씨의 열행정려는 치헌공(恥軒公)의 정려에 함께 모셨다.

2012년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 행사를 위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원래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산39-4번지 소재 정려각을 2012년 8월 10일 야로면 매촌리 도로변으로 이건(移建)하였다.

한 집에서 효(孝)와 열(烈)을 할아버지, 손자, 손부 세 분이나 탄생시켜 동국신

속삼강행실록과 여지승람에 기록된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관을 확립함에 있어 중요한 덕목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東國新續三綱行實錄

恥軒柳世勛遺稿

陝川の 뿌리



壬亂시 宣武功臣 文興君 柳思瑗



文化柳氏 府尹公派宗會長 柳在萬

1. 序

朝鮮時代 功臣은 28번이나 있었고 그중 國外事件 3~4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內訌(建國, 內亂의 진압) 평정에서의 功臣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功臣은 ○○功臣(조정에서 선별하여 王이 개개인의 功過에 따른 특별한 敎書)으로 正 또는 親 功臣이라 하고, 功臣에 따르는 ○○原從功臣錄券(직위, 성명만 기록)이 각각 있다.

宣武功臣(正&親) 1등 3명, 2등 5명, 3등 10명 총 18명을 제외하고, 宣武原從功臣錄券에는 10,000여명의 기록이 있다.

이로 인하여 壬亂功臣 正功臣 184명(宣武功臣8, 扈聖功臣86, 衛聖功臣80명)외에 3개의 正功臣에 따른 原從功臣錄券에는 20000여명이 수록되어 있다.

正功臣에게는 榮爵, 土地, 奴婢, 金 등을 지급하고 그 子孫에게는 蔭職(科擧급제가 아닌 祖上의 功으로 하는 벼슬)을 주었으며 原從功臣에게도 功을 세운 정도에 따라 3~4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功臣의 사무는 功臣都監, 忠勳府 또는 功臣賞勳敎書에서 담당했다.

正功臣에게 受賜하는 王이 내리는 敎書는 功臣軸이나 鐵券 등으로 받는 개인의 功績과 賞勳을 기록한 개별 敎書로 功臣都監이 발급 되었다.

우리 文化柳氏 중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敎書 受賜者(府尹公派 文興君 柳思瑗)의 功績과 賞勳을 기록한 개별문서는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大田 뿌리공원에 있는 文化柳氏由來碑 후면에 石刻되어 있다. 개별 敎書에는 해당 功臣의 등급 순으로 성명

만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1

- 사진 ① 文興君鐵券(표지포함16면) 여러겹 두터운(1mm)종이질로 만든 교서
- 사진 ② 李舜臣 敎書 簇子(그 외 7~8명의 각 개인의 簇子가 일부분씩 존재)
- 사진 ③ 文興君 공우록
- 사진 ④ 壬亂功臣遺史誌 表紙
- 사진 ⑤ 위 67쪽(文興君 柳思瑗)
- 사진 ⑥ 위 241쪽(文興君 柳思瑗)
- 사진 ⑦ 宣武原從功臣錄券(正功臣18명 외) 宣武, 扈聖, 衛聖 20000명 이상 기록
- 사진 ⑧ 新舊功臣相會題名圖(1604년) 사진 右측으로부터 9번째
- 사진 ⑨ 壬亂功臣 石材 位牌(보령시)
- 사진 ⑩ 壬亂功臣 追慕 大祭(보령시) 행사(매년 4월13일)
- 사진 ⑪ 文化柳氏由來碑(대전시)
- 사진 ⑫ 사진 ⑥에서 文興君 柳思瑗의 諡號와 字와 本貫(右측부터 9번째)

2. 敎書를 쓴 사람 韓石峯

조선시대 글씨로 출세하여 寫字官과 書寫官을 역임한 서예가이며 문신인 韓石峯의 本貫은 三和. 字는 景洪, 號는 石峯·淸沙이며 군수 大基의 5대 손으로, 정랑세관(世寬)의 손자이다. 1567년(壬子, 명종22) 進士試에 합격. 1583년(을미, 선조16) 와서(瓦署) 별제(別提)에 제수되었다.

글씨로 출세하여 사자관[寫字官: 조선 시대 승문원과 규장각에서 문서를 正書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고, 중국에 사절이 갈 때도 서사관(書寫官)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벼슬은 흠곡현령(歙谷縣令)과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지냈다.

작품세계

그의 묘갈(墓碣)주 01)에 따르면, “松都에서 났으며, 占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옥토끼가 동쪽에 났으니 洛陽의 종이 값이 높아지리라. 이 아이는 반드시 글씨를 잘 써서 이름이 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石峯은 자라면서 글씨 쓰기에 힘썼고, 꿈에 王羲之에게서 글씨를 받아, 이로부터 마음속으로 자부하고 법첩[法帖 : 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을 대할 때마다 神이 돕는 것 같아 마침내 楷書·行書·草書에 그 妙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의 書法은 조선 초기부터 성행하던 조맹부(趙孟頫)의 서체를 따르지 않고 왕희지

를 배웠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은 眞僞가 문제되는 『악의론(樂毅論)』, 『동방삭찬(東方朔贊)』, 『황정경(黃庭經)』 등의 소해(小楷)주 02)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법(趙法)주 03)보다 뒤떨어져서 晉唐人의 높고 굳센 기운이 모자라는 저속한 구령으로 떨어졌다.

또한, 한미(寒微)주 04)한 출신으로 오랫동안 사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인 타고난 재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맞추려는 노력이 앞섰다. 『東國金石評』에는 모든 글씨체에 숙달되기는 하였으나 숙되다고 비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국가의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의 특유한 서체, 즉 寫字官體가 창출될 만큼 그의 영향은 컸으며 또 이로부터 사자관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서체를 중국에서는 干祿體라 한다.

양주에 있는 「김광계비(金光啓碑)」·「황주서대수비(黃注書大受碑)」·「이윤식비(李允湜碑)」·「이별제공즙비(李別提公楫碑)」, 고양에 있는 「권도원수대첩비전면(權都元帥大捷碑前面)」·「기응세비(奇應世碑)」, 장단(長湍) 「윤감정변묘표액(尹監正忤墓表額)」, 과천(果川) 「류용비(柳容碑)」·「허초당엽묘표음(許草堂擘墓表陰)」, 포천(抱川) 「이판서몽량비(李判書夢亮碑)」, 남양(南陽) 「홍영상섭비(洪領相暹碑)」, 용인 「정의흥희린갈(鄭義興姬鄰碣)」·「정대헌유비(鄭大憲裕碑)」, 개성 「서화담경덕비(徐花潭敬德碑)」, 합천 「박사간소갈(朴司諫紹碣)」, 평양 「기자묘비(箕子廟碑)」 등을 쓰기도 했다.

참고문헌2

- 월사집(月沙集) 李廷龜
- 완당집(阮堂集) 金正喜
-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오세창, 계명구락부, 1928)
- ③ 주석
- ※주01 묘비
- ※주02 작고 깔끔하게 쓰는 해서체의 하나
- ※주03 조맹부의 서법
- ※주04 생활 수준이 낮고 신분이 변변하지 못함

3. 文興君 柳思瑗 鐵券을 제작한 사람은 蔡慶先

1559년(명종 14)~1610년(광해군 2). 조선 중기의 文臣. 본관은 平康. 字는 子長, 號는 竹村이며 蔡子沈의 증손으로 조부는 蔡仲卿이고 父는 蔡蘭宗이며 母는 俞墩(兪燉)의 딸이다. 配는 驪興閔氏로 閔汝健의 딸이다.

1588년(선조 21) 進士試에 합격하고, 1601년(선조 34) 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조좌랑을 역임할 때 『명종실록』 편찬시 편수관을 맡았으며, 선조대에는 호조좌랑, 홍문관부수찬, 사헌부지평, 평안도 수검어사(搜檢御使), 사헌부지평, 이조좌랑, 홍문관교리, 이조정랑, 호조좌랑 등의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묘는 경기도 楊州에 있다.

참고자료3

①사진1, 진본 14面 韓漢 書體와 蔡慶先 鐵券 製作



사진 1 宣武功臣 3등 柳思堧 鐵券 敬書 (表紙포당16面)

②사진2. 李舜臣 敎書 簇子

대한민국의 보물 제1564호로 지정문화재청고시제2008-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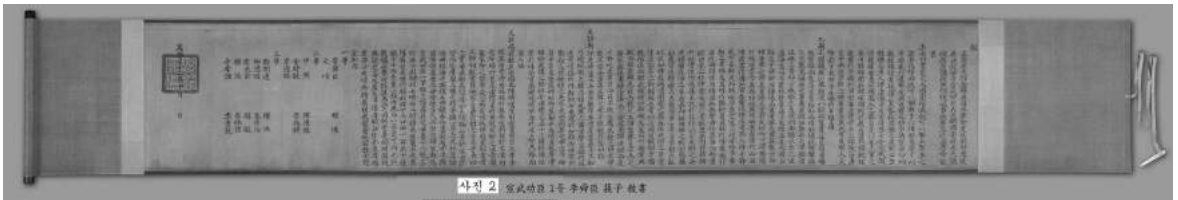


사진 2 宣武功臣 1등 李舜臣 簇子 敎書

③사진3, 文興君 공우록

조선 중기의 문신 류사원(柳思援; 1541,중종 36~1608, 광해군 즉위)이 1596년(선조 29)에 명군 지원요청을 위한 주문사(奏聞使) 정기원(鄭期遠)의 서장관으로 명에 다녀온 기록이다.

수록기간은 1596년 12월 6일에서 1597년(선조 30) 3월 13일까지이며 명에서 돌아온 후 정리하여 계문(啓聞)한 것을 1860년(철종 11)에 후손 류회풍(柳會豐)이 다시 필사한 것을 번역(명나라 황제와 조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문서는 명나라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문서와는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상이)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20010년도에 증중에서 여러 학자들로부터 해석을 완성하였다.

④,⑤,⑥사진4, 5, 6

壬亂功臣遺史誌는 壬亂 3大功臣들의 모두를 정리한 서적임

⑦ 사진7, 宣武原從功臣錄券

3大 正功臣의 20000여 명부(A4용지 2장 연결 SIZE)



宣武正(親)功臣 18名外 宣武原從功臣錄券

⑧ 사진8, 新舊功臣相會題名圖(1604년)

壬亂후(1604년) 宣祖가 살아있는 功臣들을 모아 경연 잔치한 내용



사진 8 宣武正(親)功臣18名外 宣武原從功臣錄券에 記錄된 名單

⑨ 사진9, 壬亂功臣 石材 位牌(보령시)
文興君 문화류공(휘 思瑗) 선조의 石材 位牌



⑩ 사진10, 壬亂功臣追慕大祭(충남 보령시)
매년 4월 13일 追慕大祭 참석모습(본인)



⑪ 사진 11, 文化柳氏由來碑(대전광역시 중구)



⑫ 사진 12, 사진 ⑧에서 文興君 柳思瑗의 諡號와 字와 本貫(右측으로부터 9번째)



4. 맺으면서

임진왜란때 明나라 원병을 청하여 커다란 功을 세우신 大丞公 20世이신 文興君 柳思瑗 先祖를 우리 문화류씨 후손들은 잊을 수가 없다.

宣武功臣을 지낸 文興君께서는 임란시 왜군이 침입하자 朝廷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賊將인 “가등청정”은 北上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공격을 해오자 朝廷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적장인 가등청정은 北上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공격을 해온다

宣祖의 命에 따라 公께서는 서정관으로서 明나라 수도인 延경(지금의 北京)에 원병을 청하러 가서 明나라 朝廷의 고위 관료들에게 글로서 상신도 하였던 바, 결국 明나라 朝廷에서 그의 충심이 전해졌고 군사 10만명을 출동시켜 倭軍을 물리치는 功을 세우게 되었다.

1608년에 宣祖가 사망한 그 해에 文興君은 자택에서 병환으로 별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아연리에 묻히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나라와 국가에 대한 公의 충성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나라가 위태했을 때 개인의 安危를 돌보지 않는 그 精神을 우리 후손들은 본 받아야 할 것이다.

宣武功臣은 1592년 임란시 功을 세웠거나 후방을 지원한 공로에 대한 功臣錄이다.

1604년(선조37년) 한양에서 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宣武功臣으로 삼았는 바, 3등功臣은 文化 柳思瑗 등 10여명에 불과하다.

公의 墓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아연리에 있으며 文興君 柳思瑗 先祖님의 향사는 문화류씨 府尹公宗中주관으로 매년 음력 10월 첫째 토요일에 올린다.



湖南義兵史 創刊에 즈음하여



文化柳氏 光州·全南宗親會長(大丞公33世) 柳 金 丸

조선중기 先祖朝의 국정 혼란기를 틈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仁祖朝의 병자호란 등이 발발하였음에 전국 각처에서 뜻 있는 명문가문에서 창의(倡義)하여 外賊을 물리치고 그 전과상황에 관한 義兵史가 널리 알려지고 있었으나 호남의 義兵史文集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만시지탄이지만 2020년 2월 20일자 모일보사의 記事 中 보성, 장흥 문씨가문의 의병사가 발굴 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기고문을 탐독하게 되어, 영암 신북면(당시 羅州郡 非音面)에 세거한 文化柳氏 家門에도 先祖들의 그늘에 가려진 주옥같은 義兵史가 있어 간략하게 간추려 기고 하고자 한다.

기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海戰史와 관련 화순 최경희장군 가문, 광주 고경명장군 가문, 김덕명장군 가문 이외 유명 가문들의 의병활동 내용은 호남지방을 초월하여 영남일대는 물론 전국 각지까지 참전한 빛나는 역사이나, 금차 文氏家門의 의병사는 내용면에서는 우리 文化柳門 先祖님들의 참전 내용과는 다소 다르겠지만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감추어진 역사라는 점에는 대동소이하다 판단되기도 한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이 같은 가문의 그늘진 의병사는 名門家의 후손들이 창의(倡義)하여 功을 세운 값진 遺事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으리라 추측되기에 앞으로 관계 기관에서 이를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권장 해 본다.

저희 文化柳門에서도 영암군(당시 羅州郡 非音面) 신북면 모산리에 거주하셨던 先祖님들이 1562년 임란이후 1636년 丙子胡亂 등이 발발함에 목숨을 걸고 창의하여 주옥같은 빛나는 전공을 세웠음이 구전(口傳) 및 大同譜 문헌 등에 등재되어 있기에 후손들은 명심하여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1. 文化柳門家の 湖南 義兵史 관련자료

상기한 公들은 世宗朝에 청백리로 右議政을 역임하신 호 하정(號 夏亭) 시 문간(諡 文簡)공 휘 관(諱 觀, 老年에 寬으로 改名)의 8세손 등으로 임진, 정유, 병자년에 外亂이 발발하자 위의 선조님들은 “우리가문은 대대로 國恩을 받았으니 어찌 갈충보국(竭忠報國)하지 않으리오” 하며 격문(檄文)을 전하고 거의(擧義)한 분들이다.

光州日報 기사에 의하면 장흥 출신 의병장 문위세 공과 같음 문홍개(葛翁, 1571~1638) 父子의 친필서책으로 추정되는 자료 등을 호남의병사를 연구하는 노기 옥박사가 인정하고 있다하니 다행스러우나, 나주(후에 靈巖으로 分郡)출신 문화 류문의 의병장 柳澣(임란, 정유재란)와 정유재란에 倡義 殉節하신 류 렬(柳濂)과 병자호란에 참전하신 柳浚 先祖 등의 출전 역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 류문의 족보 문헌과 口傳으로 전래되고 있으나 공인 기관 등의 자료에는 그 역사 등이 밝혀지지 않아 후손들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류호(柳澣) 의병장은 임란 때 창의하여 평양까지 진군(進軍), 몽진(蒙塵, 避亂) 중인 宣祖를 배알하여 군자감(軍資監)의 관직을 제수받았던 바 있고, 류렴(柳濂) 의병장은 정유재란때 창의하여 李舜臣장군의 진영으로 돌진하다가 鷲梁浦에서 적의 飛彈에 맞아 순절하시어 屍身도 찾지 못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戰史를 남길 수가 있었으리오?

전술한 문홍개 장군과는 처지가 조금 다르니, 柳門의 참전기록은 士林과 군민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고 당시 편찬된 譜帖을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참고하여 “壬辰倭亂 湖南義兵史”에 添記하여 후손들이 갈망하는 戰史 등을 참작해 주기 바라며, 당시 우리나라 족보의 역할은 태학관 및 士林界와 儒學界에서 인정하였던 신빙성있는 국가 보책(寶冊)으로 현재 史學界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시어 아래의 자료들을 깊이 고찰해 주시길 건의한다.

2. 참의공 류렴(參議公 柳濂 1534~1597)

公은 57세의 노구(老軀)로 임란이 터지자 종제 진사 호(從弟 進士 澣)와 倡義하여 출전하려다 병환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통읍(痛泣)하다가 7년 후 丁酉 再亂(1597)이 발발하여 호남이 피해를 제일 먼저 당함에 公의 마침 병환이 회복됨에 “우부(愚夫)와 주졸(走卒)들도 나라를 위하여 적과 싸우는데 하물며 대대로 國恩을 입은 가문에서 보국하지 않으리오” 하며 분연(奮然)히 일어나 家僮을 招集하여 의리를 깨

우치니 따르는 자 57인이라, 이로 인하여 內從인 림복(林撲), 림근(林謹)등과 척종(戚從)인 정 대절(鄭大節)과 同郡의 양산축(梁山軸)등이 의병 소집에 참여하니 모두 400 여인이라, 드디어 兵器를 손질하고 행오(行伍)를 정돈하여 注龍浦에 달려가니 적선(賊船)이 이미 가득하였다. 공이 士卒들을 잠복시키고 旗를 세워 북을 울리며 의병(疑兵)으로 가장함에 적이 이에 조금씩 물러나거늘 공이 싸우며 수비한지 한 달 남짓해 참적(斬賊, 목을 벤적)함이 심히 많아 적세(賊勢)가 조금 꺾이느니라 近海 읍민이 이에 힘입어 살아난 자가 수천이었다.

공은 중과부적(衆寡不敵)할 것을 고려 장차 李公 舜臣에 합조하여 적을 무찌르고자 하동 노량포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적을 만나 용감히 혈투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殉節하였다. 그 날이 1597년 7월 25일이라 공의 두 아들(長子敬仲 副司果 贈兵曹判書요, 次子愼仲)이 유의유관(遺衣遺冠)으로 招魂하여 거주하던 영암 신북면(元井面 書堂洞 壬坐原) 선영에 반장(返葬)하였다.

종전(終戰)후 이충무공의 난중일기(史書)를 탐독(耽讀)중 공의 순절사(殉節史)를 깨우쳤고, 주위의 백성들과 도신(道臣)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原從勳에 책록(策錄), 공조참의(工曹參議)에 贈職되고 후에 孫의 貴로 대사공(大司空, 工曹判書)을 加贈하니 대개 관례에 의함이었다.

후에 士林이 영암(당시 나주) 송산원(松山院)과 충남 금산 금곡사(錦山 金谷祠)에서 향사하였고, 후에 高宗 8년(辛未1871)에 전국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毀撤)되었다가 을사(乙巳1965)년에 祖父(茅崗公 用恭)및 숙부 몽정(夢井)과 함께 松山祠(麗水市 栗村面 下平村 松山祠)로 옮겨 유림과 본손 등이 정성으로 향사에 하고 있다.

3. 지우재공 류호 (止隅齋公 柳澣 1556~1631)

공의 直系先祖 내력은 앞에 기고한 從兄 濂公과 같아 先祖분야는 생략합니다.

공의 父는 號 청계 휘 몽정(淸溪 夢井 中宗24년 己丑 1529년 정월 21일) 公으로 司憲府 持平, 執義, 軍威縣監, 高阜郡守, 南原府使에 재임중 극심한 東西士禍에 휩쓸려 自進 辭任하고 歸鄉하니 곧바로 光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政界를 떠나고자 부임하지 않았다. 얼마 후 1589년 기축옥사(鄭汝立 亂)로 西人의 망(網)에 걸려 1590년(庚寅) 7월 13일 고문 중 형장(刑杖)에서 운명(殞命)하신 節臣이시다.

공은 부친의 四子중 次子(止隅齋 澣)로 기축옥사(己丑獄事)때, 부친이 서인의 모함으로 운명하심에 의분이 복받쳤으나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1592년 임진왜란이 발

발하여 宣祖께서 용만(龍灣)으로 피신함에 父親의 3년 喪中임에도 倡義하여 적진에 나가 國恩을 입은 家門임을 고려 도탄에 빠진 士民들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충성을 바칠 것을 명세하며,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召集使인 충무공 이순신의 從事官 洪麟祥과 함께 동심협모(同心協謀)하여 왜적(倭賊)백여 명의 목을 베니 軍聲이 크게 떨친지라 여러 고을의 의병과 함께 전투를 거듭하며, 水原의 경계에 이르러서 또 賊의 목을 베고 생포하기도 하면서 승리를 거듭하고 9개월 여를 京畿일대를 오르내리며 진격하여 安城 땅에 이르니 왜적이 남으로 도망하였었다.

公께서 지름길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임금 계신 평양에 도착하니 임금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여삐 여기시어 특별히 軍資監參奉에 제수하셨으나 公은 부친 청계공의 신원(伸寃)을 바라는 소장(訴狀)을 올리어 벼슬은 고사하였다.

宣祖는 왜적에 쫓겨 國運이 긴박함에 국운이 회복된 후 처결하기로 미루고 公의 효심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公은 임금을 원망할 수없이 인생 무상함을 가슴에 안은 채 고향에 돌아왔다.

그 후 정유년에 왜란이 재차 일어남에 從兄 濂과 함께 다시 倡義하여 왜적 정벌에 출전 하였으나 종형은 상술한바와 같이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과 합심하기 위하여 鷺梁浦를 찾아 진격할 때 飛彈에 맞아 순절하시고, 公은 육로로 진격하며 화순에 이르니 왜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에 진격을 中止하여 귀향하였다.

그 후 몇 차례 관직에 부름이 거듭되었으나 부친이 신원(復權)되지 않아, 나주의 유사(羅德潤 외)등이 궁궐 앞에 나아가 수차의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뜻을 이르지 못하다가 仁祖2년 1624년(甲子)에 여러 대신(鵝溪李山海, 白沙李恒福, 西厓柳成龍, 梧里李元翼)등이 獻疏하니 드디어 신원복권 되었다.

그 후 公은 명리와 지위 따위를 멀리하고 산골 집에 은거하며 經書와 賢傳에 마음을 두어 손에는 小學과 大學을 놓지 않고 中庸과 近思錄 등을 벗 삼아 후진 양성에 여생을 보내고, 陰陽二氣까지 講論하고 못한 것이 없었다.

후에 관직을 사양하고 종적을 감추고자 고향을 떠나 흥덕현(전북 고창군) 일남면에 이거하였기에 후손들은 묘소를 실전하여 부득이 고향 벌교 고읍에 設壇하여 매년 음력 3월 5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4. 四矯堂 柳浚(1584~1661)

公의 直系先祖의 내력은 앞에 기고한 從兄들과 동일하기에 先祖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화순병자창의일지에 의하면 仁祖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12월 25일에 행궁(別宮)의 반교문(頒敎文)에 이르되 청강 조수성(淸江 曹守城)이 그 글을 읽다가 목이 메었고 공의 從姪 進士 엽(焯)을 불러 반교문을 읽게 하니 엽 또한 개연히 눈물을 흘렸다. 조수성이 엽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문은 대대로 國恩을 입었으되 보은을 못하였는데 국가의 위급함이 이와 같으니, 이는 바로 임금이 치욕(恥辱)을 당함이라. 신하는 의병을 일으켜 국란에 달려가 죽자 한다. 너도 기꺼이 나를 따르겠느냐?” 하였다.

이에 공이 화순에서 거의(擧義)하여 의병장이 되고 長子 焯이 書記로 從行(從行)하였다.

和順 擧義 義兵廳의 編成圖에 의하면 나주 출신 준 문화류씨(浚, 文化柳氏)는 의병장 조수성의 예하에서 우군장(右軍將)으로 활약하고 능주유사(綾州有司)를 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의 曾孫 상운(尙運)은 肅宗朝의 領相이다.

의병대장(義兵大將) : 조수성(曹守城).

선 봉 장(先鋒將) : 최명해(崔鳴海)

좌 군 장(左軍將) : 고부립(高傅立)

중 군 장(中軍將) : 조 엽(曹 焯)

※ 우 군 장(右軍將) : 류 준(柳 浚)

후 군 장(後軍將) : 임시태(林時泰)

이외 종사자 67명과 400여명의 의병과 참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나주 출신 우군장 浚은 군정(軍丁) 7명, 전죽(箭竹) 400개, 활 15개, 큰칼 2자루를 보내고, 의병청에 편지를 보내어 ‘자신은 병이 나서 몸소 나아갈 수 없으니,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참전 하겠다’ 하고 몸이 조금 쾌차함에 본분을 다하였다(和順 丙子 倡義 日誌참조)

5. 松溪公 公信이 忠孝로 原從二等勳에 策錄되다

공의 諱는 公信이요 字는 윤보(允甫)이며 호는 송계(松溪)이니 직장 항(直長 恒)의 아들이다.

공은 전술한 濂公, 潁公, 浚公과는 3從간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道伯이 儒狀으로 宣祖에게 품의함에 왕께서 명하여 정문(旌門)을 세우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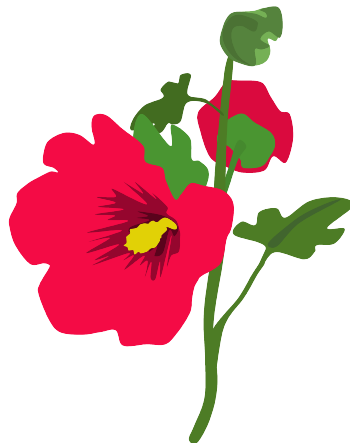
공이 고장(영암근교) 자제들(鄉子弟)의 학업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하여 분비 재(憤排齋)를 건립하여 3從 浚과 더불어 儒業을 성취하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시 전세가 악화되어 선조27 癸巳년(1593)에 임금의 수레(大駕)가 피난(播遷)길에 떠나감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 놓고 宣祖의 피난길을 호종(扈從 따르다)하니 전란이후 原從二等勳에 책봉되고, 仁祖元年(1623 癸亥)에 忠孝로 정려(旌閭)를 세우는 혜택을 받았다.

6. 家門의 素望

조선개국 이후 지금부터 400여년 전 外亂을 맞아 나주(후에 靈巖) 文化柳門家의 의병활동을 간략히 기술하였으나, 당시의 행정력이 현금과 같지 않아 그 遺事 등이 기록으로 보전됨이 희박하여 해당 가문의 族譜 등에 의존함이 허다하였다. 특히 호남의 의병사는 국내 의병사에 못지않은 빛나는 의병사가 있는 반면, 음지에서 빛을 잃고 있는 명문가의 의병활동내역 등이 비일비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최경회장군, 고경명장군, 김덕명장군 영남의 홍의장군 곽재우장군등 이미 국가가 인정한 명문거족의 의병사는 우리나라 의병사를 빛내고 있으나, 전술한 장흥 보성지방의 문씨가문의 의병사나 문화류문의 의병사 등 많은 의병사는 전자(前者)의 대규모 의병사에 비교할 바 못되나, 소규모 家門의 義兵史 역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은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빛나는 역사임으로 아직 것 밝혀지지 않는 義兵史가 있으면 그 가문 후손들의 열성을 위하여 만방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



柳公權 先祖와 同名異人인 唐代 柳公權에 관한 考察



慕省會 監事(大丞公33世) 柳 志 世

1. 序言

文簡公(휘 公權)께서는 서기 1132년에 태어나셔서 1196년에 政堂文學參知政事. 判禮部事를 끝으로 서기 1196년에 향년 65세를 一期로 他界하셨는 바, 公은 청렴 결백하심은 물론 草隸에도 아주 능하셨다.

公께서 御製에 응하셔서 지은 次韻詩와 辭職表가 輿地勝覺과 東文選에 전하고 있고, 海東筆苑과 玄悟國師碑 등의 親筆이 전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우리의 先祖님 이시기도 하다.

同名異人인 唐代의 柳公權은 文簡公보다 354년전(778년)에 태어나 唐代에 서예 해서(楷書)에 능했고 865년에 타계하였는 바 海嶽名言(海嶽名言)에서 唐代 柳公權은 歐陽詢의 글씨를 본받았으나 深遠하지는 못했다는 등의 말도 전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名만 同名異人일 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다.

2. 柳公權(文簡公)

고려 明宗때의 文臣(仁宗10)~(明宗26). 字는 正平. 公께서는 草書와 隸書에 능했으며,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右副承旨에 이르렀다.

左尹公 孝金の 5대손이요 檢校少府少監이신 寵의 아들로 高麗 仁宗11년(1132 壬子)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이 문장을 성취하더니 毅宗9년(1155 乙亥)에 成均試에 급제하고, 이듬해 太學에 들어가 年考와 月講에 항상 우등에 올랐었다.

仁宗15년(1160 庚辰)에 文科급제하고, 仁宗16년(1161 辛巳) 淸州牧書記로 나가 청렴하게 봉직하니 官吏와 백성들이 속이지 못하였다. 3년 후 翼陽府綠事로 옮겼는데 그 진퇴와 거동이 항상 법도가 있음으로 王이 公의 충직한 자질이 大臣의 기량이 있

음을 알고, 君臣간의 예우가 실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明宗2년(1171 辛卯)이 즉위하자 바로 四門博士에 제수되어 直史館을 겸하고 大府注簿를 거쳐 明宗6년(1175 乙未)에 閣門祗候로 옮기었다. 그 후 殿中內給事, 尙衣奉御, 戶部員外郎, 工부와 兵부의 郎中을 두루 거쳐 明宗13년(1182 壬寅)에 國子直講을 겸하니 많은 학생들이 모두 공경하여 본받고 이르기를 『公의 학문과 행의는 스승으로 섬길만 하다』하였다.

이어 將作少監, 太子司經, 太子中尹, 史館修撰官, 軍器監, 東宮侍講學士 등을 두루 거쳤는데 公이 古禮에 밝고, 正道를 지켰기 때문에 태자(太子)가 항시 볼 때 마다 특별히 禮遇를 하였다.

明宗17년(1186 丙午) 정월에 禮賓卿에 올라 使臣으로 金나라에 가서 萬壽節을 하례하였는데 모든 주선과 법도가 禮에 어긋남이 없으므로 金나라 사람들이 공경하여 마지않았다. 還國에 즈음하여 公이 王命을 욕되지 않게 하였음을 가상히 여기고, 吏部侍郎을 제수하고, 이어 禮賓卿, 樞密院右副承宣에 승진시키었다.

明宗20년(1189 己酉) 5월, 右承宣으로 監試를 관장하여 詩賦로써 鄭守剛 등 19인과 十韻詩로써 李奎報 등 62인의 名士들을 선발하니 학자들이 아름다운 일이라 하였다. 이듬해 國子監大司成에 올라 太子贊善大夫를 겸하고, 22년(1191 辛亥) 4월에 翰林學士로 同知貢擧가 되어 손희작(孫希綽) 등 29인을 선발하였다. 이에 앞서 科場의 선비들이 위주로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 마침내 인물의 賢愚를 분별하기 어려웠는데 公께서 이를 알고 과거를 보임에 한결같이 法規대로 시행하니 과정의 規律이 엄정하여 급제한자가 모두 준수한 人物들이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이 『어진 선비들이 門下에 모이었다』고 하였다.

이듬해 좌산기상시지주사(左散騎常侍知奏事)를 거쳐 지이부사(知吏部事)에 轉職하였다. 公이 승선(承宣)으로 在職 7년간에 국사의 顧問에 대하여 숨김이 없었고 헌체(獻替)를 당하여 言辭가 곧아 朝廷의 기강과 국가의 체통에 도움이 많았으니 비록 중산보(中山甫)가 왕명을 출납할지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4년 癸丑(1193) 윤 11월에 同知樞密院事に 제수되어 태자빈객(太子賓客)을 겸임하였다.

26년 (1195 乙卯) 12월 풍질(風疾)이 있어 요양을 하였으나 곧 낫지 않음으로 公께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하지 않다는 옛말이 있는데 하물며 病이 점점 더 함에 어찌할 것인가』 하고, 드디어 상소로서 辭職을 청하

였다. 王이 下敎하기를 『古典에 이르기를 老宿한 사람으로 더불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하였으니 과인(寡人)이 어찌 즐거이 허락하리오.』하고 곧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간곡히 辭職을 애걸하니 또 조서(詔書)를 내려 『과인이 노숙한 사람과 같이 정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경이 이같이 애원하니 마치 짝 잃은 새와 같도다. 경이 아직 年老하지 않으니 公卿의 반열에 다시 들 것이다. 과인이 보내는 이 藥으로 病이 낫기를 바라노니 오직 나의 청에 순종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27년(1196 丙辰) 7월에 公의 병세가 더욱 위독함에도 王이 조서를 내려 政堂文學 叅知政事 · 判禮部事를 제수하였다. 그러나 7월 19일에 자택에서 돌아가시니 享年 65세였다.

이때 士大夫들이 모두 애통해 하여 마지않았고, 王도 또한 슬퍼 마지 않으시며, 文簡公으로 諡號를 내리셨다.

동년(1196 丙辰) 8월 13일(庚申)에 松林郡 西山 南麓(남쪽기슭)에 장례를 모셨으니 지금의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전재리의 鍾開川 艮坐原의 언덕이다.

부인 孫氏는 대부주부 각(大府注簿 珪)의 따님으로 懷道郡君에 封號되었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어 아들 彦沉은 同知樞密院事요, 택(澤)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이며, 사위는 侍郎 尹威이다.

高麗史列傳에, 柳公權의 字는 正平이요, 儒州人인데 6세조 大丞 車達은 太祖를 도운 공신이였다. 公께서는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고 초예(草隸)에 능하더니 文科에 등제하여 익양부록사에 기용되었다.

명종 초에 直史館에 있다가 병부랑 중에 옮기고 얼마 후 예빈경으로 金나라에 가서 만수절을 하례하니 金나라 사람들이 그 禮를 안다고 칭송하였다. 右副承旨에 전직되었다가 우산기상시지주사에 승진하여 계사에 칭지함이 많았고, 또한 비익됨이 허다하였다.

同知樞密院事에 올라 明宗25년(1195 乙卯)에 질병으로 퇴직을 청하니 왕이 그 문학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르기를 『조정에 구덕이 있음은 사직의 복이라, 경은 어찌 갑자기 물러나려 하는가』하시었다.

公이 3차례 글을 올리니 드디어 왕이 허락하셨다. 집에서 1년을 병석에 지내는 동안 친속들이 탕약을 올리면, 公권이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있는 것이다』하고 끝내 마시지 않았다. 병이 위독함에 이르러 왕이 특별히 政堂文學 叅知政事를 제수하였는데, 얼마 후 돌아가시니 享年 65세로 文簡公의 諡號가 내렸다. 公은 천

성이 공평하고 평범하였으며 관직에 있어 게으르지 않았다.

공께서 임금을 호종(扈從)하고 安和寺에 가서서 御製에 응하여 지은 次韻詩와 辭職表가 與地勝覽과 東文選에 전하고 있으며, 친필이 海東筆苑과 龍仁에 있는 光敎山の 瑞峰寺에 소재한 玄悟國師碑에 전하고 있다.

공의 묘소를 수백년 동안 실전하였는데 朝鮮 純宗(1910 庚戌) 5년후 1915년(乙卯) 여름에, 후손 叅奉 秉轍이 公의 墓誌石을 박물관에서 발견하고 전 현감 漢正(漢鼎)과 함께 출처를 널리 탐색하여 마침내 도굴(盜掘)의 소치임을 확인한 후 관가에 공소(控訴)하여 墓所를 득전하였다.

1916년(丙辰) 3월 1일에 봉축과 동시에 誌石을 매안하고, 동년 8월 13일 墓碑를 개수하였는데 墓碑文은 구 墓誌를 참작하여 秘書院丞 寅哲이 지었다.

公의 墓誌가 1922년(壬戌)에 중국인 劉承幹이 간행한 海東金石苑(海東金石苑)에 실려 있는데, 그 형태를 이르기를 『지석의 높이는 1척5촌3분이요, 넓이는 2척 7촌 3분이며, 43행으로 1행에 25자, 또는 27자로 같지 않고, 끝에 비어있는 2행은 정자로 씌어있다.』고 하였다.

구 墓誌의 銘은 다음과 같다.

『문장은 족히 도를 관통하고, 사업은 족히 때를 구제했도다.

벼슬은 재상지위에 올랐고, 덕의는 원로로 일컫었다.

임금은 옛일을 생각하여 후에 포상이 후하였도다.

공께서 인도를 다했으니 이에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일대의 으뜸가는 스승이요, 만인의 선망이 되었도다.

태산이 이미 무너졌으니 백성들은 어디를 우러러 볼까.

백세의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송백은 푸르고 푸르도다.

이곳은 공의 묘소이니 혹시라도 손상치 말지어다.』

6.25남북 분단이후 省墓를 할 수 없어 60여년간 闕享을 하게 되었다.

1993년(癸酉)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溪流里 양지말 1길71에 慕省齋를 새로 짓고 左尹公이신 孝金이하 5代와 文簡公 이하 3代 5位 향사를 올리고 있고, 지난 2003년에 慕省齋를 慕省祀로 격상·개칭한 慕省祀에서 2019년부터 始祖 大丞公의 享祀(음 9월 15일)도 봉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高麗史, 東文選, 與地勝覽, 墓誌銘, 鍾德誌, 歷代文化柳氏世譜, 文化柳氏寶鑑 등

3. 文簡公과 同名異人인 唐代 柳公權

同名異人인 唐代의 柳公權은 778년에 태어나서 865년에 타계한 사람으로 우리의 先祖이신 文簡公(휘 公權)보다는 354년전의 인물이다.

그는 唐代의 楷書에 능한 서예가인 동시에 정치가였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현비탑비(玄秘塔碑) 등 楷書法帖-中 書法家 柳公權 書[출처] 楷書法帖-中 書法家 柳公權 (병). Liu Gongquan. (웨). Liu Kungch'대체이미지an. 字는 성현(誠懸). 중국의 京兆(陝西省 長安일대의 행정지역)에서 태어났고, 官職은 太子少師에 까지 이르렀다.

서예는 楷書에 특히 뛰어났으며 처음에는 王羲之 書體를 배웠고, 당시의 筆法을 두루 익혔던 바, 글자체가 힘이 있고 아름다워 書藝분야의 일가를 이루어 당시 벼슬 아치의 碑文에 柳公權의 글씨를 쓰지 않으면 불효라고 여겼을 정도였으며, 외국인도 중국에 올 때는 특별비용을 마련해서 柳公權의 글씨를 구입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매우 높았다.

그는 주로 안진경(顏眞卿)을 본받았으며, 구양순(歐陽詢)과 설요(薛曜)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顏眞卿의 글씨에 살이 많다면 그의 글씨에는 뼈가 많아서 함께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커 '안유(顏柳)'라고 병칭되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玄秘塔碑와 神策軍碑가 있다.

필사본으로는 왕헌지송리첩발미(王獻之送梨帖跋尾)와 임왕헌지낙신부(臨王獻之洛神賦)가 세상에 전한다.

그 이후로 楷書에 능한 사람은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파를 형성할 만한 인물은 없었기 때문에 楷書는 顏眞卿과 柳公權에게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할 경우 柳公權은 顏眞卿에 미치지 못하나 그에게 배워야 비교적 수월하게 서도를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송나라 주장문(朱長文)의 『속서단(續書斷)』의 기록에 의하면, 목종 때 그는 夏州의 書記로써 주청을 올렸는데 황제가 이를 보고 “짐이 일찍이 불묘(佛廟)에서 그대의 작품을 보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朕嘗于佛廟見卿眞迹, 思之久矣].” 라고 말하고는 바로 우습유시서학사(右拾遺侍書學士)로 임명했다.

오래지 않아 조정에서는 또한 그를 우사랑중홍문관학사(右司郎中弘文館學士)로 진급시켰다.

柳公權의 서예는 제왕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을 당시에 이미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한번은 문종과 학사들이 詩句 잇기를 하는데 문종이, “사람들 모두가 더운 열기에 괴로워하나 나는 여름날이 길어 좋다[人皆苦炎熱, 我愛夏日長].”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對句를 이었지만 문종은 유독 柳公權의 “훈풍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니 전각에 서늘함이 일어나네[薰風自南來, 殿閣生餘涼].”라라고 한 것을 칭찬했다.

그리고 글의 뜻이 모두 옳으니 전각의 벽에 쓰라고 명했다. 柳公權은 성지를 받들어 붓을 잡고 한 붓에 써냈다.

글씨의 형체가 매우 커서 약 5촌이 되나 정미함이 아주 뛰어나 문종이 찬탄하며 “중요와 王羲之도 이에 더할 수 없도다[鍾王無以尚也].”라고 하며 즉시 그를 소사(少師)로 임명했다.

또 한 번은 선종의 명에 의해 그는 어전에서 해서로 ‘衛夫人傳筆法于王羲之’, 초서로 ‘謂語助者, 焉乎哉也’, 행서로 ‘永禪師眞草千字文得家法’ 등 29字를 씬에 令軍容使인 西門季가 벼루를 받들고 樞密使인 崔巨源에게 붓을 주도록 했다. 다 쓴 뒤에 매우 칭찬을 하며 기물과 돈을 하사했다. 이 일이 널리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그에게 배움을 구했다.

그리고 당시 대신의 家門의 碑와 墓誌銘은 그의 글씨가 아니면 자손을 불효라고 여겼고 외국에서 조공을 바치려고 올 때도 그의 서명이 씌어진 작품을 받아가서 顏眞卿이는 柳公權에게 구입한 글씨라고 했다.

‘心正則筆正’은 당나라 서예가 柳公權의 筆諫과 관련 있는 고사이다. 당 목종은 어리석고 우둔한 황제로, 한번은 목종이 柳公權에게 글씨를 쓰는 용필법에 대해 물었다.

柳公權은 “마음이 바르면 필법도 바르니 가히 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心正則筆正, 乃可爲法].”라고 대답하니 당 목종은 얼굴을 바로하고 필간임을 깨달았다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柳公權의 書藝로 楷書는 玄秘塔碑, 神策軍碑와 행서는 蘭亭詩, 蒙詔帖(蒙詔帖) 등이 가장 유명하다. 이들 작품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그의 書藝는 王羲之를 근간으로 한 후에 또한 수. 당의 유명 書藝家의 작품을 섭렵하여 이를 융회관통하고 변화를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새로운 뜻을 드러내어 뛰어난 대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의 범중엄(范仲淹)은 「뢰석만경문(誄石曼卿文)」에서 “석만경의 筆法은 顏眞卿의 근(筋)과 柳公權의 골(骨)이다[延年之筆, 顏筋柳骨].”라고 했다.

이때로부터 ‘안근유골(顏筋柳骨)’이란 美辭麗句가 생겨 세상에 널리 퍼졌다. 하지만

후세에 柳公權의 글씨에 대한 평가도 다른 書藝家들처럼 각자의 견해에 따라 포편을 달리하고 있다.

명나라의 동기창(董其昌)은 柳公權을 높이 받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柳公權의 글씨는 힘써 王羲之 筆法을 변화시켜 蘭亭書의 면목과 같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신묘하고 기이하면서 진부한 것을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릇 사람이 글씨를 배울 때 자태로 연미함을 취하나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우세남. 저수량. 顏眞卿. 歐陽詢의 글씨를 열에 하나 정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柳公權을 배우고부터 비로소 용필의 예스럽고 담담한 곳을 깨달았으니 지금부터는 柳公權의 필법을 버리고 王羲之를 따를 수 없다.

柳尙書極力變右軍法，蓋不欲與禊帖面目相似，所以神奇化腐朽，故離之耳。凡人學書，以姿態取媚，鮮能解此。余于虞世南褚顏歐，皆曾髣髴十一。自學柳誠懸，方悟用筆古淡處，自今以往，不得舍柳法而趨右軍也。

그러나 “柳公權은 歐陽詢을 본받았으나 심원함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추하고 괴이하게 쓴 못난 글씨의 증주가 되었다[柳公權師歐陽詢，不及遠甚。而爲醜怪惡扎之祖]”라고 하면서 필법은 여기서 다 사라졌다고 했다. 이러한 폄하는 전혀 옳지 않고 편파적인 논지임을 면치 못한다는 해악명언(海嶽名言)의 기록도 있다.

4. 맺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의 先祖이신 文簡公(휘공權)과 同名異人인 唐代의 柳公權(778년-865년)과는 태어난 年度 등 여러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후에 우리 후손들이 만에 하나라도 착오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도 검토, 고찰을 해 보았다는 말로 본 論題를 마치고자 한다.

文肅公의 雅樂譜序



文化柳氏 文肅公派宗會長 柳在英

1. 序

文肅公(휘 思訥)은 大丞公의 14세손으로 高麗 禑王2년(1375 乙卯)에 典農正(휘 臨)의 아들로 태어났다. 字는 而行이다.

公께서는 太祖2년(1391 癸酉)에 文科에 급제후 司諫院正言, 兵曹正郎, 吏曹正郎, 承政院副承旨, 江原.京畿.慶尙.咸吉道觀察使. 樂學提調藝文館大提學. 同知中樞院事, 藝文館大提學 등을 두루 역임하신 후 世宗23년(1440 庚申)에 享年 66세를 一期로 下世하였다. 兵曹參判에 贈職되고, 諡號는 文肅이다.

世宗13년(1430 庚戌) 樂學提調가 되어 아악을 정리할 것을 진언하고 이듬해 10월 가사를 만들어 올렸다. 公께서 世宗15년(1432 壬子) 8월에 同知中樞院事로 있으면서 樂器와 樂譜의 정리, 진언하여 允허를 얻었다. 世宗17년(1434 甲寅) 5월에 公이 進작가(嗔雀歌)를 지어서 바치니 禮曹에서 가사를 樂府에 기재하고, 都監에 命하여 익힐 것을 청하였다.

이를 主上(世宗)께서 允許하시어 시행토록 하시니 당시 公께서 蘭溪 박연(朴堧)과 함께 雅樂을 정리하여 國樂 발전에 크게 貢獻하였다.

세종실록에 실려있는 관련기록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世宗 11년(1429) 이래로 鑄鐘所를 두고 編鐘과 特鐘 등을 鑄成하였는데, 동 12년 7월에 새로 鑄造된 朝會 樂器를 들여오게 하여 閱覽하였다고 함(세종실록 권 43, 15),

노년에 이른 文肅公은 각종 기관의 領導者로서 그중 특히나 藝文館大提學을 두 번

씩이나 역임하였으니, 특히 樂學提調의 직을 겸하고서 탁월한 樂才인 蘭溪 朴 堉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세종조의 찬란한 업적인 아악을 바로잡아 律呂를 정하고 國樂을 창시하는 데 있어 힘을 기울이셨다는 기록도 있다.

2. 世宗莊憲大王實錄에 실려 있는 雅樂譜序의 관련기록

國朝雅樂未備 世宗因中朝所賜鍾磬 據儀禮詩樂及林宇釋尊樂譜制爲朝會, 祭祀樂譜 今并附 云.

國朝 雅樂이 未備하여 世宗이 中國에서 준 鍾과 磬에 의하여 編鍾, 編磬을 더 만들었고 또 儀禮詩樂과 樂譜를 만들었다. 이제 그것을 다 붙여 둔다.

雅樂譜序

樂者 聖人所以養性情和神人 順天地調陰陽之道也 國家昇平 垂四十年 而雅樂尙有未備 恭惟我 主上殿下 特宸念 宣德庚戌秋 御經筵 講蔡律呂新書 嘆其法度甚精尊卑有序 思欲制律 第以黃鍾未易遽得 重其事也 乃命臣 藝文館大提學 柳思訥 集賢殿 副提學 鄭麟趾 奉常小尹 朴堉 京市注簿 鄭穰等 正舊樂臣等觀今之奉常寺所存樂器在高麗睿宗時 宋徽宗所賜編鍾 恭愍王時 高皇帝賜與鍾磬共數十枚及我本朝 又有 太宗文皇帝賜與鍾磬數十枚而已 今因其聲 以秦編鍾 得美石於南楊 以朝編磬 樂器但新 又依其磬以鑄銅律 而其律頗長 容黍太多 似不合於古尺 故不用其尺 而諸樂器 皆從宣製作但 留其律管 以便調音而已耳 四清聲者 黃鍾清聲 非變半律也 太族清聲 又不盡合於損益之數 然易代用之既久 朝廷又賜之 而樂家 最忌臣民陵君 故今 赤併用其聲 姑以避商角之過宮也 又今奉常之樂章 不知何自以傳 聞有出於一時樂工之增益 未足爲信 而所可者 儀禮詩樂風十二篇 至正條格及林宇釋尊樂譜十七宮而其 然詩樂十二篇 皆以黃鍾爲宮 而或以清聲調 且以清聲間用 則非所謂黃鍾一均 純粹中之純粹也 至於風詩六篇 唯三宮用七聲 而餘宮皆有雜聲 釋尊樂譜 亦多類是 以今考之 宮商角徵羽五聲 本之五行 配之以君臣民事物 治亂災祥 各以類而應 周官所謂大師摯 同律以聽軍聲而詔吉凶 樂器所謂五者不亂則無沾之音者 皆以此也 若宮商之間用一聲則是非宮非商之戾聲也 商角之間用一聲則是非商非角之戾聲也 徵羽皆可類推況乎宮聲之上 尤不可用客聲也 但儀禮註解 朱子論其清聲起調非古法 而此不之及 是固可疑也 然觀其言 曰律呂有十二箇 用時只使七箇 若更插一聲便了 則亦足以互相發明矣 夫詩樂十二篇 開元遺聲 非古樂也 釋尊樂譜七宮 亦難盡信 然

此二譜之外 更無可據 故於儀禮時樂 取純用七聲 所雅六篇二十六宮 演爲三百一十二宮 以備朝會之樂 於釋尊樂譜 取純用七聲十二宮 然爲一百四十四宮 以備祭祀之樂 黃鍾之宮則皆用正聲 餘宮并用四清聲 以爲樂譜二帙 又寫儀禮詩樂 釋尊樂譜一通別 爲一帙 以俟後日 知音者之參考 惜其樂書殘缺 譜法不傳 所以有樂崩之嘆也 古樂既不可復見矣 若其求黃鍾於聲氣之亢 第二十八聲 大小尊卑不相倫 朱子蔡氏之志 小伸於載之下 則必不能無待於聲朝焉。

(譯文)

아악보서(雅樂譜序)

樂이란 것은 聖人이 性情을 기르고 神과 사람을 화합하여 天地와 陰陽을 순조롭게 하는 길이다.

국가승평(國家昇平)이 40년이 가까운데도 아악은 아직 미비하다. 우리 主上殿下께 읊서는 특히 이에 유의하사 宣德 庚戌 즉 世宗13년 가을에 경연(經筵)에 납시어 宋의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의 강(講)을 받으시고는, 그 律呂의 법도가 심히 정교(精巧)하고 존비(尊卑)의 序列이 있는 것에 감탄하사, 율관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黃鍾의 율관을 얻기가 쉽지가 아니하여,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에 신하 예문관대제학 류사눌(藝文館大提學 柳思訥), 집현전부제학 정인지(集賢殿副提學 鄭麟趾), 봉사소윤 박연(奉常小尹 朴堧), 경시주부 정양(京市主簿 鄭穰) 등에 명령하여 舊樂 이정케 하였다.

臣들이 보건대 지금 봉산시에 있는 악기는 고려 예종(睿宗) 때 宋의 휘종이 준 편종(編鍾)과 공민왕(恭愍王) 때 明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준 종(鍾), 성(磬), 수십장(數十杖)뿐이다.

지금 그 中國의 종, 경, 의 수십장과 지금 아조에 明나라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가 준 鍾, 磬, 수십장뿐이다.

지금 그 中國의 종, 경, 의 음에 맞추어 編鍾을 만들고 돌을 京畿道 南楊에서 얻어 편경(編磬)을 만들어서 악기가 모두 새로워졌다. 또 그 中國의 종, 경, 의 음에 의하여 동의 황종 율관을 주조(鑄造)하였는데 그 율관이 대단히 길어서 기장 서알을 너무 많이 수용하여(그 황종 길이가) 옛날 자(古尺 : 周尺)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 까닭에 그 周尺을 쓰지 않고 적당히 여러 악기를 만들었다. 다만 청하여 그 銅의 율관은 두어서 조율을 편리하게 하였다.

사청성(四淸聲) : 청황종(淸黃鍾), 청대려(淸大呂), 청태주(淸大簇), 청협종(淸夾鍾)으로 말하면 그 황종청성은 변반율이 아니고 태주청성도 삼분 손익법으로 얻은 수에 맞지 않는다. (즉 變半律)이 아니다. 그러나 역대로 淸聲을 쓰지 오래고 또 明나라도 그것(淸聲)을 下賜 하였는데 樂家は 관리[臣]와 국민[民] 즉 商과 角이 인군[君] 즉 궁을 능가하는 것 상과 각이 궁 더 오히려 낮은 음이 되는 것을 가장 꺼리는 까닭에 지금도 그 음(四淸聲)을 모두 써서 商이나 角이 宮을 지나치는 것(낮은음이 되는 것)을 피한다.

또 지금 奉常寺에 있는 악장은 어디에서 전하여 온지도 모르고 또 중간에 일시 아공의 증가에서 나온 것이 있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參巧할 수 있는 것이라곤 송나라 주희의 의례시악 정확하게 말해서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詩樂의 風雅 즉 國風과 小雅 12편과 지정조격(至正條格) 및 林宇의 석존악보(釋尊樂譜) 정확하게 말해서 대성악보(大成樂譜) 17궁 즉 17곡 뿐이다.

그러나 그 詩樂 12편은 모두 黃鍾調의 궁 즉 宮旋法 인데 황종 청성으로 시작하였거나 또는 황종 청성을 중간에 쓴, 즉 그것은 소위 황종 일균 즉 황종(黃鍾), 태족(太族), 고선(姑洗), 임종(林鍾), 유빈(蕤賓), 남려(南呂), 응종(應鍾)의 순수종의 순수가 아니다. 즉 청성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정성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무역조의 상선 법으로 된 風詩 6篇에 이르러서는 삼곡(三曲), 즉 관저기일(關雎其一), 작소기이(鵲巢其二), 채번기이(采芣其二)만이 7聲 이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황종(黃鍾), 태족(太族), 고세(姑洗), 임종(林鍾), 남려(南呂)의 五聲을 쓰고 나머지 곡들은 잡성(雜聲) 즉 일 균의 중려무사(仲呂無射)를 포함하고 있다. 석존악보(釋尊樂譜) 즉 대성악보(大成樂譜)도 이같은 것 잡성(雜聲)이 많다.

지금 생각건대, 궁, 상, 각, 치, 우 (宮, 商, 角, 徵, 羽)의 5음(五聲)은 5행(五行) 즉 土, 金, 木, 火, 水를 本으로 삼고(君, 臣, 民, 事, 物)에 각각 붙여져 있어 軍聲(軍聲)을 듣고 吉凶(吉凶)을 조(詔) 즉 고(告)한다는 말과 악기(樂器, 治亂)과 재상(災祥)이 각각 그에 따라 즉 율呂(律呂)를 맡아 경(磬), 記)의 소위(所謂) 오음(五音)이 어지럽지 않으면 불난(不亂), 첩체(帖體), 음(音)이 없다는 말이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궁(宮)과 상(商) 사이에 1음(一音)을 쓰면 이는 궁도 아니고 상도 아닌 틀린 음이고 상(商)과 각(角) 사이에 일음(一音)을 쓰면 이는 상도 아니고 각도 아닌 틀린 음이고 치(徵) 와 우(羽)의 경우도 이와 같다. 더구나 궁성(宮聲) 위에는 君音(君音) 객성(客聲) 즉 청황종(淸黃鍾)을 써서는 안된다. 다만 의례주해(儀禮註解)에서 주자(朱子)가 청성(淸聲)으로 곡을 시작 하는 것은 고법(古法)이 아니라고 논(論)하

면서도 이에 대하여는 언급(言及)지 않았으니 참으로 의문(疑問)이다.

그러나 율려(律呂)에는 12개가 있으나 실제로 7음만 쓰고 만일 7음에 1음을 추가 삽입(追加插入)하면 틀린다는 말을 보면 넉넉히 피차(彼此) 해명(解明)될 것이다.

대개 시악(詩樂)의 12편은 당(唐)나라 개원(開院) 때 전래(傳來)된 음악이지 고악(古樂)이 아니고 석존악보(釋尊樂譜) 17곡도 다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악보 밖에는 의거(依據)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례시악(儀禮詩樂)에서는 7음(音)만 순용(純用)한 소아(小雅) 6편의 26곡을 취(取)하여 그것을 12조로 풀어서 이조(移調)하여 312곡을 만들어 조회악(朝會樂)으로 준비하였고 석존악보(釋尊樂譜)에서는 순수(純粹)히 7음만 쓴 12곡을 취하여 그것을 12조로 풀어서 144곡을 만들어 제사악(祭祀樂)으로 갖추어 놓았다. 황종궁(黃鍾宮)의 곡은 모두 정성(正聲)만 쓰고 나머지 궁(宮)의 곡은 모두 사청성(四淸聲)을 써서 악보 두 질(帙)을 만들었다. 또 의례시악(儀禮詩樂)과 석존악보(釋尊樂譜) 한 통(通)을 베껴서 따로 한 질(帙)을 만들어 후일(後日) 음악을 아는 사람(知音者)의 참고를 기다린다.

음악책(樂書) 이 잔결(殘缺)하고 보법(譜法)이 전(傳)해지지 않은 것은 아까우니 악(樂)이 무너졌다는 한탄(恨嘆)이 있는 소이(所以)다. 고악(古樂)은 다시 찾아 볼 수 없으나 그 황종(黃鍾)의 음을 성기지원(聲氣之元)에서 구(求)하고 거기서 28음 [정성(正聲) 12 정반성(正半聲) 8 변정성(變正聲) 3 변반성(變半聲) 5]을 문(亂)와 채원정(蔡元定)의 뜻이 천 년 후에 조금이라도 퍼게 된 것은 성조(聖朝)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못하였을 것이다.

3. 雅樂 12宮 7聲에 쓰이는 28聲圖

	궁 (宮)	상 (商)	각 (角)	변치 (變徵)	치 (徵)	우 (羽)	변궁 (變宮)
	토 (土)	금 (金)	목 (木)		화 (火)	수 (水)	
	군 (君)	신 (臣)	민 (民)		사 (事)	물 (物)	
황종궁 (黃鍾宮)	황종 (黃鍾) 정(正)	태주 (太簇) 정(正)	고선 (姑洗) 정(正)	유빈 (蕤賓) 정(正)	임종 (林鍾) 정(正)	남려 (南呂) 정(正)	응종 (應鍾) 정(正)
대려궁 (大呂宮)	대려 (大呂) 정(正)	협종 (夾鍾) 정(正)	중려 (仲呂) 정(正)	임종 (林鍾) 정(正)	이칙 (夷則) 정(正)	무역 (無射) 정(正)	황종 (黃鍾) 정(正)

태주궁 (太簇宮)	태주 (太簇) 정(正)	고선 (姑洗) 정(正)	유빈 (蕤賓) 정(正)	이척 (夷則) 정(正)	남려 (南呂) 정(正)	응종 (應鍾) 정(正)	대려 (大呂) 반(半)
협종궁 (夾鍾宮)	협종 (夾鍾) 정(正)	중려 (仲呂) 정(正)	임종 (林鍾) 정(正)	남려 (南呂) 정(정)	무역 (無射) 정(正)	황종 (黃鍾) 變半	태주 (太簇) 變半
고선궁 (姑洗宮)	고선 (姑洗) 정(正)	유빈 (蕤賓) 정(正)	이척 (夷則) 정(正)	무역 (無射) 정(正)	응종 (應鍾) 정(正)	대려 (大呂) 반(半)	협종 (夾鍾) 반(半)
중려궁 (仲呂宮)	중려 (仲呂) 정(正)	임종 (林鍾) 변(變)	남려 (南呂) 변(變)	응종 (應鍾) 변(變)	황종 (黃鍾) 變半	태주 (太簇) 變半	고선 (姑洗) 變半
유빈궁 (蕤賓宮)	유빈 (蕤賓) 정(正)	이척 (夷則) 정(正)	무역 (無射) 정(正)	황종 (黃鍾) 變半	대려 (大呂) 반(半)	협종 (夾鍾) 반(半)	중려 (仲呂) 반(半)
임종궁 (林鍾宮)	임종 (林鍾) 정(正)	남려 (南呂) 정(正)	응종 (應鍾) 정(正)	대려 (大呂) 반(半)	태주 (太簇) 반(半)	고선 (姑洗) 반(半)	유빈 (蕤賓) 반(半)
이척궁 (夷則宮)	이척 (夷則) 정(正)	무역 (無射) 정(正)	황종 (黃鍾) 變半	태주 (太簇) 變半	협종 (夾鍾) 반(半)	중려 (仲呂) 반(半)	임종 (林鍾) 變半
남려궁 (南呂宮)	남려 (南呂) 정(正)	응종 (應鍾) 정(正)	대려 (大呂) 반(半)	협종 (夾鍾) 반(半)	고선 (姑洗) 반(半)	유빈 (蕤賓) 반(半)	이척 (夷則) 정(正)
무역궁 (無射宮)	무역 (無射) 정(正)	황종 (黃鍾) 變半	태주 (太簇) 變半	고선 (姑洗) 變半	중려 (仲呂) 반(半)	임종 (林鍾) 變半	남려 (南呂) 變半
응종궁 (應鍾宮)	應鍾 정(正)	大呂 반(半)	夾鍾 반(半)	仲呂 반(半)	蕤賓 반(半)	夷則 반(半)	無射 반(半)

註 : 정성 12 정반성 8 변반성 5이다. 7성은 궁, 각, 치, 우의 오음과 변성인 반치, 반우를 말함.

7궁은 성률의 7조 즉 황종, 대려, 협종, 중려, 임종, 이척, 무역, 변반률은 본율의 길이의 반으로 변한 율을 말한 것인데 그 소리가 본율보다 약간 높음.

자료 : 김익현번역 1994. [중보문헌비고 제 90번 악고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3.

“성종(成宗) 8년(1476 丙申)에 하교하기를 지금 율러를 아는 사람은 오직 정인지(鄭麟趾) 한 사람뿐이니 정인지가 만약 죽으면 이 글은 절대 전할 수가 없다.” 하고,

명하여 조신(朝臣) 가운데 나이 젊고 총민(聰敏)한 사람을 골라서 올려신서(律呂新書)를 정인지로부터 학습하게 하였다.

갑진년(甲辰年) 1484년 成宗 16년에 정랑(鄭郎) 김응기(金應箕)에게 명하여 경연(經筵)에서 올려신서를 강(講)하게 하여 격팔상생법(隔八相生法)을 알고자 여러 번 그 뜻을 묻고 끝까지 연구하였는데, 김응기의 대답이 매우 자세하였다.

기유년(己酉年) 1489년 成宗 21년에 또 불려서 5음과 6울의 이치를 강(講)하게 하니 김응기가 대답하기를 “순임금의 말에 내가 5음과 6울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고, 계절(季札)이 주(周)나라 악(樂)을 보고 역시 그 나라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을 알았으니, 정치의 득실(得失)을 성율(聲律)에서 구하는 것은 대체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전 세종조(世宗朝)에 류사눌(柳思訥)의 말을 채택하여 당월률(當月律) 11월은 황종(黃鍾) 12월은 대려(大呂)..... 등을 만들었는데, 어느 때에 폐하여 쓰지 아니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자, 임금님이 춘추관(春秋館)에 명하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이처럼 문숙공(文肅公)께서는 돌아가신 후에도 올려제조(律呂製造)에 관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것을 알 수 있다.

4. 結語

文肅公派祖이신 公께서 남기신 逸話 등 遺業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오늘은 公께서 世宗朝에 蘭溪 박연(朴堧)과 함께 雅樂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國樂 발전에 크게 貢獻하신 雅樂譜序 등에 대하여는 世宗莊憲大王實錄에 실려 있는 雅樂譜序의 관련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후손들은 文肅公 先祖님의 훌륭한 면면 등에 고개를 숙이면서 崇祖精神을 함양하자는 말로 끝을 맺고자 한다.

參考文獻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歷代文化柳氏世譜

輿地勝覽

文化柳氏寶鑑(1990. 文化柳氏編纂委)

儒州春秋 등

王建의 西南海戰鬪 軍糧



文化柳氏 夏/光州宗親會長 柳 在 均

1. 서론

왕건 관련된 부분에서 당시 문화류씨 시조 류차달 대승공(이하 선조 존칭생략함)께서 군량(미)을 제공한 史蹟을 찾아 가면서 류차달 공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류차달 류천궁이 왕건을 지원한 배경은 족보의 흥률사 중수기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류천궁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조선대학교 이종범교수(전한국학 호남진흥원 초대 원장)님께서 활발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전남대 목포대 교수님들의 논문과 호남 사학계 학자들의 글에 의한 지역신문기사에서 왕건의 서남해전투를 참고하여 호남지방 사학자의 논문과 자료를 근거로 류차달 발자취 퍼즐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서남해 전투에서 군량미를 제공한 역사를 알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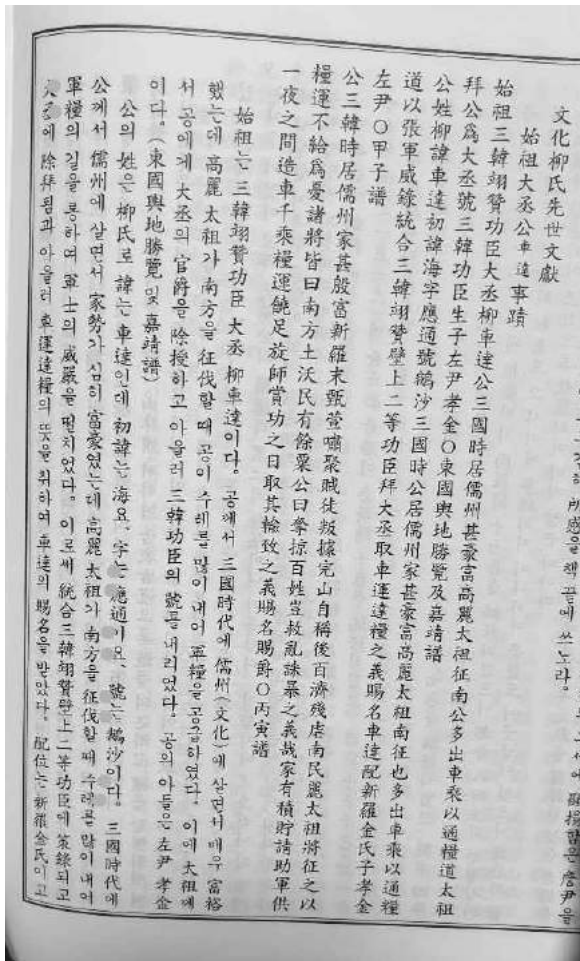
영남지방 학자들 학술대회나 지역사학자들 글을 보는 기회가 없지만 전남지방 학술대회에 참여한 영남지역 교수들 발표 내용을 접할 수 있고 현재 빈약한 류차달 자료에서 고창전투나 대야성 조물성 홍성 일리천전투에 류차달이 군량미와 수레를 제공한 큰 전투이지만 모두 고려 건국이후이고 수 많은 호족들이 앞다투어 군수물자를 제공 했기에 왕건이 궁예 장수로 있던 서남해안 전투가 류차달의 고려개국 2등공신 추대에 더 영향력이 있는 왕건에 대한 지원이기에 전남지방 학자들 서남해안 전투 논문이 류차달 연구에 비중이 더 있다.

2. 문화류씨 무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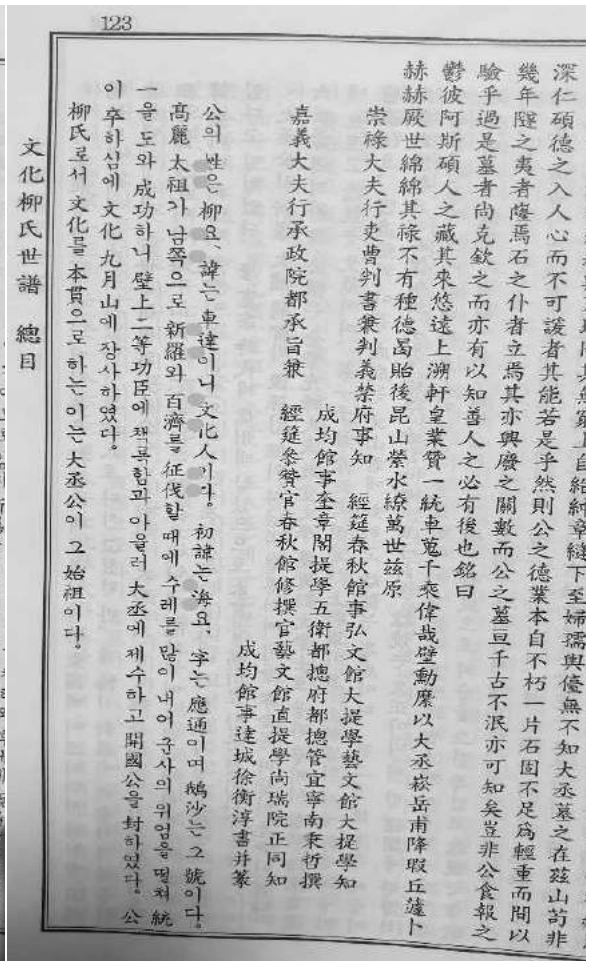
총목112쪽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공이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공급하였다”와 총목123쪽 南秉哲撰 신도비에 “태조가 남쪽으로 신라와 백제를 정벌할 때 수레를 많이 내어”의 문구를 글자 그대로 보면 의문점인 언제 어디서 왜 건훤과 전쟁할 때

인가? 신라 어느왕때 신라와 싸웠는가? 를 해결하기 위해 남도지방 사학계 글을 대승공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다.

문화류씨 무자보에서 총목 문화현현황(동국여지승람,55쪽) 원파록 삭제변(57쪽) 문화류씨구보 서발(83쪽), 시조대승공차달 사적(112쪽), 흥률사중수상량상소기서(113쪽), 목방사완복문(115쪽) 대승공묘갈개수문(120쪽) 등은 균량미와 수례에 대하여는 신도비와 같은 내용이다.



무자보 총목112쪽 대승공 사적



무자보 총목123쪽 대승공신도비

3. 전라도역사이야기-62. 왕건과 서남해 패권을 다룬 압해도 능창(수달)

남도일보 : 기획특집 전라도 역사이야기, 정유진 기자, 2018.11.04.(내용발췌)

① 압해도 인물 능창(※주석은 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의 설명임)

먼 옛날 전남 신안 압해도에 능창(能昌)은 수전(水戰)에 능하다 하여 수달(水獺)이라고 불렸습니다. 능창은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를 기반으로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장보고 장군이 암살된 후 그 공백기에 세력을 일으켜 세운 서남해 호족이었으나 왕건의 기습작전에 잡혀 궁예가 있는 철원으로 보내져 참수 당합니다. 장보고 이후 서남해안을 장악하고 호령했던 장수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최후였다.

한반도 서남해안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을 다녔고 군사력을 키워 약탈을 일삼는 왜구와 맞서 싸웠는데 지략과 용맹한 바다사나이들의 표상이 신라말기는 서해안 작제건 류천궁 등이며 후삼국초에는 남해안 능창이다.

서해안 남쪽은 능창이라는 인물이 황해도 지역은 패서 호족들이 동맹을 맺어 해적으로부터 해상세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② 남해안 바다사나이 능창

“전라도 1000년, 고려건국 1100년” 기념학술회의와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원(島嶼文化研究院) 원장을 비롯한 한국중세사학회 소속 교수들, 연구소, 박물관, 해군사관학교 교수 등 5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은 2018년 10월 12일 목포대학교에서 “왕건과 압해도 해상세력 수달 능창”을 비롯 “장보고의 해양유산” 등 주제발표에서 김명진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발표했던 “왕건과 압해도 해상세력 수달 능창”에 대한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압해송공산성 수달장군능창 기념비



능창의 해양세력권

왜구들의 침략에 맞서 섬(지금의 신안지역 일대)에 주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고 강성했던 왕건 군사에 맞설 정도로 힘을 키웠던 주인공에 대한 신안군민 존경의 표시가 능창기념비이며 김명진교수의 “능창의 해양세력권” 자료이다.

③ 압해도 및 고이도와 해양사 : 강봉룡교수의 수달장군 능창의 섬 압해도와 고이도 <신안문화 14, 2004 중 발췌>

“완도에 장보고가 있었다면 압해도에는 능창이 있었다.”는 강교수 글은 광주 서남계(西南界) 반남현 포구에 이르러 왕건 첩자가 적의 경계에 살폈고 압해현(壓海縣) 갈초도(葛草島)에서 적수(賊帥)를 생포했다는 “<高麗史> 卷1 太祖世家1 즉위전 기사”는 912년에 능창이 압해도를 근거로 왕건과 대립하다가 결국 왕건에게 생포되어 제거되는 과정을 전하는 내용이다.

능창은 서남해의 해양패권을 장악했던 장보고가 841년에 암살당한 후 반세기만에 장보고를 대신하여 서남해의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왕건 및 견훤 등과 쟁패를 벌인 유력한 독자적 해상세력이다.

<고려사>에 의거하여 왕건의 서남해지방 패권 장악 과정은 912년에 서남해 원정에 나선 왕건은 서남해지방의 중심 도서 중의 하나인 진도군을 점령하고 이어서 영산강하구의 압해도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 고이도(皐夷島)를 위복(威服)하여 영산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 셈이 되었다.

※주1 : 현재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만수리는 1895(고종32)년까지 진도군이었으니 왕건이 진도를 점령한 것은 덕진포전투와 관련이 있다.

견훤은 직접 진두지휘하여 전함을 목포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영산강 하구에 배치함으로써 왕건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나주세력과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난관에 봉착한 왕건은 바람을 이용한 화공책을 써서 견훤의 전함을 거의 전소시키고 완승을 거두었다. <고려사>에서는 이 해전에 대해 “삼한 땅의 태반을 궁예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이전부터 도서지역 공략을 중시하였는데 그 대표적 상대가 압해도와 그 해상세력인 능창(能昌)이었다.

서남해에서 고려 통일전쟁기에 지역 세력이자 해상세력으로 꼽을 수 있는 인물 및 가문은 여수현의 승주 박영규(朴英規) 영암 최지몽(崔知夢)가문 나주(錦城郡) 나총례와 장화왕후 오씨 가문 그리고 압해도 능창과 여러 섬에는 알려지지 않은 해상세력 및 작은 우두머리(소적小賊) 등도 있었다.

왕건의 선대 강호경과 강충은 원래 내륙에서 생활하며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집안

이었다가 강보육(왕건의 증조)의 대에 와서 해상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간다.

강보육의 부인인 진의(辰義)의 자궁에서 부터 용(龍)을 가문에 연결하는 것은 원래 평민 출신 집안이 점차 부를 갖추며 후대로 내려가면서 송악(개성)의 지역 세력이자 해상세력으로 뿌리 내렸던 시작 과정이 설명된 것이다.

왕건선대가 해상세력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던 때는 작제건代부터였고 가문의 제대로 된 용손 논리는 용건(왕룡)代부터 시작되어 왕건대에 완성되었다.

왕건이 궁예 휘하에서 장수로 활약하며 류천궁 류차달 오다련 등의 도움을 받아 나주 서남해를 바다 건너 공략한 것은 이러한 가문의 친 해상적인 분위기가 작용되었고 바다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었고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서해안지역은 정주 호족들 동맹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서남해안지역은 능창이 가장 큰 세력 이었다는 것이다.

영산강 하구에 있는 압해도는 서남해 뱃길과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내륙으로도 통하는 교통 요충지이며 군사적 거점 역할을 한 섬이다. 이 같은 압해도에 능창이 있어 왕건과 능창은 맞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903년에 왕건은 금성(나주)을 공략하여 금성은 궁예의 영역이 되었으며 909년에 왕건은 염해현(전남 영광군 염산면)에서 후백제 견훤이 오월국으로 들여보내는 배를 노획하고 같은 해에 진도(전남 진도)와 고이도(전남 완도군 고금도)를 점령하여 태봉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다음해인 910년에 견훤은 금성(나주 금성산성)을 포위 집중 공격을 가하였으나 실패하고 911년에 태봉 궁예는 왕건을 금성으로 보내어 다시 주변 일부 군현들을 되찾은 후에 금성을 나주라 하고 912년에 덕진포전투(전남 영암)가 벌어졌다.

912년에 능창은 갈초도(葛草島, 葛草渡, 전남 영광군 군남면 육창마을)에 있는 소적(小賊)과도 서로 연결하며 왕건을 해치려는 것을 왕건의 첩보망인 종첩(縱諜)에 능창의 이동로를 들켜어 잡혔다(도움말/김정호, 강봉룡, 박선홍, 노성태, 조광철).

- ※주2 : ○ 김정호(향토문화진흥원 이사장, 전 무등일보편집국장)
 ○ 박선홍(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장, 전 조대이사장)
 ○ 노성태(국제고 교사, 남도문화트래킹강사)
 ○ 조광철(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백창석(무안문화원장)

4. 전라도역사이야기-93. 나주읍성과 나주의 전통

남도일보 2019년 6월 30일 전라도역사이야기-93.나주읍성과 나주의 전통, 최혁(내용 발췌)

후삼국 시대 나주 일대 백성들은 지휘를 지지했다. 왕건과 견훤이 영산강 유역의 패권을 놓고 다툰 때 나주의 토호 오다련이 왕건의 편에 섰지만 영산강 유역 세력 대부분은 견훤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910년 오다련의 딸은 왕건 부인(장화왕후)이 된다. 장화왕후는 2년 뒤인 912년 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라 했는데 무는 고려 2대 왕인 혜종이 된다.

고려 제8대 임금 현종은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의 제2차 침입(1010년)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공주를 거쳐 나주까지 피신해왔다. 현종이 나주를 최종 피신처로 삼은 것은 나주가 고려왕실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나주시 대호동 금성산에 있는 심향사(尋香寺)는 현종이 나주에 머물 때 나라의 평안을 빌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도움말/김정호, 강봉룡, 박선홍, 노성태, 조광철).

5. 서남해방수군(西南海防戍軍) 세력

견훤은 서남해방수군 비장에 지위에서 독립하여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형성된 것이 서남해방수군세력이다.

견훤이 신라로부터 독립하여 한달만에 5000명의 세력을 모은 것에 비해 궁예는 600명으로 시작하여 강릉을 점령한 후에야 그 세력이 3500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점에서 견훤세력은 다른 세력과 다른 전문적인 군사세력이 군사적인 성향을 띄게 된 데에는 서남해방수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서남해방수군세력 출신은 순천 김총(金摠)과 호족 박영규(朴英規)이며 능창(能昌)이다. 능창은 삼국유사 거타지설화에서 후백제 해적 능창이 진도를 막고있다고 하여 후백제 해군이 해적활동을 하는 세력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을 볼때 능창과 그의 해적세력은 후백제정권과 오래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왕건은 나주정벌과정에서 나주에 완전정벌을 위해 후백제정권과 관련 있는 능창세력을 토벌한 것이다.

무진주(武珍州)는 후백제 첫 번째 수도로 892년에서 900년까지 8년간 후백제의 중심지로 있었던 곳으로 무진주를 기반으로 하는 무진주세력은 초기 후백제정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이었으나 903년 왕건이 이끄는 태봉군이 나주 군현을 공략하고 909년에 이르러 태봉이 나주를 완전히 점령함으로 태봉과 접경지역으로 그 중

요성이 커지게 된다.

910년에 왕건의 태봉군이 무진주를 공격했을 때 견훤의 사위인 지훤이 이를 격퇴함으로 무진주세력이 회복하게 된다.

견훤은 900년 완산주로 천도하고 903년 나주에 지배권을 상실한다.

901년 견훤이 대야성 공격 후 회군하면서 나주남쪽부락을 공략한 것은 완산주 천도에 불만을 품은 나주세력을 벌하기 위한 공격이다.

완산주는 후백제의 수도로써 후백제가 멸망할 때 까지 공격을 받지 않은 지역으로 이곳은 고려와는 인연이 없는 지역이었다.

완산주세력은 류법반으로<류방헌 묘지>에 전주승화현출신으로 벼슬이 우장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법반이외에 신검세력과 적대적인 금강세력은 완산주 출신이다.

전주 류법반 외조부 겸약은 신검정변이 발생하자 은거해 버렸다는데 그 영향력은 금강을 왕위계승자로 만들 정도로 컸다.

(출처 : 역사길라잡이카페/역사고급강의후백제정치세력연구, 최승우)

6. 전라도역사이야기-56. 무안 몽탄강(夢灘江)과 왕건(王建)

최혁 주필의 전라도역사이야기, 남도일보 2018.09.02.

① 몽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왕건

910년 견훤은 왕건이 지키고 있는 나주 성을 되찾기 위해 기병 3천명을 이끌고 나주를 쳐들어왔다.

왕건은 나주 동강의 몽송까지 밀려와 결국은 견훤 군사들에게 포위당했는데 앞에는 깊은 강물이었고 사방은 견훤 군사들이었다.

이때 왕건이 밤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백발노인이 말한 대로 넘실대던 영산강의 물이 줄어있었기에 급히 군사들을 강을 건너 무안 청용리 두대산을 향해 철수했다.

날이 밝자 왕건은 밀가루를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천(川)에 풀어 군사가 밥을 해먹기 위해 씻은 쌀 뜨물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한편 견훤은 날이 밝자 왕건을 공격할 생각으로 왕건의 진영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다.

견훤은 급히 군사를 이끌고 왕건의 뒤를 쫓았는데 영산강 상류 쪽에서 쌀뜨물 같은 것이 흘러오는 것을 보고 왕건의 군사들이 많을거라 견훤 군사들이 겁을 먹은 그때 두대산 양쪽에 숨어있던 왕건의 군사들이 기습공격을 가해와 왕건의 매복에 걸리

고 만 것이다.

이 전투에서 견훤은 참패당하고 왕건은 꿈속에 나타난 도인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이후로 현재의 몽탄교가 있는 영산강 유역을 꿈 夢 여울灘을 써서 몽탄강(夢灘江)이라 했다(도움말/김정호, 강봉룡, 박선홍, 노성태, 조광철).

※주3 : 류차달이 왕건에게 군량을 점령지에서 조달하면 천심을 얻지 못한다면 패서호족들이 군량을 지원했는데 몽탄진 전투에서 점령지 백성들에게 밀가루를 징발합니다. 밀가루 외 군수품은 류차달의 지원이다.

② 광주에서 벌어진 왕건과 견훤의 전투

나주공략에 성공한 왕건은 차츰차츰 군사를 내륙으로 진격시켜서 영산강과 서창들녘 광주천 하류의 너른 들에서는 왕건과 견훤 군사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왕건은 지금의 서창 들녘 쪽 산(사월산 혹은 백마산)에 진을 치고 견훤은 운암동 일대 산(대마산)에 군사를 배치했는데 왕건이 진을 친 곳을 왕조대(王祖臺,王建臺), 견훤의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을 견훤대(甄萱臺)라 부른다.

광주전투는 사월산(獅月山)과 대마산의 중간 지점인 지금의 치평동(상무대)일대에서 벌어진다.

◎ 출처 : 한국역사연구회(남도사람들) : 서남해지역에서 벌인 왕건과 견훤의 쟁패

7. 덕진포 해전(德津浦 海戰)

덕진포 해전(德津浦 海戰)영암의 숨결을 찾아(2)<영암문화원 제공>
영암신문 2017.06.25.(내용발췌)

① 황포돛대가 넘쳐났던 덕진포

1930년대 덕진포에는 황포돛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나들었다.

바람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갔다.

황포돛대가 닿은 곳은 덕진포 외에도 후삼국시대 국제항 상대포(군서면), 매월리 석포(학산면), 성재포구(서호면), 해창포구(도포면), 영암 배날리 포구(영암읍) 등이 있었다.

② 천혜 요새 덕진포를 장악

바다와 이어지는 이곳은 소금이 나오고 연안에 가득 널려있는 갯벌에서는 각종 수산물이 풍부했으며 평야에서는 질 좋은 미곡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철기시대 마한 세력은 이곳에서 수백년 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뱃사람 못지않게 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바다 건너 먼 곳까지 진

출했다.

장보고의 오른팔 장수 정년 장군이 덕진포 선암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선암마을은 무장골이라고도 한다.

※주4 : 영암 덕진면 운암리 선암(船岩)마을에 장보고 출생 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선암마을은 지금은 내륙이지만 조선시대까지 마을 앞 바위에 배를 매었다는 선암이 있는 포구다. 완도 장좌리 장도의 당제(堂祭)를 모시는 당집의 주신은 송징 장군, 우측은 정년 장군, 좌측은 헤일대사가 배향되어 있다. 장보고는 1982년에 이르러서야 배향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846년 장보고가 사망하고 그를 추종하던 장수들이 대부분 송악(개성) 인근 정주해안으로 옮겨 활동하게 된다.

③ 왕건은 903년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안으로 진출.

송악출신 왕건은 청해진에서 활동했던 장수의 후손들 중에 정주로 옮겨온 세력과 친분을 쌓아 나주(영암) 해상세력과 연줄을 잡았다.

왕건은 집안에 내려온 도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영암 상대포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으나 후백제의 견훤은 이지역을 명목상 지배하고 있었으나 토착 성주를 확실하게 포용하지 못했고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진 해상인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다.

왕건은 서남해 해상인의 지원에 힘입어 이 지역 10개 군현과 금성을 점령하여 병력을 상주시키고 지명을 나주로 개칭하고 909년 2차 출병하여 무안군 해제면에서 견훤의 배를 빼앗고 신안군과 진도군을 차지한다.

④ 서남해 섬지역을 차지한 왕건은 내륙으로 눈을 돌린다.

왕건은 3천여 수군병력을 동원하여 견훤이 막고 있던 군사적 요충지 덕진포로 향한다. 하지만 견훤이 목포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수로 곳곳에 중요한 길목마다 군사를 숨겨놓고 수륙 협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⑤ 왕건 덕진포 해전 승리

912년 여름 밀물이 들기 시작하고 바람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된 갯바람을 타고 왕건의 수군은 덕진포를 향해 출발한다.

덕진포구를 향해 은밀히 항해하던 왕건의 수군은 영암천에 이르러 진을 짜고 기다리던 견훤의 공격을 받는다.

왕건은 공포에 질린 부하들을 독려하며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불화살을 날리니 견훤의 군대는 불길에 싸여 혼비백산한다.

덕진포 해전의 승리로 왕건은 과거 장보고가 차지했던 서남해 연안의 제해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⑥ 신북 마산과 월평리 여석산

왕건은 해전 승리의 기세를 몰아 병선을 덕진에서 서호 목포 몽탄에 이르는 요충지에 배치하고 자신은 신북면 마산에 진지를 구축한다.

마산은 덕진포에서 8km 거리이며 견훤이 흠어진 병사를 모아 은거하고 있던 반남현 자미산성으로부터 또한 8km 거리에 있다.

왕건과 견훤 군사는 마산과 자미산성 사이에 치열한 전투를 벌린다.

덕진포에서 신북으로 향하다 보면 우측으로 마산이 보이고 그 아래 작은 방죽이 나온다. 방죽은 군사들이 말에게 물을 먹이는 곳으로 말물통이며 마산 아래 박골은 옛날 군사들이 훈련했던 곳이다.

※주5 : 왕건 주둔지 마산(왕건의 馬이 있었던 곳)은 모산앞 이목동에 있는 해발 150m산이며 말물통은 이목동저수지(냉천지 만들기 전에 저수지 가운데 물통이 있었음)자리이고 박골은 이목동저수지 위 떨국재와 마산아래 떡고개 부근이며 명동리 행군봉(왕건 군대가 행군했던 산)을 지나서 신북면 이천리4구 부선장터(영암석재부근)에서 반남 자미산성에서 온 견훤과 전투를 하였고 왕건 군대 군수품인 칼과 창을 갈았던 숫돌은 여석산에서 공급했다. 덕진포 전투가 912년 이므로 후삼국 통일한 936년까지 24년 시간차가 있기에 마산에 20년 이상 왕건군대가 주둔했다.

왕건이 주둔했던 마산으로부터 북쪽으로 1km 정도 가다보면 신북면 소재지가 나오고 소재지 약간 지나 좌측에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숫돌이 나온다하여 숫돌뫼 또는 여석산(礪石山)이라 부른다(영암문화원/문화마당/회원마당/26번글 : 김인창 덕진포해전).

왕건의 군대가 이곳에서 생산된 숫돌로 칼을 갈아 견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전설로 인해 이곳의 숫돌은 유명세를 탔고 어찌나 많은 숫돌을 파냈던지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고 그 깊이가 명주실 한 소쿠리가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여석산 중심으로 왕건과 견훤은 밀고 당기는 싸움을 10년간 계속했으며 여석산 쌍패놀이는 당시 치열한 전투의 모습을 농악으로 재현한 것이다.

여석산 쌍패놀이는 탐색 진군 접전 화해로 통하는 구성을 통해 전쟁의 긴장감을 불러넣는 군사적 전술을 농악에 이용한 호남 우도농악이다.



몽탄나루터가 있던 몽탄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권라 - 제주편



사진 중앙을 보면 덕진교가 있는데 덕진포는 그것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권라 - 제주편

※ 몽탄진에 전승지 파천군 진지(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하몽탄) 가 있음

※호산아래 북일면(신북면 월평리) 북이면(세지면 탐동)이 보임

여석산 쌍패 농악은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에서 왕건이 군사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린 역사적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전투 모습을 농악으로 승화시켜 놀이로 전승된 쌍패 농악은 1996년 사단 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들이 결성하였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초대 회장은 문미순(류부열 교장부인)으로 농악 이외에 영암 문화원에서 입춤과 부채춤 등을 배운 이력이 있다. 남도 문화제에 총 3회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 하였다. 2010년 제37회 전남 민속 예술제 일반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석산 쌍패 농악은 현재 신북면의 대표적인 농악 단체이다.

8. 결론

① 장보고가 841년 피살된후 반세기(910년) 동안 장보고를 대신한 서남해안 세력은 서해안은 패서호족 동맹세력이고 남해안은 능창이다.

841년부터 910년까지 패서호족들이 4해황제동맹을 결성하고 서해안호족을 포섭해 나가서 능창 세력권과 4해황제 세력이 충돌하게 된다.

작제건의 친해안적인 분위기가 작용(4해형제동맹)하여 서해안 호족들이 견훤에 우호적이지 않아 견훤이 900년 수도를 완산주로 옮긴후 901년 대야성(합천)을 공격하고 회군하면서 나주남쪽을 공략한다.

909년 염해현(영광 염산면)에 견훤의 배가 오월국으로 간다고 항로를 알려준 세력

과 912년 영광 군남면 육창마을 해적과 연락하여 왕건을 처치하려는 능창 이동 경로를 왕건에게 알려준 남해안 해상호족 세력은 작제건에 우호적인 4해황제동맹 호족 일부이다.

② 왕건이 서남해상세력호족과 소적(小賊) 견훤 능창 등과 나주전투 염해현에서 견훤의 배를 노획하고 진도 완도를 점령, 덕진포전투 등에서 왕건 장수를 적극지원한 세력은 류차달家와 작제건이 해상무역을 하면서 맺어진 해안호족 인연이다

③ 족보 大丞公車達事蹟에서 “고려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공이 수레를 많이 내어 군량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모산어른신들의 구전을 문헌에서 찾아보고 왕건 주변 인물의 종종 비문과 사학자들 학술대회 자료를 정리한 결과 류차달이 왕건에게 군량미를 제공한 시기와 대승공이 태조에게 군량미를 제공한 시기로 나누어 진다.

④ 896년 왕건 가문이 궁예에게 귀부하였고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며 903년 왕건의 나주 공략부터 916년 대야성 전투까지 궁예 휘하에서 수많은 전투에 1등공신 5명이 왕건과 함께 참여하고 2등공신중에 류차달이 군량미(양천허씨 시조 허선문도 군량미를 제공함)를 지원했지만 류차달과 작제건의 동맹으로 연결된 금성 태수 나종례 영광호족 전종회와 서남해안 해상무역상들의 왕건 지원이 개국공신에 영향을 주었고 왕건 장인 인 류천궁 오다련 등이 가병을 지원 했지만 나머지 2등 공신들은 918년 고려 건국후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靈巖郡 參事 柳秉夏南坡公의 行蹟



文化柳氏 夏/光州宗親會長 柳 在 均

1. 서론

컴퓨터 등의 기록자료에서 參奉, 參議로 잘 못 기록된 漢文의 表記를 族譜나 教旨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參奉 參議로 表記할 것을 권하며 명열님 재열님 경오님 상훈님의 曾祖이신 諱 秉夏 南坡公께서 신북면사무소에 功德碑가 있다는 족보기록과 후손들이 直長(종7품)이라고 하여 축문에 직장으로 표기해 時祭를 모셨는 바 직장은 궁중관직으로 지방에 없는 관직이기에 바른 관직으로 축문을 수정하고자 연구한 자료이기에 이 글에서 언급되는 傍系先祖 후손들의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2. 나주군 영암군 행정기관

1895년(고종32)에 23부 341군으로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나주(관찰)부였으나 현재의 신북면 주변은 나주부 비읍면, 종남면, 원정면, 금마면(아천근방) 북이종면 등이 있었다.

- ① 비읍면은 모산(이목동포함) 유곡 갈곡 학동 양계 종오 우정 지역이고
- ② 북이종면은 금수 장산 명동 이천(구장터 천동 신덕동 연동) 월평 행정 월지 덕림 지역이며
- ③ 북일종면은 탑동(세지) 호산, 도포(원항 용호 덕화 구학 등), 종남면은 북용동 등 (시종 내동 만수는 진도군임), 반남면은 평촌 성덕 하촌 등, 원종면은 용산 등, 세화면은 황계, 북서이면은 월송 월룡 등이다.

3. 신북면 역사

- ① 대한제국(1897.10.12. - 1910.08.29) 시대인 1895년(고종32)까지 8도(전라좌우도)를 13도(전라남도)로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부(府) 군(郡) 면(面)으로 면장(面長) 리정(里正 이장)을 두고 지방민을 면장 里正으로 임명하였다.
- ② 1896년 나주군에 속했던 비음면(非音面)을 대한제국은 영암군 비음면으로 개편하여 1910년 한일합방까지 이어졌다.
- ③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군수와 군수아래 군참사(郡參事) 2명과 면장 里正을 전원 총독부 군수 군참사 면장 里正으로 임명하였는데 휘 秉夏 선조께서는 군참사를 역임하셨다.
- ④ 1914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신북면(新北面)이라 개칭하고 신북면은 갈곡(葛谷) 학동(鶴洞) 양계(兩溪) 모산(茅山) 금수(金水) 유곡(酉谷) 장산(長山) 명동(明洞) 이천(梨泉) 월평(月坪) 행정(杏亭) 월지(月池)의 12개 법정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 금정면에 속하였던 용산(龍山)리를 신북면으로 편입하여 13개 리를 관할하는 신북면이 되었다.
- ⑤ 1896년 이전까지 나주군 비음면 모산 12동네는 청룡(靑龍) 송파(松坡) 산정(山亭) 천동(泉洞샘물) 벽촌(碧村) 백동(栢洞) 구만동(九萬洞) 송내(松內솔밭) 춘교(春橋) 구암(龜岩구암촌) 이목동(梨木洞) 통산(通山, 현재 이목동회관마을)인데 백동과 춘교는 폐촌되고 1914년 이목동과 통산은 이천리로 편입되었다. 현재 모산리는 산정 천동 벽촌(선애마을터) 구만동 송내 구암으로 모산1구(산정) 모산2구(구암)으로 구별한다.

4. 신북면장 탐구

- ① 하정파보 2권 441쪽에 의하면 명열님 재열님 경오님 상훈님의 증조이신 휘 秉夏(대승공 29세, 하정공16세) 先祖는 “성후유문행응시중망계미겸황다홀인명향리칭선수비(性厚有文行應時衆望癸未歉荒多恤人命鄉里稱善豎碑) 성품이 후덕하여 학문으로 추천될 때 여러분이 기대하여 존경하였다. 1883년(33살, 고종20년 癸未) 흥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휼하였으며 퇴임후 고향에 면민들이 선정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1891년(고종28, 41살) 효자(孝子)로서 정려(旌閭)받고 훈몽교관(訓蒙敎官, 종9품)에 임명되시고, 1896(고종33)년 전남도 영암군으로 개편되면서 휘 秉夏(1851-1929) 先祖

께서 영암군참사(靈巖郡叅事)에 임명되었고 비읍면 원정면 금마면 종남면 북이종면 북일종면을 관장하게 된다.

1910년 항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관리를 그대로 임명하여 1913년까지 군참사를 역임하게 된다.

1914년 나주군과 영암군에 행정구역을 비읍면+북이종면+북일종면 일부+반남면 일부+세화면 일부를 신북면으로 개편하고, ㉠마면+원정면=금정면으로, 북이시면+종남면=시종면으로 개편하였으며 1973년 금정면 용산을 신북면으로 편입하였다. 조선총독부는 3차에 걸쳐서 218군 2908면으로 축소하고 도참사와 군참사 권한을 자문기관으로 격하시킨다.

5. 夏亭公 후손의 신북면장 역임 先祖

① 대한민국 신북면장

류인흥(柳寅興) 재임기간 1948. 08. 05 ~ 1952. 04. 05

류형열(柳亨烈) 1960. 12. 11 ~ 1961. 05. 26

류동열(柳東烈) 1968. 08. 06 ~ 1973. 03. 08

류웅(柳雄) 1988. 11. 14 ~ 1995. 11. 17

② 조선 말, 대한제국 신북면장

㉠ 휘 秉夏(1851-1929) 先祖가 영암군참사(靈巖郡叅事)에 임명되었고 비읍면 등을 관장한다.

㉡ 휘 敬淵 先祖(하정보1권 565쪽)께서 族譜에 참봉과 송덕비가 있다는 족보 기록이 있다.

㉢ 휘 寅龜 先祖(하정보1권 695쪽)께서 族譜에 성품이 단정하고 유망하다는 족보 기록이 있다.



(신북면사무소 휘경연선조 시혜불망비)



(신북면사무소 휘인구선조 의적비)

6. 신북면장 공덕비

- ① 신북면사무소에 있는 전임 면장 공덕비에 경연(敬淵, 哲宗壬子, 哲宗3년 1852-1924) 施惠不忘碑(배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비석)
- ② 인구(寅龜, 高宗乙未, 高宗32년 1895-1955) 懿績碑(훌륭한 功勳 비석)
- ③ 병하(秉夏, 哲宗辛亥, 哲宗2년, 1851-1929, 군참사) 족보에 향리칭선수비(鄉里稱善 豎碑, 고향 마을에 훌륭하다고 칭찬하여 비석을 세우다) : 면사무소에 있는 비석을 해방후 6.25때 파손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7. 秉夏 先祖가 친일관료라는 오해

친일파 李康元은 1906년 6월 健陵參奉 8월 全州郡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현 교장) 1912년 全州郡 參事 1915년 全羅北道 參事에 이어 朝鮮總督府 中樞院 參議가 되고 조휘열은 1922년 구장(현 이장) 1926년 성산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1939년 조선군

출동부대장의 위문금 흠병금(恤兵金)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다(친일행정자료전복편)는 자료처럼 친일파 관료는 대한제국에서 학무위원이나 참사를 역임하다가 조선총독부 참의나 중추원이 되거나 군부대에 협조하였거나 도나 군의 자문위원(참사)를 역임해야 하는데 휘 秉夏先祖는 한일합방된 1910년부터 1914년 이전까지 군 참사를 하셨으나 후손들이 다른 문중 자료를 보고 1914년 이후 참사는 친일파 관리라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여 1914년 이전 관리는 친일관직이 아닌데 일부 주민에 의해 공덕비가 파손되었다.

秉夏 先祖는 조선말에 관리로 임명되었고 한일합방후에도 조선총독부가 신민정책을 시행하기전에 퇴직하셨는데 당시 후손들도 잘 못 이해하여 묘 상석에 관직을 기록하지 않고 “學生”으로 하였다.



(영암군 참사 휘 병하 선조 묘 상석)

8.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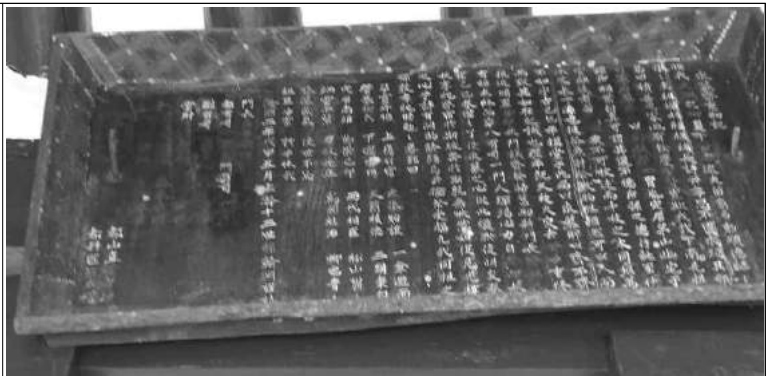
- ① 秉夏 先祖는 비읍면장, 경연 인구 선조께서 면장을 하셨다는데 조선말기, 대한제국, 일제 감정기에도 면장이며 이들 세분이 면장을 하셨다는 구전과 신북면 사무소에 공덕비(경연 인구)가 있고 서당동 제각인 영모재 중수에 병하선조가 유사를 하셨고 병하 부인(택호 : 이동택)께서 영모재(永慕齋) 서당동에 대형 가마솥을 마련하여 중수에 참여한 인부에 식사를 제공 했다는데 기록과 비석을 찾을 수 없었고 口傳(수택 회장 모친 월산택 증언)으로 전해온 내용을 대한제국 지방 관제 자료로 확인하였다. 秉夏 선조는 후손들이 직장(直長, 종7품)이라 해서 시제 때 “직장 류공”으로 축문을

썼는데 군참사(종6품, 6개면 관장)로 수정하려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대한제국에서 영암군 참사로 임명될 때는 종6품이었지만 한일합방이후 1910년 8월부터 지방 행정구역 개편한 1914년 4월 1일 이전까지 조선총복부 영암군 참사는 품계가 없는 영암군 참사이기에 축문에 “顯 曾祖考 郡叅事南坡公府君 神位, 顯 曾祖妣 宜人全州李氏 神位”로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郡叅事は 종6품, 宜人是 6품 부인의 품계이다.

44	二十一世	<p>慎仲 신중 一 卷</p> <p>字時用宣祖十一年 戊寅正月二十日生 早襲庭訓孝友成性 受業于叔祖清溪公 學業稍進遠大之期 時年二十娶婦未及 于歸而父歿未復自 處罪人者蔽陽子平</p>
	二十二世	<p>子攀 반</p> <p>字子雲號晚翠光海 十一年己未六月二 十五日辰時生己酉 進士與弟彬聯壁蔭 義禁府都事青岩道 察訪宗廟署直長丙 子亂中景禎勤以扈 從以親老仍辭中公</p>
	二十三世	<p>子漢徵 한징</p> <p>字叔起號永慕齋仁 祖二十一年癸未正 月二十四日生受業 于尤菴宋時烈門學 問精粹先生稱謂親 題堂號曰永慕齋又 書敬齋篋一部給焉 癸亥增廣進士丙寅</p>
한징선조 호 영모재		



영모재 중수기

영모재는 4번 중수했는데 3번째 중수한 응희2년 중수기

- ※ (1908년 대한제국 순종2년) 무신년 중수기, 문장 가선 병연(乘連) 도유사 병문(秉文) 문유사(秉夏), 부유사, 장재 참봉 경연(敬淵, 참의 공후) 춘연(春淵, 사고당후)을 확인했는데
- ※ 乘連 秉文은 동명 이인이 많아 아직 어느 집안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 ※ 부유사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다음에 사다리를 가져가서 근접하여 보면 확인 수 있을 것임.

※ 문장은 현재로 보면 고문이고, 도유사는 종회장, 문유사는 총무, 부유사는 부총무(간사), 장재는 재무입니다. 敬淵 秉夏선조는 조선말 면장이다.

- ② 모강공 장남 참의공 고손 한징(漢徵)의 湖가 영수재이기에 모강공 재각을 永慕齋라 하였다.
- ③ 서당동 모강공 묘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원정면이었다. 금정면은 나주군 금마면(金磨面)과 나주군 원정면(元正面) 그리고 나주군 세화면(細花面) 임천리(林泉里)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조선 高宗32년(1894년)에 지방관제 개편으로 영암군에 편입하여 1914년 4월1일 군 읍 면 폐합에 따라 금정면(金井面)이라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서당동은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이다. 병하 선조가 1908년 대한제

국 영모재 중수 때 문유사로 참여하셨다.



永慕齋



모강公 묘역 위치도

大丞公15世 部令柳公(諱 江生)의 記錄



文化柳氏 忠/部令公宗中會長 柳 在 仲

◆ 文化柳氏世譜 기록(2008년 戊子譜)

定宗己卯十二月十二日生蔭仕功臣都監錄事奉訓郎楊口縣監陞通訓大夫行漢城府南部令世宗癸卯落南于湖西鎮岑縣文宗辛未十二月廿一日卒 墓大德郡鎮岑面元防築洞後麓子坐. 정종기묘십이월십이일생으사공신도감록사봉훈랑양구현감승통훈대부행한성부남부령세종계묘락남우호서진잠현문종신미십이월입일일졸 묘덕군진잠면원방축동후록자좌.

配固城李氏副判事云老祖判厚德府事貴生曾祖侍中琳高祖桃村嶠外祖摠制慶州李臺育二男 墓公墓階下子坐. 配濟州高氏父府尹得宗 墓公墓合窆有碣族后孫承旨寅哲撰文參奉沈相允書.

배고성이씨부판사윤로조판후덕부사귀생증조시증림고조도촌교외조총제경주이전육2남 묘공묘계하자좌. 배제주고씨부부윤득증 묘공묘합편유갈족후손승지인철찬문참봉심 상윤서.

(譯文)

◆ 朝鮮 定宗2년(1399 己卯)12월 12일 忠景公(휘 亮)의 4남으로 忠景公께서 江陵大都護府使로 계실 때 태어나서 文宗2년(1451 辛未) 12월 21일에 졸하셨다.

公은 太宗14년(1413 癸巳) 15세에 부친께서 議政府 贊成事로 계실 때 의정부에서 선발되어 功臣都監廳 錄事가 되어 門蔭으로 出仕하였다. 太宗17년(1416 丙申) 4월 3일 18세에 부친 忠景公께서 향년 62세로 기세(棄世)하셨다.

☞【참고 : 承文院 副校理 설순씨(偈循氏)가 쓴 忠景公 行狀에 기록되어 있다】

公께서는 錄事로 514일간의 근무를 마치고 만기로 退官 후 太宗18년 정유(丁

西1417) 19세에 地方首令 채용시험에 합격함으로 奉訓郎의 品階를 받아 楊口縣監으로 부임하여 善政을 베풀어 聲望이 울연(蔚然)한 업적을 남겼으며, 世宗 4년 신축(辛丑1421)년에 內職으로 還京하게 되자 縣의 吏民들이 公의 수레를 붙잡고 길을 막으며 이별을 아쉬워했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 : 國史百科事典】

公은 世宗4년(23세 1421 辛丑)에 通訓大夫의 品階를 받아 漢城府 南部令으로 승진하여 內職으로 옮겼다.

【참고 : 서울에는 五部가 있었으며, 지금의 區廳長】

世宗6년(25세 1423 癸卯) 5月 15日 司憲府에서 계하기를 “前 部令 柳江生이 역적任君禮에게 속천(屬賤)된 여자 화사지(火沙只)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았으니, 청컨대 罪를 주소서”하니, 직첩(職牒)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라고 命하였다.

☞【참고 : 朝鮮王朝實錄 세종 20권, 6년(1423 癸卯/명 永樂 21년 5월 15일(갑오) 3번째 기사 전 部令 柳江生을 외방에 부처하다. 世宗實錄 541면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 : 忠景公 별세 후 실세가 바뀌어 忠景公의 過去(계림 왜구 무고사건)를 모략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太宗16년 7월, 太宗18년 8월, 世宗4년 5월에 部令公께서 境內에 있었던 逆적 任君禮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公을 제거하고자 문제삼는 자들이 있었음】

世宗21년(1438 戊午) 40세 6月 27日에 忠義衛行司正 : 정7품 박거완(朴去頑)과 부사 직(副司直 : 종5품) 柳江生 등이 出仕를 다투다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니, 忠勳司의 제조(提調) 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 宋居信이 상언하기를 “忠義衛는 다른 성중(成衆)에 비할 바 아니어서 부자 형제가 모두 한 衛에 합숙되어 있사온데 의리를 잊고 이익만을 탐하여 서로 헐뜯고 비방하게 되면 후일 형제, 숙질간에도 다투어 관직을 바라고서 풍속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게 될 우려가 있사오니 박거완과 류강생 등은 우선 전의 출사한 것을 삭제해 버리게 하고 후일에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겨우, 역시 衛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또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에 각 번(番) 掌務에게 전임시키는 것도 온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제조로 하여금 추천장을 제출하게 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매, 병조에서 아뢰기를 “계달한 그대로 시행하여 마땅합니다. 다만 류강생과 박거완의 전일근무 일수의 삭제는 하지 말고서 세 도목(都目)을 넘기게 하고, 이제부터 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역시 세 도목을 넘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고 : 朝鮮王朝實錄 世宗 81권, 21년(1438 戊午/명 정통(正統) 3년) 6월 27일(己卯) 4번째기사 宋居信이 忠義衛의 출사자는 그 제조의 추천장을 제출하게 할 것을 상언하다】

世宗21년(1438 戊午) 40세 이후에 투불낙남(投絨落南) 즉 낙향을 하셨다.

☞【참고 : 정치에 환멸을 느끼시고 투불낙남(投絨落南 : 官職을 버림) 하시었다】

世宗23년(1440 庚申) 公께서 42세에 자(子) 신(紳)을 출생하셨다.

☞【참고 : 대사헌 하연씨(河演氏)가 쓴 忠景公 墓誌銘에 “강생남부령취판사이운노여생이남”(江生南部

令娶判事李云老女生二男)이라고 記錄되었음]

公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漢城에서 配 固城李氏와 湖西의 명승지인 진잠현(鎭岑縣)으로 낙남하신 후 固城李氏께서 별세하시자 後配 濟州高氏와 재혼하여 동거하시다가 朝鮮國 文宗2년(1451 辛未)12월 21일에 53세를 一期로 逝世하시니 향년 53세이다.

【※ 당시 次子 紳의 나이는 12세이었다】

익년 端宗원년(1452 壬申) 閏 9月 11日 湖西의 진잠현 서계룡산 낙맥 방축동 후록침자(鎭岑縣 西鷄龍山 落脉 坊築洞 後麓 枕子)의 子坐原에 안장되었다.

配位 淑人固城李氏는 判事 윤노(云老)의 따님으로 墓는 公의 墓階下 子坐이시고 繼配 淑人濟州高氏는 府事 得宗의 따님으로 墓는 祔左에 안장되시었다.

墓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산 101번지이며, 齋室은 방동 589-1(도로명주소 : 유성구 계백로 323번길 112-12)이며, 교통편으로 기차는 계룡시 계룡역에서 하차하고 享祀日은 음력 10월 9일이다.

固城李氏 소생으로 슬하에 2남을 두셨는데, 장자 수(綏)는 佐翼功臣 副正이며, 차자 紳은 절충장군충좌위대호군(折衝將軍忠佐衛大護軍)이다.

朝鮮國 제24대 憲宗4년(1837 丁酉)에 公의 기세후(棄世后) 386年만에 심봉수갈(尋封豎喝) 立碑하였으며, 임시정부 27년 병자(丙子 1936)년에 1차, 대한민국 60년 정해(丁亥 2007)에 2차 墓碑가 세구(歲久) 이룩(而泐)하여 다시 豎碑하였다.

☞【참고 : 公의 비문에 “功臣都監錄事에서 楊口縣監을 거쳐 漢城府南部令이 되어 通訓大夫의 품계를 받으시고 忠義衛 副司直을 역임하신 것으로 逆記되어 있고, 公의 “가적(嘉蹟)과 의행(懿行)이 가히 전할만한 것이 없지 안 을 것이나, 문헌을 증거할 수 없어 한스러울 뿐이다” 했으니 確白한 문헌 조사와 序가 분명한 官職의 구별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公께서 세거하신 진잠현(鎭岑縣)이란 지명을 소개하면, 삼한시대에는 신흠국(臣鬯國). 삼국시대에는 진현현(眞峴縣) 정현(貞峴). 통일신라시대에는 진령현(鎭領縣).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진잠현(鎭岑縣). 대한제국시대에는 진잠군(鎭岑郡). 1945년에는 대전부(大田府). 현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으로 개칭되었다.

褒彰完議文



文化柳氏 忠/少 芳峴宗中會長 柳 在 成

褒彰完議文

本所創建 先聖廟重刊五倫行實以爲尊 聖獎善而列郡單子次第來到中謹按忠南有司及多士薦狀則本道大田郡炭洞面芳峴里居士人柳寅夏系出文化始祖諱車達號鵝沙高麗統合三韓翊贊壁上二等功臣官至大丞相累傳至諱亮策我 太宗佐命功臣官至右議政文城府院君諡忠景寔寅夏之十七世祖也曾祖諱源輔副護軍祖諱仁根父諱基泰通政也寅夏則五兄弟居其三而伯兄曰寅勳次兄曰寅羲弟曰寅商寅洙也五兄弟孝友尤篤皆以有好施之仁性而寅夏居最也當隆熙二年春五兄弟合資捐田土十餘石落使貧族窮交隨其程度而分給居隣間哀慶助護可謂常行事而不可盡言也嗚乎其伯兄當年三十餘不幸夭逝其次兄又四十餘歲早歿與弟三兄弟同閉式相好矣無相猶矣噫爲其慈善者從古何限而若寅夏之五兄弟德義今古罕有而况文衰道喪之此時代乎亦可以不瞻之財產者哉聲譽藉騰雖不知之人聞風而莫不稱嘖公議峻發立石表德也然而時不利兮無路表宅寧不慨歎於是本所聞而感興先付鉞梓使之繼建閣碑壽芳名廣美風以圖不朽之意成此完議文事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九年戊辰五月 日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淵源儒林鄉約本所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본소(本所)에서 선성묘(先聖廟)를 창건하여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중간함은 성현(聖賢)을 존송하고 선행(善行)을 권장하고자 함인바, 여러 고을에서 단자(單子)가 차례로 다다르고 있는 중에 삼가 충청남도(忠淸南道) 유사(有司) 및 많은 선비들의 찬장(薦狀)을 살펴보겠다.

본도 대전군 탄동면 방현리(大田郡 炭洞面 芳峴里)에 거주하는 선비 류인하(柳寅夏)의 계통은 문화(文化)에서 나왔다.

시조(始祖) 휘 차달(諱 車達)은 호 아사(號 鵝沙)인데 고려(高麗) 통합삼한익찬벽상 이등공신(統合三韓翊贊壁上二等功臣)으로 관직이 대승상(大丞相)에 이르렀다.

여러 대(代)를 전하여 휘 량(諱 亮)은 우리 조선(朝鮮) 태종(太宗)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어 관직이 우의정(右議政)에 이르고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봉하여 시호 충경(諡號 忠景)이니 바로 인하(寅夏)의 십칠세조(十七世祖)이다.

증조(曾祖)는 휘 원보(諱 源輔)니 부호군(副護軍)이요, 조(祖)는 휘 인근(諱 仁根)이요, 부(父)는 휘 기태(諱 基泰)니 통정대부(通政大夫)이다.

인하(寅夏)는 5형제 중에 셋째이다. 백형(伯兄)은 인훈(寅勳)이요, 다음 형은 인희(寅羲)요, 아우는 인상(寅商)과 인수(寅洙)이다. 5형제가 효성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고 모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어진 성품이 있었는데 인하가 가장 뛰어났었다.

융희(隆熙 : 純宗) 2년(戊申 : 1908)봄에 5형제가 자본을 합쳐 전토(田土) 십여석락(十餘石落 : 100여 두락)을 내놓고 빈한한 일가와 곤궁한 친구에게 생활 정도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웃의 애경사(哀慶事)에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은 항상 하는 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다.

아아! 그 백형이 나이 30여세에 불행히 죽고, 그 다음 형 또한 40여세에 죽었던 바, 남은 3형제가 같은 담장 사이에 살면서 서로 우애함이 더할 수 없었다.

아아! 그 자선(慈善) 곧, 선의를 베풀었던 사례(事例)를 예전부터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은 인하(寅夏) 5형제와 같은 덕의(德義)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드문 바이다. 하물며 글이 쇠해지고 도의가 없어진 이 시대요, 또한 넉넉하지 못한 재산(財産)으로서야! 훌륭한 명성이 드높아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소문을 듣고 칭송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공의(公議 : 公論)가 높이 일어나 비석을 세워 덕의(德義)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되,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아 표택(表宅 : 旌閭)을 세울 길이 없으니 어찌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본소(本所)에서 그 사실을 듣고 감흥(感興 : 感動)이 되어 먼저 책에 올리고 이어 비각(碑閣)을 세워 훌륭한 이름을 오래토록 전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널리 알려 불후(不朽 : 永遠)히 전하도록 할 뜻으로 이 완의문(完議文)을 작성한다.

공부자(孔夫子)께서 탄강(誕降 : 出生)하신지 2479년 무진(戊辰 : 1928) 5월 일

공부자성적도 속수오륜행실중간 연원유림향약본소(孔夫子聖蹟圖 續修五倫行實重刊 淵源儒林鄉約本所)

註釋

※ 褒彰完議文 : 善行을 칭찬하고 표창하기 위해서 의논을 완정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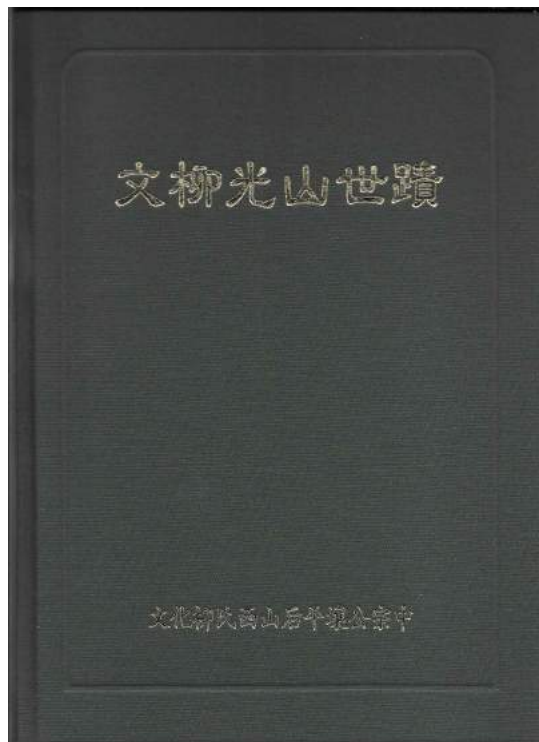
- ※ 先聖廟 : 옛 聖賢의 祠堂, 여기에선 孔子의 祠堂을 이룸.
- ※ 五倫行實圖 : 父子 사이의 親愛 · 君臣 사이의 義理 · 夫婦 사이의 分別 · 長幼 사이의 次序 · 朋友 사이의 信義 등 다섯가지의 行實 가운데 行蹟이 훌륭한 사람의 사적을 모아 기록한 책.
- ※ 直員 : 日帝 强占期 때 鄉校나 經學院의 職務를 맡아 보던 任員.



文柳光山世蹟



文化柳氏大宗會 監事・左/平壤公宗中會長 柳 在 休



文柳光山世蹟序

紫陽朱夫子所云非祖先之賢孰能以厚其子孫非子孫之賢孰能以繼其祖先也是即祖宜賢之而孫亦宜賢之之義也蓋人家雖有先祖之記於前而無來裔之述於後則世業替而遺風泯矣且古語所云後孫之於先祖闡其美德掩其過失者人之常情也然若無可闡之美而闡之有難掩之過而掩之者決不可容爲也况以故家世族之裔乎文化柳氏三韓甲族也鮮初莊陵節臣有曰西山先生諱自湄曾有李陶庵李陶谷之推重續有宋淵齋崔勉菴等諸賢之揄揚其於孤忠卓節不必贅論也先生第四房孫有諱繼先歷平壤判官燕山昏朝以不給興清保人被囚匪辜頃因改玉蒙宥復官而直聲大振事載國乘三傳有諱節康陵乙禍避其連坐而自畿之坡州因外資移居湖之羅州未幾穆陵壬燹其子副正希榮縣監希達累立戰功而齊策宣武原從二等勳嗚呼一門之內以節以直以忠之聲華何其盛歟然厥後時移世變人微勢弱榮枯有數宦路稍遠以故雖不多顯爵偉人猶不失清族之譽者方可謂世世念祖修德之致也月前畏友柳翠石淙鉉甫訪余于龍洞書院而寒暄後示一冊子言寔我門世蹟錄而將欲剗削之計請其弁文於子云余以識淺才拙安堪爲哉然契誼自別躊躇以披閱則吾高祖淵齋王考述菴兩府君所撰文字儼在其中而喜幸料外且仄聞則翠石於此諸文獻之蒐輯也譯解也考證也傾其心力已爲十餘年之久矣想其用意之勤之勞可比良工之獨苦也遂感其衷款不固辭而略叙其實云終有可告者此書之於柳門內有所以矜持外有所以闡揚則今日之舉尤有光於承先裕後之道又以爲世教不無少補也特後孫諸位時時奉覽此書者恭祝不已

庚子清秋

恩津宋永文謹撰

문류광산세적서(文柳光山世蹟序)

자양주부자(紫陽 朱夫子 : 晦庵 朱熹)께서 이르시되 “조선(祖先 : 祖上)의 어짐이 아니면 누가 능히 그 자손(子孫 : 後孫)의 복을 두텁게 하겠으며, 자손의 어짐이 아니면 누가 능히 그 조상의 업을 이을 수 있겠는가?”하셨는데, 이는 곧, 조상도 마땅히 어질어야 하고 자손도 또한 마땅히 어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체로 사람의 가정에 비록 선조의 기록이 전에 있었더라도 후손의 저술이 후에 없을진대 세업(世業)이 폐해지고 유풍(遺風)이 사라질 것이다. 또 옛말에 이른바“후손이 선조에 대해서 그 미덕(美德)을 드러내고 그 과실(過失)을 가리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 인정이다. 그러나 만약 드러낼만한 미덕이 없는데도 드러내거나, 가리기 어려운 과실이 있는데도 가리는 것은 결코 용납 하지 못할 일이라.”했거늘, 하물며 고가세족(故家世族)의 후손으로서야?

문화류씨(文化柳氏)는 우리나라의 명망 있는 집안이다. 조선 초엽 장릉(莊陵 : 端宗)의 절신(節臣)으로 서산선생(西山先生) 휘 자미(自湄)란 분이 계셨는데 일찍이 이도암(李陶庵 : 大提學 文正公 李 緯)·이도곡(李陶谷 : 領議政 文簡公 李宜顯)의 추중(推重)이 있었고, 이어 송연재(宋淵齋 : 文忠公 宋秉璿)·최면암(崔勉菴 : 義兵將 崔益鉉) 등 여러 유현의 유양(揄揚)이 있었으니, 그 외롭게 바친 충성과 뛰어난 절의에 대해서 군소리가 필요치 않다.

선생의 넷째 아드님에게서 태어난 손자에 휘 계선(繼先)이란 분이 계시어 평양판관(平壤判官)을 지냈는데 연산군(燕山君)의 혼탁한 조정 때 양마(良馬)와 미녀(美女)를 징발하라는 왕명(王命)을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써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개옥(改玉) 곧,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 관직이 회복되어 성품이 곧다는 명성을 크게 떨치고, 사적이 국승(國乘 : 國史) 곧,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실리었다.

삼대(三代)를 전하여 휘 절(節)이란 분이 계시어 강릉(康陵 : 明宗) 을사사화(乙巳士禍)에 그 연좌(連坐)를 피하여 경기도 파주(坡州)로부터 외가(外家)의 자뢰로 인하여 전라도 나주(羅州)로 옮겨와 살았는데 얼마 안 되어 목릉(穆陵 : 宣祖)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그 아들 부정 희영(副正 希榮)과 현감 희달(縣監 希達) 이 누차 전공(戰功)을 세워 나란히 선무원종이등훈(宣武原從二等勳)에 책록되었다. 아아! 한 집안에서 절의(節義)로, 정직(正直)으로, 충성(忠誠)으로 훌륭한 명성이 어찌 그렇게도 성했던가?

그러나 그 후로 시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데다 사람과 형세가 미약해지고 영

고(榮枯 : 盛衰)도 운수에 매여 있어 벼슬길이 점점 멀어졌다. 이로써 비록 드러난 벼슬과 뛰어난 인물은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청족(淸族) 곧, 대대로 절의를 숭상해 온 집안이 라는 명예를 잃지 않았으니, 이는 가히 대대로 조상을 생각하고 덕을 닦은 소치라 이르겠다.

달포 전에 외우(畏友) 류취석 종현(柳翠石 淙鉉)보가 용동서원(龍洞書院)으로 나를 찾아와 인사를 나눈 후에 한 책자를 보이면서 말하기를“이는 우리 문중의 세적(世蹟)을 기록한 것인데 장차 인쇄에 부칠 계획으로 그 서문을 그대에게 청합니다.”하였다.

내가 식견도 열고 재주도 응졸하니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계의(契誼 : 親誼)가 자별하여 망설이면서 펴보니 나의 고조(高祖) 연재(淵齋 : 宋秉璿)·왕고(王考 : 祖考) 술암(述菴 : 宋在晟) 양부군(兩府君)께서 지은 문자(文字)가 엄연히 그 가운데 있어 뜻밖에 기뻐다. 또 소문에 들으니 취석이 이 여러 문헌(文獻)을 수집(蒐輯)하고 역해(譯解)하고 고증(考證)하는데 그 심력을 기울인지 이미 10여년이나 오래되었다고 한다. 생각건대 그에 뜻을 세우고 마음을 쓴 근실함과 노고는 가히 양공(良工 : 名匠)의 외로운 고통에 비기겠는바, 드디어 그 충관(衷款 : 誠心)에 감동하여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간략히 그 사실을 적었다.

끝으로 아될 것이 있으니, 이 책이 류문(柳門)으로서는 안으로 긍지(矜持)가 있게 되고 밖으로 천양(闡揚)이 있게 될 것인바, 오늘날의 이 사업이 더욱 승선유후(承先裕後) 즉, 선세의 업적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도리에 빛이 있을 것이요, 또한 세상의 교화에도 적은 도움이 없지 않으리니, 특히 후손 여러분은 시시로 이 책을 받들어 보기를 삼가 빌어마지 않는다.

경자(庚子 : 2020) 청추(淸秋 : 음8월)

은진 송영문(恩津 宋永文) 삼가 지음.

文柳光山世蹟跋

中庸曰夫孝者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者是父祖有欲爲之志而未爲子孫善繼其志而成就之父祖有已爲之事而可法子孫善因其事而遵述之茲可謂繼述之道而人子之所當服膺者也古語云先祖有美而不知不明也知而不傳不仁也余自志學侍側先人慣聞西山先祖之一於所事不以險易變其節篤於所守不以榮枯改其志者業已久矣因其慕忠崇義之心比諸他祖有倍深焉且以及壯博涉宗中文獻卽近古我門宿儒諸公之遺稿而特有關於我宗中者無闕精讀而崇祖敦族之忱與年漸長矣年至不惑爲其世波所推而離鄉奠居于中都大田余亦塵白而迫於圖生乃以譯解爲業日對京鄉各姓之古今文獻而或有關於我柳者必記以誦之寶以藏之奄及知命猥任大宗會宗報主幹耳順兼任常任副會長前後三十餘年惟於繼志述事盡其心力焉蓋前事之可傳後世者以其有文也今人之能知古事者以其有書也由是觀之自可知其文之所貴其書之所重也竊念我先世文獻不少而多毋論今與來世以其後孫共讀共知者千萬至當事也然傳來文獻記皆漢文難解其義目下實情而自擬其譯解者最善策已乃自數年前執譯筆不拘寒暑而畢役焉回憶余自少時眷眷不忘於先事者至于今素志可云少伸也耶今役宗會長在休族叔能知斯役之重之大而先導又宗中諸位齊誠共力焉此舉雖不無晚時之歎然向所云滌其不明不仁之科而兼爲我門守世德保遺蹟之一大契機者敬望不已而略書今役之顛趾若素懷之大概以代跋文云

庚子清秋

後孫淙鉉謹識

문류광산세적발(文柳光山世蹟跋)

중용(中庸)에 이르되“무릇 효도(孝道)란 선인(先人)의 뜻을 잘 이어가고 선인의 사업을 잘 이루는 것이다.”하였다. 이는 부조(父祖)께서 하고 싶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손이 그 뜻을 잘 이어 이뤄야 하고, 부조께서 이미 하신 일에 본받을 것이 있으면 자손이 그 일을 잘 이어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히 계술지도(繼述之道)라 이르지니 사람의 자식으로서 마땅히 마음속에 늘 간직하여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옛말에 이르되“선조께서 아름다운 사행(事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밝지 못함이요,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성품이 어질지 못함이라.”하였다.

내가 지학(志學 : 15세)으로부터 선인(先人 : 先考)을 곁에서 모시면서 서산선조(西山先祖)께서 임금을 섬김에 한결같이 위험과 안일로서 그 절의(節義)를 바꾸지 않았고, 절의를 지킴에 돈 독하여 응성과 쇠락으로서 그 의지(意志)를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익히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충(忠)을 사모하고 의(義)를 숭상하는 마음이 다른 선조에 비하여 갑절 깊음이 있었다.

그리고 장성함에 이르러 종종(宗宗)의 문헌(文獻)을 널리 보았는 근고(近古)에 우리 문중의 숙유(宿儒) 즉,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비 여러 어른의 유고(遺稿)였다. 특히 우리 종종에 관련이 있는 것이면 빠짐없이 읽어, 조상을 숭배하고 일가 간에 돈독하는 마음이 나이로 더불어 점점 자랐었다.

나이 불혹(不惑 : 40세)에 이르러 세파(世波)에 밀리어 시골을 떠나 중도(中都)인 대전(大田)에 전거(奠居)하였다. 나 또한 속된 세상에서 생활을 도모함이 급박하여 역해(譯解) 곧, 글을 번역(翻譯)하고 주해(註解)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날마다 경향(京鄉) 각 성씨의 고금(古今) 문헌을 대하였는데 혹 우리 류씨(柳氏)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서 외우고 보배로 간직하였다. 문득 지명(知命 : 50세)에 이르러 외람히 대종회 종보주간(宗報主幹)에 임명되고 이순(耳順 : 60세)에 상임부회장(常任副會長)을 겸임하여 전후 30여 년 동안 오직 선세의 유지를 계승하고 사적을 서술하는데 심력을 다하였다.

대개 예전 일을 가히 뒷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은 글이 있기 때문이요, 지금 사람이 능히 옛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불진대, 스스로 그 글의 귀함과 그 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곰곰이 생각건대, 우리 선세의 문헌이 적지 않게 많은데 금세와 내세를 논할 것 없이 후손들이 함께 읽고 함께 아는 것이 천만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전해온 문헌의 기록이 모두 한문(漢文)이라서 그 뜻을 해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눈앞의 실정인바, 스스로 헤아

려보건대 문헌을 역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이에 수년전부터 역필(譯筆)을 잡아 날씨가 춥고 더움을 구애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일을 마쳤다. 돌이켜 생각건대 내가 소 시부터 선세의 일을 항상 생각하며 잊지 않았는데 지금에 이르러 본디 품은 뜻을 조금 이뤘다고 이를 수 있을는지?

금번 일에 종회장(宗會長) 재휴 족숙(在休 族叔)께서 이 일이 소중하고 중대한 것임을 능히 알아 앞장서 인도하고, 또한 종종 여러분이 성의와 힘을 함께하였다.

이 사업이 비록 때늦은 탄식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앞서 이른바, 선조의 사행에 밝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 허물을 씻음과 아울러 우리 문중의 세덕(世德)을 지키고 유적(遺蹟)을 보전하는데 일대 계기가 되기를 삼가 바라 마지않으면서, 금번 일의전지(顛趾 : 始末)와 평소 생각의 대강을 간략히 적어 발문으로 가름한다.

경자(庚子 : 2020) 청추(淸秋 : 음8월),

후손 종현(涼鉉) 삼가 적음.



獨立運動家 柳弼烈 烈士

-제75주년 광복절 대통령표창장 서훈-



文化柳氏 侍郎公派 事務局長 柳 在 坪

문화류씨 시랑공파 후손인 柳弼烈 열사(譜名 : 柳春赫, 대승공30세)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금년 광복절 75주년에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류필열 열사가 이렇게 뒤늦게 서훈대상자가 된 것은 중국 목단강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살을 당하여 갑자기 요절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공적조서 작성이 어려워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대상자가 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러 기록들과 고향 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공적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훈처에 제출해서 대통령 표창장 서훈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류필열 열사의 유족으로 친 손자인 류윤걸이 대리 수상을 하였다.

류필열 열사는 독서회와 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서회는 계몽운동의 방편으로써 지식을 계발하여 일제를 극복시키고자 하였던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독서회 운동은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에는 사상투쟁적 성향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항일투쟁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독서회는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바로 류필열 열사가 독서회와 계몽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다.

류필열 열사는 청주시 내수읍 도원리에서 문화류씨 시조이신 大丞公 29世孫인 柳乘斗의 다섯 아들 중 4남으로 태어나 슬하에 아들 寅昇을 두었다. 그는 1921년 내수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청주군 면서기 시험에 합격하여 북이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과 7개월만에 사직하고 충청북도 도립 사범학교 특과에 입학하였다.

그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일제 식민통치 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평소 다짐이었던 교육구국운동을 펴기 위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8년 3월 사범학교를 졸업한 류필열 열사는 곧 훈도(訓導:교사) 발령을 받아 보은 삼승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2년에는 낭성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는 동안 류필열 열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쳐 주는 한편, 주민들의 계몽운동에도 노력하였다. 때문에 그는 늘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류필열 열사가 낭성보통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생문집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그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 글짓기 작품들을 등사하여 나누어 주었는데 이 가운데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내용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1931년 6월에 학생들이 작성한 글짓기의 작품들은 당시 류필열 열사의 제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이명재(李明宰, 당시 5학년)의 장남인 이정수씨가 보관하고 있어 그 구체적 문장이 전해져서 이번 공적조서에도 참고를 하였다.

아직도 낭성면 주민들은 당시의 학생문집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글짓기 원문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도였던 류필열 열사를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훌륭한 선생님이로 인식하고 있다. 낭성보통학교 학생들의 글짓기 작품 중 문제가 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田家歎 - 5학년 李明宰

한세상 한땅에서 한 열고 한손발에도
어떤놈은 흥둥흥똥 놀고 먹건만
우리는 땀흘려 낮과 밤을 일해도
주리고 헐벗기는 年年이 一般이다.
덧없는 세월아!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納稅期日 또 닥쳐온다.

자탄 - 6학년 이동규

나의 몸이 외로이 山中에 있어
 어느 누가 나를 굶어 살필까?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멀다.
 寂寞한 月夜에 생각을 하니
 悲哀한 마음이 간절하구나.

학생문집 사건으로 말미암아 류필열 열사는 이명재 등 학생 5명과 함께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였다.

1932년 10월 이른바 “문관징계령”에 의거 면직 당하고 말았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류필열 열사는 도원리에 사설 “태평리 강습소”를 개설하여 1935년까지 보통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일본어의 전용을 방지하고 우리의 글을 깨쳐 주는 한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보통학교 중심으로 독서회를 조직, 우리의 역사와 글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더 이상 고향에서 민족운동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류필열 열사는 동지들과 협의한 끝에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고향 친목회장 등 동지들이 모금한 돈 8백원을 가지고 북만주 목단강으로 출발하였다.

1936년 1월 단신으로 渡滿한 류필열 열사는 목단강 지역에 중학교 과정의 학교를 세우고 60여 명의 한인 청년들에게 신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장차 독립군으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류필열 열사는 1937년 3월 33세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그의 사망 소식은 고향의 동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여비를 마련하여 만주로 건너갈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던 고향 동지인 이인찬은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였다고 당시를 회고 하였다.

류필열 열사의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되었고 유해는 만주로 건너간 그의 형 慶烈과 尹慶勳 등에 의해 고향으로 모셔졌다. 이때 류필열 열사가 설립 운영하던 학교의 학생들은 특별반까지 102명이나 되는 규모였다고 한다.

류필열 열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될 때 목단강으로부터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輓詞)가 300여개가 왔다고 한다.

당시 내수보통학교 학생이었던 이영로 전 북일면장의 증언에 의하면 송충이를 잡으러 동원되었던 학생들까지 만장을 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의 장례에 관한

기록인 어회장인명장 (御會葬人名帳 : 장례식 참가자 명부)과 향전도래장(香奠到來帳 : 부의자명부)에 의하면 목단강 보통학교와 동포사회의 각계 각층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곳 동포사회에서 류필열 열사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과 그가 동포들로부터 얼마만큼 존경받던 인물이었나 하는 것을 짐작케 해 주었기에 이번 독립유공자 선정 공적조서와 함께 증빙서로 포상신청서류에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와 같이 류필열 열사는 독립유공자로서 진작에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 후세에 추앙을 받았어야 마당하나 비록 광복 75주년 이 지나 독립운동 공적이 국가로부터 일부 인정되어 뒤늦게나마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장을 받은 류필열 열사의 애국 충절의 정신을 문화류씨 종원 모두의 자랑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또한 문중과 증중 및 파중회를 비롯한 대중회 등 종친회 차원에서 류필열 열사의 묘지 정비와 독립운동비 등 공적비를 건립하는데 중지를 모아 “애국지사 류필열 열사”의 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박결순 박사의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내수보통학교”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묘소에 대통령 표창장 봉헌 장손자 류윤걸)



(묘소에 표창장 봉헌)



(묘소에 표창장 봉헌 후 기념촬영)

正郎公(諱 以安)의 事蹟



文化柳氏 前判事公派宗會長 柳 世 鉉

文化柳氏判事公派 正郎公(諱 以安)은 始祖 大丞公21世로서 判事公派正郎公宗中の 支派祖이다.

李朝朝 明宗17年(1561年 辛酉)에 출생하여 禮曹正郎을 지내시고 宣祖28年(1594 甲午)에 타계하신 公의 事蹟은 다음과 같다.



禮曹正郎 通訓大夫 文化柳氏 以安 之墓
(月明山 首位山所)

正郎公(諱 以安)의 事蹟
(禮曹正郎의 墓碑碣文)

正郎公以安事蹟 「禮曹正郎之墓碑碣文」

嗚呼正郎柳公之墓舊有碣文而贊揚其德業悉記其志行歲月蹉跎遽至三百餘年之久風磨雨灑石面剝落落苔沈暗字剝而不可以讀辭意未可以解拜墓諸孫齋其恨而泚乎顙宗議協同乃謀刻石改豎于隧道公諱以安字自仁文化人以高麗統合三韓壁上功臣大丞公諱車達爲鼻祖文簡公諱公權僕射公澤文正公諱璈貞慎公諱陞章景公諱墩皆麗代名臣也逮入 我朝有諱廷懋官判事是月亭領議政貞肅公廷顯之季也曾祖諱希春官直長祖諱之湖通德郎考諱澤生員妣豐川任氏豐川府院君后光呂女嘉靖辛酉生容儀岐斗才藝穎悟學業夙成庚辰中進士試己丑筮仕至禮曹正郎隨闕注望必多而譖失其資級未能詳記萬曆甲午卒葬于八莒縣東長嶺艮坐原八莒卽漆谷郡也配晉州河氏自弘女一男一女男汝封進士女適鄭濟公東萊人孫瑞漢曾玄以下熾昌繁衍不能盡錄噫公之德之才可措時宜試之於郡則可比召杜必頌聲載路試之朝則譬諸瑚璉必觀國之光不幸早逝嗟惜哉公之十一世孫寅淑半千程路裏足遠來請以圭首之文余以不文辭難負宗族之厚誼叙事如右遂爲之銘曰

靈芝醴泉有根有源克肖厥德妙齡摘蓮上庠芳名膾炙人口雅望林蔚聲價玉售
蔭途峻選春曹郎官錄構迎歡咫尺天顏堂封四尺碩之藏矣千有祭視此銘章

旁裔通政大夫秘書院丞兼掌禮寅哲謹撰

十二代 胄孫 志淳 謹書

配淑人晉州河氏之墓在於本郡枝川面樂山洞大峴山西坐之原

闕逢困敦應鍾之月上澣

十代孫 寅龍

壬申 義城郡 安平面 石塔里 甲坐之原 移葬

아! 正郎(六曹에 속한 正5品 벼슬) 柳公의 墓에 옛날 墓碣文이 있어 그 德業을 찬양하고 그 훌륭한 品行을 다 적었도다. 세월은 벌써 300년이 넘고 오래되어 비바람에 씻기고 달아 碑面이 허물어지고 이끼가 끼고 글자가 깎이고 어두워 가히 글을 읽을 수 없고 뜻을 이해 할 수 없으니 省墓하고 參拜하는 모든 子孫은 한이 쌓이고 이마에 땀이 나도다. 宗中에 의논하고 협동하여 돌에 새겨 다시 무덤에 세우기를 하였다. 公의 諱는 以安이요, 字는 自仁이라. 文化人으로서 高麗가 三韓을 統合할 때 壁上功臣(임금이 功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름을 벽상에 기록해 둔 功臣)이요, 大丞公의 諱는 車達이요 始祖이다. 文簡公의 諱는 公權이요, 僕射公의 諱는 澤이며, 文正公의 諱는 璲이요, 貞愼公의 諱는 陞이며, 章景公의 諱는 璲이니 모두가 高麗 때 이름 높은 臣下이다. 我朝로 諱가 廷懋라 하는 어른이 계시니 벼슬은 判事이다. 號가 月亭인 領議政 貞肅公(휘 廷顯)의 끝에 동생이요, 曾祖(諱 希春)는 벼슬이 直長(麗朝때는 正6品, 李朝때 는 正7品)이요, 祖(諱 之湖)는 通德郎(正5品)이요, 考(諱 澤)는 生員이다. 妣는 豐川任氏로 豐川府院君의 后 光呂의 따님이다. 嘉靖(中國年代) 辛酉(明宗17년. 1561)생으로 容貌와 風采가 빼어나고 才操가 남보다 뛰어났으니 총명하여 학업을 일찍 이루어 宣祖14년(1580 庚辰)에 進士試驗에 합격하고 宣祖23년(1589 己丑)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禮曹正郎에 이르러 宮內 謁주관(李朝때 春秋館 正5品 벼슬)을 맡으니 우러림이 필연 많겠지만 譜에는 그 職級의 자료를 잃어 能히 자세히 記錄치 못하였다.

萬曆(中國年代) 甲午에 돌아가시니 八莒縣 東쪽 長嶺山 艮坐原에 장사하였다. 人莒는 곧 漆谷郡이라. 配는 晉州河氏로 自弘의 따님이요, 1男1女로 男은 汝封으로 進士이고 女는 鄭濟公 東萊人에 시집갔다. 孫子는 瑞漢이요, 曾孫 玄孫 이하는 불꽃 일듯 많이 번성하여 능히 다 기록치 못하노라. 슬프다. 公의 德과 才能을 때에 마땅히 貪하여 들었으니 고을에 곧 태수의 選定을 칭송하듯(召社) 반드시 칭송하는 소리로인(路人)의 입에 실렸음을 더듬을지라. 朝廷에서는 곧 瑚璉(주요한 그릇)에 비유되어 必然이면 나라에 빛을 볼 것을 불행히 일찍 세상을 떠나 때가 어기었으니 애석하도다. 公의 11세손 寅淑은 500리 길을 맨발로 멀리 와서 碑의 머리글을 청하거늘 내 글이 없으나 宗族의 후의를 지고 사양하기 어려워 오른쪽과 같이 사실을 서술하여 銘에 이르노니

靈芝와 醴泉은 뿌리와 根源이 있도다.

능히 그 德을 같이 하시고 妙齡에 연꽃을 따셨다네.

世上에 꽃다운 이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니 높은 명예,

울창한 숲과 같아 世上에 좋은 칭찬 碑石으로 갠게되네.
음란 길에 높이 뽕혀 禮曹長官 되시었고,
록사청에 맞은 기쁨 임금님이 咫尺이라.
넉자에 봉한 집은 큰 어른의 墳墓요,
千年이 넘는 해에 이 銘의 글을 하여보네.

旁裔通政大夫祕書院丞兼掌禮寅哲 謹撰

十二代 胄孫 志淳 謹書

配淑人晋州河氏之墓在於本郡枝川面樂山洞大峴山西坐之原

闕逢困敦應鍾之月上澣

十代孫 寅龍

壬申 義城郡 安平面 石塔里 甲坐之原 移葬



大東祠와 九月山 柳陵



文化柳氏 光州全南宗親會副會長(大丞公35世) 柳晏重

大東祠는 文化柳氏의 始祖 大丞公(휘 車達)의 位牌를 奉安하고 享祀를 奉行하는 곳이다.

지금까지 해방 후부터 74회째 儒林享祀를 봉행해오고 있으니 제일 처음으로 禮成한 날은 丙戌年(1946) 9월 19일이다.

大東祠라 命名한 것은 大東祠의 위치가 光州市 光山區 東湖里에 있고, 東湖里는 羅州 東쪽에 있으며, 羅州는 우리 海東國의 東쪽에 있기 때문에 大東祠라 이름 하였다.

마을 앞에 大東祠라는 表石이 서 있고, 祠堂 앞 講堂의 명칭은 大東書院이라 하였으니 과연 大東祠가 맞는지 大東書院이 맞는 것인지 한가지로 통일하여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전에 어른들께서 잘못하신 것이니 후인들이 잘 정리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전에 잘못해 놓으신 것이 아니며, 양시론(兩是論)이 아니라 혹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써 大東祠도 맞고 大東書院도 틀린 말이 아니다.

즉 始祖님의 위패를 모시고 향사를 봉행하는 祠堂의 이름은 大東祠이고 사당 앞에 공부하고 모임을 가진 곳은 大東書院이라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筆巖書院(河西 金麟厚先生 主壁)의 祠堂名은 佑東祠이고, 書院名은 筆巖書院이며, 高峰書院(高峰 奇大勝先生 主壁)의 祠堂名은 崇德祠이고 書院名은 월봉서원(月峰書院)이며, 高山書院(蘆沙 奇正鎭先生 主壁)의 祠堂名은 高山祠이고 書院名은 高山書院이라 부르니 우리 大東祠는 享祀奉行하는 祠堂名이요, 강당의 명칭은 大東書院이라 이해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사당의 柱聯은 주정공사(周情孔思 : 주공의 뜻이요 공자의 생각)이요, 은지이윤(殷之伊尹 : 은나라를 도와 일으킨 이윤)이며, 주지여상(周之呂尚 : 주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여상 : 강태공)으로서 일광옥결(日光玉潔 : 일광처럼 밝고 옥같이 깨끗함)이라 하였으니, 짧은 글귀로서 대승공 시조님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사당의 현재 규모는 좀 작고 높지만 그래도 吉地로서 짜임새 있고 잘 갖추어진 아담한 名祠宇이다.

사당 앞 강당주변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였으니 처음 창건당시에 계획하였던 설계를 원지(院誌)에 기록된 데로 살펴본다.

1. 정위(사당)<正位(祀堂)> : 삼간(三間)
2. 내삼문(內三門) : 삼문(三門)
3. 묘정비(廟庭碑) : 척(尺)
4. 강당(講堂) : 오간(五間)
5. 전사실(典祀室) : 삼간(三間)
6. 고직사(庫直舍) : 삼간(三間)
7. 익랑(翼廊) : 삼간(三間)
8. 외삼문(外三門) : 삼문(三門)
9. 홍살문(紅箭門) : 이주(二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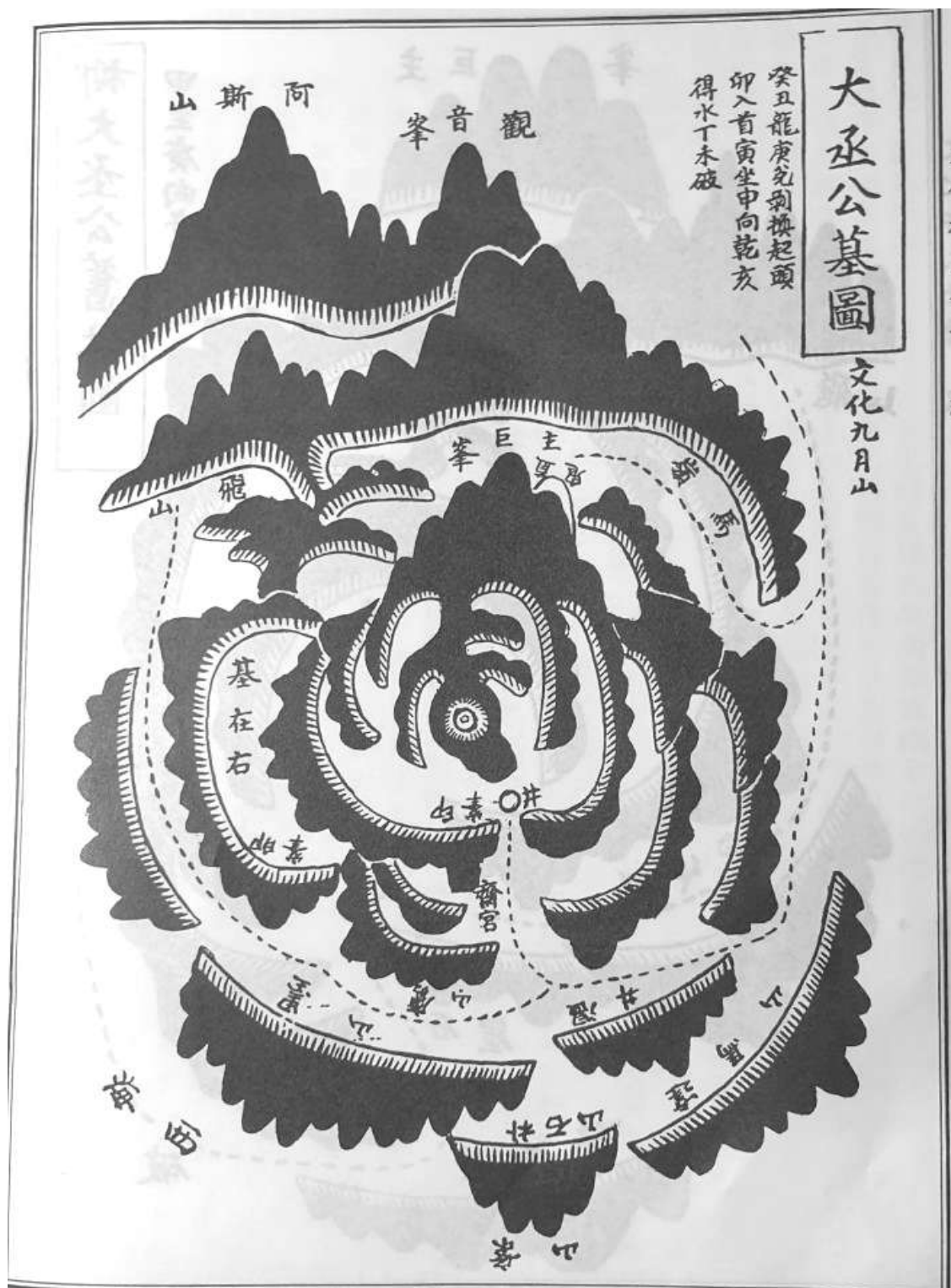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건립할 예정이라 하였다.

대승공(大丞公)께서는 新羅 憲康王 6년 (庚子 : 880) 8월 28일 辰時에 태어나셨다.

九月山の 大丞公 묘소를 일러 류릉(柳陵)이라 칭함은 大東祠院誌의 建祠實錄에 “명기동왈월정지기묘왈류릉개이기왕례장지고야(名其洞曰月井指其墓曰柳陵蓋以其王禮葬之故也)” 즉 원지 건사실록에 왈 그 고을을 이름하여 月井이라 하고 그 묘를 가리켜 柳陵이라 함은 당초에 왕의 예로서 葬事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난 辛卯년(2011)에 북한의 보존유적 1777호(류차달의 묘), 1778호(신도비)로 지정 되었다.

大丞公 墓圖의 설명으로는 文化 九月山이라 되어있다.



계축용경태박환기(癸丑龍庚兌剝換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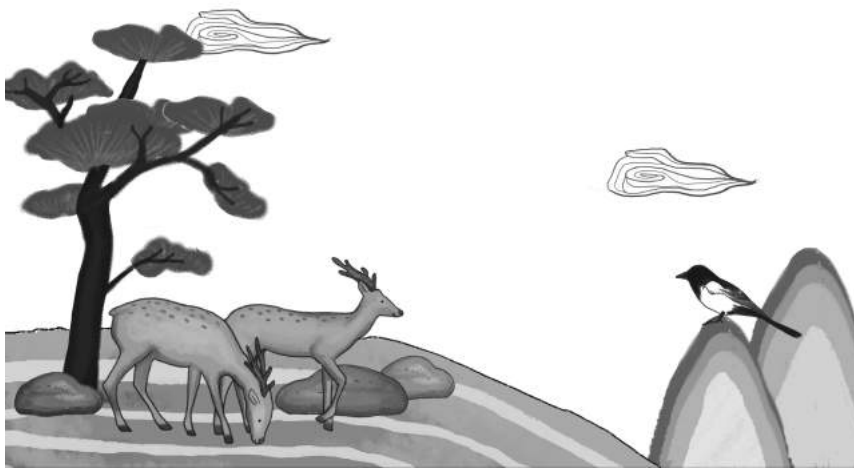
두묘입수인좌신향(頭卯入首寅坐申向)

건해득정미파(乾亥得丁未破)

북쪽 용맥이 서쪽으로 내려와 머리를 동쪽으로 바꾸어 들었다.

인좌(동북쪽)로서 신향(서남쪽)에서 물이 모이고 정미방(서남쪽)으로 물이 빠진다.

이상은 院誌에 실려 있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문제 몇 마디를 풀어서 기록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自隱齋 參拜記



文化柳氏 光州全南宗親會副會長(大丞公35世) 柳晏重

朝鮮朝 太宗2년(1401 辛巳)에 文科에 급제하고 議政府舍人,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이신 大丞公15세손 柳士根 先祖는 死六臣 柳誠源의 先親이며 公의 配位 는 贈貞敬夫人 南原尹氏이다.

舍人公의 墓는 충북 음성군 원서면 조촌리(현 道路名은 원충로) 부모洞의 西坐原 上下墳으로 神道碑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公의 位牌는 諸孫들과 함께 아담하고 운치가 좋은 自隱齋에 모셔져 있다.

지난 2019년(己亥) 12월 13일(음 11월 17일) 先祖의 墓를 찾아 參拜하고 自隱齋에서 告由를 올렸는 바 이와 관련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參拜記를 다음과 같이 남기고자 한다.

1. 잊을 수 없는 自隱齋 參拜記

가. 충북 음성군 원서면 조촌리에 있는 사육신 류성원(대승공 16세)의 선친묘를 참배하고자 본인(柳晏重 : 中門祗候使公派靖簡公宗中會長)과, 종친 柳漢俊(同종중 부회장), 柳鎭昌(重元산업대표), 柳榮君(湖靜식품대표), 柳進先(同종중 간사) 일행은 12월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승용차로 오전 8시에 출발, 12시경에 음성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李垠植박사(동년 10월 19일 전남도립대학에서 “死六臣 柳誠源과 石軒 柳玉의 生涯와 思想을 찬양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死六臣顯昌會 부이사장)와, 金永奎회장(음성군향토사연구회)이 합류하여 오찬 후 두분의 안내로 自隱齋를 찾았다.

근년에는 自隱齋에서 香火奉行이 멎은 듯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齋室이 퇴색하여 초라해 보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향사를 봉행해온 정성의 흔적들이 역역하였으나, 이렇게 闕享한 후손들은 말못할 사연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후손으로서 자못 무거웠다.

처음에 우리 일행은 묘에 참배하려고 얼마간의 제수를 마련해 가지고 갔으나, 李垠植박사가 말하기를 "이곳 齋室에 位牌가 마련되어 있는 바 墓 한 곳(死六臣 柳誠源의 先親 휘 士根 先祖내외분) 에만 잔을 올릴 것이 아니라 自隱齋에서 고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실에서 우리가 마련해온 제수를 진설하고 잔을 올리고 독축을 했다. 告由人은 柳鎭昌 宗人 외 7인이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製祝을 함에 있어서는 ○字 받침의 韻 字를 달아 마련해 보았습니다.

己亥年(2019년) 11월 戊辰朔 17일 甲申일에 從21世孫 鎭昌외 7人 등은 삼가 박약한 祭需를 차려놓고 감히 어지신 從21代 祖父 贈領議政府君과 어지신 從21代 祖母 贈貞敬夫人 南原尹氏의 墓前에 告하나이다.

오호라! 府君께서는 山과 바다처럼 넓고 깊은 정기를 받으시어 후손들이 昌盛하십니다. 당내간 本人과 아들, 孫子와 曾孫 중에 文科에 급제하신 분이 6명이요 義를 崇尚하며 公職에 나아가 나라에 忠誠을 다하고 高官大爵의 집안으로 萬人의 推仰을 받았습니다.

門運이 불길하여 近親들이 도피하였으니 忠淸과 嶺南, 그리고 湖南 등 사방으로 달아나 禍를 피하였습니다.

민망스러운 歲月 500여년이 흘렀으니 멀리 사는 近親들을 찾아 봉심하는 것 晚時之歎을 禁치 못하겠나이다.

後裔들 情分이 진진하여 가느다란 精誠을 펼치나니 英靈께서 아신다면 이에 歆饗하소서

自隱齋에서 告由를 마치고 뒷산의 墓所를 찾아가는데 제일 하단에 대승공17세손 桂芬내외분의 墓가 子坐原 雙墳으로 있었고, 더 올라가서 최상단에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이신 大丞公15세손 柳士根내외분의 墓가 酉坐原 上下墳으로 있었다.

維歲次己亥十一月戊辰朔十七日甲申

從二十一世孫鎮昌外七人等謹具菲薄之奠敢昭告于

顯從二十一代祖考贈 議政府領議政府君

顯從二十一代祖妣贈 貞敬夫人南原尹氏之墓

嗚呼府君山海氣(精)後孫昌昌堂內孫(曾)

文科六名赴義勤(王)簪纓望族萬人敬(仰)

門運不吉近親逃(亡)京嶺湖間避禍四(方)

愍然無極五百星(霜)晚時之歎遠裔謁(訪)

族誼津津用伸微(衷)靈其有知庶此歆(饗)



自隱齋 懸板

伐草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墓域주변에 팔뚝만한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여 삭막하고 초라하기만 했다.

우리 宗中の 進先간사가 젊은 혈기에 맨손으로 잡초와 우거진 나무들을 대강 제거하고 보니 좀 볼만 하였으나 근래에 묘소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소홀히 함으로써 이렇게 우거지고 말았으니 세상의 변천과 세월의 무상함이 恨스럽게 느껴지기만 하였다.

그리고 墓앞에 있는 望柱나 將軍石은 우람하게 남아 있으나 墓碑는 누가 뽑아가 버렸으니 그야말로 目不忍見이었다.

나는 이 마을 里長에게 지난날에는 별초를 어떻게 해왔고 奉祭祀는 누가 해왔는지를 알아보고자 그 對答 역시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관계 종인들의 연락처도 모르고 돌아오는 우리 일행의 발걸음이 자못 무겁기만 했다.

지난날 한때는 死六臣의 아버지로서 贈領議政이라는 분의 훌륭한 墓所와 祀堂이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헐어지고 초라하게 되었으니 傍孫인 우리 일행의 입장에서 볼때도 마냥 참담하고 아쉬운 마음뿐이었다.

2. 우리 일행이 自隱齋를 찾아간 動機

우리는 死六臣이신 柳誠源 先祖님의 傍孫으로서 癸酉靖難(1453 端宗2년) 때 柳門의 死六臣 近親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鎭川, 軍威, 扶餘, 淳昌 등으로 逃避을 해서 生命을 부지하였다.

당시에 淳昌으로 落南하신 인흡(仁洽 : 柳誠源의 再從兄) 先祖님의 후손으로서 奉祀孫이 저희 집안에서 王命으로 지명되었기에 초라하나마 忠景祠에 死六臣 柳誠源의 위패를 뒀고 250여년 동안 享祀奉行을 해오고 있다.

그러한 緣由로 死六臣 후손들이 갖고 있는 관련 史料와 文獻을 수집하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두루 탐방하고 있고 이곳 自隱齋와 墓所사진을 찍으려 한다는 李垠植 박사의 요청이 있어서 自隱齋 청소도 하고 묘소도 참배하려고 不遠千里하고 찾아오게 된 動機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3. 世譜 등의 기록된 從先祖墓域 등 資料.

가. 2019년 12월 13일(음 11월 17일) 死六臣 柳誠源의 先親(贈領議政 諱 士根) 묘소를 500년만에 傍系후손들이 참배한 바 있다.

2020년 5월 23일(토) 先祖님을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傍孫(안중 진창 한신 영군 진선 등)들이 벌초장비를 준비하고 담양을 출발하여 음성군 원서면에 가서 벌초를 마치고 自隱齋 봉심후 주변을 정리한 후 돌아온 바 있다(아래사진참조)



伐草 전 모습



伐草 후 모습

나. 世譜 등에 수록된 從先祖墓域 등 관련기록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일후에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柳思根(대승공15세) : 朝鮮太祖2년(1401 辛巳)에 文科及第 議政府舍人 등 역임. 西坐原 上下墳, 神道碑 有.
- 柳承順(대승공16세) : 吏曹參判. 遠西面 子坐原. 合祔 有碣.
- 柳桂芬(대승공17세) : 端宗2년(1453 癸酉) 文科選承文正字. 承政院注書 世祖丙子選司諫右正言知製教遭.

睿宗己丑校理掌試策原宗勳由正郎. 槐山郡守. 配宜寧南氏
墓: 遠西面 參議公(휘 承順)墓左邊 子坐原 雙墳 墓碣.

- 麟童(대승공18세) : 參奉. 成宗2년(1475 乙未)文科. 翰林吏曹正郎, 配驪興閔氏
- 麟種(대승공18세) : 陰城縣監. 配 坡平尹氏
墓 : 舍人公(휘 士根)墓下 西坐原 雙墳.
- 遠(대승공19세) : 注簿.
墓 : 遠西緬 父母洞. 先塋.
- 近(대승공19세) : 郡守. 配(安東金氏)
墓 : 遠西面 自隱谷 先塋左邊 艮坐原.
- 邊 (대승공19세) : 參奉.
墓 : 遠西面 조촌 父母洞. 舍人公(휘 士根)墓下 西坐原 合祔.
- 思翼(대승공20세) : 初名(公佐). 監察.
墓 : 遠西面 自隱谷 父母洞. 考墓(휘 遠) 同所.
- 河(대승공21세) : 生員.
墓 : 遠西面 自隱谷.
- 宗後(대승공22세) : 僉知, 贈禮議
墓 : 遠西面 自隱谷 父母洞 上下墳.

4. 맺는 말

후손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곳에 모셔져 있는 英靈들께서 외롭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墓域과 齋室(自隱齋) 등을 管理하는 여러 가지 方案들이 검토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자 한다.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
- 歷代文化柳氏世譜.
- 國朝榜目影印本(1971.國會圖書館)
- 文化柳氏寶鑑(1990.文化柳氏寶鑑編纂委員會)
- 地方行政區域要覽(1996. 內務部)
- 韓國號大辭典(1997.啓明大學校出版部)

甲午東學革命 參與者 柳濟億의 行蹟



文化柳氏 忠/判尹公宗中(大丞公38世), 大宗會 理事 柳正坤

저희 증조부께서는 이름이 濟億이요 字는 應律로 고려 개국 벽상공신이신 문화류 씨 시조 대승공(諱 車達)의 제 35세손이시고 조선 태종 때 좌명공신 문성부원군 대제학 우의정이신 忠景公 柳亮의 제21세손으로 忠景公派로 계승되고 있다.

선조님의 계통은 충경공 3남이신 판윤공(京生), 화양공(總)의 5남이신 繼孫의 후손으로 당시 충남 서산 현감으로 계셨다가 부석면 대두리로 낙향하여 거주하시었다.

계손 선조님의 제 18세손으로 부친은 祥善 모친은 金海金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청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서 출생하시었다.

지금으로부터 126년 전 甲午年 단기 4227년(서기 1894년) 조선말 고종시대 무능한 임금과 大院君(고종부친)과 며느리 명성황후 민씨와의 권력다툼으로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외세의 열강 속에서 부패한 탐관오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외세를 몰아내고 부패를 척결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하는 마음들은 각자 있었으나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東學敎를 창시한 崔濟愚 선생께서 “人乃天 事人如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면서 救世濟民의 큰 뜻을 가지고 인간 즉 백성은 누구나 만인평등함을 가르쳤다.

동학교를 따르는 지역은 전라도는 전봉준(녹두장군) 접주(지도자)가 말고, 중부지역은 제2대 교주 최시형이 맡았으나 잡혀 처형당하고, 제3대교주 손병희(3.1운동 독립선언문 서명자 33인 중 첫 번째)선생의 주도하에 교세를 넓혀 나갔고, 충남 태안 지역은 서산 지곡면에 살고 계시는 최형순 선생이 해월 최시형 선생을 만나 동학교에 입도하여 각 지방에 숨어 다니면서 동학교리를 전도하였다.

저희 증조부께서도 난세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한 일원이 되어 힘을 보태고자

동학교에 입도하시게 되었다.

헐벗고 굶주리는 농민들에게 수탈과 폭정을 일삼는 서산 군수와 태안 군수 등이 서산, 태안, 해미지역 동학교 접주 약 30여명을 체포하여 처형 직전에 동학교 선량한 농민들이 분개하여 서산, 태안관아 앞에 농기구인 삽, 곡괭이, 낫 등을 가지고 집결 분연히 봉기하여 관아를 습격하였으며 군수이하 폭정 관리들을 죽이고 점령하여 관리하면서 이어 전국으로 “동학농민군” 이 봉기함으로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관군으로 진압하기 어렵자 일본군을 끌어들이 조총과 총포 신무기를 갖춘 일본군과 흥성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은 소량의 총기류와 농기구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투를 하였지만 역부족으로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동학농민군”은 전사하고 붙잡혀 처형당하고 안타깝게도 후퇴하게 되어 해미, 서산, 태안, 백화산 전투에서 거듭 참패함으로써 수많은 “동학농민군” 이 전사하고 잡혀죽고 살은 자는 각기 흩어져 도망 피신하여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관군과 일본군은 동네마다 정밀 수색하여 “동학농민군”은 물론 숨겨준 협조자를 체포하여 산, 계곡, 개울가 등에서 무참히 학살하였다.

무능한 위정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세상을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바꿀 큰 뜻을 품고 “동학농민군” 과 선량한 백성들이 봉기하였으나 좌절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사하였다.

저희 증조부께서는 탈주하여 서산 팔봉산 금학리 깊은 산골(당시는 호랑이 출몰지역)에 숨어 살았으며 잡히면 삼족이 몰살되는 세상이라 고향인 태안 근흥면 정죽리에서 연락을 끊고 사시다가 별세하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동학농민군” 에 참여했는데 실패하여 “동학농민의 난” 이란 오명을 얻고 죽음에 이르렀으니 내 대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너희 대에도 뜻을 못 이루면 다음세대가 이루도록 하라고 설명하시고 동네사람들이나 관아에서 참여한 줄 알면 삼족을 멸하니 발설하지 말 것이며 족보는 물론 어디든지 근거를 남기지 말고 구두로만 죽기 전에 말자식에게만 알려주고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온다면 만인에게 밝히고 “동학농민군” 은 순수하게 봉기하였노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1919년 음력 11월 16일 별세하셨다고 제가 말미로 어릴 적 조부님에게 듣고 자랐다.

1919년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로 36년간 동안 핍박 속에서 살아왔고 외세에 의하여 해방되어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지만 각 파벌다툼과 6.25전쟁을 겪어 경제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감히 “동학농민군” 의 업적과 명예회복 및 위령

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1961년 이후 경제가 호전되어 자손들이 뜻을 모아 서산 태안 지역 “동학농민군 유족회”를 결성하여 1978년 10월 2일 충남 태안군 백화산에 “갑오동학농민군” 추모탑을 건립하고 매년 10월 30일 충남 태안군 군수 관계자 및 유족들이 모여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유족회에서 국가 관계기관과 국회에 수차례 명예회복을 건의하여 드디어 2004년 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학농민의 난”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이라고 변경하는 의결이 통과하여 그간 유족회의 어렵고 어려운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관계기관 및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여자들께서 명예회복이 되었으니 영원히 편안히 천상에서 잠드실 것이다.

2005년 9월 30일까지 각 도에서 “동학농민혁명군” 참여자 후손 증손자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접수등록을 마쳤으며 국가에서는 어떠한 보상은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회복이 된 것이 “동학농민혁명군 유족회” 회원으로서 무한한 영광이며 국가에 감사한다.

금년 단기 4353년(서기 2020년)은 제 126주년으로 태안 군수님 의회의장 관계자 및 유족회(문영식 회장) 회원들이 합심 노력으로 태안 백화산 기슭에 “동학농민혁명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완공 후 위령제를 성대히 봉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종로3가 사거리에 “동학농민혁명군” 전라도 전봉준(녹두장군) 접주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전라도 정읍에는 몇 년 전에 기념관이 건립되고 공원화하여 위패를 모시고 성대히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狀碣譯註】

文原君(諱 應龍) 一代에 대한 詳察



明倫會長/名法博 柳 三 鉉

1. 序

中宗朝에 奮義靖國功臣에 책록되신 文原君(휘 應龍)은 나의 14世祖이다. 公께서는 司馬試에 급제하신 후 司憲府監察, 京畿都事, 禮曹參判, 吏曹參判 등을 역임하셨는 바 그 記錄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 公의 年譜와 墓碣銘 등도 기록에 揭載하고자 한다.

2. 一代에 대한 詳察

公은 燕山·中宗 兩朝에 걸쳐 領議政을 역임한 文僖公(휘 洵), 号 老圃堂의 長子로 世祖9年(1463 癸未)에 楊州에서 출생한 公은 大승공18세손으로 成宗14年(1495 癸卯)에 司馬試에 급제하신 후 司憲府監察, 刑曹佐郎, 司憲府持平, 京畿都事, 宗親府典籤, 司僕寺僉正, 軍器寺正, 兵曹參議와 禮曹參判·吏曹參判 등을 두루 역임하고, 中宗元年(1506 丙寅)에 反正功勳으로 奮義靖國功臣에 책록된 다음 해에 文原君에 봉해졌다.

時禮의 가문에서 성장하신 公은 德器가 有餘하고 才識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풍만한 谷貌를 격상시키는 大耳와 白雲같은 수염으로 마치 그림에서나 볼 수 있을 仙骨의 風采로서 公을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畏敬스러움을 금할 수 없게 하였다.

老齡에 이르러서도 精神이 밝아 일이 급박하거나 번거로워도 행동함에 구애됨이 없었기로 貞顯王后 昇遐에는 都監提調의 大任을 수행함에 있어 喪事를 다스리는 모든 절차에서 古禮를 遵行하고 精誠과 敏捷으로 매사를 처리하시니 禮法에 정통하고

凡事에 精誠을 다하시는 公의 선비기질을 엿볼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朝廷에 계실 때 당시 文章巨擘과 더불어 酬唱하신 詩文들이 후손의 零落으로 전승되지 못하여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3. 年譜

年代			公의 年歲	主要內容	備考
西曆	王朝	干支			
				-家系 · 曾祖父：淙(議政府左贊成) · 祖父：思恭(左洗馬) · 父：洵(領議政, 文城府院君, 諡文僖) · 母：貞敬夫人 丹陽張氏 · 字：子雲 * 配：全州李氏 · 子：敬元(長男 無后) 敬長(次男：豊基郡守)	조선왕조실록 문화류씨세계보 문화류씨보감
1463	世祖9年	癸未	1	2월에 楊州(현 南楊州市)에서 출생	문화류씨세계보 문화류씨보감
1483	成宗14年	癸卯	21	司馬試에 급제	〃
1489	成宗20年	己酉	27	蔭職으로 社稷參奉, 그 후 司憲府監察을 거쳐 刑曹佐郎 拜命	〃
1495	燕山1年	乙卯	33	2月 副奉事	조선왕조실록 원전12집 65면
1497	燕山3年	丁巳	35	10月 直長	조선왕조실록 원전13집 292면
1501	燕山7年	辛酉	39	11月 司憲府持平, 그 후 京畿都事, 宗親府全籤	조선왕조실록 원전13집 455면
1502	燕山8年	壬戌	40	5月 司僕寺僉正, 副正	조선왕조실록 원전13집 494면
1505	燕山11年	乙丑	43	12月 軍器寺正	조선왕조실록 원전14집 32면
1506	燕山12年	丙寅	44	7月 禮曹參判	조선왕조실록 원전14집 60면
〃	中宗元年	〃	44	9月 奮義靖國功臣에 策錄	조선왕조실록 원전14집 75면
〃	〃	〃	44	11月 吏曹參判	조선왕조실록 원전14집 94면
1507	中宗2年	丁卯	45	嘉善大夫 參判	조선왕조실록 원전14집 148면
〃	〃	〃	45	5月 封 文原君	조선왕조실록 원전14집 151면

年代			公의 年歲	主要內容	備考
西曆	王朝	干支			
1507	中宗2年	丁卯	45	母親喪	문화류씨세계보 문화류씨보감
1517	中宗12年	丁丑	55	5月 父親喪	조선왕조실록 원전15집 277면
1539	中宗34年	己亥	77	12月 12日 77歲를 一期로 別世	문화류씨세계보 문화류씨보감

4. 墓表

公諱應龍字子雲文化柳也遠祖諱車達佐麗朝統合三韓名在勳籍逮古操諱原之官至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 增資憲大夫吏曹判書曾祖諱淙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領議政文川府院君行 世子左洗馬考諱洵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文城府院君諡文僖娶副知通禮門事張繼會女以天順癸未二月生公公年未弱冠己爲成人德器有餘才識過人中癸卯司馬試成化己酉蔭補社稷參奉至司憲府監察拜刑曹佐郎又陞司憲府持平歷京畿都事宗親府全籤司僕寺僉正副正軍器寺正擢拜兵曹參議俄超嘉善吏曹參判蓋吏兵兩曹政柄重地非其人不敵冒據公去就陞除咸得其宜人皆服其藻鑑正德丙寅以反正之功 賜公奮義靖國功臣號封文原君丁卯丁內憂服闋復封君四時之享忌日之奠一以至誠無或少懈嘉靖十八年己亥卒于丁寢享年七十七翌年庚子葬于楊州治東無屯山八夜之原與夫人李氏同原公生于詩禮之門早服鯉庭之訓德既內充儀形于外豐面大耳雲鬚如畫人望之先自畏敬年雖衰晚精神益明治煩剔劇動無所碍貞顯王后賓天公爲都監提調專治襄事動遵古禮處精敏人所不及凡在朝列咸知愛慕堂時文章巨擘無不相與酬唱皆服其敏噫以公之才之德不厥大族以相門世德揚歷崇秩盟藏金櫃年近八十世豈多得公娶宗室巖城守綸女生二男長曰敬元無后先歿次曰敬長中進士今爲內贍寺判官娶牧使權愚女生二男四女男曰德男今爲司憲府監察娶牧使成瑾之女生一女後娶縣監韓慶雲之女生五女曰成男中進士娶光山右族朴命世之女生一男女長適儒士張景安生三女次適儒士崔悅生三男次適儒士權規次適忠義成壽鐵文僖公與先考文戴公同捷科第以文章齊名一時推分相交不辛先考先卒文僖公撫余如己出以此公視余如第我亦常景仰而欽慕之謹記世系子孫而勒石焉

大提學 成世昌 撰

(譯文)

공의諱는應龍이요,字는子雲이니文化柳氏이다.遠祖는諱車達이니高麗太祖를도와三韓을統合하여勳籍에실리었다.高祖는諱原之니벼슬이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に이르고贈職은資憲大夫吏曹判書이며曾祖는諱淙이니贈職이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이요,行職은漢城府判官이며,祖考는諱思恭이니贈職이純忠積德補柞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文川府院君이요行職은世子左洗馬이며,考는諱洵이니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文城府院君諡文僖公인데副知通禮門事張繼曾의따님과결혼하여天順癸未(世祖九年)二月에公을出生하였다.

公은나이弱冠이못되어이미成人의德器가有餘하고才識이過人하여癸酉年에司馬試에合格하였다.成化己酉(成宗二十年)年에蔭職으로社稷參奉에補職되고司憲府監察에이르러刑曹佐郎에拜命하였더니또司憲府持平에陞進하고이어京畿都事宗親府典籤,司僕司僉正,副正,軍器寺正을歷任하고兵曹參議에擢拜되었다.얼마되지않아嘉善大夫에超陞하여吏曹參判이되었으니대개吏兵兩曹는政治에重要な곳으로서유능한사람이아니면감히함부로지내지못하는것인데公은去就와陞除에다그마땅함을얻으니사람들이다그見識에感服하였다.正德丙寅(中宗元年)에反正의功勳으로公에게奮義靖國功臣에號를下賜하고文原君을封하였다.丁卯에母親喪을당하여服을마치고다시封君되었다四時의祭享과忌日의祭奠을한결같이至誠으로하고萬에하나라도게을리함이없었다.

嘉靖十八年己亥(中宗三十四年)에正寢에서卒하시니享年이七十七歲였다.翌年庚子에楊朱고을동쪽無屯山八夜의언덕에安葬하니夫人李氏와同原이다.

公이詩禮의家門에서태어나일찍이가정교훈을잘받아德器가안으로充實하고儀表가밖으로나타났으며豊面大耳와白雲같은수염은그림같아서사람들이바라보고먼저스스로畏敬하였다.年歲가비록衰晩하였으나精神이더욱밝아事務가번거롭고급박하여도行動함에拘碍가없었다.貞顯王后가昇遐하심에公이都監提調가되어오로지襄事を다스리되節次에古禮를遵行하고處事に精敏하여사람들이미치지못할바가있었다.무릇朝廷에계실적에다들愛慕할줄알았고당시의文章과巨擘이서로더불어酬唱하지아니함이없으며다그敏捷함을感服하였다.

아아!公의才操와德行으로그다지크게베풀지못하였으나相門의世德으로높은官爵을歷任하시고功臣에策錄되었으며年歲가八十에가까우셨으니이세상에

서 어찌 얻기 쉬우리요.

공이 宗室에 巖城守 綸의 따님과 결혼하여 二男을 낳으셨으니 長男 敬元은 無后로 先歿하고, 次男 敬長은 進士에 급제하고 지금 內贍寺 判官인데 特使 權愚의 따님과 결혼하여 二男四女를 生하니 德男은 지금 司憲府監察로서 特使成瑾의 따님과 결혼하여 一女를 生하고 後娶로 縣監 韓慶雲의 따님과 결혼하여 五女를 生하였으며, 成男은 進仕에 뽑히고 光山右族 朴命世의 따님과 결혼하여 一男을 生하였다. 따님에 長은 儒士 張景安에게 출가하여 三女를 生하고, 次는 儒士 崔悅에게 출가하여 三男을 生하고, 차는 儒士 權規에게 출가하고, 次는 忠義衛 成壽鐵에게 出嫁하였다. 文僖公께서 先考 文戴公으로 더불어 科第에 같이 오르시고 文章으로 一時에 齊名하시어 서로 交遊하시다가 不幸히 先考께서 먼저 卒하심에 文僖公께서 나를 친자식같이 사랑하시었다. 이따므로 공이 나 보기를 아우 같이하고 나도 또한 항상 景仰하여 欽慕하였기로 삼가 世系와 子孫을 기록하여 돌에 새기노라.

5. 맺는 말

公께서 下世하신지 460여년이 지난 오늘 公의 墓城을 참배, 당시 大提學 遯齋 成世昌이 찬한 마모된 墓表를 拜觀하고 후손으로서의 불민함을 통감하면서 史料와 墓碑文에 의한 年譜를 정비·작성해 보았으며 公에 관하여 유일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는 墓碑文마저 거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기에 그 本文을 여기 에 載錄한다. 그리고 公의 墓誌銘은 弘文館副提敎 李湛(이담)이 撰하고, 墓碣銘은 領議政 洪暹(홍섬)이 撰한 記錄도 남기고자 한다.

앞으로 公의 墓碣 등을 비롯한 墓域정화를 위하여 後孫으로서의 道理를 다 할 생각이다.

參考文獻

- 朝鮮王朝實錄원전
- 歷代文化柳氏世譜
- 歷代文化柳氏左相公派譜
- 萬姓歷代始祖統譜典故大方(大正13年.漢陽書院)
- 大東奇聞(大正15年.漢陽書院)
- 文化柳氏寶鑑(1990.文化柳氏寶鑑編纂委員會)
- 儒州春秋(文化柳氏大宗會)

咸鏡兵馬節度使 柳公(諱 敬先)에 관한 詳察



文化柳氏大宗會 副會長 柳在聖

1. 序

大丞公의 19세손으로서 中宗14年(己卯. 1519)에 贈戶曹參判 휘 繼胤의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난 公은 贈左贊成公(휘 滄)의 셋째아들인 贈司僕寺正公(휘 思忠)의 증손이요, 進士 贈戶曹參判(휘 津)의 손이다.

公은 中宗38年(癸卯.1514)에 武科에 급제하여 郎將, 都摠府都事, 熊川縣監, 濟州判官, 梁山郡守를 지내면서 청렴과 근검으로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그의 치적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후 濟用監僉正, 漢城庶尹, 慶源府使, 忠淸水使를 거쳐 선조7年(甲戌. 1574)에 會寧府使, 咸北 兵馬節度使를 역임했다

公께서는 天稟이 고우시고 孝誠과 友愛가 독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史를 두루 읽어 事理에도 통달하였다.

또한, 친구를 성의로써 대하고 公職에 있어서는 근실하고 몸가짐이 아주 謹嚴하여 清廉과 勤儉으로 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모든 官職에서 물러난 公은 선조8年(乙亥. 1575)에 57歲를 一期로 下世하니 抱川先塋아래 乙坐原에 衣履를 收藏하였다. 배위 全州李氏는 尼城君 存光의 따님으로 公의 墓에 합부하였으며, 愚伏堂의 2子(進士 裕緒)를 맞아 系子하였다.

墓碣銘은 左議政과 領議政을 역임한 三從弟 伏愚堂 柳 堧이 撰하였다.

그후 1986年 4월 9일에 포천시 鄉土遺蹟(13호)으로 지정되었는 바, 기타 상세한

것은 墓碣銘 기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嘉善大夫咸鏡兵馬節度使柳公諱敬先墓碣銘

公諱敬先字欽仲文化大姓高麗公臣諱車達之後六代祖諱曼殊入 本朝爲贊成贊成生商議中樞院事諱原之中樞生贈左贊成諱涼贊成生贈司僕寺正諱思忠寺正生贈刑曹參議諱津參議公無子取母弟諱池之次子贈戶曹參判諱繼胤爲後即公考也司僕正以下三代贈爵皆以公貴也妣完山李氏宗室娥林君諱楨之女正德己卯九月壬寅生公公讀書不成因業武選補內禁衛嘉靖癸丑秋中觀射別試丙科第一人時稱得人丙辰拜郎將己未陞都摠府都事俄授熊川縣監爪萬而遞民有去後思壬戌除濟州判官甲子授梁山郡守六載無字政事頗著隆慶己巳授造紙署司紙由濟用監僉正遷漢城府庶尹庚午將赴靈巖郡時慶源府使有闕銓曹啓以待藩胡牧疲氓非廉謹勤幹之人決難堪任舉公擬處遂陞通政壬申入將三廳萬曆癸酉出爲忠清水使甲戌春陞嘉善拜會寧府使尋遷北道兵馬節度使未幾病遞乙亥二月丁亥卒于第享年五十七是年四月乙酉葬于先塋之兆抱川花山沉坊里乙坐辛向之原從遺命也公天質醇美篤於孝友涉獵書史通曉事理待親舊以誠御妻妾以禮奉公莅職恪勤不怠律己甚嚴清儉可稱實武弁中傑特人也邦國不幸未享期願之壽惜哉公娶宗室李氏贈尼城君諱存光之女無子取不穀之子裕緒爲後不穀於公三從昆季也知公甚祥不以文拙辭銘曰 積德之門篤生賢豪騰踏虎箱服勤輸勞屢佩銅章蔚有績遞俄北閩



兵馬節度使 墓域全景

實膺簡擢不大厥施天奪干城石

表峩峩萬古流名.

萬曆四年 乙亥 二月 日 刊立

嘉善大夫 禮曹參判 柳埴 撰

(譯文)

공의 휘는 敬先이요 字는 欽仲(흠중)이니 文化大姓으로 高麗功臣 諱 車達의 후예이다. 6代祖 휘 曼殊는 本朝에 들어와 贊成이 되고 贊成의 아들은 商議中樞院事 휘 原之요, 中樞의 아들은 贈左贊成 휘 淙이요, 贊成의 아들은 贈司僕寺正 휘 思忠이요, 司僕寺正 아들은 贈刑曹參議 휘 津인데 參議公이 아들이 없어 母弟 휘 池의 둘째 아들 贈戶曹參判 휘 繼胤을 취하여 아들을 삼았으니 곧 公의 考이다. 司僕寺正이하 3代의 贈爵은 다 公의 榮貴로 인한 것이다. 妣 完山李氏는 宗室 娥林君 휘 楨의 따님으로 正德 己卯(중종14년. 1519) 9월 壬寅日에 公을 낳으셨다.

公께서 글을 읽어 성공하지 못하고 武藝를 익히어 內禁衛에 選補 되었더니 嘉靖 癸丑(명종8년. 1553) 가을에 武科別試에 丙科 第1人으로 급제하니 당시에 훌륭한人材를 얻었다고 일컬었다.

丙辰年에 郎將에 除授되고 己未年에 都摠府都事에 陞進했더니 잠시 후에 熊川縣監에 除授되어 期로 遞任하니 백성들은 公이 떠난 후에도 사모함이 있었다. 壬戌年에 濟州判官에 除授되고 甲子年에 梁山郡守에 除授되어 6년동안 백성들을 다스림에 政事가 자못 드러났었다.

隆慶 己巳(선조2년. 1569)에 造紙署司紙에 제수되고 이어 濟用監僉正을 거쳐 漢城府庶尹으로 옮기었다.

庚午年에 장차 靈岩郡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慶源府使가 闕員된지라 吏曹에서 啓奏하기를 『변방 오랑캐를 상대하고 피폐한 백성을 다스리는데는 廉謹하고 根幹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하고 公을 差出하니 드디어 通政에 陞階되었다. 壬申季에 內職으로 들어와 三廳의 將職을 역임하고 萬曆 癸酉(선조6년. 1573)에 外職으로 나가 忠淸水使를 지내고 갑술년 봄에 嘉善에 陞階되어 會寧府使에 임명되었다가 조금 후에 함북 兵馬節度使로 옮기었다. 얼마 안되어 病으로 교체되어 乙亥(선조8년. 1575) 2월 丁亥日에 自宅에서 卒하시니 享年 57세이다. 이해

4월 乙酉일에 선영인 抱川 花山 沉坊里 乙坐原 辛向의 언덕에 葬禮를 모셨으니 遺命을 따른 것이다.

公은 타고난 품성이 순후하고 아름다워 孝誠과 友愛가 독실하였고 書史를 섭렵하여 事理에 통달하시었다. 친구를 성의로서 대하고 妻妾을 禮로써 다스리며 公職을 맡아서는 恪勤하여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몸가짐은 심히 엄하여 清廉과 儉約으로 가히 일컬었으니 실로 武官 중에서 傑特한 人物이었다. 나라가 불행하여 높은 壽命을 누리지 못한 것이 哀惜하도다.

公은 宗室 李氏 尼聖君 휘 存光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이 없음으로 불초 나의 아들 裕緒를 취하여 아들을 삼았다.

불초 나와 公은 三從兄弟로 公을 앞이 심히 자상하여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銘에 이르노니

德을 쌓은 家門에 어진 豪傑이 태어 나셨도다.

武科에 等第하여 勤實하고 勞苦가 많았도다.

수차례 고을 守令을 맡아 聲績이 蔚然하였도다.

北兵使에 除授됨은 실로 소중한 拔擢에 응하심이였다.

크게 베풀지 못하고 하늘이 干城을 앗아 갔도다.

表石이 높고 높으니 萬古에 名聲이 전하리로다.

萬曆 4년 乙亥(1575) 2월 일 刊立

嘉善大夫 禮曹參判 柳埴 지음

追記

舊碑가 歲月이 오래되어 風雨에 씻기어 字劃이 해져서 능히 분간하여 알 수 없으므로 舊刻을 본따서 새로 立石하였다.

萬曆 4년 乙亥(1575)에 立石한지 407년 후 癸亥(1983. 단기4316) 4월 5일에 세움.



嘉善大夫咸鏡兵馬節度使柳公諱敬先墓碣

3. 年譜

西曆	年代		公의 年歲	主要內容	備考
	王朝	干支			
				家系 高祖父 淙(證左贊成) 曾祖父 思忠(贈司僕侍正) 祖父 津(贈刑曹參議) 父 繼胤(增戶曹參議) 母 完山李氏 妻 全州李氏 子 裕緒	
1519	中宗 14년	己卯	1	경기도 抱川에서 태어남	
1543	中宗 38년	癸卯		武科에 급제	

西曆	年代		公의 年歲	主要內容	備考
	王朝	干支			
1556	明宗 11년	丙辰		郎將	
1557	明宗 12년	丁巳		五衛都摠府 都事 熊川縣監	
1562	明宗 17년	壬戌		濟州判官	
1564	明宗 19년	甲子		梁山郡守	
1569	宣祖 2년	己巳		造紙署司紙 濟用監 兪正 漢城府 庶尹	
1579	宣祖 3년	庚午		靈巖郡守	
1573	宣祖 6년	癸酉		忠清水使	
1574	宣祖 7년	甲戌		會寧府使 咸鏡北道 兵馬節度使	
1575	宣祖 8년	乙亥		57歲를 一期로 별세	
1986		癸亥		경기도 포천시 郷土遺蹟(13호) 으로 지정됨	

參考文獻

朝鮮王朝實錄

嘉善大夫咸鏡兵馬節度使柳公諱敬先墓碣銘(1575)

文化柳氏寶鑑(1990.文化柳氏寶鑑編纂委會)

文化柳氏左相公派譜(1998.文化柳氏左相公派宗親會)

文化柳氏世譜(2008.戊子譜)

壬辰倭亂시 殉節한 贈吏曹參判(諱 柳湜) 一代記



文化柳氏大宗會 理事 柳在澍

1. 序

公은 大丞公 19世孫으로서 慶山縣令 緒宗의 2男으로 明宗7년(壬子.1552) 明宗7년(壬子.1552) 정월 15일에 金海에서 태어났는 바, 文城君(諱 洙)의 玄孫이요 全羅右水使(諱 壩)의 孫이다.

宣祖25년(임진,1592) 4월 倭賊들이 대거 침략하여 釜山, 東萊를 거쳐서 4월 19일 金海城을 함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서 公은 왜적들이 月堂津(월당진)을 건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기를 “우리 집은 대대로 國恩을 입었는데 어찌 아서 망함을 기다리겠는가?” 하고, 家奴을 이끌고 城中으로 들어가니 府使(徐禮元)는 이미 城을 버리고 도망한 후였다.

이에 동향의 義士인 宋賓, 李大亨, 金得器와 더불어 士卒들을 격려하며 이르기를 “主守(주수)는 비록 도망하였으나 우리 4인이 있으니 원컨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을 동요하지 말라” 하니 모두가 수긍하였다.

이때 왜적들이 上流의 물을 막아 마실 물이 없어 곤경에 처한지라, 공께서 客館 서쪽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음으로써 士氣가 진작되었다.

한편, 적군을 대항하여 수십명을 죽였으나 賊勢(적세) 성하여 여의치 못하므로 宋, 李, 金 3公과 함께 통곡하면서 大關(大關)을 향하여 四拜한 후에 賊의 칼 아래 殉節하니 때는 동년 4월 20일 나이 41歲였다.

公의 墓는 김해군 태야면 수참산 壬坐原에 모셔졌다.



柳公井 標識板

2. 贈職, 柳公井 등

公께서 殉節된 후 이런 사실이 朝廷에 알려짐으로써 兵曹參議에 贈職되었다.

高宗9년(壬申.1872)에 府使 鄭顯奭이 府誌를 열람하고 公의 사적이 빠진 것을 애석히 여겨 觀察使에게 알리자 관찰사가 朝廷에 啓請하여 마침내 四忠壇을 세워 4公이 殉節한 4월 20일에 士林에서 매년 享祀를 하게 되었다.

그후 高宗22년(甲申. 1884)에 吏曹參判에 贈職되었다.

지금도 客館 터 아래 우물을 柳公井이라 부르며, 그곳에 “柳公井”이라고 새겨진 石들이 서 있다.



教旨

3. 配位와 家系

配位 尙山金氏는 濟州牧使 命胤의 따님으로 節行(절행)이 있어 부군의 참변 소식을 듣고 下從(하종 : 아내가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 自決함) 하였다.

墓所는 하동면 蒜山臺(산산대) 子坐原에 모셔 있다.

공은 1남을 두어 秀弘(수홍)이다. 배위 尙山金氏와의 사이에서 4남 1녀를 두어 英漢, 英湖, 英洛, 英汶과, 昌寧 成擘은 그 아들과 사위이다.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여 金海郡 進禮面 茶洞에 世居하고 있다.

4. 行狀과 墓誌銘

공의 行狀은 拓庵 金道和가, 墓碣銘은 都事 柳道獻이, 그리고 墓誌銘은 訥人 盧相稷이 각각 지었다.

5. 樂吾公(諱 柳湜)의 墓碣銘

匹夫而抗豕突之賊一死而報君父之急誓以必死與城俱亡苟非早辨熊魚志存社稷則其孰能與於此哉我東龍蛇之厄尙忍言哉八路魚肉群生波蕩其有能犯凶鋒直向以御者耶矧又金主一郡當賊鋒初犯之路蹂躪充斥尤有甚焉公以年少一布衣奮不顧身雪涕誓衆竟以身殉之其精忠偉烈直與忠武李公齊奉高公同一義理而表章爵 贈有所差殊焉則志士之憾顧當何如哉公之十世孫興轍氏攜家狀短幅而云不倭而乞銘焉則有非淺識蒙學所可承當顧事契之重不可以終辭謹依來狀撰次如左公諱湜字樂樓文化人左議政曼殊六代孫文城君殷之五代孫安襄公洙玄孫府使 贈左贊成伯孫曾孫 中廟朝征倭功臣全羅水使號慎翁壻孫考諱緒宗官縣令以 明廟壬子正月十五日生公壬辰四月二十日殉 國享年四十一日墓在府南台也面水塹山丙向原衣履葬也配尙州金氏節行莊一閨變而死從墓在府東下東面蒜山子坐之阡生一子秀弘是生四男長英漢次英湖次英洛次英汶英漢生二男時春時泰英湖生五男時柱時楨時樑時楫時檀英洛生二男時栻時楹英汶生三男時樞時梓時相曾玄以下不錄嗚呼公以貞純之姿慷慨之志當 國家中否之運始賊兵之渡月堂津也公慨然長歎曰吾家世受國恩豈家坐而待亡遂與家人訣率家僮入府則府使徐禮元棄城去遂與宋公實李公大亨金公得器撫慰士卒曰主涿踞去吾四人在願一心報 國無或撓咸曰諾已而賊壅水上流城中病渴不得飲皆言出降公立誓言降者一隊軍中肅然公於客館西階前拙地得井揚水示賊賊以爲神凡七晝夜謹守衆情恃而爲賴賊相謂曰此城中必有能者是日賊刈麥與城齊遂攔入公拔劍在前手殺數百級而賊勢漸熾知事不濟乃與宋李金三公就 殿牌下號天慟哭北向拜 闕罵賊不屈而死之卽四月二十日也客館下階井至今名爲柳公

井亂靖後事聞于朝 贈兵議今上壬申府使鄭公顯爽閱府誌以柳公之見漏於表忠深致慨惜之意請依晉州忠烈壇東萊宋公壇之例請于方伯啓聞于 朝乃設四忠壇與宋李金三公每年殉節之日士林俎豆之其後甲申加 贈亞銓亦異數也系以銘曰

國勢中否島夷內訌勢若風雨孰抗其鋒公時奮袂雪涕杖刃之死靡他與城以殉烈烈之光彌瓦窮宙築壇以享塹山之右一片麓牲尚闕顯刻今謀伐石以表偉烈我銘示後俾垂千億

行禁府都事豐山柳道獻謹銘

(譯文)

匹夫로서 돼지처럼 돌진해오는 적을 막아 한번 죽음으로써 君父의 위급함에 보답하고 반드시 죽기를 맹세코 성의 함락과 함께 자신도 죽었으니 진실로 의리를 바로 알고 국가의 存亡에 뜻을 두지 않았다면 그 누가 능히 이와같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壬辰년(3925. 1592)의 危禍는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八道가 생선고기처럼 참살당하고 백성들이 물결처럼 쓸려나가는데 누가 능히 흉악한 賊鋒(적봉)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막을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또 金海의 온 고을은 賊鋒을 처음 당하는 길목이어서 유린되고 피해됨이 더욱 심하였다.

公은 年少한 한 선비로서 격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눈물을 씻고 군중과 맹서하여 마침내 몸소 殉節하였으니 그 精忠(정충)과 偉烈(위열)은 바로 忠武李公, 齊峰高公과 더불어 한가지 의리였는데 表章의 爵贈이 차이가 있으니 志士의 유감됨이 어떠하겠는가?

公의 10世孫 興轍(흥철)씨가 집에 감추어 두었던 짧은 글 한쪽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며 碑銘을 청하였다. 識見이 열고 學問이 없는 내가 감당할 바가 못되나 일의 중요함을 생각컨대 끝내 사양할 수 없어 삼가 가져온 行狀을 살펴 아래와 같이 짓는다.

公의 諱는 湜(식)이요, 字는 樂棲(낙서)이니 文化人으로 左議政 만수(曼殊)의 6代孫이요, 文城府院君 殷之(은지)의 5代孫이며, 安襄公 洙(수)의 玄孫이고, 府使 贈左贊成 伯孫(백손)의 증손이며, 中宗朝에 왜적을 무찌르는데 功을 세운 全羅水使 號 愼翁 壩(용)의 손자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緒宗(서종)이니 벼슬이 縣令이다.

公께서 明宗 壬子년(3885. 1552) 정월 15일에 태어나 壬辰년(3925. 1592) 4월 20일에 순절하니 향년 41歲였다.

墓는 金海府의 남쪽 台也면 水塹山(수참산) 丙向의 언덕에 있으니 옷과 신발을 묻은 곳이다.

配位는 尙州金氏이니 지조가 굳고 단정하여 엄숙하더니 공의 變故를 듣고 따라서 순절하였다. 墓는 金海府의 동쪽 하동면 蒜山(산산) 子坐의 언덕이 있다.

슬하에 아들 한 분을 두었으니 秀弘(수홍)이다. 이 분이 네 아들을 두어 말은 英漢(영한)이요, 다음은 英湖(영호), 英洛(영락), 英汶(영문)이다.

英漢이 2男을 두어 時春(시춘), 時泰(시태)이며, 英湖가 5남을 두어 시주(시주), 時楨(시정), 時樑(시양), 時楫(시집), 時檀(시단)이고, 英洛이 2남을 두어 時拭(시식), 時楹(시영)이며, 英汶이 3男을 두어 時樞(시추), 時粹(시재), 時相(시상)이다. 증손, 현손이 하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아아! 公은 정순한 자질과 강개한 의지로 국가가 중간에 액운을 만났을 때를 당하여 처음 賊兵(적병)이 月堂津을 건너 쳐들어 옴에 공이 개연히 긴 한숨을 내쉬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앓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다리겠는가?” 하고 드디어 집안 사람과 작별한 후 집에서 부리던 종들을 거느리고 府中으로 들어가니 府使 徐禮元은 이미 城을 버리고 도망하여 없었다. 드디어 宋公賈, 李公大亨, 金公得器와 사졸(士卒)을 위로하여 이르기를 府使는 비록 떠나고 없지만 우리 네 사람이 있으니 원컨대 한 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여 조금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얼마 후에 적들이 물의 상류를 막아 온 城안이 마실물이 말라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나가서 항복하자고 하였다. 공은 곧 항복하자고 말한 자를 목베니 온 군중이 숙연해졌다. 공께서 객관 서쪽계단 앞에 땅을 파서 샘 얻어 물을 품어 적에게 보이니 적들이 귀신이라고 했다. 무릇 七晝夜(칠주야)를 부지런히 지키니 여러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니 적들이 서로 이르기를 이 城안에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날 賊이 보리를 베어 城높이로 높이 쌓고 드디어 넘어들어 옴으로 公은 칼을 뽑아 들고 앞장서서 손수 수백명을 죽였으나 賊의 형세가 점점 치열하여 일이 여의치 못할 것을 알고 宋. 李. 金三公과 殿牌 아래 나아가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북쪽을 향해 대궐쪽으로 절하며 賊을 꾸짖어 굴하지 않고 죽으니 곧 4월 20일이었다.

客舍의 계단아래 우물을 지금도 柳公井(류공정)이라고 이름하여 전한다.

난리가 평정된 후 이 일이 朝廷에 알려져 兵曹參議에 贈職되었다.

今上 高宗 辛未년(4204, 1871)에 府使 鄭公顯奭이 府誌를 읽다가 柳公의 忠節 사실이 빠진 것을 보고 매우 개탄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淸州 忠烈壇과 東萊 宋公壇의 例대로 할 것을 觀察使에게 청하니 관찰사가

朝廷에 아뢰어 드디어 四忠壇을 설치하고 宋.李.金三公과 함께 매년 殉節한 날에 士林이 祭享을 드렸다. 그후 高宗22년(1884. 甲申)에 參判을 더하여 贈職하니 특별한 예우였다. 이어 銘에 이르기를

나라 형세 비색하여 섬 오랑캐가 침입했네.
 風雨 같은 그 形勢 누가 그 氣勢를 꺾으리오.
 공개서 분발하여 눈물짓고 칼을 잡았네.
 죽기로 결심하고 城과 함께 殉節했네.
 열렬한 그 빛은 宇宙에 뻗었구나.
 壇을 쌓아 제향하니 塹山(참산)의 오른편이로다.
 한 조각 碑石을 아직껏 못세웠더니
 이 銘 後世에 보여 千億年을 전하리라.



樂吾公(諱 柳湜)의 墓表



樂吾公(諱 柳湜)의 墓域

6. 柳公井記

有井焉在金官府客館之前地非浚都之寒泉水非太華之玉井而混混而出寒冽可食此故老所稱柳公之井也嗚呼異哉蓋聞國家龍蛇之難金官一城廩然在賊圍之中門以外皆賊所據也城中舊無數仞之井所恃而食者惟城外溪水耳不意晉陽之保障反位疏勒之擁絕渴梅之望遠矣笮馬之術窮矣將使一府殘命往色於枯魚之肆而雖有智者不知所以爲齊謀也時則柳公以無生之心親輓籠之役面訴蒼穹而感格冥冥之聽手掘平地而挽回滾滾之源清泉瀆湧萬口懽呼不待乞水於西河而已見轍駟之洋洋矣以謂之人謀可乎謂之鬼謀可乎無名可名故特謂之柳公井只今數百載之下郵傳而不忘則蓋柳公之不可能者賊奴而可能者天乎今因後孫興轍君之請略書所感如此俾歸刻于石系之以歌曰井之水淵淵兮井之石磊磊石可泐而水可涸兮柳公之名天壤俱弊諱混字樂棲云

聞韶 金道和 書

(譯文)

우물이 金海府 客舍앞에 있으니 땅은 浚都의 寒泉이 아니요, 물은 太華의 玉井이 아니나 흐르고 흘러 맑고 시원해서 마실만한데 이를 故老(고노)들이 柳公의 우물이라고 일컫는다.

아! 기이하구나. 들으니 임진왜란 때 金海의 한 城이 위태롭게 賊의 포위망에 들어 城門 밖은 모두 賊이 점령하고 있었다. 城안에는 예부터 몇질 되는 우물이 없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다만 城 밖의 시냇물 뿐이었다.

뜻밖에 晉陽城(진양성)의 보루가 도리어 蔬勒城(소륵성)의 물길이 끊어지는 듯 하고, 목마른 梅林(매림)을 생각할 희망도 없고 말뚝즙을 짜서 마실 께도 없었다.

그리하여 온 府中(부중)의 殘命(잔명)을 마른 고기 가게에서 찾을 지경이어서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구제할 께를 내지 못했다. 이때 柳公이 죽을 결심으로 친히 우물을 파는 일을 맡아 직접 하늘에 호소하여 어두움 속에서도 몰래 듣는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손수 平地에 우물을 파서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내니 맑은 샘이 솟아나 많은 사람이 호소하여 西河(서하)의 물을 빌리지 않더라도 수레바퀴 자국 에 권 물에서 말라 죽어가는 붕어가 기운을 퍼며 살아나는 것처럼 되었다.

이를 말할 때 사람의 머리에서 짜낸 께라고 해야 옳겠는가? 무엇이라도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柳公井(류공정)이라고 하여 수백년 후인 지금까지 전

하여 잊지 않는다. 대개 柳公이 불가능한 것은 왜적이요, 가능한 것은 하늘을 感動시킨 일이었던가?

지금 후손 興燾(흥도)씨의 청으로 대략 느낀 바를 이렇게 적어 돌아가서 碑石에 새기게 한다. 이어서 노래를 붙인다.

우물의 물은 깊고 깊고

우물의 돌은 쌓이고 쌓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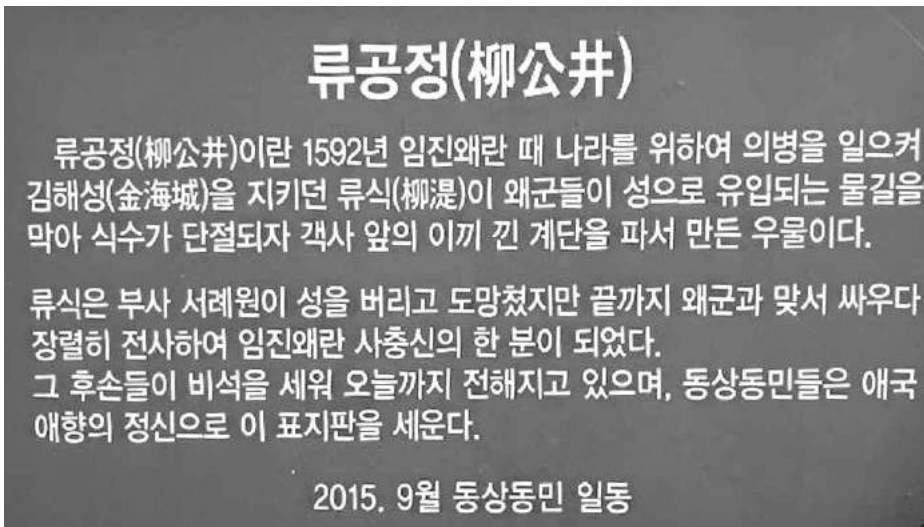
이 돌 다 부서질망정

우물이야 마를소냐.

柳公의 높은 이름

天地와 함께 전하리라.

公의 이름은 湜이요, 字는 낙서(樂棲), 號는 樂五(낙오)일러라.



柳公井 案内表示板

參考文獻

- 樂吾公(諱 柳湜)의 墓碣銘(行禁府都事豊山柳道獻)
- 柳公井記(聞韶 金道和).
- 文化柳氏世譜(1926. 丙寅譜)
- 金海邑誌(1984. 金海文化院)
- 金海人物誌(1989. 金海文化院)
- 朝鮮襄興勝覽(1894.金海文化院.伽倻文化研究會)

- 古文獻 金海史料集(1990. 金海文化院)
文化柳氏寶鑑(1990.文化柳氏寶鑑編纂委員會)
松潭書院誌(1996. 松潭書院)
文化柳氏左相公派譜(1998.文化柳氏左相公派宗親會)
金海金石文總覽(1999. 金海文化院)
車柳大宗報(2006. 通卷 第33號)
文化柳氏世譜(2008. 戊子譜)



烈婦孺人朴氏墓碣銘并序



文化柳氏 前判事公派宗會長 柳世鉉

始祖 大丞公29世인 在沃公은 正祖원년(1776 丙申)출생, 正祖4년(1779 己亥) 5월 16日 病患으로 別世하자 公의 아내인 龜山朴氏가 남편을 따라 殉節하셨는 바 그 行狀은 다음과 같다.



烈婦孺人 龜山朴氏 之墓 및 墓碑
文化柳公 大丞公 29世孫 在沃公의 配位(合墳)

烈婦孺人朴氏墓碣銘并序

夫者妻之所從而夫死殉節此天經地義之撐宇宙而立人紀者也歷數千古絕無而僅有文化柳公在沃之妻朴氏殆其人焉墓在漆谷之長嶺山負良原魯附也孺人龜山氏也父諱昇禧龜山君諱碩輔之後也柳氏漆之著姓也以麗太祖勳臣諱車達爲得姓祖累傳至廷懋判事自信川移居于八莒曾祖諱壽海號西川受業于陶庵李先生祖諱相聖考諱命新俱有隱德孺人溫良貞淑敏慧絕倫不煩姆教而能敬謹女事年未成童已通孝經內則稔成婦道及歸于柳氏事舅姑極備孝養奉夫子務盡和敬閨房斬然有度未幾夫遘疾甚欲藥餌饘粥不使婢僕而親自煎熬以進淨潔糞尿不見汗穢坐臥扶護暫不離側夜則衣不解帶目不交睫每更深沐浴祈天請以身代如是者累月未以己未正月十六日竟不起距其生丙申年歲二十四孺人亦年二十四哭不痛甚仰慰舅姑襲斂諸具一一剪裁誠信備至誓心下從其辦枚其夫危篤之日而家人莫知其意少不爲慮至曉飲毒而逝傍人物驚悟舉家鴻洞救己無及輿夫死之明日也葬其月日事在邑誌及輿地勝覽無育從子永錫入而爲嗣永錫生寅寅運寅應無子以弟寅運子承烈爲嗣出女李樞一承烈生志勳玄孫以下不錄嗚呼孺人以若卓節懿行宜有崇裒之典而刺使不以聞迄今日數十年而寥無聞焉實爲輿情之抑鬱玄孫志勳恐先德之湮沒將樹碣而表其阡蹟之顯晦其亦有時而然歟請余以牲石之辭余何敢當是寄累辭不獲已迺按其狀而叙次之銘曰

庚子榴月下澣

月城人 李善雨 謹撰

壬申 義城郡 安平面 石塔里 甲坐之原 移葬

六世孫 時鉉 謹書

열부유인박씨묘갈명병서(烈婦孺人墓碣銘并序)

남편을 아내가 따라야 하는 바이나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순절(殉節)함은 이것이 하늘의 경위(經緯)와 땅의 의리(義理)로서 우주(宇宙)를 지탱하며 사람의 기강(紀綱)을 확립하는 것이다.

수천년의 오랜 기간을 거치도록 이런 殉節은 없었으며 겨우 있었음을 文化柳公재 옥(在沃 : 1776年 丙申)의 아내 박씨(朴氏 : 1776年 丙申)가 자못 그러한 사람이리라. 墓所는 칠곡(漆谷)의 장등산(長燈山) 양원(良原)을 등에 지고 남편의 墓 곁에 있다.

유인(孺人)은 구산박씨(龜山朴氏)이시고, 부친(父親)의 휘(諱 : 이름)는 승희(昇禧)니 구산군(龜山君)이신 휘(諱) 석보(碩輔)의 후손이요, 류씨(柳氏)는 칠곡(漆谷)의 저명(著名)한 성씨(姓氏)로서 고려태조(高麗太祖 : 王建)의 훈신(勳臣)이셨던 휘(諱) 차달(車達)은 류씨(柳氏)란 성씨(姓氏)를 얻은 시조(始祖)이다.

여러 대(代)를 거쳐 판사(判事) 정무(廷懋)에 이르러 신천(信川 : 황해도 신천군)으로부터 팔거(八莸 : 大邱市 漆谷)에 이사(移徙)하여 살게 되었다.

증조(曾祖)의 휘는 수해(壽海)니 호(號)는 서천(西川)이시며 도암(陶菴) 이선생(李先生 : 李緯 1680~1440)에게 학업을 수학하셨고, 조(祖)의 휘는 상성(相聖)이요 고(考)의 휘는 명신(命新)이니, 모두가 德을 숨기고 벼슬을 하지 않으셨다.

유인(孺人 : 朴氏)은 온량(溫良)하고 정숙(貞淑)하며 민첩(敏捷)함과 지혜(智慧)가 동료들 보다 뛰어났으며, 여자의 일을 능히 경건하고 삼가 나이가 성동(成童 : 15세 이상)이 안 되어서 이미 효경(孝經 : 책)과 내칙(內則 : 책)을 통달하였고 넉넉하게 부도(婦道 : 婦人의 道理)를 이루었다. 류씨(柳氏 : 남편)에게 시집을 가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버니를 섬김에 있어서 孝誠으로 봉양함을 극진하게 힘쓰니 규방(閨房)이 끊은 듯이 법도가 있었다.

얼마가 지나가지 않아서 남편이 질병에 걸려 매우 위극(危極)하자 약이(藥餌 : 藥과 滋養分이 있는 飲食)나 전죽(饘粥 : 된 粥과 묽은 粥)을 비복(婢僕 :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고 친히 달이고 볶아서 드렸으며 대변이나 소변도 정결하게 하여 더러움이 보이지 않게 하였고 앓거나 누우면 부축하여 보호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밤에는 옷의 허리띠를 풀지 않고 눈을 붙여 잠은 자지 않고서 매일 깊은 삼경(三更)에 목욕을 하고 하늘에 기도하며 자신이 남편의 병환을 대신하게 하여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달을 하였으나 남편은 기미(己未 : 1799年)년 정월 16일에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가 태어난 해가 丙申年이니 나이는 24세이었고, 유인(孺人)도 역시 나이가 24세이었다.

심한 통곡을 하지 않고 슬픔을 참으면서 우러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염습(殮襲)할 제반 도구를 하나하나 자르고 재단(裁斷)하여 정성과 신의로 지극히 준비하고는 남편을 따라 죽기로 맹서하며 그것을 낱알이 마련함은 그의 남편이 위독하던 날이었는데 집안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았더니, 새벽에 이르자 독약을 마시고 죽었으나 곁에 사람들은 놀라서 깨닫지도 못하였고 온 집안이 홍동(鴻洞 : 連續)하여 구원하였으나 이미 미치지 못하였으니,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날이었다. 장례는 돌아가신 그 월일에 치렀고, 그러한 사실이 邑誌와 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혈육이 없어서 종자(從子 : 조카)인 永錫이 들어와서 後嗣가 되었다.

永錫은 인응(寅應)과 인수(寅秀)와 인운(寅運)을 낳았다.

인응(寅應)은 아들이 없어 동생인 인운(寅運)의 아들 승렬(承烈)로서 후사(後嗣)를 삼았고, 딸은 이추일(李樞一)에게 출가하였다.

승렬(承烈)은 지훈(志勳)을 낳았으며, 현손(玄孫)이하로는 기록하지 않노라.

아! 탄식하노니 유인(孺人)의 이와 같은 탁월한 節義와 아름다운 行實로서 마땅히 높히 褒賞하는 은전(恩典 : 旌門이 내려짐)이 있어야 하는데도 자사(刺使 : 地方官)가 임금님에게 알리지 않아 금일에 이르는 수십년 토록 고요하게 소문이 나지 않아 실로 여러 사람들의 人情에 억울함이로다.

현손(玄孫 : 高孫)인 지훈(志勳)이 선조님의 德이 사라져 없어질까 두려워 장차 비석을 세워 묘소에 표시를 하려고 하였으니, 行蹟이 캄캄하게 묻혔다가 나타나게 됨도 그것 역시 때가 있어서 그러하리라. 나에게 비석에 새길 글을 요청하기에 내가 어찌 감히 이러한 부탁을 담당하리오! 여러 차례 사양하여도 되지 않기로 이에 그 행장(行狀 : 一代記)을 살펴보고 차서(次序)대로 敍述하였노라.

명(銘 : 行績을 생김)을 지어 말하겠노라.

하늘이 아니면 어찌 실을 수 있으며, 義理가 아니면 어찌 이행할 수 있으랴!

죽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니 나의 마음이 편안하게 여겨지네.

열부(烈婦)의 매서운 빛과 氣運은 세상의 사이에 特異한 바 이로다.

내가 명(銘)을 지어서 소상하게 새겼으니, 백성들의 땀땀한 人倫은 어긋나지 않으리라.

1960年(庚子) 유월(榴月) 하한(下澣)에

월성인(月城人) 이선우(李善雨)는 삼가 지음

1992年(壬申) 義城郡 安平面 石塔里 甲坐原 移葬(雙墳)

6世孫 시현(時鉉)은 삼가 글쓰

此軒公(諱 寅淑)의 事蹟



文化柳氏 判/正郎公會長 柳昌鉉

文化柳氏 判事公派 此軒公(諱 寅淑)은 始祖 大丞公의 31世로서 高宗4年(1866 丙寅) 9月 13日에 出生, 漆谷鄉校 都有司(鄉校長)을 지내시고 己巳年(1929年) 7月 18日에 졸하신 公의 事蹟은 다음과 같다.



此軒公 寅淑鄉長(大丞公 31世孫)의 墓所 및 墓碑
漆谷鄉校 都有司(典校)

此軒公(諱 寅淑)의 事蹟

此軒文化柳公寅淑之墓碣文(碑文)

公의 諱는 寅淑, 字는 敬九, 號는 此軒, 姓은 柳氏, 貫鄉은 文化人 高麗統合三韓壁上功臣 鼻祖 大丞公 諱 車達의 三十一世孫 西紀 一八六五年陰九月十三日 慶北 漆谷郡 漆谷面 現 大邱市 北區 校洞에서 出生하시어 一九二九年 陰七月 十八日 六十四歲를 一期로 卒하시다.

公의 高祖의 諱는 相聖, 字는 而顯, 曾祖의 諱는 景新, 字는 和仲 祖의 諱는 在享, 字는 汝賢, 考의 諱는 軫銀, 字는 士允, 號는 松史, 配는 慶州李氏 益齋 齊賢公의 後孫 春榮公의 女이다.

朝鮮朝 開國 무렵 大丞公 十三世孫 判事公 廷懋의 子 縣監公 斯榮 孫 郡守公 溟이 漆谷郡 枝川面 上枝洞으로 入鄉 大丞公 二十一世孫 禮曹正郎 以安公께서 四百餘年前 入莒로 移住 代代로 이어 學問을 崇尚하며 德을 쌓아 漆谷 竹田下, 柳氏로서 他家門의 稱頌을 받았다.

公의 先考 松史 軫銀公께서는 朱書遺稿 百餘篇을 남겼으나 未傳. 公은 幼年時 言行이 出衆 大人의 風貌로 學問에 精進, 詩書에 通達 人格과 德望이 높아 入相出將의 境地에 이르러 道와 德이 上善若水와 같았으며 行蹟을 鄉校 明倫堂에 懸板하여 詳記 되었으나 一九五〇年 六.二五動亂으로 自筆遺稿 上下篇과 同時에 遺失되었으니 後孫의 哀痛함이라. 公은 또한 그 名聲이 嶺南一帶뿐만 아니라 八道에 이르렀다. 그러나 韓末 國運이 衰退함에 따라 後學을 育成 勉勵하고 鄉校의 鄉長으로서 儒者의 道理를 다하니 公의 文名과 德望으로 恒常 來訪客이 끊이지 않아 柳氏門中을 內外에 빛나게 하였다.

公은 同志들과 國運回復을 위하여 勞力하고 黃海道 九月山 大丞公의 墓所에 靑孫 志淳과 同行參拜하시다.

一九二六年 丙寅譜 六十卷 完刊의 大役事에 有司로서 積極 參與하여 文化柳氏 判事公波의 名譽를 지키셨다.

公의 長子 夏烈, 次子 殷烈, 女適에 玉山人 張祉勳, 東萊人 鄭讚鎮, 孫 志一 志炫 志龍 志注 志勇 孫女適 德山人 李相鎮, 淸風人 金振聲, 女 志姬, 晉州人 姜昌赫, 慶州人 崔學逸, 金海人 金丙弘, 曾孫 世鉉 昌鉉 震鉉 允善 丁鉉 庚鉉 淵善 昌均 昌佑 曾孫女適 昌寧人 曹善九, 慶州人 李昌雨, 江陵人 劉守鍾, 慶州人 金浩龍, 全州人 李贊

雨, 密陽人 朴勝大, 南陽人 洪明表, 晉州人 柳任睦, 密陽人 朴永秀, 慶州人 崔達洙, 延安人 李應奭, 淸風人 金裕錫, 女 貞伊 等 後孫이 綿綿하나 餘不盡錄이라. 또한 門中 家家戶戶 訪問으로 和睦가 友愛를 敦篤히 하여 他的 龜鑑이 되었다.

門中の 後日을 期約하여 先塋山과 位士畝를 共同名義로 登記하여 柳氏 門中 全體의 所有로 遺産을 남기셨다.

其後 一九九二年 十月에 大邱市 北區 鶴享洞의 長嶺山 龍嶺山이 軍에 收用되어 現地 義城郡 安平面 石塔里 月明山에 通訓大夫 禮曹正郎公 墓以下 先塋을 移葬하니 公 또한 安息處를 마련하시다. 余의 同門 殷烈 子 志勇과 公의 長孫 志一이 來防하여 以文獻으로 墓碣文을 請願하니 欣然히 敬撰하였다. 公의 큰 뜻을 기리기 爲하여 오랜 歲月동안 宿願해오던 碑石을 이곳에 세우다. 銘曰

名聲藉藉 赫赫柳門 子孫藁藁 百世昌昌

檀紀四三三三年 西紀 二〇〇〇年 陰二月 日 清明

前慶北大學院長 理學博士 淸州人 楊麟錫 謹撰

撰助 孫 志一 志洙 志勇 曾孫 世鉉 昌鉉

諮問 胄孫 圭鉉

監修 斗烈 志雲 尙鉉

儒道會總本郡常務委員成兼均館典儀 旁曾孫 時鉉 謹撰



中樞副使 柳公(諱 秀男)의 事蹟



文化柳氏 貞肅公派 · 大宗會理事 柳濟福

1. 연혁

大丞公13세손이신 貞肅公(휘 廷顯)의 8세손 秀男公은 明宗11년(1616년 乙卯)에 휘 덕공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 바 秀男公 후손들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수동마을 일대에서 집성村을 이루고 살아왔다.

그리고 黃海道觀察使를 역임하신 貞肅公의 차남 휘 章公의 후손들이 世居하고 있는 沃川은 본래 新羅의 고시산군(古尸山郡)으로 高麗때 沃州로 改稱되었었다. 그후 조선 조 太宗13년(1412 壬辰)에 지금의 옥천으로 改稱하면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편입시켰다.

이 고을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環山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山의 절벽마다 층층이 갈라놓은 모양이 마치 사람의 치마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赤壁歌 12폭의 병풍바위로 되어있다. 그 길이가 무려 700m나 되며 주변의 山은 문필봉, 봉화봉, 태봉으로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山水가 빼어난 곳이기도 하다.

들녘은 좁고 인가도 많치 않아서 한적하기가 그리없는 곳이다. 이곳의 사방을 둘러 보면 山林이 무성한데다가 푸른빛을 머금은 사빛은 여러 軍卒들을 이끌고 처마 끝에 나지막히 읍을 하고 서있는 것과 같다고도 한다.

2. 입향유래

이 고을은 원래 奎州李와 淸州韓氏의 세향(世鄉)이라고 하나 우리 文化柳氏가 입향한 후 대대로 生員, 進, 都正, 현감, 효열정려(孝烈旌閭)가 속출하였는 바 소위 班列의 上位라는 대가에서도 그 행의와 세덕을 추중치 않은 이가 없었다.

한편 世祖 즉위 후로 沃川고을로 처음 입향하신 先祖께서는 貞肅公(휘 廷顯) 둘째아

들이 黃海道觀察使(휘 章)의 증손이 通德郎公(휘 實)인데 公의 배위 沃川陸氏의 고향인 이곳으로 입향하여 數代를 살다가 通德郎公의 아들이로서 학자인 承星公이 두 아들을 두었다. 長子는 文欽이요, 次子는 文鈞인 바, 文欽은 3代를 독자로서 이어 오다가 증손 枝擘이 希男, 希孫 형제를 두었다.

그리고 希男의 후손은 금산군 군북면·추부면, 완주군 초포면·고산면·운주면 일대에 세거하고, 希孫의 후손은 금산군 남일면 신촌리에 世居하고 있다.

또한 承星公의 둘째아들 문균(文鈞)은 아들 양(陽)과 德(戶長公) 형제를 두었으나, 陽은 무후되고, 德은 슬하에 秀男(中樞府使), 得男, 國男, 厚男 4형제를 두었다.

그후 國男은 절손되고, 秀男의 후손은 대단히 번창하여 敎官公(휘 始興), 敬業 察訪公(휘 景擘)으로 이어지다가 達義, 達善, 達遠, 達聖 4형제를 뒀으므로 그 후손들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世居하고 있다.

德의 둘째아들인 得男은 아들이 없어 弟氏 厚男의 둘째아들 시울(始鬱)을 입양하여 그 후손들이 옥천, 서울 등지에 世居하며, 厚男의 후손들은 무주, 영동, 옥천, 전주 등지에 離居하여 대단히 번성하고 있다.



3. 宗支와 世居

여기에 모신 3인의 墓所는 당초에 옥천읍 문정리 선영에 계시었으나 2020년(庚子)에 옥천군 체육시설 조성 공사로 부득이 현재의 군북면 추소리 산60-1, 明堂 터로 이장하여 碑文에 기재된 坐向과 장소는 현재의 장소와 같지 아니하다. 이곳 세 분의 先祖는 大丞公의 21, 22, 23세손이다.

가. 大丞公(휘 車達)의 21세손인 秀男은 察訪公이며 中樞府使로 配位는 정부인 星州 裴氏(貞夫人)이다. 公은 貞肅公 崇祿大夫 領議政(휘 廷顯)의 9세로 아들 始興, 始星, 始番 3형제를 두었다.

나. 始興公은 秀男公의 長子로 內賜庭試에 합격하여 小學敎官에 제수되었다. 重峰 趙憲선생의 祠宇인 옥천 表忠祠에서 尤庵 宋時烈선생을 따라 시종 행사를 주관하였다.

공의 이러한 사실은 본사 도기(本祠 到記)에 기록되어 있다.

公은 대승공의 22세손이고 貞肅公(휘 廷顯)의 10세손으로 配位는 貞夫人 沃川 黃氏이며 아들(昌叔)은 경진생(庚辰生, 1580~1664)으로 丙賜庭試에 입격하였으며 사소학(賜少學) 고원교관 장사랑(高原敎官 將仕郎)을 하시고 아들은 景曄이다.

다. 始興公의 아들 景曄은 선무랑 문화류씨(宣務郎 文化柳氏로 配位는 貞夫人 寧海朴氏)이며 대승공의 23세손이며 貞肅公의 11세손으로 字는 昌叔이요 號는 學習堂이며 宣祖32년(1598 戊戌)에 출생하시고, 中直大夫 行自如道 察訪을 하시고 가정의 詩禮를 이어받아 處身함이 근엄하고 文學이 뛰어나 당시에 추중되었으며, 文蔭으로 待己淸嚴하여 以文學을 見据當時하시고 서사(筮仕)하여 至察하고 敎官公으로 후에 사사간복정(賜司侃僕正)하시었다.

景曄公은 達義, 達善, 達遠, 達星 아들 4형제를 두었다.

【宗中宗事】

하정공파종중《청백리 하정 류관 전기》발간 清白吏 夏亭 柳寬 傳記



文化柳氏 夏亭公派宗中 事務局長 柳浩燮

하정공파 종중에서는 문화류씨 하정공파 파조(派祖)이신 하정 류관 선조를 추모하고 생애를 조명하여 선조님의 정신과 실천을 계승 함양하고 고양(高揚)하기 위한《청백리 하정 류관전기》를 2020.8.31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그간 10여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조선왕조실록과 하정유집, 기타 여러 전거(典據)를 참조하고 종중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발행된《청백리 하정 류관전기》는 본문 595쪽, 사진 등 30쪽, 전체 625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먼저 夏亭 柳寬 先祖님의 영정, 유훈 등 사진을 수록하였고 柳秀澤 총회장의 발간사, 柳三鉉 대종회장과 柳瓊賢 대한민국 헌정회장의 祝刊辭로 시작하여 本文에서는

- 류관의 선조
- 역사속 류관의 생애
- 류관의 학문
- 류관의 종사(宗師)
- 역사편찬에의 참여
- <<조선왕조실록>>류관 관련기사
- 류관의 시와 글
- 류관의 상훈과 은전

- 청백리 표상 류관
- 연보
- 류관의 유사
- 류관의 유적
- 류관의 후손, 부록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류관 선조께서 조선조(朝鮮朝)에 청백리(清白吏)로 녹선된 여러 청백리 중에서도 특히 선초 3청(鮮初 三清)[尨村 黃喜, 古佛 孟思誠, 夏亭 柳寬]의 가장 대표적인 청백리로, 청백정신(清白精神)으로 일관하신 하정(夏亭) 선조님의 정신을 찾아 계승 실천하고 고양(高揚)시키는 관점에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정 전기(傳記)」와 관련하여 그간 발간된 책자는 『청백리 하정 류관평전』(고혜령 지음, 사단법인 인문학&문화 포럼 발행), 『하정류관 평전』(글쓰이는 혜사 고혜령, 문화류씨하정공파 종친회 발행) 등이 있으나,

이 책은 「전기(傳記)」의 관점에서 하정 류관 선조님의 행적을 찾아 조명하고 하정 후손들의 행적을 보완 수록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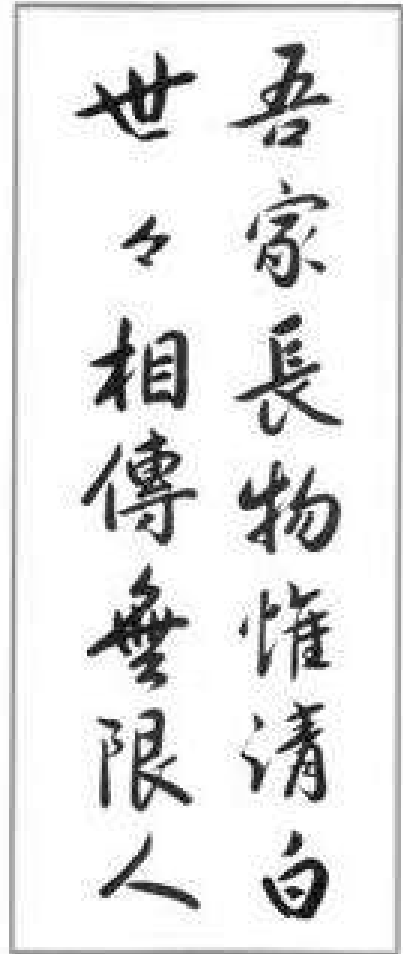
柳秀澤 총회장은 발간사에서 “잊혀져 가는 선조(先祖)님의 은덕(恩德)을 재조명하면서 부정부패의 사회현실에서 청렴(清廉)의 의미와 기본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다 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발간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간사(祝刊辭)를 보내 주신 류삼현 대총회장과 류경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린다.

또한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더라도 이 책이 송조목종(崇祖睦宗)을 지향하는 문화류씨 종중정신(宗中精神)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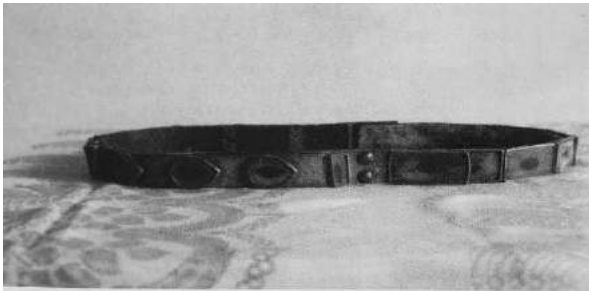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 작성에 수고하신 고(故)류인수님과 류정수님, 류우선님과 인물자료 작성과 교정에 수고하신 류금환님 류재균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류씨 하정공파 고양공 종중 류민성 회장님, 안숙공 종중 류주영 회장님, 제일건설(주) 류재훈 사장님과 하정공파 종중 임원님과 여러 종원님, 성원해주신 문화류씨 종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간소식에 대신하고자 한다.



문간공 하정류선생 영정



하정류관 유훈(遺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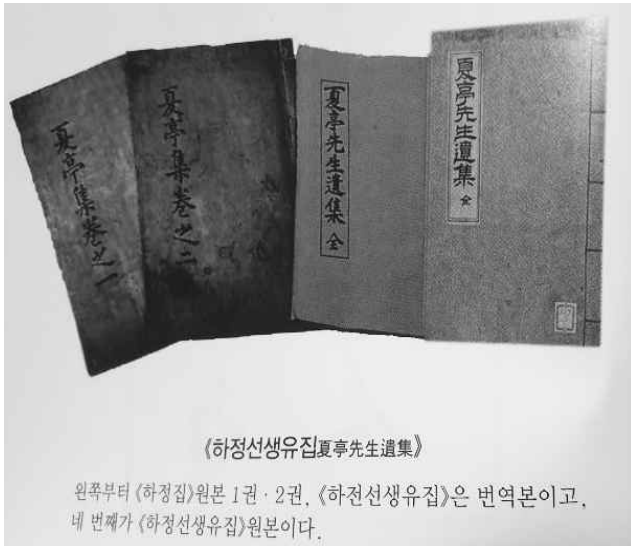


각대(角帶)

1406년(조선 태종 6) 10월에 명나라 하정사(許正使)로 갔을 때, 영락황제(永樂皇帝)가 선사한 각대이다.



하정공 집을 복원한 비우당(종로구 창신동소재)



《하정선생유집夏亭先生遺集》

왼쪽부터 《하정집》원본 1권·2권, 《하정선생유집》은 번역본이고, 네 번째가 《하정선생유집》원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공파동중

2020년발행 청백리 하정 류관 전기



하정공 류관·광릉군부인 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 157번지
경기도문화재(京畿道文化財) 제62호



모성재(慕省齋) 재실

- 묘정 아래 -

清白吏 夏亭 柳寬傳記 祝刊辭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鮮初 三淸의 대표적인 清白吏이셨던 夏亭 柳寬 선조님의 생애와 학문, 역사 그리고 상훈, 유훈, 유적 등을 수록한 「清白吏 夏亭 柳寬傳記」를 文化柳氏 夏亭公派 종중에서 출간하게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世宗朝 清白吏에 錄選되신 柳寬 선조님을 지적에서 뵈는 것 같아 고개를 숙여 공개 정중히 禮를 표합니다.

夏亭公께서는 高麗 開國功臣이신 文化柳氏 始祖 大丞公(휘 柳車達)의 13세손으로 高麗末, 朝鮮初의 文臣으로 世宗朝에 右議政을 역임하셨는 바, 성품이 소탈하고 청렴 결백하셨을 뿐만 아니라 民生을 살피는 愛民精神 등 많은 逸話와 遺訓 등이 오늘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公께서는 1392년 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시고 大司成, 江原.全羅道觀察使, 恭安府判事, 藝文館大提學으로 春秋館知事를 겸하여 太祖實錄編纂 참여하시고 鄭道傳 등과 함께 高麗史 개찬 등 많은 업적과, 朝鮮王朝實錄, 輿地勝覽, 海東名臣錄, 大東奇聞, 夏亭遺集 등에서도 公의 逸話가 담겨진 기록들이 전해오고 있는 바, 후손으로서 흐뭇함과 동시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公은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 겨우 오두막집 한 채를 구해서 거주하실 때 이 집은 비가 오기만 하면 지붕이 새기 때문에 우산을 받치고 책을 읽으시는 것을 본 동네 주민들은 이 집을 우산각(雨傘閣)이라 불렀으며, 너무 청빈하신 관계로 興仁門(東大門) 밖 울타리도 없는 집에서 생활하시고 당대 最高位職에 계시면서도 출.퇴근시 수레나 말(馬)을 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시며, 초가집 한칸에 베옷과 짚신으로 담박하게 사셨다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尊敬의 逸話 등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큰 敎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世宗께서는 청렴한 생활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공에게 자주 음식이나 재물을 보내어 치하하였는 바, 世宗께서 보내신 하사품 역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어 나누어 가지는 민생을 보살피는 愛民精神 또한 지대한 偉人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984년에는 서울시에서 東大門 大路를 夏亭路로 命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夏亭清白吏賞 條例를 제정하여 청백리 공무원들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께서는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하루 하루를 채소밭에서 김도 매고, 벌레도 잡는 생활을 하시면서 말년을 보내시며, 우리 집안에 길이 전할 것은 清白이니 대대로 서로 이어 끝없이 전한다 (吾家長物惟清白 世世相傳無限人)는 遺訓을 남기셨는 바, 이 또한 후손들에게 爲先報本心을 기르게 하면서 그 얼을 이어받아 忠孝를 자손에게 전하고, 清白을 대대로 지키라(家傳忠孝世守清白)는 공의 聖訓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금번 발간되는 「清白吏 夏亭 柳寬傳記」가 不朽의 文獻으로 傳承되기를 고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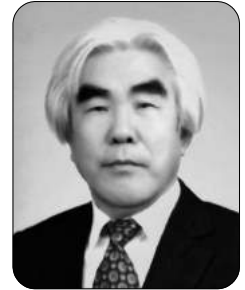
이 또한 우리 文化柳氏 후손들의 寶典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석으로 奉覽하여 先祖님의 遺德을 숭모하고, 송조목종의 전통적 긍지를 일깨울 것을 함께 다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600여년이 지난 오늘날, 「清白吏 夏亭 柳寬傳記」를 발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夏亭公派 柳秀澤 회장을 비롯한 관계 종친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夏亭公派 종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祝刊辭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일

文化柳氏大宗會長 柳 三 鉉 合掌

忠景公派 少尹公后 醒谷公 大邱宗會 紹介



文化柳氏 忠/少, 醒谷公大邱宗會長 柳成烈

文化柳氏 忠景公波 少尹公后 醒谷公 大邱宗中 入郷祖이신 諱 希祥 할아버지께서는 大丞公(諱 車達)의 19世이시고 忠景公(諱 亮)의 5代孫이시고 少尹公(諱 漢生)의 4代孫이시며 醒谷公(諱 約)의 曾孫이시다.

入郷祖께서는 약 300여년 前에 지금의 大邱 達成郡 多斯邑 坊川리에 터전을 잡으셔서 後孫들이 100여호의 集姓村을 이루어 繁盛하고 있다가 大邱市 衛生埋立場이 들어서자 마을 全體가 埋沒되어 後孫들은 눈물을 머금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不幸中 多幸으로 當時 一家親戚들의 거센 反撥로 入郷祖 및 여러 先塋들의 墓所와 齋室(驪湖齋)은 한자리에 保存할 수 있게 되었다.

大邱宗會 歷代 會長님들과 어르신들의 崇祖睦宗의 精神으로 入郷祖 墓所와 齋室(驪湖齋)을 求心點으로 삼아 大邱宗會를 敦篤히 運營해 온 德分으로 墓祀때와 總會 및 各種 行事때 마다 100~200여명의 宗員들이 모여 情談을 나누며 友愛를 나누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봄 先塋參拜를 대형버스 2대로 다녀오기도 하고 2013년부터는 齋室(驪湖齋)앞 마당에서 문화한마당 큰잔치 행사와 並行하고있다.

문화한마당 큰잔치 행사때는 家族同伴으로 며느리들과 어린 아이들도 많이 參席하여 親戚間의 얼굴도 익히고 숨은 才能을 뽐내기도 하며 孝와 禮를 더욱 도탑게 쌓아가기도 한다.

2017년 7월부터는 大邱宗中 族譜(波譜) 編輯을 시작하여 2020년 2월에 出版하기도 하였다 收單作業을 하다보니 後孫이 繁盛하여 全國은 물론이요 世界로 發展하여 저마다 터를 닦아 文化柳氏의 自負心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한 편에서는 電光石火 같이 빠르게 變하는 時代의 흐름속에 族譜發行에 대한 否定的인 이들도 있어 젊은 靑年들을 위하여 인터넷족보 홈페이지를 開設 運營할 豫定으로 지금 準備作業中이

다. 아마도 今年末 즈음이면 全國에서, 아니 世界에서 男女老少 누구든지 大邱宗會 消息을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울러 바람이 있다면 우리 文化柳氏 小門中들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消息도 나누고 情報과 知識을 나누는 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끝으로 티끌같은 小門中 이야기를 大宗會 儒州春秋의 한 紙面을 許諾하신 大宗會 長님과 編輯委員님들께 感謝를 드리며 不足한 小門中 紹介를 마칩니다.

入鄉祖下 先塋墓所 全景



齊室(驪湖齊)



遯翁 柳公(諱 漣)의 無憫齋記



文化柳氏 忠/少 醒谷公宗中 總務 柳 大 杰

無憫齋記

遯翁文化柳漣之墓齋堯堯洞 從後孫寅鳳

在昔 宣祖朝 我從先祖遯翁公 以司僕寺僉正 敘迹名塗 入茂朱錦里 築遯世亭 自號遯翁 遠遙徜徉 以沒其生 仁廟朝贈史議 葬于茂朱面堯堯洞戊座之原 今歲之暮春者 後孫等合謀鳩財 立齋舍於墓下 名曰無憫 蓋取進公當日之意也 夫君子之出處行藏 惟其時而已 今以公之時攷之 則上有名君 可以有為 賢良君子 亦多立朝 公之飄然遠蹈 遯世無憫 何哉 豈非果於忘世者歟 然以其已然而論之 則公其逆料光海之無道 而若運回顧 不能決退 因循之頃 駢致崇班 得參於顧命之列 則目見嗣君狼狽 求退不得 禍及其身 必矣 無寧見機早退 超然免禍 不啻為明哲保身之道 未知公之志果出於此歟 以此以彼 深有合於難進易退之節 而為君子守身之常法 後裔之所當慕者 故今於記齋之文 敢敷衍及此 後之賢者 或有默會 而恕其僭妄也 後孫常根春禹永根漢秉烈俊永 等重工

무민재기(無憫齋記)

문화류씨 돈옹 류연(文化柳氏 遯翁 柳漣)의 묘재(墓齋)이다. 요대동에 있다.
종후손 인봉(從後孫 寅鳳)

옛날 선조조(宣祖朝)에 나의 종선조(從先祖) 돈옹공(遯翁公)이 사복시침정(司僕寺僉正)으로 있다가 벼슬길에서 자취를 감추고 무주(茂朱) 금리(錦里)로 들어왔다.

그는 돈세정(遯世亭)을 짓고 돈옹(遯翁)이라 자호(自號)하고 소묘하며 한가롭게 지내다가 생을 마쳤다. 인묘조(仁廟朝)에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으며 무주읍 요

대동 술좌(戌座) 언덕에 장사지냈다.

올해 3월에 후손들이 재물을 모아 묘소 아래에 재사(齋舍)를 세울 것을 도모하고 무민재(無憫齋)라 이름하였으니 공(公)의 당시의 뜻을 취하여 올린 것이다.

군자의 출처(出處)와 행장(行藏)은 오직 그때에 맞게 할 뿐이다. 지금 공이 계실 때를 살펴보면 위로는 명군(名君)이 있어 큰일 도모할 수 있고 또 조정에는 현명하고 어진 군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공의 표연하게 멀리 떠나 세상에 은둔하면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어찌 세상을 잇는 것에 과감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한 것으로 논한다면 공은 미리 광해군(光海君)의 무도함에 헤아리고 있었던 듯싶다. 만약 머뭇거리면서 벼슬에 연연하여 물러날 것을 결단하지 못한 채로 그럭저럭 지내는 사이에 높은 지위에 올라 고명(顧命)의 반열에 참석하게 된다면 사군(嗣君)의 낭패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 물러나려고 해도 물러나지 못하고 반드시 화가 자신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차라리 기미를 보고 일찍 물러나 초연하게 화를 면하고 명철보신의 도를 해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다.

공의 뜻이 과연 여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물러나는 것을 쉽게 한다는 절개에 매우 부합하고 군자가 수신하는 떳떳한 법이 되니 후손들이 마땅히 우러러 사모할 바이다. 그리하여 지금 무민재(無憫齋)의 기문을 쓰면서 감히 부연하여 언급하니, 후대에 현자가 혹시라도 묵묵히 이해하고 그의 참람된 행동을 용서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文化柳氏夏亭公派 大世居地 靈岩茅山村 入鄉由來



文化柳氏 光州·全南宗親會長(大丞公33世) 柳 金 丸(譜名 志瑛)

1. 序

먼저 영암군 신북면의 연혁과 茅崗,茅軒公 후손의 茅山入鄉 유래, 모산리의 地理的風光과 先塋의 祠宇, 神道碑, 祭閣 등도 살펴보고, 光復 후 茅山을 빛낸 夏亭公의 名賢현황 등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茅崗 · 茅軒公 후손의 茅山入鄉 유래

文化柳氏 夏亭公 派祖(휘 寬)께서 조선조 태종6년(1405 乙酉)에 全羅道 觀察使로 부임 순시 중 당시 나주목(羅州牧 : 지금의 영암군 신북면)을 지날 때 이곳 茅山을 天下明地로 보고, 훗날 장남 맹문(盟問)을 보내 (申叔舟의 喜慶錄에 參判 盟問은 羅州태생이라 기록) 그 지역에 모정(茅亭)을 짓게 하였으며, 그후 현손 희저(希渚 1460~1536)가 光州牧使로 부임 때 차남 모강공 용공(茅崗公 用恭 1492~1551)이 따라와 모산에 거주하고 있던 河東鄭氏 生員 孝孫의 次女와 혼인하여 500여년전 이곳에 입향 (入鄉 1515년) 하게 되었다.

그 후 茅崗公의 숙부이신 영암公 희정(希汀 1472~1528)께서 영암군수로 도입하여 재임 중 공의 넷째 아들 참봉 모헌공 용강(1514~1589, 茅軒公 用剛)이 모산리에 거주하고 있던 기묘 명현 진사 이해 (己卯 名賢 慶州人 進士 李蟹, 端宗朝 병조판서 李碩의 증손)의 사위가 되어 從兄 茅崗公보다 22년 후 입향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처음 모산에는 순천박씨, 하동정씨, 경주이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柳門의 후손들이 입향한 이후부터 순천박씨와 경주이씨는 모두 離居하고 하동정씨만 4~5호가 살고

있다. 또한 夏亭公의 후손들 역시 30여 년전 까지만 해도 모산에 200여 호가 집단 세거하고, 신북면 내에 200여호 금정면을 위시하여 영암군내에 100여호가 산거하여 약 500여호가 세거하고 있었으나, 現今에는 문화의 발달에 따라 경향각지에 離居하여 약 300여 호가 세거하고 있다.

3. 영암군 신북면의 연혁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는 나주군 비음면(非音面)이었으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영암군은 백제 때 발라군(發羅郡)으로 신라가 점거 후 금산군으로 개칭하였고, 신라 말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甄萱, 新羅 진성여왕 6년 西紀 892년경에 건국, 936년 亡)에게 점령당하여 후고구려의 왕 궁예 (王 弓裔, 孝恭王5년 서기901년 후고구려 건국, 918년 亡)에게 굴복함에 궁예는 왕건(王建, 당시 侍中 즉 首相)을 精騎大監으로 삼아 西南海의 珍島 및 고이도성(阜夷島城)등을 점령하고 후에 錦城을 羅州라 개칭하였고, 고려 7대 成宗15년(乙未 995년)에 낭주 안남도호부(朗州安南都護府)가 되었다가 顯宗 10년(戊午 1018년)에 나주 목(牧)으로 승격 후 조선조 世祖때 鎭을 두니 羅州 鎭管의 屬郡이 되었다가 日帝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재의 영암군으로 分郡된 이래 “신북면 모산리”로 불리어지고 있다.

4. 신북면 모산리의 地理的 風光

茅山村은 영암과 나주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月出山 天皇峰에서 흘러 내린 連脈이 멈춘 곳에 자리 잡고, 영산江이 유유히 흐르는 서남쪽으로 펼쳐진 기름진 광야가 동북쪽 산성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어 “靈巖郡誌”에 의하면 夏亭公이 全羅道觀察使 재임시 태종7년(1406 丙戌) 정월 이곳을 지나시며 “장천 곤곤포성유(長川滾滾抱城流) 영산江 물은 세차게 城을 끼고 흐르네” 라고 詩를 읊으셨다(與地勝覽에서) 하였고, 이곳 모산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밤에 天神祭와 堂山祭를 올리라 命했다고 하였으니 이 자리를 勝地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또한 모산촌의 관문에 이르는 路邊에 父子政丞 약제公(휘 尙運)을 그리며, 장구(杖履 : 지팡이와 미투리 신발)로 지난 곳이란 石碑가 수립되어 있고, 신북면 소재지에서 모산촌을 바라보는 形勝은 큰 바다에 범선(帆船)이 깃발을 달고 떠나는 형국으로 천황봉 남쪽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하고, 茅山을 중심으로 4方に 熊蜂, 竹峰, 馬山,

冠山, 蓮花峰, 天皇峰, 龜巖山, 虎山, 白龍山, 靑龍山, 三台峰, 白虎山, 여석산(礪石山) 이 둘러 있고 멀리 영암 月出山과 나주 금성산이 애워싸고 있다.

마을 중앙에는 堂山이 자리 잡고 그 아래 玉井에는 사철 맑은 물이 펄펄 넘쳐 나고, 마을을 횡류하는 龜川물은 동쪽에서 서쪽 水口로 빠지고 들판은 비교적 넓은 편이어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 같은 형국을 仙人讀書形이라 하고, 혹은 君臣奉朝形이라고도 하는 바 이는 모두 山水名과 地勢의 조화에서 얻어진 形局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이곳 龜川은 밀물이 밀려와 帆船들이 왕래하여 더욱 絶勝이었다고 전하고 있다(문화류씨보감 참조)

5. 先塋과 祠宇, 神道碑, 祭閣 등

가. 先塋

(1) 중종10년(1515 乙亥) 모산村에 처음 입향하신 증대사헌(贈大司憲) 모강公 (휘 用恭)의 묘소는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서당동 松林山 아래 壬坐原에 雙墳으로 모셔져 있고, 長子 贈參議公(휘 夢璧)의 쌍분, 둘째아들 贈判書公(휘 夢翼)의 묘소, 넷째아들 牧使 淸계公(휘 夢井)의 쌍분, 사손(嗣孫) 贈工曹參議公(휘 濂)의 합窆, 濂公의 장자 校尉公 (휘 敬中)의 묘소 등 6분의 先祖께서 上下 縱形으로 모셔져 있다. 이곳은 羅州 6大明堂 중 두번째의 明堂으로 알려져 있으며, 셋째아들 內禁衛將公(휘 夢斗)은 선영 第2麓에 쌍분으로 모셔있고, 季子 稷山郡守公(휘 夢參)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沙里峴洞 산 130번지 甲坐原 합편으로 모셨다가 2017년(丁酉) 서당골 선영 右鹿으로 移葬하였다.

또한 영암읍 학송리 明堂 청풍원 甲坐原에 永眠하고 계시는 사교당公(휘 浚)의 쌍분과 校尉公(휘 愼吾)의 합祔, 贈參判公(휘 亨吾)의 합祔 등 두 자제분과 이하 후손의 묘소 그리고 東賓, 廷圭, 運碩公의 3대 사단이 모셔져 있으며, 그 左下에 敬慕齋가 새롭게 단장되어 자리하고 있다.

(2) 중종30년(1535 乙未)경 모산村에 入鄉하신 參奉 모헌公(휘 用剛)의 묘소는 영암군 금정면 분수동(汾水洞) 현 臥雲里 坤坐原에 쌍분으로 모셔져 있고, 長子 禮賓寺直長 公(휘 恒)의 묘소, 둘째아들 副司果公(휘 震)의 쌍분, 嗣孫 參奉公(휘 公仁)의 쌍분이 있고, 次孫 通德郎 松溪公(휘 公信)은 宣祖朝와 仁祖朝때 忠孝로 정려(旌閭)하셨으며 汾水獨山에 합장, 둘째아들 震의 子 參奉公(휘 公禮)의 묘소들이 이곳 汾水洞

선영에 모셔져 있다.

나. 祠宇와 祭閣

(1) 영팔정(詠八亭) : 太宗6년(1405 乙酉) 夏亭公께서 全羅觀察使로 부임 순시중 茅山을 경유 할 때 地勢가 뛰어나고 風景이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1424년 世宗7년(1424 甲辰)에 장자 吏曹參判公(휘 孟聞)을 보내 茅亭을 짓게 하였는데 260여년 후 領議政을 지낸 8代孫 약재公(휘 尙運)이 下鄉, 낡아 버린 茅亭을 철거하고 그 터에 영팔亭(현 道指定 지방문화재 제105호)을 중건하여 여러 先賢들의 八詠詩와 顛末記를 懸板하니 그 날이 肅宗16년(1689 己巳) 1월 30일이다.

건물규모는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겹처마, 팔각지붕의 간결한 도리 기둥으로 벽체가 없는 통칸(通間)으로 남쪽으로 石柱 3개와 난간을 두었고, 전면 기둥에는 柱聯을 달았으니 첫 句節이 '제군자상영지지요 대승상 장구지향'(諸君子觴詠之地 大丞相杖履之鄉) <학식과 덕행이 높은 어르신들이 술잔을 기우리며 詩歌를 읊으신 곳이에요, 政丞을 지내신 어르신께서 지팡이와 미투리를 신고 오셔 머무신 고향이어라>라고 쓰여 있다.

(2) 송산사(松山祠) : 선조20년(1586 丙戌)에 신북면 용산리에 건립, 茅崗公을 향사하다가 宣祖26년(1592 壬辰)이후 淸계公 죽봉公 3위를 향사하였다. 高宗5년(1868 戊辰) 大院君의 전국 書院 철폐령으로 철폐되었으나 淸계公 후손들이 1965년(乙巳)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하평村 104에 기존 제실 禮誠齋 상단에 창건하여 매년 음력 3월 12일에 후손과 儒林들이 정성을 다하여 향사를 하고 있다.

(3) 청계사(淸溪祠) : 仁祖2년(1624 甲子)에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에 후학들이 건립 기축사화(獄死)로 운명하신 淸계公을 향사하다가 후에 장질 참의公(휘 濂)과 같이 향사 하였으나 高宗7년(1868 戊戌) 철폐 후 1965년(乙巳) 여수에 재 건립하여 先考 茅崗公과 長姪 濂公과 함께 3위를 향사하고 있다.

(4) 예성재(禮誠齋) :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하평촌 104번지 송산書院 하단에 위치하고 茅崗公의 5代孫으로 武科를 하신 禦侮將軍 贈戶曹參議公(휘 哲臣)이하 5代의 先祖를 음 10월 3일에 향사하고 있다.

(5) 죽봉사(竹峰祠) : 顯宗7년(1665 乙巳)에 모산村에 四橋堂公(휘 浚)의 門人들이 건립, 향사하다가 후에 손자 약재公 領相(휘 尙運)을 향사하였으나 高宗6년(1868 戊辰)에 철폐되었다가 1936년(丙子) 구지(舊址)에 재건립, 현재까지 儒林과 후손들이 四橋堂公(휘 浚)과 함께 향사를 하고 있다.

(6) 분비재(憤排齋) : 仁祖21년(1643 癸未) 9월 25일 三從兄弟인 四橋堂公(휘 浚)과 松溪公(휘 公信)이 鄉中 부형들과 衆意를 모아 子弟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강당을 지어 '비분재'라 이름하고, 教導는 四橋堂公께서 맡으시고, 松溪公(휘 公信)께서는 권과(勸課)의 책임을 담당하는 교육을 하였다. 1950년(庚寅) 6,25사변으로 훼손 폐허가 되니 정부 전통문화유적 보존사업계획에 따라 1998년(戊寅) 11월 22일 행정관서의 협조로 옛터에 重建하였다.

(7) 연당(蓮堂) : 松溪公(휘 公信)께서 宣祖13년(1579 己卯)에 출생, 7세때 父親喪을 당하고 장성하여 老母를 모심에 울타리를 막아 닭을 키우고 못을 파서 고기를 키우며 母親을 봉양하시다가 모친께서 돌아가심에 墓所주위에 草幕을 짓고, 부친을 추모하여 6년간 侍墓함에 宣祖께서 茅山 고지(故址)에 효자로 정려(旌閭)하고 분수동 侍墓터에 孝子碑를 세우게 하였다. 군수 李汝翊이 公의 실행을 듣고 현지에 와서 려묘(廬墓) 앞에 있는 소나무를 孝子松, 려단(廬壇)을 孝子壇, 물고기를 키운 못을 孝子池라 이름하고, 못을 修築하게 하여 恩光을 표창하였다.

1623년(仁祖反正初 癸亥)에 忠으로 旌閭하고 1631년(辛未)에 忠孝閣으로 懸板하였다. 公께서 77세에 운명하심에 물고기는 방유하고 蓮을 심고 못 가운데 茅屋을 세워 蓮堂이라 하였다. 그 후 6,25때 燬撤(毀撤)된 孝子碑를 侍墓터에서 옮겨 세웠으며 현재 나주의 榮江祠에서 배향하고 있다.

(8) 당산(堂山) : 매년 정월 대보름날 밤이면 마을의 뒷산 웅봉천제등(熊峯天帝嶺)과 당산 古松下에 祭를 올리며 마을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고 마을의 안녕을 土地 수호신에게 기원하며 500여년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민속전통행사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이 행사 때는 祝官과 祭官으로 지명된 분은 심신이 건강정직하고 학식이 높으며 유복해야하며 정월 초 3일에서 14일까지 매일 沐浴齋戒하고 夫婦 합방과 외부 출입도 禁하고 당일에는 흥겨운 農樂놀이도 하고 있다.

(9) 敬慕齋 : 사교당공 이하 선영을 향사하기 위하여 영암읍 학송리 청풍원에 사우를 건립하고, 2012년 음 3월 15일 향사 일에 재건립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10) 永慕齋 : 서당골 옛 송산사 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 400년이 넘는 향나무와 선영을 돌보기 위한 기운을 일으키는 200여평의 연당(蓮塘, 연못)이 조화를 이루고, 우천시 先祖의 향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11) 永修祠 : 영암군 신북면 이천리 태리동(台里洞)에 위치한 제실로 직산군수 남재공(南齋公) 휘 몽삼의 증손(曾孫) 장사랑(將仕郎)휘 격(格), 증 형조참의 휘 즈(戢), 고손 통덕랑(通德郎) 휘 경창(景昌, 1677년 순정기원후 기사년 영팔정 중수시 도유사)와 아들 7분, 손자 6분 형조참의 아들 2분과 손자 3분, 증손 1분 선조님을 음 10월 16일에 향사하고 있다. 우천시에는 남재공과 아들 휘 약(사복시정) 손자 휘 인님(선전관) 선조(先祖)의 향사에 도움을 주고 있어 2016년 영수재(永修齋) 改築하여 永修祠로 改稱하였다.

(12) 思成齋 : 모헌공(茅軒公) 참봉 휘 용강공과 이하 선조님을 향사하기 위하여 영암군 금정면 분수동(현 臥雲里)에 창건한 제실로 음 10월 15일에 향사하고 있다. 특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별도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있다.

(13) 錦圃齋 : 영암군 금정면 봉덕(鳳德)촌에 위치한 제실로 금포공(錦圃公) 생원 휘 상식(尙軾)공 이하 선조님을 음 10월 16일 향사하고 있다.

(14) 매월재(梅月齋)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에 자리하고 모헌공의 9대손 휘 종규(鐘逵)공의 현손(玄孫) 홍근(洪根, 부인 金海 金胤德 8,9,10,13代國會議員, 무임소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여성개발원총재 역임)공이 주관하여 선조님을 향사하고 있다.

다. 神道碑

(1) 右議政 夏亭公神道碑 : 資憲大夫禮曹判書弘文館堤學經筵日講官 東陽申錫

자헌대부 예조판서 홍문관 제학 경연일강관 동양신석

愚가 撰하고 左議政 金弘集이 書하고 吏曹參判 凝川 朴容大가 篆하여 수립된 신도

우 찬 좌 의 정 김 홍 집 서 이 조 참 판 응 천 박 용 대 전

비문을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1리 산 157번지 묘소 앞에서 1980(庚申)년 9월에 탁본(拓本)조각 하고 19대손 춘정 명렬(春汀 明烈)이 전(篆)하여 서울대학교 金正錄교수의 후기(後記)로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에 수립하였다.

(2) 領議政 약재公神道碑 :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 禮

대 광 보 국 승 록 대 부 의 정 부 명 의 정 겸 영 경 언 흥 문 관 예

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崔錫鼎이撰書, 방후손 春汀 明烈이 篆하고 後記는

문 관 춘 추 관 관 상 감 사 세 자 사 최 석 정 찬 서

1993년(癸酉) 10대손 昌烈公이 모산촌 夏亭公神道碑 주변에 수립하였다.

(3) 茅崗公神道碑 : 전북대학교 학장 이병기(李秉妓)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장 金鐘洙書, 13대손 春汀 明烈公이 篆하여 1980庚申년 仲夏에 후손들의 축복하에 모산리 夏亭公神道碑 뒤에 수립하였다.

(4) 청계公神道碑 : 1987년(丁卯) 5월 모산리 415번지 하정공, 모강공, 약재공의 神道碑 사이에 400여명의 儒林과 宗員 및 郡內 內賓들의 축복하에 14대손 志仁公의 주도로 牧使 청계公神道碑를 수립하였다.

墓碣銘은 청계공과 정분이 두터웠던 義城人 東崗 金宇顯선생의 14대손 重齋 金槐이 짓고 神道碑銘은 宰相 李山海선생 孫 大司憲 果庵 이무(李袤)선생이 지은 原文을 傍孫 應烈 公(左相公后) 글씨와 나주인 金禹湧씨의 조각으로 수립하였다.

(5) 청계公望京臺碑 : 청계公께서 南原府使職을 스스로 사직하시고 光州牧使命도 불사(不仕)하며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당시 청계동)에 들어가시어 주위의 맑은 개천에서 沐浴齋戒후 넓은 바위 위에서 漢陽을 향해 조석으로 望拜했던 곳에 公의 14대孫 禎杰公(일명 在南)이 初撰하시고 13대손 金환(金丸, 譜名 志瑛)이 譯文과 그가 주도한 碑文을 청계公이 운명하신지 421년만에 청계公宗會長 13대손 志炯公외 200여명의 후손이 정성을 바쳐 수립한 碑를 望京臺碑라 칭하고 郡內 有志와 후손들의 축복을 받으며 2011년(辛卯) 5월14일에 성대하게 제막식을 거행하였었다.

6. 光復후 茅山을 빛낸 夏亭公派 名賢들

代 數		이 름	經 歷 및 重要行績	출생년도	家 系
大 丞	夏 亭				
29 대	17 대	용희(龍羲)	號:又石, 독립운동가12년獄苦, 1948년전남도건국준비위원장, 금정면 분수골 선영하 追念碑豎立	癸巳1893년	用剛公 恒11代孫
"	"	기수(基洙)	전주문화방송국 총무국장역임	甲申1944년	用恭, 夢參11代孫
"	"	경연(鏡淵)	의학박사, 전남대학교의과대학학장(마취과)교수	庚寅1950년	" 夢翼11代孫
"	"	성연(盛淵)	공학박사, 충남대학교 공과대학교수	癸巳1953년	" "
30 대	18 대	인곤(寅坤)	號:茅亭, 2대국회의원(대한국민당)	癸卯1903년	" 夢璧12代孫
"	"	진산(珍山)	譜名:寅山, 號:玉溪, 3~9대 국회의원, 신민당총재	戊申1908년	" 夢斗12代孫
"	"	근영(根榮)	號:流影, 문화류씨 대중회 회장	己酉1909년	" 夢翼12代孫
"	"	형진(炯鎭)	號:石泉, 譜名:寅鎭 하버드교육대학원수료, 교육학 박사 대한교육연합회장 역임.	丙寅1926년	" 夢參12代孫 (濂)後孫
"	"	인태(寅泰)	초등학교교장 역임	丁卯1927년	" 夢井 "
"	"	인만(寅萬)	인천시 사무관, 국회의원비서관 역임	庚午1930년	" 夢參 "
"	"	홍근(洪根)	대중회공헌지대 포상, 부인 김윤덕8,9,10,13대 국회의원, 무임소장관, 보사부장관, 여성개발총재	壬申1932년	用剛公 恒12代孫
"	"	인학(寅鶴)	한양대교수, 13,14대국회의원, 한국조폐공사사장	戊寅1938년	" " "
"	"	창근(昌根)	건강보험공단 부장 역임	己卯1939년	用恭, 夢參12代孫
"	"	건 (健)	譜名:寅健, 한국관광공사사장, 대한교육보현사장	庚辰1940년	用剛公 恒12代孫
"	"	근상(根庠)	의학박사, 병리학전문외(육군소령)	乙酉1945년	" "
"	"	인봉(인봉)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을유1945년	用恭, 夢參12代孫
"	"	근섭(根燮)	號:茅庵, 광주지방법원사무국장(이사관), 광주지방법원대표집행관, 근정장, 법무사류근섭사무소	庚寅1950년	用剛公 恒12代孫
31 대	19 대	성걸(星杰)	號:成溪, 영암, 곡성, 순천군수, 목포부윤역임淸勤章	乙巳1905년	用恭, 夢井13代孫
"	"	종렬(鐘烈)	곡성, 무안경찰서장 역임	癸丑1913년	" 夢璧 "
"	"	지열(祉烈)	亭光고등학교장 정년퇴임	乙卯1915년	" 夢翼 "
"	"	기열(機烈)	정읍군 덕천면장 역임	丁巳1917년	" 夢參 "
"	"	명렬(明烈)	號:春汀, 국립현대미술관원로작가 瑞林吟社代表	癸亥1923년	" 夢璧 "
"	"	충렬(忠烈)	號:春坡, 전남도 산림과장(서기관)고양공중회장	癸未1923년	" 夢井 "
"	"	기동(基東)	譜名:光烈, 부이사관 김해세무서장 (부산거주)	庚寅1950년	" 夢井 "
"	"	동렬(東烈)	初諱:旻烈, 신북면장 역임	戊辰1928년	" 夢翼 "
"	"	현걸(賢杰)	정읍시 기동동장, 덕천면장 역임	庚午1930년	" 夢參 "
"	"	명렬(明烈)	광주교육대학교수역임	辛未1931년	" 夢翼 "
"	"	준걸(準杰)	중등학교장 역임	甲戌1934년	" " "
"	"	춘렬(春烈)	완도중학교 교장 역임	丙子1936년	" " "
"	"	웅 (雄)	譜名:雄烈, 신북면장, 모강공중회장 2회 역임	丙子1936년	" 夢參 "
"	"	창렬(昌烈)	서울대사대졸, 중등교육자, 고양공중회장4회역임	丁丑1937년	" 夢翼 "
"	"	한렬(漢烈)	10,11,12,13,16대5선국회의원, 민한당사무총장, 민중민주당총재(진산의 자)	丁丑1937년	" 夢斗 "
"	"	대렬(大烈)	법무사무관, 광주교도소 녹조근로훈장 수장	己卯1939년	" 夢井 "
"	"	수택(秀澤)	고창 완주 정주군수, 내무부민방위국기획국장, 여수, 순천시장, 광주부시장, 녹조근정훈장수상, 조선 대이사장, 광주시새누리당위원장, 새누리당최고위원, 문화류씨대중회부총회장, 하정공파총회장	庚辰1940년	用剛公 恒13代孫

代 數		이 름	經 歷 및 重要行績	출생년도	家 系
大丞	夏亭				
31 대	19 대	경렬(京烈)	號:蒼巖, 제일건설그룹회장, 창암장학회장, 장학사업으로 후진 양성에 공로지대하심.	庚辰1940년	用恭,夢翼13代孫
"	"	인렬(仁烈)	중등교육계 교장역임 (全州居住)	庚辰1940년	" 夢參13代孫
"	"	춘택(春澤)	譜名:元烈,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癸未1943년	用剛公 恒13代孫
"	"	민걸(珉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사관)	丙戌1946년	用恭,夢翼13代孫
"	"	명걸(明杰)	철학박사,경찰대학공안문제연구위원,여수수산대학교수,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丙戌1946년	用剛公 恒13代孫
"	"	병렬(柄烈)	대전 전신전화국 무선과장	丙戌1946년	用恭,夢井13代孫
"	"	부열(富烈)	남주고, 신북중학교장역임	丁亥1947년	用剛公 恒13代孫
"	"	철 (哲)	上杰,재경,행정고시합격 경제기획원근무(관리관)	戊子1948년	用恭,夢璧13代孫
"	"	선렬(善烈)	치의학박사. 전남대의대교수	辛卯1951년	" 夢翼 "
"	"	중렬(重烈)	교육자, 경기도 여주초등학교장 역임	癸巳1954년	" " "
"	"	덕렬(德烈)	서울시의원2회, 동대문구청장 (청계공, 滌 後孫)	甲午1954년	" 夢井 "
"	"	관렬(寬熱)	서울시 성북구청 사무관	乙未1955년	" 夢參 "
"	"	길재(吉在)	2013년 통일부장관,정치학박사(약재공 滌 後孫)	乙未1955년	" " "
"	"	상렬(庠烈)	경찰 총경 서대문경찰서장 역임	乙未1955년	" 夢井 "
"	"	범렬(范烈)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서기관급)	병신1956년	" 夢翼 "
"	"	영걸(瑛杰)	전남 영광군청 주민과장(현 사무관)	丙申1956년	用剛公 恒13代孫
"	"	부걸(富杰)	체육학박사 성화대학교수	辛丑1961년	" " "
"	"	용걸(勇杰)	육사,현 육군대령,조선대학대학원정책학과졸업	癸卯1963년	" " "
"	"	현렬(賢熱)	서울시 동구청 사무관	癸卯1963년	用恭,夢參13代孫
"	"	성렬(星烈)	행정고시합격,국세청교육원 (서기관)	甲辰1964년	用剛公 恒13 "
"	"	용욱(勇旭) 譜名 勇烈	미국"텍사스"주립대학,공학박사,한국건설기술수석연구원, 부경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교수	甲寅1974년	" " "
"	"	성호(成鎬) 譜名 成烈	譜名:成烈,KBS방송국기자.전주,광주지국,현순천지국근무,처:홍진선,MBC광주방송국아나운서	丙辰1976년	" " "
"	"	득렬(得烈)	사법고시 변호사 (부산거주)	辛酉1981년	用恭,夢井13代孫
32 대	20대	지인(志仁)	號:芝山,전남경찰국감찰계장,순천경찰서수사과장,여수여천농지개발조합장	戊午1918년	" " 14代孫
"	"	경채(景彩)	譜名:志仁,善書畫倬,대통령상3회수상,서울대미술대학장,대한민국예술원장2회중임	庚申1920년	" " "
"	"	지용(志壩)	부산 경남국제연합지부장, 국회의원출마	乙丑1925년	" " "
"	"	지민(志玟)	號:友史,전남경찰국수사과장,화순,고흥,광주서부,영광경찰서장,國家有功者,武功勳章,花郎金星銀星武星錄條勳政勳章 受章	乙丑1925년	" " "
"	"	대식(大植)	譜名:在植 마산 보훈처장 (부산거주)	庚寅1950년	" " "
"	"	종훈(宗薰)	譜命:在薰 경희대학교수(한의학박사)(부산거주)	癸卯1963년	" " "
"	"	재석(在錫)	號:雪江,초등학교장,국민훈장동백장수상	戊辰1928년	" 夢璧 "
"	"	재하(在夏)	號:海巖, 행정사무관 보성,구례군내무과장역임	己巳1929년	" 夢井 "
"	"	재건(在建)	字:在連,號:月汀,영암군축산협동조합장,성균관유도회영암군회장	癸酉1933년	" 夢參 "
"	"	지형(志炯)	號:爲堂,전남도의회 부의장역임, 청계공중회장, 하정공 · 고양공중회 부중회장	乙亥1935년	用恭,夢井14代孫
"	"	재업(在業)	의학박사, 병원운영	乙亥1935년	" 夢翼 "

代 數		이 름	經 歷 및 重要行績	출생년도	家 系
大 丞	夏 亭				
32 대	20 대	지효(志孝)	號:玄德, 여수시 울촌면장 역임,勤政勳章 受勳	丙子1936년	“ 夢井 ”
“	“	금환(金丸)譜名:志瑛	號:淸湖,대동공업(주)전남영업소장, 고문역임, 대 동사 보존회장, 大 宗 會 부회장 광주.전남총회장, 夏亭公, 高陽公 부회장,	丁丑1937년	“ ” “
“	“	화선(和善)	夏亭公副會長, 茅崗公宗會長, 新北面老人會長	경진1940년	“ 夢壁 ”
“	“	재숙(在叔)	號:柳新,광주시도시과장,여수시수도국장 서기관	戊寅1938년	“ 夢參 ”
“	“	재호(在浩)	譜名:在浩미주대학정치학박사국민대행정학교수	己卯1939년	“ 夢壁 ”
“	“	인길(仁吉)	譜名:志豪, 중등학교장, 하정공,대중회원역임	庚辰1940년	“ 夢井 ”
“	“	지송(志松)	초등학교장 역임	壬午1942년	“ ” “
“	“	지행(志浚)	초등학교장 역임		“ ” “
“	“	지태(志太)	광주시 행정사무관, 녹조근정훈장 수장	癸未1943년	“ ” “
“	“	재만(在滿)	초등학교장 역임	癸未1943년	“ 夢壁 ”
“	“	재문(在文)	공학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관 역임	계미1943년	“ 夢參 ”
“	“	재홍(在洪)	국방부기획예산처장(軍務員1급,관리관)*대전국립묘지영관급묘역영면	甲申1944년	“ ” “
“	“	준만(峻滿)	譜名:志滿,현대건설사무이사	甲申1944년	“ 夢井 ”
“	“	재원(在原)	중소기업서울,광주지회장 역임	乙酉1945년	“ 夢壁 ”
“	“	재운(在雲)	號:仁堂,의학박사,정형외과 광주현대병원장	丙戌1946년	“ 夢井 ”
“	“	재청(在淸)	陸士 육군중령 예편	丙戌1946년	“ 夢參 ”
“	“	재균(在均)	號:夏谷,초등교장, 대중회장상 수상	丁亥1947년	“ ” “
“	“	재영(在暎)	정읍군 덕천초등학교 교장 역임	戊子1948년	“ ” “
“	“	재철(在鐵)	서울시 마포구청 과장, 동장역임	己丑1949년	“ ” “
“	“	재봉(在鳳)	나주시 총무국장 (서기관)	己丑1949년	“ ” “
“	“	재홍(在洪)	서울시 서초구청 사무관	庚寅1950년	“ ” “
“	“	지수(志洙)	海士 해군대령 예편	辛卯1951년	“ ” “
“	“	재원(在源)	의학박사, 조선대학교의대교수, 의대학장역임	癸巳1953년	“ 夢翼 ”
“	“	재정(在正)	교육학박사,전남대학교수	癸巳1953년	“ ” “
“	“	재하(在河)	陸士 육군대령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관 역임	甲午1954년	“ 夢參 ”
“	“	재민(在敏)	海士 해군대령 예편	甲午1954년	“ ” “
“	“	재곤(在坤)	정읍시청 사무관	丙申1956년	“ ” “
“	“	재창(在昌)	정읍교육청 사무관	丙申1956년	“ ” “
“	“	재범(在范)	중소기업중앙회부장	丁酉1957년	“ ” “
“	“	재린(在麟)	환경자원공사 2급	丁酉1957년	“ 夢壁 ”
“	“	기환(基煥)	志聖,號:淨庵,법학박사,호남대학교수,대불대학교수	戊戌1958년	“ 夢參 ”
“	“	지웅(志雄)일명 承辰	사회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경철대학치안정책 연구소연구관	庚子1960년	用剛公 恒 ”
“	“	재현(在憲)	중등교육자,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辛丑1961년	用恭, 夢井 ”
“	“	재종(在涼)	陸士 육군대령 재임	甲辰1964년	“ 夢參 ”
“	“	정훈(政勳)	미국“퍼듀”대학교,교통공학박사,亞洲대학교수	戊申1968년	“ ” “
“	“	재인(在仁)	교육자 교육학박사 (과학교육상수상)	壬子1972년	“ 夢井 ”
“	“	재영(在英)	번리사 (서울지역)	庚申1980년	“ ” “
33 대	21대	석곤(錫坤)	사무관 (세종종합청사,행안부,관리과)	임자1972년	“ 夢壁13代孫
“	“	경동(慶東)	譜名:慶鉉, 여수시 울촌면장 역임	甲子1924년	“ 夢井 ”
“	“	기현(淇鉉)	字:奉善,號:南香, 여수시 소라면장 역임	丙寅1926년	“ ” “

代數		이름	經歷 및 重要行績	출생년도	家系
大丞	夏亭				
33 대	21 대	영균(泳均)	중학교 교장 역임, 국민훈장 동백장수상	甲戌1934년	" " "
"	"	태현(太鉉)	광주 동아여자중학교장, 대동사 보존회장역임.	丙子1936년	" " "
"	"	영표(泳杓)	보명:溶善)농촌진흥원과장,곡성농촌지도소장역임	丙子1936년	" " "
"	"	철수(哲秀)	譜名:哲善,철도직사무원,순천토지개발조합장역	庚辰1940년	" " "
"	"	영석(永錫)	字:洪錫, 지방서기관,여수시지방행정국장 역임	庚辰1940년	" " "
"	"	광선(光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장	乙酉1945년	" " "
"	"	수현(水賢) 譜名: 洙鉉	행정학박사,재정경제원관세부이사관,남서울대, 단국대학외래교수,홍조근정훈장수장	丁亥1947년	" " "
"	"	소현(昭賢) 譜名:洙鉉	이학박사,청와대경호실소방대장,전라북도,경기도소방제2본부장역임,특조,홍조근정훈장수장,전주원광,기전대학교교수,소방감(公職2급,이사관)	庚寅1950년	" " "
"	"	기수(奇秀)	부산,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405, 상무이사	戊申1968년	" " "
"	"	철홍(喆洪)	譜名:洪錫 LG그룹 U+부장, 팀장	戊申1968년	" " "
"	"	태욱(泰旭)	譜名:明錫 碩土,전국과학전람회'대통령상수상'	계축1973년	" " "
"	"	경현(敬鉉)	공군대령,공사전임교수,공군기술학교장	庚寅1950년	" " "
"	"	충현(忠鉉)	국회사무처 이사관,공보국장,기획조정실장	庚寅1950년	" " "
"	"	의선(宜善)	공학박사. 조선대학교 공과대학교수(공업수학)	壬辰1952년	" " "
"	"	동석(東錫)	이학박사, 청주대학교교수	癸巳1953년	" " "
"	"	보선(甫善)	제정경제원 통계청 사무관	甲午1953년	" " "
"	"	영선(泳善)	충남보령경찰서 과장(경관)	丁亥1959년	" 夢參13代孫
"	"	규석(圭錫)	海士,해군대령,국방부시설본부대 미국사업처장	辛丑1961년	" 夢井 "
"	"	진석(珍錫)	문학박사, 충남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癸卯1963년	" " "
"	"	종현(宗鉉)	의학박사, 신경외과 베스트병원장	戊申1968년	" " "
"	"	기표(基杓)	공학박사, 건축구조기술사	壬子1972년	" " "
"	"	수택(守澤)	한의학박사, 한방내과전문의	癸丑1973년	" " "
"	"	성룡(成龍)	공학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포스코건설재임	癸丑1973년	" " "
"	"	한서(漢瑞)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선임조사역 (서기관)	戊午1978년	" " "
"	"	지호(智皓)	사법고시. 변호사,김앤장(로펌)법률사무소재임	辛酉1981년	" 夢翼 "
34 대	22 대	형원(炯原)	譜名:濟原, 목포, 광주세관장역임 이사관	丙戌1946년	" 夢井12代孫
"	"	한춘(漢春)	농학박사전남대학교농과대교수,산림환경연구소	乙未1955년	" " "
"	"	철호(哲浩)	보명:濟哲, 공학박사. 인하공업전문대학교수	癸丑1973년	" " "
35 대	23 대	진산(珍山)	空士卒, 공군준장(空軍准將) (光陽鳳岡 父 義鉉)	庚戌1970년	" " 11代孫

7. 맺으면서

모산村은 약 500여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 여러 高官職에 오른 先祖님들과 특히 父子政丞이 나오신 전통 양반의 고장으로 1970년대 까지는 500여세대가 집단 世居하여 왔으며 아무리 시대의 변천으로 경향각지에 이거한 종친이 많다고는 하나 그래도 약300여세대가 祖上님이 꾸며주신 이 福된 고장을 지키고 있으니 모산村 만큼 대단한 고장도 흔하지 않으리라!

음력 10월 15일은 모산村 서당골 모강公, 금정면 분수골 모헌公의 時祭日이다. 전

국에 흠어진 兩家의 종친들이 본고장을 찾아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만남의 장소로 모 두가 祖上님 앞에 엮드리니 양가 조상님께서 후손에게 고루고루 복을 내려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 가고 있다.

조금 더 바란다면 젊은 후손의 참여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모여들 것을 바라나 우리 元老世代가 시대에 맞추어 자녀들의 崇祖精神 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만 한 발자국이라도 崇慕의 장소에 빨리 다가와 孝道를 다하리라 기대를 해본다.

최근에는 茅山이 변하고 있습니다. 歸農후손이 하나둘 모여들고 마을 군데군데 전통 한옥이 20여 채가 雄座하고, 영팔亭 분비齋 죽봉祀 蓮堂(忠孝閣)과 함께 2,000여 평의 부지에 우뚝 서 있는 '아천미술관의 博物館에 夏亭公 影幀이 모셔져 있고, 바로 앞에는 肅宗朝에 領議政을 3번씩이나 지내신 '약재(諱 尙運)기념관'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니 "歷史의 고장"이라 과히 자부할 만한 현대판 名勝地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위에 나열한 顯達한 名賢들은 수 없이 많으나 2008년 4월15일 편찬된 戊子譜(대동보)를 참고하여 애써 찾아보았으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세밀히 찾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분과 事務官級 이상, 敎育界는 교수 및 교장 이상 130여명만을 등재하게 된 점을 종친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을 쓰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光州에 거주하신 秀榮대부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변함없는 愛族心으로 우리 고향 茅山을 가슴속 깊이 새겨준 종친 여러분과, 서울에 계신 하정공파종회 柳秀澤회장과 약제公의 宗孫이며 高亮公宗中 柳民城 會長 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는 항상 崇慕精神을 가슴깊이 새기고 時祭日을 위시하여 先塋이 모셔져 있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名勝高村의 茅山 고을을 아낌없이 방문해 주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幸運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文化柳氏 殷坊山聚葬公園 紀實碑



文化柳氏 左/泗川公宗中 總務 柳 在 九

아 時代의 潮流를 누가 막으랴! 世態의 급변과 人倫의 퇴폐로 엄연히 생존한 父母도 모른 체하는데 이미 他界한 祖上을 유념이나 하겠는가? 더욱이 근래 들어 후손들이 거의 外地로 移居하여 先塋이나 遺墟를 守護는 물론 伐草도 省掃도 하지 않음으로써 雜草 醜木에 묻혀 실전의 지경에 이른 게 오늘날의 실정이다.

우리 宗中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고심하던 차 드디어 국가적 권장사업인 聚葬제도를 취하여 앞서 언급한 懸案을 타결하고 영구히 수호하자는데 중론이 귀결되었다. 이로써 금년 2020년 陰 閏四月부터 우리 宗中の 世葬地인 慶北 永川市 北安面 道有里 산 83, 세칭 殷坊山 廣陵谷 소재, 先祖 泗川公의 墓下에 장지를 조성하고 山下 및 각 처에 산재한 累代의 산소에서 80餘位의 遺骸를 채취 茶毘한 후 每位마다 紙函에 안치, 상단부터 世代 순으로 매장하여 平葬으로 모시었다. 부지는 종종 林野 8,000평 중 약 1,000평으로서 墓地 외에 休憩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다.

이곳 殷坊山 선영의 最尊位이신 泗川公의 諱는 仁立이요 字는 怒甫요 號는 九岡이 신데 始祖 大丞公(휘 車達)의 21세손으로 端宗朝의 節臣 西山公(휘 自湄)의 5대손이요, 慈仁縣監 諱轅의 玄孫이요, 直長 諱昌孫의 曾孫이요, 宜堂 諱垂英의 孫이요, 贈左承旨(휘 湜)의 장남이시다. 宣祖원년(1567 丁卯) 壬辰倭亂에 아우와 함께 倡義하여 倭寇를 물리친 功으로 宣武原從勳에 錄勳되시고, 武科에 급제하여 泗川縣監을 지내셨으며, 또한 사적이 火旺同苦錄에 실리었다.

금번 이 일은 여러 후손들의 齊誠共力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洪烈 四從叔의 賢勞가 컸음을 밝히는 한편, 宗中 후생들에게 거듭 이르는 바 앞으로 先塋을 정성껏 수호하고 追遠報本의 精神을 분발, 崇祖睦宗의 先訓을 실천하여 名門의 전통을 지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만 줄인다.



左相公派 泗川縣監門中の 祭壇

松庵公(諱 灌)과 烏竹軒 三人詩



文化柳氏 忠/松庵公宗親會長 柳 鶴 善

江原道 江陵市에 있는 烏竹軒은 申師任堂의 外曾祖인 李思溫의 집이었다.

朝鮮 仁宗때 左議政을 하시고 明宗때 乙巳土禍로 돌아가신 柳灌(號 松庵, 諡號 忠肅公)께서 中宗15년(1520 庚辰) 江原監司로 계실 때 烏竹軒 주인 李思溫과 三陟府使로 있던 申光漢(成宗때 領議政을 지낸 申叔舟의 孫子) 등 3인이 烏竹軒에서 만나 詩를 지어 和答한 일이 있는데 이를 三人詩라 世稱하여 傳해오고 있다.

이 세분의 詩를 詩額으로 만들어 申師任堂이 龍꿈을 꾸고 大賢 李栗谷(李珣)을 낳은 房이 夢龍室인 바 바로 이곳에 걸려 있다. 특히 夢龍室은 烏竹軒 중에서 文成祠(栗谷의 영정을 모신 곳)와 함께 主要有形文化財를 보관하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3人詩가 가장 오래된 寶物로 인정되어 내려오니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그럼 여기서 詩文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선 李思溫은 3人중 年長이며 松庵公께서 이 분의 학덕과 벼슬을 멀리하고 隱遁하여 사는 선비됨을 은근히 부러워함을 엿볼 수 있다.

◎ 詩文을 살펴 보면

吾廬雖小亦容身	우리 집 작다 해도 이 몸 용납 할 만한데
爲築維垣間四鄰	이곳에 낮은 담을 쌓은 것은 이웃을 가까이 함이라
遠近碧山千古畫	원근의 푸른 산은 천고의 그림이요
風霜烏竹一軒珍	풍상의 오죽들은 이집의 보배로다
黃花自笑年年嫩	국화는 스스로 웃듯이 해마다 아름답고
白髮維催日日新	백발은 누가 재촉하는 듯 날마다 더해가네
莫惜傾家成醉臥	가산을 기울여 취해 있음은 恨을 말 하네

人間何處有真人 인간의 어느 곳에 眞人이 있는 거야!

烏竹軒主人 李思溫

我興丹青等幼身
何須朱粉笑東隣
桑田白日孤輪穀
槐國金章一夢珍
元亮晚尋黃菊響
季鷹終好玉蓴新
閒閒窈有燒丹計
莫秘責囊遠示人

나는 집의 단청과 함께 늙은 몸이 되었고
어찌하여 朱紛으로 단장하고 東隣에서 웃고 있나
桑田의 한해가 외로운 돌레바퀴를 이루었고
槐國의 뛰어난 詩文도 한낱 꿈의 보배였네
원양도 잠 도 누런 국화술을 찾았으며
季鷹張翰도 마침내 옥부를 좋아 했네
때때로 단사를 불태울 계획도 했지만
감출 수 없는 약주머니를 먼데 있는 사람에게 보이도다

全 李思溫

高臥江村老此身
一軒風味竹爲鄰
碁無敵手名乃貴
甕有香醪醉是珍
興到涉園添散逸
閒來得句寫清新
憑君欲問幽居趣
傀我紅塵泊沒人

강촌에 높이 누운 늙은 이 몸이
一軒의 좋은 풍경에 대를 이웃 삼았구나
바둑에 적수 없으니 명성은 그대로 귀하고
항아리에 향기로운 술이 있어 취함도 또한 진기 하구나
흥이 나서 정원을 걸으니 산책도 겸하게 되고
한가히 詩想도 떠올라 청신함을 묘사 하네
깊숙이 묻혀 사는 취미 그대에게 묻고저 하니
紅塵에 골몰하는 나 같은 사람이 부끄럽구나

江原監司 松庵

辨得江湖未死身
一軒烏竹萬夫鄰
家徒此物貧爲寶
識止於君瀨是珍
碁國穩隨清影轉
酒樽和途細香新
韓公錯有昏冥論

江湖에서 죽지 못한 몸 깨달아 알았는데
一軒의 烏竹만은 萬夫와 같은 이웃 일세
집에서 이 사람은 가난을 보배로 이겼는데
그대를 알고서는 이 보배를 부끄러워 하네
바둑판에는 고요히 淸影만이 따라 돌고
술에서는 평화롭게 그윽한 향기를 새롭게 하네
韓退之는 잘못하여 昏冥論을 지었으며

殊異蘇仙俗了人 殊異한 蘇東坡는 世俗을 떠난 사람 일세
三陟府使 企齋 申光漢

李思溫(이사온)은 學德이 至高한 선비였으나 不幸하게도 膝下(슬하)에 아들이 없어 무남독녀로 李氏夫人을 두었으니 이 분이 申師任堂의 어머니시다. 그런데 이씨부인 역시 申命和公과 혼인 하였으나 딸만 다섯을 두었으니 그중 둘째가 申師任堂이다.

이 분은 서울에 사는 李元秀(이원수)에게 시집을 갔으나 孝心이 지극한 申師任堂은 烏竹軒에 사는 어머니 이씨부인을 모시기 위하여 친정에서 지내는 때가 많았는데 그 때문에 栗谷도 이곳에서 낳게 되었으니 母子가 모두 烏竹軒에서 태어났다.

그 후 烏竹軒은 栗谷先生이 주관하여 오다가 넷째 이모의 아들 權處均(권처균)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집 주위에 烏竹이 많아 主人인 權處均의 雅號를 烏竹軒이라 한 데서 유래되었다 한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하여 松庵公께서 1545年(明宗元年 乙巳) 乙巳士禍때 억울한 陋名을 쓰고 돌아가신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1570年(선조4년 庚午)부터 수년간 白仁傑등 여러 선비와 함께 栗谷先生이 1536년부터 1584年 까지 41번이나 筭子を 올리고 領議政 李俊慶이 상소를 올림으로 伸雪되고 이에 복관이 되어 직첩을 돌려받게 되었다.

이는 栗谷先生이 性理學의 大家로써 文衡에 오른 松庵公의 忠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烏竹軒의 인연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 해 본다.

우리 松庵公派宗親會에서도 1996년부터 매년 烏竹軒과 文成詞에 참배를 하였고 松庵實記3권(天地人)을 기증 하였으며, 烏竹軒 측에서도 文成詞祭日에 초청장을 보내 오는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금년 2020年 9月 15일에도 우리 宗中 임원들과 함께 烏竹軒의 발전상을 둘러보았다.

祖上을 위하고 그 자취를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를 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貴하게 하는 것이 우리 子孫을 貴하게 만드는 것임에 우리 門中の 누구라도 烏竹軒에 들리는 일이 있으면 잊지 말고 夢龍室에 걸려 있는 松庵公의 詩文을 찾아보고 다시 한 번 先祖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動 靜】

大賢 前大宗會長 逝去



文化柳氏大宗會 前常任副會長 柳 淙 鉉

문화류씨(文化柳氏) 대종회장을 역임하신 대현(大賢)옹께서 숙환(宿患)으로 금년 2020년 8월 31일 향년 89세로 서거(逝去)하시어, 9월 2일 김제시 백산면 상리((金堤市 白山面 上里) 산 39-2 선영(先塋)에 안장(安葬)되었다.

2014년 4월 13일 문화류씨대종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열성으로 종사를 수행하던 중, 불행히 병마(病魔)의 침노로 뇌경색(腦梗塞)의 증상이 심화되어 부득이 동년 12월 14일 병고(病故)로 퇴임하시었다. 그로부터 병원 치료는 물론 자택에서 치료하기 근 6년간 투병(鬪病) 끝에 드디어 세상을 뜨시었다.

공의 보명(譜名)은 청근(靑根)인데 생전에 대현(大賢)으로 자(字) 겸 행명(行名)으로 쓰셨고 아호는 익산(益山)이시다.

공은 시조 대승공(大丞公)의 28세손으로 검한성사 원현(檢漢城事 元顯)· 회인현감 형(懷仁縣監 衡)· 문영광군수 효장(文靈光郡守 孝章)· 문홍문교리 인홍(文弘文校理 仁洪)의 직계인 진해현감 지정(鎭海縣監 之禎)의 7대손이요, 선고(先考) 화원(化源 : 金萬)과 선비(先妣) 성주 이인식(星州 李寅植)의 따님 정자(貞子)와의 사이에 융희(隆熙) 후 임신(壬申 : 1932) 6월 23일 익산군 북일면 신흥리에서 태어나셨다.

공께서는 장신풍골(長身豐骨), 큰 키와 준수한 외모는 그 타고난 자품이셨고, 언신행중(言慎行重), 말을 삼가고 행동이 무거우심은 그 평소 성품이셨다. 때문에 공을 접함에 가까이 다가서면 은후하고 바라보면 엄연하여 누군들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께서는 부산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지역발전에 투신하여 온갖 정력을 기울린바, 약력(略歷)을 대강 들치자면, 농촌지도소 및 익산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1986~1988 (주)태창, 1890~1991 (주)보배(군산 향만하역)회사의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으며,

1989년에 이리시사(裡里市史 : 現 益山市史) 발간 시 집필(執筆)을 맡아 보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익산시 1·2대 대의원을 지내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는데 그 기간 중에 노태우(盧泰愚)·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대통령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90~2010 년도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장과 도시개발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만년 들어서 종사(宗事)에 뜻을 두어 대소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모임 때마다 종법(宗法)을 준수하고 제례(祭禮)를 준행하여 반벌(班闕)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실천할 것을 독려하셨다.

특히 영광공종중 회장 재임 시에 종회의 규약을 시의(時宜)에 맞게 개정, 사무 및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종친 개개인의 계보(系譜) 및 인적사항을 낱낱이 기억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셨으며, 지병(持病)으로 거동이 심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9년 영광공 세일사(歲一祀)에 몸소 참사하여 후손들에게 송조모선(崇祖慕先)의 참된 정신을 일깨워 주셨다.

검한성공종중 회장에 취임하여 2008년 무자대동보(戊子大同譜) 간행에 적극 협조하고, 이어 대전 뿌리공원에 문화류씨 유래비(文化柳氏 由來碑) 건립 시에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거역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크게 공헌하셨다.

대종회장에 취임해서는, 수년간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이북 구월산(九月山)에 모셔진 폐허 상태의 시조 대승공(大丞公) 묘소를 정화함과 아울러 석의 비각 참도 등을 구비하고 국가보존유적으로 지정을 받은 재일교포(在日僑胞) 류기환(柳箕桓)씨의 공로를 거족적으로 치하함은 물론 전국 유림(儒林)을 통하여 「柳陵聖域化頌祝詩集」을 발간 배포하셨다.

이상은 대소종중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종중에 끼친 업적인바 그 실적이 워낙 많아 낱낱이 들치기는 어렵고, 내 평소 보고 들은 바와 본가(本家) 및 대소 종중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간략히 적어 보았다.

공께서 배위 무안 박재덕(務安 朴在德)의 따님 영복(永福)과의 사이에 4남2녀를 두어 아들은 흥철(興哲)·흥권(興權)·흥룡(興龍)·흥렬(興烈)이고, 따님 복숙(福淑)은 창녕 성기홍(昌寧 成耆洪)에게, 혜경(惠卿)은 언양 김태영(彦陽 金太寧)에게 출가하였다. 손·증손(孫·曾孫) 이하는 많아서 생략한다.

끝으로 만시(輓詩) 1절을 적어 추모의 뜻을 부친다.

前大宗會長益山柳公輓

時中動止百夫規 때에 알맞은 행실은 많은 장부의 규범이셨고,
宗事純誠世共知 종사에 순수한 정성은 세상이 함께 아는 바외다.
左顧之恩奚敢忘 평소 사랑해 주신 은혜를 어찌 감히 잊으리오.
橫前熱淚不成辭 더운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이루지 못하나이다.
宗下生淙鉉再拜哭輓



大賢 前大宗會長

柳炳賢將軍(전 합參議長) 逝去를 哀悼함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 承 鉉

韓美聯合司令部 창설을 주도했던 韓國軍의 대표적인 作戰通이었던 柳炳賢 전 합參議長 (大丞公32세. 예비역 陸軍大將)께서 숙환으로 금년 5월 21일 96세를 一期로 逝去, 국립대 전현충원에 안장하였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將軍께서는 日本 동경 물리학교에 재학중 1945년에 陸士 7기로 입관하였는 바, 당시 중대장이 朴正熙 전 大統領이었다.

6.25전쟁시에는 美25사단 연락장교 등으로 參戰하고, 1951년 美 機甲 學校 유학 후 귀국하여 기갑병과 창설주역이 되었으며, 陸軍 機甲學校長을 거쳤다.

5.16군사혁명 후 軍政시절에는 最高委員과 農林部長官, 15사단장, 그리고 蔡命新將軍의 뒤를 이어 駐越 猛虎師團長으로 베트남戰에도 參戰했다.

귀국후 합參 작전기획국장, 陸本 작전참모부장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예비군 창설과 對間諜 作戰을 주도하기도 했다.

해박한 軍事지식과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1968년 韓. 美 國防長官 회의 때부터 對美 軍事外交 一線에서 활약했다.

1974년 합參본부장과 對間諜對策本部長으로 자리를 옮겨 韓美 安保同盟史에 한 획을 그은 韓美聯合司 창설을 주도, 1978년 韓美聯合司 副司令官에 취임했다.

합參議長 시절이던 1981년초 訪美하여 당시 내란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金大中 전 大統領의 감형을 조건으로 兪斗煥. 레이건 정상회담을 성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동년 6월 전역 후 駐美大使에 임명되어 4년여 동안 재임하기도 했다.

盧武鉉 정부에 들어 와서 戰作權 전환이 추진되자 투병중임에도 韓美 聯合司 해체를 반대하며 戰作權 전환 반대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柳將軍은 무성화랑무공훈장, 은성화랑무공훈장, 충무훈장, 월남입성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韓美聯合司令官(駐韓美軍司令官)은 '동북아 안보의 주역으로 韓.美 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하셨으며 우리 모두는 柳炳賢 將軍님을 진정으로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哀悼를 표하였다.

유족으로는 아내 양정희 여사와 슬하에 4남매를 두고 있다.

文化柳氏大宗會는 顧問을 역임하신 柳炳賢 將軍의 逝去에 재삼 哀悼를 표하면서 모든 宗員과 함께 재삼 故人의 冥福을 빈다.



柳炳賢 前 合參議長

柳根昌將軍(전 國家報勳處長)의 逝去를 哀悼하면서



明倫會長/名法博 柳 三 鉉

晉州柳氏 大宗會長을 지낸 柳根昌 前 國家報勳處長께서 肅환으로 금년 10월 24일 향년 95세를 一期로 逝去,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43에서 태어난 將軍께서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중화민국 문화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 육군장교로 임관한 그는 연대장, 부사단장, 30.20사단장, 5군단장, 국방부 인력차관보, 합참본부장 등 25년간의 현역군을 거쳐 陸軍 中將으로 예편하였다.

軍에 계실 때에는 우리나라 건국초기와 6.25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生死를 넘나드는 온갖 고난을 겪은 그에게는 護國의 열이 깊고 崇高함을 뜻한다고 사료된다.

전역후 將軍께서는 국방부차관, 국가보훈처장,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협회장, 재경총무회장, 고려선양회 이사장,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將軍께서는 황조근정훈장, 보훈훈장국선장, 대통령표창, 무공포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슬하에 4녀를 두고 있으며 雅號는 友石이다. 그리고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柳根昌將軍功德碑,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晉州柳氏 鄉土文化遺蹟地 안에 右石柳根昌將軍頌德碑가 세워져 있다.

將軍의 遺品(훈장 및 기장, 임명장, 위촉장, 상장, 상패, 명패, 서화, 의복류 등 584점)은 지난 2009년 10월 28일 충남역사박물관(공주시 중동)에 寄贈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의 文化柳氏 五代壇과 지금의 慕省祠(당시 慕省齋)가 있기 까지의 지난 연혁을 살펴볼 때 우리는 柳根昌 將軍을 잊을 수가 없다고 사료된다.

1965년 5軍團長으로 재직시 장비를 동원하여 文化柳氏 五代壇의 基礎가 되는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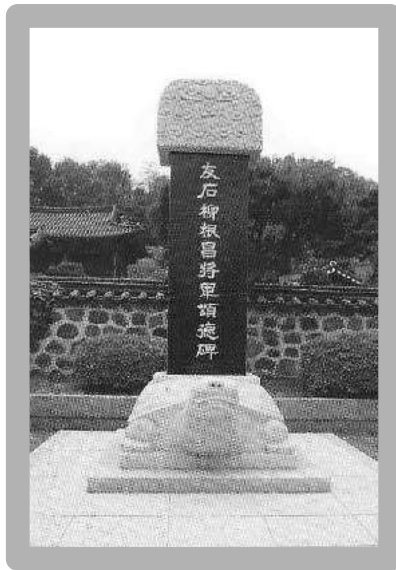
木공사와, 계류리 進入路(당시는 좁은 農路) 확장공사를 하고, 그후 柳忠烈會長과 任員 有志宗親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의 五代壇 현위치에 招魂設壇을 하고 매년 享祀를 올리게 되었다.

慕省齋는 五代壇 현위치 동쪽 가까운 곳에 柳根昌將軍의 獻誠으로 16평 규모의 祭室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1991년판 대중보 통권15호 慕省齋 重建 竣工)고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柳根昌將軍을 추모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원히 잊지못 할 將軍의 爲先奉仕精神의 보람과 함께 우리도 고인께서 남기고 가신 발자취들을 子孫萬代에 물려줄 精神的 遺産이 될 수 있도록 記錄을 남기면서 거듭 고인의 冥福을 빈다.



생전의 將軍모습



友石 柳根昌將軍頌德碑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토당그린공원)



柳根昌將軍功德碑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人物紹介】

자랑스런 柳門의 젊은 後裔들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 承 鉉

柳承鉉(左/西山公宗中. 대승공34세)

KBS1 TV 교양프로그램 도전! 골든벨(2020.1.19)에서 부산 동천고등학교 1학년 류승현군이 제130대 골든벨을 올렸다(기사내용 별첨, 티브이 데일리 김종은기자 제공).



'도전! 골든벨'에서 류승현 학생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인 '발키리'를 맞추며 골든벨을 올렸다. 1월 19일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는 부산 동천고

등학교의 골든벨 도전기가 펼쳐졌다.

이날 류승현 학생은 49번 문제까지 거침없이 맞히며 130대 골든벨을 눈앞에 뒀다. 이에 동천고의 교장은 바그너의 오페라 '닝벨룽겐의 반지'의 일부분을 들려주며 문제를 출제했다. 교장은 "이것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을 일컫는다. 이것의 주된 임무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영웅의 혼을 신들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과 나치스가 독일 내부의 반란이나 히틀러 암살 시도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세운 계획의 이름으로도 쓰였다. '전사자를 선택하는 자'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에 류승현 학생은 막힘없이 술술 정답을 적어나가며 "긴장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화나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봤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잘 아는 편이다. 발키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발할라 궁전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결국 류승현 학생은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을 맞히며 골든벨을 울리는 데 성공했다.

한편 '발키리'는 북유럽 신화에서 주신인 오딘을 섬기는 여신이다. 이들은 준마를 타고 허공을 달리거나 백조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한다는 것이다.

류한나(忠/判尹公宗中. 대승공36세)

KBS1 TV 교양프로그램 도전! 골든벨(2020.3.22)에서 충북 청주시 청주여고 2학년 류한나양이 제131대 골든벨을 올렸다(기사내용 별첨, 공감언론 뉴시스 인진연기자 제공).

충북 청주여자고등학교(교장 정우정)는 'KBS 도전! 골든벨'에 도전한 류한나(2학년) 학생이 제131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다.

청주여고 학생 100명이 도전해 퀴즈 풀이가 막판에 접어든 46번 문제에서 류한나 학생은 최후의 1인으로 등극, 50번째 골든벨 문제까지 풀어내며 제131대 골든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최후의 2인까지 남았던 김미서(3학년) 학생은 지식 실크로드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졌다.

'도전! 골든벨 장기자랑' 시간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댄스동아리 시드(CID)의 축하공

연과 마라탕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마라걸스 팀의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여 큰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본교 교사(정우용)의 수려한 랩 실력을 통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사제(師弟)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정답'소리와 함께 황금 골든벨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순간 응원하던 학생들 모두가 류한나 학생을 얼싸안고 행가래를 치는 등 청주여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 냈다.

골든벨의 주인공인 류한나 학생은 "수업 중 발표를 위해 조사했던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청주여고 학생이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응원해 주신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우정 교장은 "도전 골든벨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뽐내고 최종 우승자까지 배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柳賢振(夏/安肅公宗中. 대승공34세)

柳賢振(미국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아시아 첫 워런 스판賞 수상(기사내용 별첨, 조선일보 2020.12.23 성진혁기자 제공).

柳賢振(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 워런 스판賞 수상자로 뽑히며 최고 좌완투수에게 돌아가는 '워런 스판賞'을 받는다. 이 상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승 좌완투수인 워런 스판을 기리기 위한 것. 오클라호마 스포츠 뮤지엄을 세운 리처드 헨드릭스의 주도로 1999년 제정됐다. 오클라호마는 스판이 여생을 보내고 숨진 곳이다.

1921년 태생인 스판은 1946년 보스턴 브레이브스(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데뷔승을 거뒀고, 1965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은퇴할 때까지 750경기에서 363승(245패 평균자책점 3.09 탈삼진 2583개)을 올렸다. MLB 역대 다승 6위이며, 좌완으로는 1위이다. 공인구의 반발력이 높아져 거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라이브 볼 시대(1920년 이후)'에 등장한 투수로 한정하면 좌완, 右완을 통틀어 1위에 해당한다.

2020시즌을 앞두고 LA 다저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그는 새 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다.

앞서 랜디 존슨(은퇴)과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가 4번씩, CC 사바시아(은퇴)가 3번 이 賞을 받았다. 柳賢振은 2019년 MLB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혔다가 패트릭 코빈(워싱턴 내셔널스)에게 밀렸다. 하지만 柳賢振은 LA 다저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올해 12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하며 영예를 안았다. 좌완투수 중 평균자책점과 탈삼진은 2위, 다승은 공동 3위였다. 워런 스판상 선정위원회의 척 설리 공동위원장은 22일 "柳賢振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



상식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열리지 않는다.

조선일보 100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A31

류현진, 아시아 첫 워런 스판상 수상

MLB 최고 좌완투수에게 주어져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 최고 좌완투수에게 돌아가는 ‘워런 스판상’을 받는다. 이 상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승 좌완 투수인 워런 스판을 기리기 위한 것. 오클라호마 스포츠 뮤지엄을 세운 리처드 헨드릭스의 주도로 1999년 제정됐다. 오클라호마는 스판이 여생을 보내고 숨진 곳이다.

1921년 태생인 스판은 1946년 보스턴 브레이브스(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데뷔승을 거뒀고, 1965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은퇴할 때까지 750경기에서 363승(245패 평균자책점 3.09 탈삼진 2583개)을 올렸다. MLB 역대 다승 6위이며, 좌완으로는 1위이다. 공인구의 반발력이 높아져 거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라이브 볼 시대(1920년 이후)’에 등장한 투수로 한정하면 우완, 좌완을 통틀어 1위에 해당한다.

앞서 랜디 존슨(은퇴)과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가 4번씩, CC 사바시아(은퇴)가 3번 이 상을 받았다. 류현진은 2019년 MLB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혔다가 패트릭 코빈(워싱턴 내셔널스)에게 밀렸다.



USA투데이 연합뉴스

‘워런 스판상’ 수상자로 뽑히며 메이저리그(MLB) 최고 좌완 투수로 인정받은 류현진의 투구 모습.

하지만 류현진은 LA 다저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올해 12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하며 영예를 안았다. 좌완 투수 중 평균자책점과 탈삼진은 2위, 다승은 공동 3위였다. 워런 스판상 선정위원회의 척 셸리 공동위원장은 22일 “류현진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열리지 않는다. 성진혁 기자

【宗中論壇】

21世紀 享祀와 宗會의 哲學, 科學的 意義



文化柳氏 忠/判尹公宗中 · 前茂朱教育長 柳澤烈

먼저 忠景公派判尹公后 盤谷公 16代孫으로서 先祖님들께서 享祀와 宗會를 유지 발전시킨 거룩한 업적을 높이 천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대의 사회적 변화로 인간성의 상실과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享祀와 宗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희박해지고 있어, 철학과 과학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분석하여 21세기 향사와 종회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 論文을 구성하였다.

I. 緒論

인간은 自然과 生, 死에 대하여 가장 큰 敬畏感(awe)과 불안 공포를 느낀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先知者는 神(유일신, 잡신 등) 또는 관념(idea)을 想定하여 믿게 하고 의지하며 기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을 찾게 하거나, 자연(천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law)을 발견하여 예언하고 통제하면서 적응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그리고 儒敎처럼 그 法則을 誠으로 보고 스스로 영위하는 방식을 교육하여, 正道를 걷게 함으로써 人文社會를 구축코자했다(誠者天地道也 誠之者人之道也, 논어).

그러나 人間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었던 폭풍과 폭우 그리고 천둥번개가 天神(하느님-애국가, 한울님-동학, 천주교-천주님, 하나님-기독교, 帝釋-불교, 하늘-유교, 과학, 玉皇上帝-도교, 上帝-巫俗, 皇天-駕洛, 天皇-일본, Sky god-서양)의 전지전능한 초능력이 아니고 자연의 放電현상이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했던 각종 전염병의 원인이 귀

신이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무서운 꿈속의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 무의식 능력(psychokinesis)과 借力은 정신일도력, 심령현상(투시력, 천리안)은 초단파적 뇌파(brain wave), 심폐소생술로 환생한 자의 近死체험(Near-death experience)은 생존한 혈, 뇌의 일시적 뇌작용 등으로 밝혀짐으로써, 神의 신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다. 특히 巫堂의 예언보다 과학적 예언(일기예보, 코로나 예방 등)이 보다 더 적중하고, 神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달 착륙을 보면서 '21세기 종교는 과학'이 되었고, 과학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百行之本인 孝를 바탕으로 祖上님을 추모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享祀와 宗會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祖上神의 위력(음덕과 벌)에 대한 믿음도 상실되어 가면서, '盤松儒契案'(柳瑩奭, 盤松韻并記序新集, 2020)을 보면 享祀 및 宗會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西洋의 神에 대한 개인적 구원방식(individual solution)은 개인주의를 낳았고, 프랑스혁명을 필두로 하늘과 王을 동일시했던 왕권주의가 붕괴되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가 성장하여 자유 시장경제에 따른 자본주의가 발전함으로써 빈부를 만들고, 새로운 신분주의가 구성됨을 보고 인류는 돈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전지전능한 神처럼 되어 이제는 돈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고, 돈이 신분을 차별화하고(有錢可使貴)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서, 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mammonism)가 만연하게 되었다. 즉 과거 신분사회에서는 출생이 신분(status)을 결정했다면 오늘날에는 돈이 신분을 결정하는 일부 자본주(회장) 중심의 신 봉건사회가 구축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체제 속에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egoism)로 변질되고, 핵가족시대는 독신가족시대가 되어가고, 자본주의는 천민주주의로 변질되면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 열렬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능률과 실용을 강조하는 실용주의(pragmatism) 속에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가 하면, 애비가 친 딸을 성폭행하고(세계일보, 2017.12.20.) 50代아들이 "아이고 아파, 고만 때려"라고 호소하는 친 80代 노모를 피멍이 들도록 때려 죽인가 하면 (2020.4.29.네이버TV),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불륜관계를 하는 (2020.9.7. 연합뉴스)등, 像想(imagination)을 초월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 원시 문맹사회로 착각할 정도로 인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中庸의 脩道之謂教를 망각한 교육계는 인문주의 동양철학은 무시하고, 물질문명의 서양철학을 배경으로 교육과정(curriculum)을 설계하여 性, 誠, 道(子思, 中庸)가 외면된 점수(입시)위주의 교육이 전개되고 있어, 率性之謂道를 하지 못함으로써, 天命之謂性이 상실된 인간성이 육성되어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仁義를 잃고 사익을, 판.검사는 正義를 잃고 유전, 유권무죄를, 의사는 Hippocrates 선서를 잃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파업(2020.8)을, 교회는 교리(doctrine)를 잃고 기업화를, 대기업은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등 大公과 지도력(leadership)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道와 誠을 잃고 방황하는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인 anomie가 나타나고 있다(柳澤烈, 本質授業과 實際, 2006.)

그리고 孝를 바탕으로 人間의 性에 이르게 하는 도덕윤리 교육(脩道之謂教, 中庸)의 장(환경)으로서의 享祀 및 宗會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유교(Confucianism)가 그동안 윤리사회를 건설(동방예의지국)하고 인간성 육성에 크게 기여한 면도 있으나, 祖上神을 想定하고 3년상을 치르거나, 까다로운 예절을 강조(使天下之人齊明盛腹以承祭祀 : 논어)하고, 상하 위계질서와 중앙집권적인 정치성 때문에 李朝의 건국이념이 되고 性理學이 일반화됨으로써 지나친 형식주의와 체면문화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전파(문화 전파)된 서양의 민주주의와 실용주의와 충돌(문화접변, acculturation)하면서, 민주적 교육을 받고 성장한 신세대들은 유교를 '꼰대유교'로 폄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享祀 및 宗會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固陋(bigoted)한 유산으로 치부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공자께서 "아! 道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한탄(道其不行矣夫! : 논어)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金容沃, 中庸, 2015.)

위와 같은 필요에서 본 논문은 享祀 및 宗會에 대한 사고의 대 전환과 함께 보다 깊은 관심과 열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철학에서는 儒學, 과학에서는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21세기 享祀 및 宗會의 철학, 과학적 의의와 인간성 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享祀 및 宗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儒學의 계보, 享祀 및 宗會의 개념, 및 논술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제한하였다.

첫째, 孔子 사상은 사람 중심(人乃天)의 인본주의로서, 우주 만물의 본질은 성(天命之謂性)이며, 性은 성(과학의 법칙)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宋나라 朱熹가 性은 理

(理性)와 기(물질)로 존재한다며 이기이원론(性卽理 이기성)의 주자학 즉 성리학을 주창한 이후, 明나라 王守仁이 존재하는 것은 心(선과 악의 마음)이라며 일원원론적(心卽理)인 陽明學을 창시하여 실사구시, 이용후생, 經世致用의 실학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크게 보면 儒學은 성리학과 양명학 두 계보가 있으나 本 論文에서는 이, 기, 심 등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본질을 性(天命之謂性)으로 보고 敬天은 하되 天神을 믿지 않은 본디 孔子 및 子思의 사상을 그대로 인용했다.

둘째, 享祀 및 宗會의 개념(concept) 범위는 가정의 상제와 추석과 설의 차례 그리고 各 派宗會(5代祖, 近始祖, 中始祖, 本始祖 단위)의 시제 등 先世享祀를 포함하며, 宗會는 4代 이하 가족단위(가족묘), 5代祖 이상 近始祖 이하 단위(종산), 中始祖 단위 파종회, 本 始祖 단위 文化柳氏 大宗會를 포함한다.

셋째, 本 論文의 구성은 직접적인 실험, 조사 결과를 가지고 論文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각종 문헌과 신문, 잡지, internet 매체를 통한 정보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문헌고찰 방식에 크게 의존하였다.

II. 哲學(儒學)的 意義

우주 만물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神이며 敎理(doctrine)로 보면 신학 ② 사실이며 법칙으로 보면 과학, ③ 의미이며 본질로 보면 철학 ④ 존재는 없다(무상 무아)로 보고 緣起로 보면 佛學 ⑤ 존재하는 것은 性(天命之謂性)이며 誠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儒學, ⑥ 현상이며 경험으로 보는 現象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학은 일반적으로 '의미(meaning)의 성찰에 의한 理由를 밝히는 학문'(金安中1983,pp.67~87.)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 상태를 관점에 따라 ① 神學은 舊約(예수 생전)과 新約(예수 이후) ② 科學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또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③ 哲學은 주관주의(관념론, 합리론), 客觀主義(존재론, 경험론), 변증법적인 변증적 철학(상대론, 인식론, 실존주의) ④ 佛學은 대승과 소승 ⑤ 儒學은 성리학과 양명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은 모두 인간의 탁월한 사고(先知 및 선견지명)와 노력(조사, 실험, 성찰고찰, 명상, 탐구, 심문, 도문학, 통찰 등)에 의하여 창조된 결과였는데, 神學의 하나님과 基督教을 제외한 佛學은 윤회, 儒學은 경천사상이 전제되면서 종교화(religion)됨으로

써 기독교, 불교, 유교가 되었다(金容沃, 中庸, 2020). 그러나 인간을 중심에 둔 사상은 서양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Protagoras” 敬虔의 대상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는 Comte, “세계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고 주장한 영국 실용주의 선구자 Schiller,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Nietzsche 등의 인본주의자가 있으나 동양에서는 孔子님의 人 중심 사상과 우리나라 崔時亨의 ‘事人知天’ 사상 그리고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孫秉熙 선생의 “人乃天”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儒學은 성리학의 理와 氣 陽明學의 心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性(天命之謂性)으로 보고, 性은 誠의 상태로 존재하고, 性에 이르는 사람을 君子라 하며 완전히 이룬 사람을 聖人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孝를 바탕으로 率性之道 및 脩道之教를 통하여 인간성의 육성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大公을 이룬다는 매우 체계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享祀와 宗會의 意義를 분석하여 인간성 육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명하였다.

1. 人生 有限性的 永生化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의 mein thema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독교(Christianity)는 영혼불멸설을 대전제하고 소전제로서 神(유일신,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原罪, 천당과 지옥을 想定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간절히 소망(구원)하면 原罪를 벗고 천당에서 영생(external life)한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관념일 뿐 실체가 없다(金容沃, 中庸, 2015).

그리고 佛敎(Buddhism)는 무신론으로서 신을 想定하지는 않았으나 대전제로서 ‘존재란 없다.’는 무상, 무아론(諸行無常 諸法無我, 色卽是空 空卽是色 : 반야심경)을 想定하고, 소전제로서 一切皆苦論과 緣起論 및 인과응보론 그리고 윤회론 등을 想定하고, 결론적으로 수행 정진을 통해 고행으로부터 해탈하면 후세에 인간으로 환생함으로써 영생한다고 설법합니다. 그러나 무아론과 윤회론(전생 및 환생 등)이 상호 모순되는 오차가 있고, 윤회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法輪, 般若心經, 2012)

그러나 儒敎(Confucianism)는 人乃天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을 천지, 우주, 역사의 중심에 두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조상과 부모에게서 자기로 이

어지고 손자와 후손으로 이어지는 人間의 家族史(族譜)에 주목하며, 先代에 형성된 문화가 자기에게 전수되고, 자기가 발전시킨 문화를 다시 후손에게 계승하는 역사성을 소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조로부터 이어 받은 性, 誠, 道 등이 교육을 통해 자기에게 전수되고, 자기는 다시 후손에게 전달함으로써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아닌 자기의 인생역정(性, 誠, 道 등)이 후손에게 이어짐으로써 천년만년 역사적 영생(historical life)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金容沃, 中庸, 2015.)

이와 같은 儒敎의 영생화 방식은 가장 현실적이고 입증 가능성이 가능하며,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도 국사와 세계사 속에 존재하고, 현재의 인물과 문화를 후세에 전수하여, 기나긴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영생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 유무와는 관계없이 구가 유공자를 현충원에 모셔 놓고 추모함으로써 님은 비록 산화했지만, 영원히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남아 영생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人在名虎在皮'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격언도 인생의 유한성의 영생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사에 찬란히 빛나는 우리 文化柳氏 宗中の 琅玕 柳誠源公도 국민들 가슴속에 충효의 표상으로 각이되어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柳根榮, 文化柳氏寶鑑, 1985.PP.66~67.)

따라서 과거에는 작고하신 부모님과 祖上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것으로 보고 享祀 때 강림하시길 독축했지만 21세기 철학에서는 자기 마음(참나) 속에 心象(imagination)으로 영생한다고 보지만, 曾子가 말씀(慎終追遠 民德歸厚矣 : 논어)하신 바와 같이 享祀와 宗會는 역사 속의 과업으로서 의미도 있어 우리 종친들 인생의 유한성을 영생화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率性之道의 實現

모든 종교는 자연에 대한 敬畏感(awe)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Christianity)는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었던 폭풍과 폭우 그리고 천둥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초능력에 敬畏感을 갖는 데서 출발하여,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원시 신앙과 같이, 절대자인 神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안 공포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인간의 性(사랑, 善 등)에 이르러 聖人이 되고자 참회하는 道를 행하고 率性之道를 실현코자 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선도하여 인류 평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초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밝혀져, 神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서

신앙심에 의한 率性之道의 실현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그리고 佛敎(Buddhism)는 인간의 끝없는 五慾七情에 따른 욕구 불만으로 괴롭고 (一切皆苦), 무서운 꿈과 trauma 그리고 業識(Karma). 낮과 밤, 사계절과 생로병사 등의 윤회(전생)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지으면 감옥(지옥)에 가는 인과응보의 법칙 작용 등 現象界에 대한 敬畏感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존재 자체를 부정(諸行無常 諸法無我 : 반야심경)하고, 인간의 性(연민의 정, 측은지심, 자비 등)에 이른 부처가 되기 위해, 放下著하고 수행 정진하여 고행로터 해설하는 식의 숭성도를 실현코자 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계도하여 인류사회 정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현실도피이며,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도피機制(escape mechanism)로서 출가 등 속세를 떠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어, 일반인의 숭성지도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儒敎(Confucianism)는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주목하고 회기본능과 부모의 살신성인에 대한 한없는 敬畏感에서 출발하여, 天地는 필요조건일 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서양에서는 용어조차 없는 孝 개념을 정립하였다. 실제로 포유류나 조류와는 달리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20~30년간을 지극 정성스러운 모성애와 부모의 보호를 받고 性, 誠, 道를 전수 받아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배출된다. 따라서 부모의 정성과 노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이고 종족보존의 법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이며, 그것만으로도 살신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므로 率性之道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萬物於天 人本於祖(孔子家語)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父는 하늘이고 母는 땅에 버금감으로 깊은 경외감을 느끼고 감사하며, 봉양하고(小孝), 부모의 명예를 높이고(中孝) 기쁘게 해드리며(大孝)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추모하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살신성인의 道로서 숭성지도를 실현케 함으로써, 윤리도덕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와 같이 '인간의 審美的 감수성(感情)은 悟性(知性)의 논리에 우선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종교가 숭성지도의 핵심인 사랑(기독교), 자비(불교), 仁(유교)을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孔子는 性의 본질인 誠(법착)을 발견하고 孝를 기본으로 숭성지도(仁義)를 구상한 선견지명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도 孝 개념을 바탕으로 서양윤리를 조화시켜 윤리, 도덕 교육과정(curriculum)을 구성하여 孝의 본질인 私的 차원의 가족주의를 초월한 大公을 이루는 윤리도덕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柳澤烈, 教科教育和 實際,2002).

그리고 이와 같은 孝는 부모에 대한 孝에서 출발하지만 人性(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발달의 기본이 되어 全人間 육성의 기초가 되므로, 올바른 人性形成을 통해 大公(中庸 : 大報本反示 故以配上帝)을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孝는 百行之本으로서 부모에 대한 孝 뿐만 아니라 天下爲家가 아닌 天下爲公 즉 大公을 이루는 것이 孝의 본질입니다. (金容沃, 中庸,2015.) 따라서 享祀 및 宗會는 이와 같은 인성형성과 大公의 기본이 되는 孝를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이므로, 宗親들의 숭성지도의 실현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要約(summary)하면 人生의 유한성이나 경외감에 대하여 기독교는 唯一神과 原罪 및 天堂을 상정하고 믿음과 구원으로 해결코자 하였고, 佛敎는 苦와 無常 無我, 修行 精進, 도피와 해탈 방식으로 해결코자 하였으나, 儒敎는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인간의 家族史(族譜)에 주목하고 매우 현실적인 역사적 영생의 방식과 인간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20~30년 동안 지극 정성스러운 모성애와 부모의 살신성인에 가장 큰 경외감을 갖는데서 출발하여, 孝 개념을 정립하고, 百行之 根本이 되는 孝를 바탕으로 숭성지도를 실현코자 享祀와 宗會를 진술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삼아 노력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脩道之敎의 실현

모든 종교는 脩道之敎의 방식(solution)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독교(Christianity)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론의 여지없이 지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리(doctrine)를 성실히 실천하고 기원하여 죄를 赦하는 것으로 脩道之敎를 실현코자 하였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神의 존재나 신화같은 예수의 부활 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이재록, 만민중앙교회, JTBC,2 020,6,27)하고, 교회가 기업화되는 이단의 현실을 보면 더욱 절대적이어서, 이를 통한 수도지교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金容沃, 中庸,2015.)

그리고 佛敎(Buddhism)는 무신론으로서 절대자도 없고 교리(doctrine)도 없으나 현실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무상,무아)하고 放下著하여 깨달음과 修行 정진을 통해 해탈하는 방식의 현실도피적인 수도지교를 실현코자 法問에 법문하거나 팔만대장경과 같은 經書를 읽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修行 정진하여 해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수도지교를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그러나 儒敎(Confucianism)는 부모의 살신성인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에서 孝 개념을 정립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효심을 바탕으로 수도지교를 이룩하고자 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위 두 종교가 개인적 방식(individual solution)을 취한다면, 儒敎는 가족 및 宗會와 같이 역사적 영원성을 갖는 혈연적 집단을 중심으로, 공동체의식을 갖는 집단방식(collection solution)을 取함으로써 집단력동(group dynamics)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약(禮俗相交, 德業相勸, 過失相規, 患難相恤)과 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과 협동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민주시민 육성과 지도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 孝의 본질인 大公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享祀와 宗會는 혈연적 공동운명체로서 승조돈종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성된 집단의 행사로서, 孝의 審美的 감수성이 충만한 교육의 장으로 작동하여 道와 性에 이르는 脩道之敎를 실현하기 때문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요약(summary)하면 基督教은 교리(doctrine)를 실천하고 기원하여 죄를 赦하는 방식으로 脩道之敎를 실현코자 하고, 佛敎는 존재를 부정하고 放下著하며 현실 도피적인 수행 정진을 통해 해탈하는 것으로 脩道之敎를 실현코자 하였으나, 儒敎는 일상생활 속에서 孝를 바탕으로 살신성인과 같은 스스로의 노력(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 中庸)에 의하여 수도지교를 실현코자 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集團方式(collection solution)을 취함으로써 집단역동의 복합적인 효과도 기대하며 수도지교를 실현코자 한 점에서, 享祀와 宗會의 보다 큰 차이와 인간성(협동성 등)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Ⅲ. 科學(教育心理學)的 的의

科學은 일반적으로 '사실(fact)의 관찰에 의한 원인을 밝히는 學학문(金安中1983, pp.67~87.)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章에서는 행동과학으로서 과학의 한 분파인 심리학 특히 교육심리학적 측면에서 享祀 및 宗會의 의의를 분석하여 인간성 육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래 哲學의 한 분파였던 心理學도 철학과 과학의 발달과 함께 행동과학으로 발달하게 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주관주의와 객관주

의 그리고 변증법적인 변증적 심리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주의에는 ① 정신으로 보는 정신도태설, ② 환경의 영향으로 보는 인지이론 ③ 지각으로 보는 지각심리학 등이 있고 객관주의에는 ① 육체의 감각으로 보는 統覺說, ② 행동으로 보는 행동주의 ③ 사회적 관찰로 보는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으며 변증적 심리학주의에는 ① 감각과 정신의 통합으로 보는 통찰설 ② 욕구로 보는 강화조건화 ③ 목적으로 보는 記號형태설 ④ 자기자신으로 보는 인지적행동수정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다시 操作主義(Operationalism) 측면에서 인간 행동의 외부적 조건으로 보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학파와, 인본주의 철학과 같이 자기자신의 내부적 조작으로 보는 인본주의 심리학으로서 知覺심리학과 인지적행동수정이 있다. 儒敎가 인본주의 철학으로서 인본주의 심리학과 일맥 상통한다.(自誠也, 人之道也 등)

그러나 行動科學(심리학)이 실험관찰에만 의존하다보니 철학적인 성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古代 基督教 西洋 哲學에서는 인간은 정신(神)과 육체(物質)로 2元 분류하고, 佛敎에서는 萬物은 색(物)과 심으로 나누지만 추체?는 심(心王)으로 보았으며, 儒敎에서는 朱熹가 理(理性)와 氣(물질)로 二元 분류한 이후 王守仁이 프랑스 합리론자 Descartes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 말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선악을 가지는 일원론적인 心하나만을 주장했는데, 이는 ‘세상만사 마음에 매였다’는 속설과 元曉大師의 깨달음 一切唯心造와 유사하다. 하지만 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다가, 오스트리아 S.Freud가 Id(原慾) Ego(自我) Superego(超自我)로 분석(정신분석학)하고 意識과 前意識 그리고 정신활동의 대부분이 잠재하는 무의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철학 및 과학과 조화된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의 位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겉나’, 표리부동할 수 있는 속마음의 ‘속나’, 진짜 나인 참마음의 ‘참나’로 구분하고, ‘겉나’의 主體는 감각(감각, 감정, 욕구 등), ‘속나’의 主體는 이성(知識, 知力 등), ‘참나’의 主體는 정신력(집중, 정의, 불변, 인내, 의지)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다시 이 精神力을 지배하는 하는 것을 신본주의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며 여기에 巫堂의 신들림이 있다고 하고, 哲學에서는 관념(idea) 이라고 하며, ‘참나’ 속에 작고하신 父母님과 祖上님이 心象(imagination)으로 영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祖上神이 하늘나라에 계신 것으로 보았지만 科學이 종교가 된 21세기 철학에서는 ‘참나’ 속에 영생

해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自己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보게 되므로, 자기통제의 기능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행동과학에서는 자기통제력으로 설명하고 그 요소로서 효심, 자아개념, 포부수준, 성취동기, 자기설계, 자기교시, 자기평가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주관주의적 認知理論(場理論)과 객관주의 사회 학습이론(模式化)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享祀 및 宗會의 의의와 인간성 육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명하였다.

1. 模式化(modeling)

模式化(modeling)란 A.Bandura(1925)의 사회학습이론의 핵심 개념으로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거나 타인이 강화(reinforcement)받는 것을 관찰하고, 자기도 강화(대리적 학습)되어 본받게 되는 학습을 의미하며, 관찰학습이라고도 한다. 模式化는 注意-把持-再生-強化過程으로 이루어지는 데, 유아들이 자기 엄마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의대생들의 intern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형태가 바로 모식화이다. 정작, 질서, 예절, 청결, 통찰 등의 기본생활 습관은 모식화에 의하여 주로 형성되므로 부모의 모범적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五常(仁義禮智信)의 model이 되어야 하며 특히 언어 습관에 유의해야 한다.(Hilgad.E.R, Introduction to Psychology, 1982)

그런데 점수 중심의 入試위주 학교교육은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성취하고 사회에 배출되지만,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 논리의 열렬한 경쟁의 분위기속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성 육성을 크게 저해하는 환경 model이 됨으로써 잠재적교육과정(latent curriculum)에 의하여 孝를 바탕으로 한 주체성(自), 성실성(誠), 정직성(禮), 정의감(義), 협동성(仁) 등이 결여된 비인간성 및 非大公性도 함께 육성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柳澤烈, 本質授業과 實際, 2006.)

따라서 享祀와 宗會는 孝心을 바탕으로 祖上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살신성인의 정신 그리고 大公을 이루신 큰 업적 등, 인간성 육성의 model을 조명하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動因 자극을 주어 모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매우 좋은 물리적(기회 및 장소), 심리적(분위기) 교육의 장(환경)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교육심리학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2. 肯定的 自我概念 形成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인간이 자아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갖는 전체적인 인식 및 의식,(consciousness)을 말한다. '나는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와 같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느냐? '나는 천민의 피가 흐르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한 죄인이었어.'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느냐가 인간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李星珍 外, 現代教育心理學, 1987.)

예를 들면 양반인 줄 알았던 한 미녀가 자기 어머니가 巫堂이었음을 알고 당장 자존감을 버리고 몸을 팔고 천민행세를 한다든가, 반대로 金泳三 대통령이 중학교 때 높은 자긍심과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높은 포부수준과 충만한 성취동기를 갖고 시종일관 노력하여 실제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와 같이 자아개념이 인간성 형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서 깊은 우리 文化柳氏는 양반으로서 높은 自矜心을 가질 수 있고, 孝의 본질인 大공을 이루신 조상님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육환경 모형(educational environment model)로서 조상을 추모하며 경배하는 享祀에 참석한 후손들은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혈연적 공동체 의식을 갖고 崇祖敦宗의 精神을 구현하기 위한 『文化柳氏大宗會』와 『文化柳氏大宗會館』이 있는 것만으로도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되지만, 직접 참여한 종친들은 더욱 높은 자긍심과 유대감이 형성되므로, 享祀 및 宗會는 肯定的 自我概念 형성에 심리학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羅東晉, 教育心理學, 1983.)

3. 높은 抱負水準 육성

抱負水準(aspiration level)이란 인간이 어떤 일에 당면했을 때,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의 정도 또는 목표 수준을 의미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Hoppe(1930)가 처음 연구하여 발표한 이론으로, 푸른 꿈(미래의 자아상)이 인간의 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간이 높은 未來像을 형성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에 알맞은 정보를 蒐集하며, 인간관계를 맺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여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이론이다.(崔正薰, 知覺心理學, 1973)

실제로 人間은 그가 되고 싶은 꿈(미래의 자아상)만큼 이루게 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을 키워주는 자극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미래의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아, 주체성을 상실하여 항로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능력과 환경(①금력. ② 권력 ③ 정실 : 혈연, 지연, 학연)에 맞는 포부수준의 자아상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유서 깊은 우리 文化柳氏는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人傑이 많고(柳根榮, 文化柳氏寶鑑, 1985), 享祀에 모셔진 祖上님(柳瑩奭, 先世享祀, 2015)은 각 가정의 祭祀와는 다르게 孝와 學而(學而時習之不亦說乎: 논어) 그리고 형설지공으로써 大公을 이루신 祖上님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고 자자부심과 함께 높은 수준의 포부와 미래의 自我像 형성에 좋은 자극 환경이 되므로, 享祀 및 宗會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4. 成就動機 육성

成就動機(achievement motivation)란 도전적이고 어려운 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로서, 人間이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으면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나, 成就動機가 낮으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매사에 소극적이어서 능력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고, 토끼가 거북이에게 지는 것처럼 성취동기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기유발(Motivation)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人間の 動機(motivation)는 자기자신의 욕구(need)수준과 환경(environment)수준과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유발되며, 人間行動의 성취는 동기와 노력(effort)과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결정된다. 운동경기도 선수들의 기능 수준과 응원부대의 심리적 환경과 상호작용의 함수로 '이기고야 말겠다.'는 성취동기(사기)가 유발되며, 높은 성취동기(사기)와 최선을 다하는 각고의 노력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環境은 성취동기 유발에 큰 영향을 주고, 성취동기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한 요인으로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鄭範謨, 朴容憲, 成就動機, 1872)

그러므로 成就動機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동인이되는 환경이 있어야 하는데, 享祀 및 宗會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후손들의 사기 진작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만, 享祀에 모셔진 祖上님들의 높은 成就像이 동인 자극 환경이 되어 미래의 自我像(need)과의 상호작용으로 높은 成就動機가 육성되고, 이와 같은 成就動機는 악전고투, 분골쇄신과 같은 최선을 다하는 각고의 노력을 수반함으로써 大公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享祀와 宗會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5. 自己統制力 신장

自己統制(self-control)란 인지심리학과 행동주의심리학이 변증법적으로 발전된 인지적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이다. 즉 인간의 행동은 神(唯一神 하나님, 雜神, 祖上神)이나 외부적 조작(賞과 罰, 강화)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능동적으로 지기를 관리하는 內部的 操作(internal operation)에 의하여 통제되기도 한다. 인간 자신의 內部的 操作은 人本主義的(철학)이며 효율적이고 효과적(과학)이라는 것이 認知的行動修正 이론이다(金南星, 認知的行動修正, 1983.) 실제로 인간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人乃天)이기 때문에 神은 물론 그 누구도 일일이 따라 다니며 관리하고 통제해 줄 수가 없다. 이는 인본주의 유교 사상(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 中庸)과도 매우 일치한다.

여기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나'나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관습인 業識(Karma) 및 외부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外傷障礙인 trauma 그리고 꿈과 같은 무의식이 아니라, 六識(이성)이라고 하는 '속나'의 냉철한 이성과 '참나'의 강인한 정신 역동(psycho dynamic)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Mentalist가 率性之道를 자극하고 仁義와 誠을 통한 전인간을 형성하여 孝의 본질인 大公을 이루고, 君子와 聖人の 꿈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柳澤烈, 立志成家, 2020.)

그리고 '참나' 속에 작고하신 父母님과 祖上님이 心象(imagination)이 영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보게 되므로 자기통제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享祀 및 宗會를 통해 模式化됨으로써 육성된 높은 自我개념과, 높은 포부수준의 미래 自我像 그리고 성취동기 등의 內顯的인 요인과 함께 孝心이 강력한 自己統制(內部的 조작)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孝心이 증만된 자식이 부모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행동을 삼가 하는 것처럼, 享祀에 모셔진 祖上님에 대한 意識

(consciousness, 六識)과 이와 같은 內顯的인 요인이 강력한 自己統制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享祀 및 宗會는 위와 같은 自己統制 요인을 형성시켜 그 요인들이 결국 보이지 않은 감시자가 되어 자기(‘참나’)가 자기(‘겉나’ 및 ‘속나’)를 통제 관리하는 自己統制가 이루어짐으로써 自主的 학습(學而時習之不亦說乎)과 自主的 생활(仁義, 正直, 遵法, 秩序, 禮節, 清潔 등)과 같은 率性之道를 실현하여 天命之性(인간성)을 이루게 하는 교육의 장(환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요약(summary)하면 “形態心理學의 大家 독일의 K. Lewin이 그가 발표한 場理論 $B=f(P·E)$ 처럼,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의 함수로서, 인간의 행동은 그가 처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享祀와 宗會는 科學(心理學)的으로 孝心과 함께 ① 模式化 ② 긍정적 自我개념 형성 ③ 포부수준 육성 ④ 성취동기 육성 ⑤ 自己統制力 신장에 크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는 강력한 자기관리(자기설계 및 자기통제)의 요인으로 작동하여 率性之道는 물론 인간성 육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IV. 綜合 論議

이상의 철학(유학)적 관점과 과학(교육심리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 논의(synthesize & discussion)하면 다음과 같다.

1. 21世紀의 哲學과 科學

19세기에 이미 ‘神은 죽었다’(Gott ist tot : Nietzsche)는 철학적인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精神世界를 지배하여 왔던 神本主義 基督思想과 般若主義 佛敎思想은 과학의 발달로 퇴색해 가고 있는 가운데, 본래 基督教을 제외한 佛敎와 儒敎는 무신론이었는데, 佛敎는 Hindu敎의 영향을 받아 天堂과 地獄, 轉生과 輪廻의 윤회를 想定하여 神本主義(the god-oriented)화 되었고, 儒敎는 魂飛魄散의 개념을 想定하고 祖上神과 삼년상이 강조되면서 神本主義처럼 되었으나, 敬天(敬天사상)을 했을 뿐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人乃天 사상이므로, 하늘(天神)과 땅(地神)은 人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재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儒敎만이 科學과 충돌하거나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1세기 과학과 유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논란

의 여지가 없는 思惟의 대전제(公理, axiom)가 되었으므로, 享祀 및 宗會에 대한 思考의 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유신론에서 벗어나 '철학으로서의 종교'로 다시 태어나 基督教은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인류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고, 佛敎는 慈悲와 精進으로 人類 社會의 정화와 안정을 구현해야 하며, 儒敎는 본래의 모습(인간 중심, 人乃天)으로 돌아가 윤리사회를 재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 국면에서 所望(基督教)이나 逃避(佛敎)는 심리적 안정을 줄 뿐, 人類의 生命을 구하고 平和를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儒學의 가르침인 誠(法則)을 깨닫고 인간 스스로(自誠也), 국가를 믿고(信), 협동하여(仁) 三密(밀접, 밀집, 밀폐)의 원칙(義)을 지키고(道), 과학의 가르침인 예방과 치료(知, 智)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禮)만이 코로나를 퇴치하여 생명(性)을 구하고 인류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과거엔 父母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明堂에 매장해야 同氣感應으로 발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라별로 鳥葬(네팔), 水葬(인도, 티베트, 신라 문무왕), 風葬(西海岸), 樹木葬(스위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의 문화일 뿐(法輪, 2018)이고. 中國 및 韓國에만 있는 風水의 개념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지금은 과학적(인문지리학) 風水로 변화하고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儒敎의 五常(仁義禮智信)과 과학인 醫學이다. 그리고 儒敎 사상의 五常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 21세기 思惟의 대전제는 종교로서의 科學(science)과 철학으로서의 儒學이라는 것이다.

2. 儒敎의 弊害와 再解析

儒敎는 中國의 春秋戰國時代 말 魯나라에서 태어난 孔子(B.C.551~B.C.479)의 높은 先知 및 先見之明에 의해 체계화된 사상으로 先秦時代에 크게 번창하였으나 秦始皇의 焚書坑儒로 큰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漢, 唐까지만 해도 老子와 佛敎 사상에 관심이 많았고 儒敎는 외면 당하다, 宋나라 朱熹의 理氣二元論적인 朱子學 즉 객관적인 이성과 물질을 강조하는 性理學이 대두되어 儒敎의 위계질서와 중앙집권적인 정치성향이 王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왕권주의 元, 明, 淸나라 600년 동안 官學으로까지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말 性理學이 전파되어 李朝 건국과

동시에 崇儒排佛 정책으로 儒敎가 精神世界를 지배하여 인간성 육성과 윤리사회(東方禮儀之國)건설에 크게 공헌했으나, 李朝 중엽(世祖) 韓明澮를 대표로 하는 勳舊派가 득세하여 士林派와 대립하며 정치가 문란해지자, 李滉 李珣를 중심으로 性理學이 강조되어 널리 일반화되면서, 朝鮮社會는 性理學의 영향으로 수직적 사회구조가 강화되고, 형식적인 체면문화가 만연되면서 허례허식이 성행하고, 백성들은 타율적이고 배타적이며 당파적인 국민성이 형성되는 폐해도 있었다.

그래서 中國에서는 文化革命 이후 수평적인 社會主義 사상 때문에 孔子사상은 천시를 받기까지 했고, 우리나라도 日帝 강점기와 해방 후 西洋철학인 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전파(文化전파)되고 文化接變 형성이 일어나, 국민들은 西洋文化에 동화(문화동화)되어 儒敎가 외면됨으로써, 인간성 교육(率性之道, 脩道之敎)의 발원지(교육적 환경)로서의 享祀와 宗會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韓國 사회는 오염된 물이 범람하듯 社會的 병리 현상인 anomie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中國에서는 인간성의 회복과 人倫社會 건설을 위해 그동안 천시했던 儒敎에 대하여 주목하고, 본디 孔子 사상인 人文主義 儒敎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東洋哲學을 정립하고 있다고 한다(金容沃, 中庸, 2015) 우리나라도 이미 人乃天 思想을 내세우며 동학혁명까지 발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날 다시 學界를 중심으로 人文社會 건설을 위한 key word로서 儒敎에 대한 재 해석과 깊은 연구로 西學(西洋哲學, 로마敎皇를 대표로하는 천주교)에 대한 東學(東洋철학)으로서 韓國哲學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金容沃, 中庸, 2015).

3. 人間의 行動, 成就와 自己統制의 핵심요인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짐승은 먹이부터 보고 法(주인)을 보며 나중에 倫理道德(자율)을 보지만 인간은 倫理道德부터 보고 法(관습과 실정법)을 보며 마지막에 먹이(돈)를 본다(柳澤烈, 天經, 2020). 이것은 인간됨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倫理道德은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는 '겉나'(Id)의 感覺 욕구와 '속나'(Ego, 自我)의 이성, 그리고 '참나'(Super Ego, 超自我)의 정신력의 영향을 받아 '겉나'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理性的 가치판단은 知力에서 나오지만 안다고 知行合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앎을 통제하는 것은 '참나'의 양심(도덕성)이고 이 양심의 뿌리가 바로 孝心이며 인간의 天命之謂性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孝心은 인간이 태아에서부터 부모의 품안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사랑과 의 殺身成仁의 모습이 각인된 가장 원초적인 감정(天命之謂性)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품안과 고향이 그리워지고, 돌아가고 싶은 回歸本能(天命之謂性)과 하늘같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감정으로서의 孝心이 형성된다. 그래서 설, 추석의 다례, 享祀 등에 참여하지 못한 자식들은 심한 悖倫 및 죄의식과 소외감을 갖게 되어 부정적 自成豫言(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로 부정적 自我개념을 형성하여 인간성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참나’ 속에 작고하신 父母님과 祖上님이 心象(imagination)으로 영생한다고 보며,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보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孝心은 ‘속나’ 理性的의 논리에 우선하는 매우 강한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됨으로써 ‘참나’ 양심의 뿌리가 되어 자기(‘나’)의 행동(마음 등)을 통제하는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성 형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孝는 百行의 根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孝心(부모개념)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고 약화됨으로써, 자기의 行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다시 환기시켜 일깨우고 더욱 강화시키는 教育 환경이 바로 享祀 및 宗會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人性和 환경과 상호작용의 함수[B=f(P·E)]”이므로 孝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행동과 성취는 자기의 人性(P-person : ① 情意性 - 孝心, 道德性, 社會性, 自己管理의 요인(自我概念, 抱負水準, 成就動機, 自己統制力), 가치관 ② 認知性 - 知識, 情報, 知力 ③ 心體性)과 환경(E-environment : ① 金力, ② 勸力, ③ 情實-血緣, 地緣, 學緣)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함수로서 결정된다. 그런데 享祀 및 宗會는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핵심이 되는 孝心을 刺戟하고 일깨우는 환경으로서의 教育의 장(孝心の 발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도층 人士들을 보면 모두가 名門大家의 후손들임을 볼 때, ‘왕대밭에 왕대 나고 졸대밭에 졸대 난다.’는 俗談을 상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 함수관계(認知이론)를 입증한 중요한 실증자료로서 실추된 享祀 및 宗會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당화를 역설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 享祀와 宗會에 대한 思考의 대전환

神本主義(the God-oriented)에서 祈雨祭는 天神을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降雨을 기원하는 祭祀로 보았지만 人本主義(humanism) 儒敎에서는 天神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흥흥해진 民心을 달래기 위한 선지자(孔子)의 치밀한 智略(행동과학=심리학)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享祀는 祖上神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수신 지교를 위한 享祀라는 Copernicus적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디(originally) 儒敎는 人을 중심(人乃天)에 둔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天과 地를 공경했지만 天과 地는 神이 아니라 人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상정되었으며, 天神과 地神 그리고 祖上神은 관념(idea)상의 존재일 뿐 실재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재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享祀와 宗會에 대한 神本主義的 관념은 孔子의 깊은 뜻과는 다르게 후세에 왜곡된 虛構(fiction)로서, 孔子가 享祀시 지극한 마음으로 祖上님을 추모하고 실감난 敬拜를 강조한 것은, 脩道之敎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학적 지략으로 본다는 것이다.

역설하면 享祀와 宗會는 祖上神을 위한 禮가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과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內面化(internalization)되어 思考의 전환이 쉽지 않으나, 享祀 및 宗會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에 대한 哲學 및 科學的 의의를 깨닫고, 그동안 내면화된 두터운 관념(미신)의 껍질을 벗고 새 출발하는 孵化(incubation)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儒敎도 宗教로서의 의미 보다는 학문적인 儒學으로서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하며, 誠을 心으로 보는 陽明學과 實事求是가 강조되고 있는 實學과 조화를 이루어, 享祀 및 宗會도 儒敎 철학과 科學의 관점에서 보다 큰 의의를 찾고, 思考(thought)의 대전환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물질문명(과학)과 精神文化(儒敎)가 조화된 中庸之道의 실현을 위한, 발원지로서의 享祀 및 宗會의 보다 큰 의의와 人間性 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V. 結論

神本主義 基督教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 방식(individual solution)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서구사회에 고도의 物質文明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이에 불급한 東洋은 西洋의 實用主義 철학과 實驗主義 과학에 매혹되어 東洋의 금과옥조와 같은

人文主義 儒學을 외면하고 西洋철학과 과학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社會는 풍요속에 民主主義와 物質文明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個人主義는 利己主義(獨身主義)로 변질되어 있고, 資本主義는 賤民資本主義로 추락하여 拜金主義가 만연하면서 人倫이 무너지고 社會的 병리현상인 anomie가 나타나고 있는 중에서도, 오염된 물에 맑은 물을 공급하듯 東洋에만 존재하는 孝 개념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脩道之敎와 率性之道를 통해 人間性(天命之謂性)을 육성하고, 大公을 이루기 위하여 명맥을 이어왔던 享祀 및 宗會에 대하여, 요즘 신세대들은 固陋(고루 : bigoted)한 구태로 인식하고 관심과 열정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특히 '21세기 종교는 과학'이며 儒敎에 대한 재 해석이 이루어져 과학과 儒敎가 思惟의 대전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學校교육에서 眞(理), 善(心), 美(氣) 등이 조화된 人間性(天命之謂性) 육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① 논리에 우선하는 人間の 審美的 감수성(호심)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② 入試를 위한 점수 중심의 지식교육이 전개되고 있으며, ③ 場(환경)이론을 외면한 채 人間性 육성에 역행된 살벌한 경재이론(전쟁논리)의 心理的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이 전개됨으로써 率性之道와 人間성이 결여된 채 社會에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思考의 대 전환과 함께 보다 깊은 관심과 열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享祀 및 宗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課題를 제시할 목적으로, 21세기 享祀 및 宗會에 대한 哲學 및 科學的 의의와 人間性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정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世紀 享祀와 宗會의 本質은 孝心을 자극하고 촉구하는데 있다.

人間の 行動은 外的統制 요인(慣習과 實定法, 威力, 天神, 雜神, 祖上神 등)과 자기 자신의 내적통제 요인(① 情意性 - 孝心, 道德性, 社會性, 價値觀 自己管理의 要因(自我概念, 抱負水準, 成就動機, 自己統制力), ② 認知性 - 知識, 情報, 知力 ③ 心體性)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과거 神本主義 社會에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적통제 요인의 神이었다, 그런데 21世紀 宗教가 과학이 되고 神의 관념(존재와 초능력)이 희박해 지면서 내적통제 요인의 핵심인 孝 개념이 다시 가장 큰 자기통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哲學은 '참나' 속에 작고하신 父母님과 祖上님이 心象(imagination)으로 영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의 일거수일

투족을 항상 보고 계시므로 孝心은 '속나' 理性的 논리에 우선하는 매우 강한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이 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孝心(父母개념)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오염되고 약화됨으로써 자기의 행동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다시 환기시켜 일깨우고 더욱 강화시키는 教育 환경이 바로 享祀요 宗會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人間의 행동은 인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함수[B=f(P·E)]"이므로 孝心만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人間의 행동과 성취는 자기자신의 人性(P-person)과 환경(E-environment)과의 相互作用(interaction)의 函數(fuction)로서 決定됩니다. 그래서 享祀 및 宗會는 이와 같은 人間의 모든 行動의 核心이 되는 孝心을 刺戟하고, 일깨우는 環境으로서의 教育의 場(孝心의 發源地)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意義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過去의 享祀와 宗會가 孝誠스러운 마음으로 祖上님의 冥福을 비는 祖上님을 위한 event였다면, 21世紀는 後孫들의 孝心을 刺戟하고 促求하는 後孫들을 위한 event로의 享祀 및 宗會라는 思考의 大 轉換이 要求되고 있습니다.

둘째, 21세기 享祀와 宗會의 特徵은 自己自身을 위한 敬拜에 있다.

과거 神本主義 시대 享祀와 宗會의 특징은 祈福思想을 바탕으로 祖上神께 지극 정성으로 敬拜하면, 祖上님이 蔭德(超能力)을 베풀거나 벌을 준다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그러나 21世紀 宗教가 과학이 되면서 이 역시 科學的 입장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天主님과 부처님께 懇切히 祈禱하면 그 분의 恩寵과는 關係없이 自己 마음이 편하고 希望을 갖게 되어 平和를 찾는 것처럼, 祖上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敬拜하면 자기 스스로 보람(孝道)되고, 자랑스러우며(自我概念)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動機(성취동기)가 유발되고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자기통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참자는 不孝에 대한 悖倫과 죄의식 및 소외감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누적되면 심리학적인 부정적 자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인간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마음)의 변화는 결국 자기자신을 위한 享祀 및 宗會가 됨으로써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과거 祖上神의 초능력인 음덕과 벌이 직접적인 것이었다면 21세기적 과학적 음덕과 벌은 祖上님 때문에 발기된 event(享祀 및 宗會)의 영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祖

上님의 음덕과 별이 된다는 간접적인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고, 과거 祖上님의 음덕과 별은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21세기적 음덕과 별은 이미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科學을 믿고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21세기 享祀와 宗會 敬拜의 핵심은 '享祀의 마음'이다.

모든 종교는 祈福思想에 기초해서 간절히 '祈願하는 마음'이 參禮의 핵심이 되어 왔다. 基督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佛敎에서는 "축원하는 마음으로, "현충원"에서는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享祀의 독축은 祖上님께 고하는 마음의 축문이였다. 그러나 작고하신 父母님과 祖上님이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시므로 21세기 享祀와 宗會에 임하는 마음은 追慕와 함께 자기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敬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에게 지시(다짐)를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자기교시(self-instruction)라고 한다 (金南星, 認知的行動修正, 1983)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교시가 享祀 및 宗會 때 이루어지므로 '享祀의 마음'이라고 개념화 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享祀의 마음'은 다음과 같다.

- ① 祖上님의 인자하신 얼굴과 살신성인의 모습을 追慕하고
- ② 진심으로 감사하고 명복을 빌며,
- ③ 사람다운 사람(인간성)이 되어
- ④ 崇祖敦宗의 精神을 갖고 노력하여
- ⑤ 거룩한 業績을 더욱 계승 발전(大公)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享祀의 마음'은 모든 享祀 및 宗會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핵심이 없는 享祀 및 宗會는 '안고 없는 찌빵'처럼 의미가 없으므로 후손들은 독축할 때 이와 같은 "享祀의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의도적(계획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宗會의 경우는 總務(또는 總長)가 開會를 宣言한 후에, '國旗에 대한 敬禮'를 마친 다음 본 會議 개최 전에 '享祀의 마음'으로 祖上님께 묵념을 올리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시 : "다음은 先祖님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先祖님께 묵념"

넷째, 21세기 享祀와 宗會 儀典의 핵심은 지극 정성이다.

21세기 思惟의 전제는 科學과 儒學이기 때문에 祖上神은 관념상의 존재일 뿐 실제로 祭需를 드시거나 祭需를 성대하게 진설한다고 蔭德을 크게 베푼다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儀典과 祭祀床 등은 간소화 하되, 너무 간소화 해버리면 心行合一과 修

行精進의 효과가 크게 감소되므로 한 번을 모시더라도 神을 믿을 때 보다 더욱 진솔하게 祖上님이 실제로 강림하시어 계신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精誠을 다하여 실감나게 封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는 작고하신 父母님과 祖上님이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시고, 행동과학적으로는 '人間的 행동은 분위기(심리적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場이론의 측면에서 享祀 및 宗會는 자기자신의 행동 변화(효심, 崇祖敦宗의 정신, 模式化, 긍정적 자아개념, 포부수준, 성취동기, 자기통제력 등)를 위한 하나의 심리적 조작(operation)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祝文도 한문으로 되어 있어 신세대 후손들이 이해를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讀祝 후에 우리말로 다시 讀祝하는 祝文에 '享祀의 마음'을 포함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祖上님께 告한 祝文은 祖上님을 위한 종교적 예식에 불과하지만 '享祀의 마음'이 포함된 祝文은 후손들의 행동(마음)에 변화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으로서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21世紀 享祀와 宗會의 과제는 후손 다수의 참여라고 생각한다.

과거 享祀는 祖上님께서 강림하시어 祭需를 만족스럽게 흠향하시고 昇天하시는 데 목적을 둔 奉祀였고, 宗會는 祖上님을 위한 event였으므로 둘 다 좁은 장소에 宗親 다수가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派宗會 대표들이 宗親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享祀 및 宗會의 의의는 宗親들의 마음(행동)의 변화가 본질이고, 다수 후손들이 혈연적 共同運命體 의식을 갖고 孝心을 바탕으로 崇祖敦宗의 정신을 기르고, 脩道之敎와 率性之道를 통한 인간성 육성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大公을 구현하는 動因 환경(motive environment)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불참자는 不孝에 대한 悖倫과 죄의식 및 소외감을 갖게 됨으로써 심리학적 부정적 自成一豫言(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로 부정적 自我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享祀 및 宗會가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宗親들에게는 인간성 형성에 악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역기능이 초래되므로 다수의 후손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매우 큰 과제이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 지리적 교통, 생업, 사고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나, 享祀는 각 派宗會에서 享祀 月日時를 年初에 고지하면 불참자는 享祀의 마음으로 誠意껏 誠金을 내어 享祀와 宗會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단으로서의 돈은 享祀와 宗會의 유지 발전에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며, 宗親들의 입장에서선 心行合一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Islam의 교도(Muslim)들처럼 祖上님이 모셔진 祭壇을 향하여 '享祀의 마음'으로 묵념을 하거나, 자리를 펴고 재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에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派宗會 대표는 代表性的 책임도 있지만 묵념만으로 '享祀의 마음'을 다지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心行合一이고 修行 정진이기 때문에 자기 교육의 효과가 더욱 倍加되며, 혈연적 共同運命體 의식을 갖고 함께 모여 음복하는 과정은 宗會와 같은 의미도 있어 참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므로 가능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21세기 享祀와 宗會의 목적은 후손들의 大公에 있다.

享祀와 宗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수의 宗親들이 孝의 본질인 사적 차원의 가족주의를 초월하는 大公을 이루는데 있으므로 國家 社會 발전에도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國家 구성의 기본 요소가 國民이며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 종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派 宗中에서 享祀 및 宗會를 통해 孝를 바탕으로 한 주체성(自), 성실성(誠), 정직성(禮), 정의감(義), 준법성(道), 협동성(仁)과 같은 맑은 인간성과 민주시민성을 육성시켜 배출한다면, 倫理道德 社會 構築에 핵심적 공헌을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享祀와 宗會는 百行之本인 孝를 바탕으로 脩道之敎와 率性之道를 통한 인간성을 육성은 물론, 만주시민성과 지도성(leadership)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에 진출 시킴으로써, 大公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民主主義 사회를 부정하거나 신분을 차별하는 身分社會 재건과 과거 性理學의 폐해였던 파벌(종파)의 조성과, 다른 姓氏 宗中과의 위세 싸움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後孫들에게 분명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享祀와 宗會는 宗親들이 血緣的 共同運命體 의식을 갖고 孝心을 바탕으로 崇祖敦宗의 精神을 기르고, 後孫들의 脩道之敎와 率性之道를 통한 인간성 육성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大公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宗會

운영의 일환으로 발행되고 있는『儒州春秋』는 왜곡된 思考관념을 전환시켜 享祀 및 宗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교육과 홍보자료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므로 宗親들께 계속 널리 보급되기를 提言한다.

끝으로 그동안 유서 깊은 우리 文化柳氏 享祀와 宗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유지 발전시켜주신 先祖님들의 거룩한 業績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높이 찬양하고 敬拜하면서 자손만대에 걸쳐 유지 발전되기를 祈願한다.

參考文獻

1. 金南星, 認知的行動修正, 서울 : 教育科學社, 1983.
2. 金南星, 教育心理學, 서울 : 教育科學社, 1984.
3. 金安重 外, 現代教育原理, 서울 : 教育出版社, 1983
4. 金容沃, 論語, 한글 譯註, 서울 : 통나무, 2008.
5. 金容沃, 孟子, 한글 譯註, 서울 : 통나무, 2012.
6. 金容沃, 中庸, 한글 譯註, 서울 : 통나무, 2015.
7. 羅東晉, 教育心理學, 서울 : 培英社, 1983.
8. 柳根榮, 文化柳氏實鑑, 大田 : 文化柳氏實鑑編纂委員會, 1985.
9. 柳瑩夷, 先世享祀. 大田 : 太極出版社, 2015)
10. 柳瑩夷, 盤松韻并記序新集, 大田 : 新灘津文化廣告, 2020.
11. 柳三鉉, 儒州春秋, 大田 : 文化柳氏大宗會, 2019.
12. 柳澤烈, 自己統制法이 自主的 學習에 미치는 效果, 碩士學位論文, 1991.
13. 柳澤烈, 本質授業과 實際, 서울 : 教育科學社, 2008.
14. 柳澤烈, 教科教育和 實際, 서울 : 教育科學社, 2008.
15. 法輪스님, 金剛經 講義, 淨土出版社, 서울 : 2012.
16. 法輪스님, 般若心經, 淨土出版社, 서울 : 2012.
17. 吳天錫, 教育哲學 新講, 서울 : 教育研究社, 1983.
18. 李敦熙, 教育哲學 概論, 서울 : 教育科學社, 1983.
19. 李星珍 外, 現代教育心理學, 서울 : 教育出版社, 1987.
20. 鄭範模 外, 成就動機, 서울 : 培英社, 1972.
21. 崔正薰, 知覺心理學, 서울 : 乙酉文化史, 1973.
22. 韓明希, 教育哲學, 서울 : 培英社. 1983.
23. D.W.Felker,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s, Copyright.1974.
24. Halisch.F.& Kuhl.J.Motivation, Intention, and Volition, Eds.1987.
25. Hilgad.E.R, Introduction to Psychology, Winston, Ert, 1982.
26. Peters.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Unwin, 1966.

家門의 傳統을 重視하는 兩班家



文化柳氏 左/文僖公宗中會長 柳 浩 昌

科學的으로 血統은 母系遺傳 미토콘드리아DNA는 오로지 母系

사람의 細胞 속 미토콘드리아는 有機物 에너지를 아데노신 3인산(ATP)으로 변환하는 細胞 내 組織이다. 生物은 ATP를 ADP(2인산)→AMP(1인산)로 태워서 얻는 에너지로 활동한다. 재미있는 것은 遺傳子DNA가 細胞核에만 있지 않고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細胞核과는 다른 별개의 遺傳子를 지녔다는 점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오래전 細菌이 사람의 체내 細胞에 침투한 후 共生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때문인지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분열하는 독립성을 지녔다.

더 흥미로운 건 遺傳이다. 알다시피 遺傳은 부모 양쪽으로부터 제공된 DNA를 마구 섞어 그 수많은 조합 중 하나가 증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減數分裂에 의한 遺傳과 무관한 별도의 遺傳이 미토콘드리아 遺傳子에 의해 진행된다.

受精卵 細胞核 유전이 精子和 卵자의 “동등한” 만남인 데 반해 體細胞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로지 卵子 것만 전달된다. 受精할 때 精자의 미토콘드리아가 편모운동을 끝으로 파괴되는 데 반해 精子보다 훨씬 큰 卵자의 미토콘드리아는 受精 후에도 살아남아 그 세포 질(質)을 후손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는 부모의 합작이 아닌 오로지 母系遺傳이다.

이처럼 受精卵은 核 이외의 모든 原形質을 모(母)로부터 받을뿐더러 엄마 뱃속이니 모체 세포들이 胎兒의 발육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의 박테리아까지 물려 받는다. 人體에 공생하는 박테리아는 사

람보다 몇 배 많은 세포와 사람보다 몇 십 배 많은 유전자를 지녔다. 大腸 속 박테리아를 2차 遺傳體(second genome)로 인식할 만큼 大腸菌이 숙주의 수명, 체형, 면역, 대사 질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로 보아 사람의 혈통(血統)은 아빠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엄마로부터 遺傳된다는 것이다.

까마득한 옛날은 모계사회로 이어져 왔다. 그 당시에는 모계사회가 마땅하다는 자연스런 논리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가족개념이 없던 原始時代에는 어미조차 아비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미만큼은 확실하였다. 그러다가 種族간 통합의 정복전쟁이 벌어지고 차츰 완력에 기댄 父系社會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 바야흐로 다시 남자의 근력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련의 과학적 성과는 혈통(血統) 곧 피의 遺傳이 여성 주도로 진행됨이 입증되었다.

조선에서는 1909년 뿌리 깊은 身分制 접고 戶主制를 도입하였다. 身分을 사다리처럼 그린 族譜보다는 혈족 대신 소규모 식구(食口)로 편제해 사회적 신분 불평등을 제거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호주제가 2005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라지게 되었다.

세상은 또 변하여 이제 호주제가 “개인 의사와 선택권을 무시한 채 여성과 자녀 신분을 형성”하므로 인간 존엄에 반(反)하고 남녀를 차별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부계 위주로 유지해 왔던 혈통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여자는 남편이나 시집 호적에 올리고, 이혼한 여자가 데려간 자식은 전남편 성을 쓰니... 호주제는 분명히 남성중심의 제도이다. 부부 중 남자만 호주를 한다! 가족은 가주(家主)에게 구속된다! 마흔 살 엄마 대신 한 살 아들이 가장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와 성적 불평등은 대법원 판결 후 2008년 해소되었다고 본다.

혼인신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엄마의 성을 쓸 수 있고, 이혼한 가정 아이가 재혼가정 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게 하였다. 아무튼 호주제 폐지는 성씨(姓)의 혼란이다. 근래 부모 모두의 성을 받아 성씨 두 글자에 이름 두 글자를 합한 네 글자 성명들이 많이 보인다. 맨 앞 한 자만 성씨로 쓰고 이름이 세 자일 테지만, 그 작명의 취지로나 변경된 법으로나 앞으로는 아빠의 성씨가 [부부 합의에 따라] 어느 순간 돌연 단절될 수도 있음이다.

이제까지 혈통의 유전이 아빠 아닌 엄마였더라도 아무튼 성씨만은 아빠의 것이었으

나, 앞으로는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부계유전이 전면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家門의 유지는 血統 아닌 傳統 祖上의 얼이야말로 家門 傳承의 요체

천년 세월동안 양반·상민 신분제가 한국 사회를 지탱하다가 근래 100년 남짓은 호주제가 이를 대신하였었다. 그 호주제도 2005년 무너졌으니 조만간 가족개념도 재정립될 것이다. 사회·정치적 불평등도, 가족간 또는 남녀간 불평등도 모두 해소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끝이 어찌면 가족제도의 해체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사회·정치·가정의 불평등이 사라졌으니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없어졌나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목멱산 딸깍발이가 선비정신에 기대어 가난을 견뎠다면, 현대는 경제적 능력이 최고의 선(善)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이전의 양반·상인의 신분제 불평등을 대체한지 이미 오래다.

아직도 존재하는 누백년 빛나는 명문가(名門家)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족보로 증명되는 그 면면들의 자랑스런 성씨 혈통이 알고 보면 거의가 밖에서 들어온 여인들로부터 유전한 것이었다. 과학적으로 볼때 자식은 아버를, 손자는 할아버리를 기질에서 닮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독자께서는 이를 어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족보는 무의미한가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얼마만큼은 본성(本性)과 양육(養育)의 문제일 것이다.

사회적 성취가 그 사람의 유전적 타고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본성보다는 환경 곧 교육과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해묵은 논쟁이라고도 여겨진다. 본성에 치우친 優生學이 “나치”의 끔찍스런 人種청소를 불렀고, 養育 萬能이 통제와 독재의 공산주의를 불렀던 것이다. 이것은 또 일정한 과학과 이념의 대립이기도 하다. 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선의 반상(班常) 제도는 혈통이면서 동시에 전통(傳統)이었다. 근래의 과학적 근거를 들이댄다면 혈통과 전통 중에 가풍(家風)이라는 전통이 보다 주요하게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튼 모두가 훌륭한 族譜를 지닌 양반들이다.

그러나 대대(代代)로 傳承할 것은 핏줄이 아닌 전통(傳統)이다. 家門의 精神 繼承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신분제 역사 곧 族譜에서 수습해야할 유일하고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우리 文化柳氏가 자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사료된다.

創氏改名이 과연 親日인가!



文化柳氏 左/文僖公宗中 理事 柳浩命

百姓, 다만 100 개의 姓氏더니

姓과 氏는 姓氏라는 낱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訓(훈)도 '성'으로 똑같다. 왜놈들이 강요한 創氏改名에서 뒤의 改名이 '이름 고침'이니, 앞의 創氏는 필시 '姓 만듦'이다. 그러면 氏는 姓이다! 文化 柳(류)家인 필자의 성씨(또는 姓, 또는 氏)는 '문화 유'인가? 아니, 柳일까? 文化일까? 독자들이 안다면 알고, 모른다면 또 모르는 것이 이 '姓과 氏'의 변별일 것 같다. 우선 人民과 百姓이란 말의 원의를 짚어본다. 論語에 <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이란 구절 있어 <형벌은 대부에게 미치지 않고, 예의는 서민에게 차리지 않는다.>고 풀다. 최근의 경찰 수사나 법원 판결을 가만히 보면 이 2,500년 묵은 구절 여전히 유효한 듯해서 씁쓸하다. 아무튼, 이 때의 대부는 달리 人, 서인은 달리 民이라 하였다. 人은 자유민, 民은 눈(目) 애꾸로 만들어 구속한 노예 가리키는 상형문자이다. 오늘날 '人民'이란 낱말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기만 하다.

百姓(백성)이란 더도 덜도 아닌 '100개의 姓'이다. 그리고 이 때의 姓은 人, 즉 사대부에게만 부여되었다. 그러니까 "임금이 百姓을 살폈다"는 표현에서 살핌의 대상은 처음부터 常民(상민→쌍놈이라 한다)과 賤民(천민) 제외다. 까마득한 옛날 周나라 때, 周王(천자)이 개국공신과 친족 및 이전의 왕조(하·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출생지나 봉토에 근거해 혈족 지칭 내리는데(賜姓, 사성).. 이 100여개의 姓[이면서 동시에 제후국 國명]이 곧 百姓이다. 姓의 유래이다. 세월 흘러 혈족이 늘자, 각 姓 안에 다시 분파 만들어 身分을 구분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혈족의 長, 즉 제후가 그 자손별 지칭을 정하니, 이것이 氏이다. 결국 姓은 100개의 大분류요, 氏는 각 분류 안의 小분류인 셈이다. 이를테면 孟子(맹자)는 그 조상이 周나라 친족(姬 성)으로 魯나라에

봉해졌는 바 그 이후 그 집안 큰집 후손들에게 孟(말이)이라는 氏가 주어졌다고 한다. 孟子는 희姓 맹氏이다.

太公은 周 文王의 祖父 高公단부이다. 태공이 고대했던(望) 인물 곧 '태공망'의 姓名은 呂尙(여상)이다. 그의 先祖가 이전 商나라 때 처음 하사받은 姓은 姜(강)인데, 후에 태공망의 직계 선조가 다시 呂(여) 나라에 봉해졌으므로 氏를 呂로 삼았다고 한다.

그래서 태공망은 姜太公, 때로는 姜尙, 때로는 呂尙으로 불린다. 太公望 尙(상)은 강 姓 여氏이다. 이러한 '姓·氏'의 변별은 춘추좌씨전(左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左傳의 <天子建德 因生以賜姓(천자건덕 인생이사성)>은 "天子가 德 있는 이를 [제후] 로 세우고 [조상]의 출생지로써 姓을 내렸다"는 뜻일 것이다. 또 <胙之土 而命之氏(조지토 이명지씨)>는 "땅을 주고, [이에 따라] 氏를 명명하다"로 이해가 된다.

살펴보면 姓은 임금께서 내려줬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고, 氏는 거주지에 방점이 찍혔음을 알 수가 있겠다.

姓은 특정한 혈족 즉 혈연이고, 氏는 姓 안에서 地緣의 분파라고 생각이 된다.

황제국 高麗의 皇帝가 우리에게 내려준 姓은 柳요, 氏는 文化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創氏改名에 대하여 다시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는 오늘날 오리지널 의미의 姓이 없다. 이전에 天皇이 저명한 가문에 하사해 세습하던 姓(かばね. 가바네)이 있었으나, 일찌감치 大化改新(645년) 이후 없어지고 氏(うじ. 우지)만 남았다. 이를테면 신분차별을 없앤 셈인데, 세상 이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저명한 姓 대신 유명한 氏가 출현한다. 그런데 日本人들의 出身地表示 곧 '氏'들은 뜻에서 아주 우습기도 하다. 너는 산기슭에 사니 야마노(山野, やまの), 자네는 산 밑에 살지! 야마모토(山本, やまもと)로 하자구. 집이 밭 가운데 있어! 다나카(田中, たなか). 火田 부처 먹으니 야마다(山田, やまだ). 저 집 밭은 기름지더군, 요시다(吉田, よしだ 요시다)라 하고, 나는 나룻가에 사니 와타나베(渡辺, わたなべ)요, 저놈은 개울가라 가와베(川邊, かわべ), 그 근처 큰 다리 밑에 놨은 다카하시(高橋, たかはし)가 된다.

제 표현에 농이 들어 있는 것 같으나, 아무튼 그렇게 姓도 없는 왜놈이 한반도 2000년 역사의 姓氏 해체를 종용하려 했던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럽기만 하다

고 표현하고 싶다.

본래의 姓·氏 개념은 이제 무너져 변질되고 섞였다.

일본에는 姓이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 변별에 불편하지는 않다. 결국 다 각각의 필요에 따른 변용인 바 이러한 변화는 姓氏제도의 운영에 까지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女子가 출가 후에도 본래의 姓을 지니고 산다.

그래서 出嫁外人(출가외인)이란 말은 우리의 말에서 생긴 듯하다.

한 집에 어머니, 아내, 며느리 포함 4개의 姓이 공존하니..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그러나 일본은 남편 氏로 갈아탄다(이혼하거나 재혼하면 또 바꾼다).

그리고 일본의 變姓은 서양과 같아서 메이지유신 때 들어온 西洋文化의 모방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은 姓氏를 文章(문장)처럼 가족의 표징으로 삼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것을 血統(혈통)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이 혈통이 그렇게 간단한 것 만은 아니다. 이는 물리적 '핏줄'을 넘어서 출가했더라도 죽을 때까지 처신으로 책임져야 할 "出身 가문의 철학적이고 교양이며 도덕"이다. 살아서 평생 바꿀 수 없는 숙명이요 죽어서도 책임을 지는 숙명이다. 朝鮮은 물리적 공동체 이전의 근원적 정신인 것이다. "換骨奪胎(환골탈태)"라는 말은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로 "뼈를 바꾸고 타고난 바를 벗어남"인 바 대단한 기연으로 최적의 무공 체질이 된다는 뜻이다. 본래 換骨이라는 용어는 영단을 먹어 뼈를 仙骨로 만든다는 말이다.

奪胎라는 용어는 詩想(시상)을 뱃속 아이처럼 내면에서 승화시켜 새로운 詩를 낳는다(奪)는 말이다. 그러므로 '換骨奪胎'는 文學에서는 詩人이 타인의 詩句를 끌어다 쓰는 수단으로.. 모방이나 표절을 면하려면 남의 詩와 자료를 많이 읽고 문구는 자꾸 精鍊(정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꽤 그럴듯 한 말을 姓氏와 族譜에 엮어 쓰면 한국에서는 아주 나쁜 말로 표현들을 한다.

한반도의 천년 조금 넘는 姓氏와 族譜 역사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태조 王建(왕건. 사람들은 姓을 王으로 알고, 후손들도 王을 姓으로 삼았다)의 父는 龍建(용건), 祖는 作帝建(작제건), 曾祖는 伊帝建(이제건) 식으로 建자 돌림이다. 고려 왕족 王씨 조차도 姓이 없었으리라 추정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100개의 가문에 국한되었던 패밀리네임(familyname)을 현대 韓國人 중에서 지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또 근래의 民法 개정이나 作名을 보면 姓氏 본래의 의미는 차츰 흐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根本과 本分 잃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戶籍(내지는 戶主)과 姓氏의 해체는 그 안에 의식 해방과 신분 평등이라는 어떤 철학적 흐름도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서류상 常인은 이제 없으며 모두가 양반이고 모두가 姓氏를 갖고 있다. 이제 굳이 양반과 혈통을 주장하려면 그 집안 의 정신과 교양, 도덕인 면을 보고 짐작할 수는 있겠다고 사료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創氏는 과연 親日인가!

日帝의 創氏改名에 반발 심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일본에는 특별한 몇몇 家門 외에 姓이 없었다. 대신 氏가 많았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논리적으로도 사무라이 武力の 섬나라가 朝鮮보다 姓氏에 더 집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日帝 강점기 創氏改名의 바탕인 일본 氏名제 역시 역사가 아주 짧다.

1872년 메이지유신 후 유럽에서 공부한 일본은 西洋의 가족관계를 본따서 1875년에 전국민이 氏를 갖도록 戶籍을 편제하였다. 급하게 하다 보니 앞에서의 例와 같이 각자의 현실에 맞도록 급조한 氏名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출가한 여자가 시집 성을 따르는 것도 서양제도를 도입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일본의 姓.. 아니, 氏가 물경 10만 개나 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네들 혈통의 뿌리와 전통이 일천하다는 점을 은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1875년 전국민에게 氏名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통제의 기틀이 마련되자 일본은 장차 병합해야 할 朝鮮의 호적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34년 후 1909년 朝鮮에 民籍法이 시행되고, 이때 비로소 상민과 천민을 포함한 전 민중이 姓氏?를 갖게 되었다. 다만 일본과 다른 것은 그들의 創氏에 견주어 볼때 朝鮮은 創姓이라는 점이다(사실 創氏는 있었지만 改名 즉 이름 바꾸기는 별로 없었다).

더 특이한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姓이 天子(또는 王)가 내려주는 것(賜姓. 사성)

임에도 불구하고, 百姓(이라 표현하자) 스스로 姓과 本貫(본관. 오리지널 의미에서 '氏'에 해당)을 만들어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인의 60% 이상이었을 상민, 천민은 어떻게 姓을 정했을까? 자기가 모시던 양반 상전에게 읍소하여 그 닉의 姓氏 사용을 허락받았다.

—예로 김좌진 將軍 宅 노비 100명이 모두 '安東 金'이라는 姓氏로 등록하는 式이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겨우 1%만 姓을 지녔던 조선 초나 현대나 '똑같은 순서로' 金·李·朴·崔가 大姓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상전의 성과 본관을 아랫것들이 얻었기 때문이다.

정리해서 살펴보면 日帝의 創氏와 改名은 1940년 2월 1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극심한 탄압 속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民籍法에 따른 全國民의 戶籍登錄 公 創姓(창성)은 그보다 31년 앞선 1909년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創氏改名은 모든 국민이 姓과 本貫을 얻어 30여 년을 쓰고 있는 마당에 쓸데없이 姓名(성명) 바꾸기를 재차 요구한 셈이 된 것이다.

姓을 바꾸라고 하면 反感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전통 양반의 저항은 논외로 하자. 상전에게 빌어 양반 닉 姓과 본관 얻었는데, 비록 조상 벼슬 들어가며 주장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내가 김해 金씨 양반이요!"-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氏 만들라고? "근본 없는 농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족보는 사면 되는데 지금 기댈 데 없는 쌍놈의 氏을 만들어 쓰라고? 죽어도 못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아무리 친일파라 하더라도 양반사회에서 이것은 수용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施行 초기 3개월간 創氏 등록은 고작 7.6%로서 실패에 그쳤었다. 그렇게 되자 그 이후에는 온갖 강압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朝鮮에는 姓氏 관련한 원칙이 있다. 우선 남자든 여자든 姓은 바꾸지 않는다. 여자가 출가나 재가를 해도 姓은 그대로다. 同姓不婚(동성불혼)이라, 사촌간 결혼도 쌍놈의 짓이었다. 異姓不養(이성불양)으로, 양자 들이되 他姓(타성)받이는 절대 不可다. 데릴사위가 들어와 姓을 바꿨다면 그것은 왜놈의 풍속이다. "유구한 역사 증명할 족보가 없는" 創氏 자체도 황당하지만, 게다가 조선의 성씨 원칙을 깨겠다니 먹힐 리가 전혀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전말 짚어보니 日帝의 失手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애당초 1909년 民籍法 시행하면서 처음 호적등록 받을 때 아예 日本式의 두 글자로 創氏를 들고 나왔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日本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었더라도 1909년은 韓日合邦 1년 전이므로 民籍法 시행을 아예 1910년으로 1년 늦췄으면 나라도 없어진 마당이라 더 매끄럽게 추진되었을 것 같기도 하였을지도 모른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서 이들의 창씨개명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사실 전국민이 성씨를 가진(1909년 시행 민적법) 이후 創氏改名(1940년) 전까지 日帝는 오히려 朝鮮人の 일본식 姓氏의 사용을 금하였다고 한다.

또한, 친일파들이 자발적으로 創氏를 시도했다고 해도 애초부터 통치의 바탕에 민족적 차별을 깔았으니 그걸 허용할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중일전쟁(1937) 발발하자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姓氏 특성에 의한 朝鮮人만의 결속을 깨뜨리고, 內鮮一體(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를 강조하여 朝鮮人도 전쟁에 동원하려니.. 差別(차별)보다 同化(동화)가 중요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혹한 채찍질 끝에 해방 직전의 創氏는 79.3%에 달했던 것이다.

오늘 여기서 필히 생각할 것은, 오늘날의 주장 “창씨개명=친일파” 等式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 옆에 여덟은 조부나 증조부께서 창씨개명에 참여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조부께서 혹 創氏한 이 글 독자는 과연 친일파 자손인가 하는 것이다.

柳가 姓 쓰는 필자의 先考(선고)의 소학교 때 우등상 슬쩍 보니, 氏가 ‘柳木’으로 되어 있었다. 일본 발음 야나기(やなぎ)와 ‘버드나무’라는 점에서 柳와 柳木은 똑같았다.

이 創氏에서 불기피한 궁여지책이라고 읽혀지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어떠한 박해가 있었나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 ①자녀 입학 불허
- ②애들 때려서 아비에게 창씨 떼쓰도록 유도
- ③공·사직 채용 불가와 퇴직 종용
- ④관청 민원처리 불가
- ⑤노무자로 우선 징용
- ⑥식량과 물자 배급 제외
- ⑦출생신고 불가 등등 거지반 사회생활 불가 수준의 탄압 등이 자행되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독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만이라도 답아서라도 創氏를 하였다고 다 함께 생각을 해 봅시다.

'천황폐하'의 일본 발음을 따라 田農炳下(전농병하, 덴노헤이까), 山川草木이나 靑山白水처럼 장난치기, 姓 같았으니 이제 나는 개새끼- 犬子(견자. いぬご). 총독 놈이 南次郎(남차랑)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南太郎(남태랑)이다! 별별 저항이 수두룩 했을 것이다.

論題의 정리차원에서 創氏改名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버티다 버티다가 끝내는 姓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張三李四(장삼이사) 민중이 보인다.

독자께서는 닥의 조부나 증조부께 創氏 여부를 여쭙 보았는지 그리고 답을 들으셨는지 등을 생각해본다.

분명한 사실은 79%의 朝鮮人이 創氏(改名은 아니거나 적었다)를 했다는 점이다.

위안부를 동원한 사과와 징용자 배상문제 때문에 한·일관계가 여전히 냉각 상태이다. 이러한 국가간 분쟁에 대응하기 전 미리 해야 할 것은 바로 內部 結束이다.

南北 분단이라는 萬惡의 근원 안에서, 다시 東西로 나뉘고 理念도 갈리니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친일파를 친일파라 하면 무슨 문제인가! 다만, 나무랄 수 없는 행위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은 止揚(지양)함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日帝 당시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모습을 잠시 그려본다는 말로 끝을 맺고자 한다.



【宗中常識】

生活禮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文化柳氏 判事公派宗會長 柳 鍾 烈

目次

- 가. 공수(拱手)
- 나. 읊(揖)
- 다. 절
- 라. 예절의 방위
- 마. 호칭에 대한 몇 가지 예

예절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인격(人格), 품위(品位), 교양(教養) 등이 올바르게 실천되도록 하며 겸손하고 참된 마음, 서로에 대한 존경심(尊敬心), 사랑, 우애(友愛), 정의로운 마음 등을 바르게 나타내는 행동방식(行動方軛)이며, 남을 향해 어진 마음을 갖고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절(禮節)은 두 기능(機能)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수양(修養)하는 기능으로 겸손한 자세이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게 대처하는 배려의 기능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祖上)들은 자신은 물론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며 이를 전승(傳乘)하는데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現世에 와서 지식위주의 敎育으로 인성敎育이 소홀하여 가정敎育, 윤리敎育이 등한시하여 지나친 개인주의로 흘러 傳統禮節이 무너져 윤리 도덕이 허물어짐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기초질서의 혼란을 가져왔다. 예절의 중요부분인 절과, 예절의 방위, 호칭 예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절은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에게 共感을 하는 예절의 基本이다. 우리나라에는 예

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拜禮法이 통일되지 않아 地方, 家門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여기서는 사계 김장생의 가례증람을 따라 절의 方法을 소개한다.

가. 공수(拱手)

- 공손하게 두 손을 잡는 것을 공수라하며, 평상시 남자의 공수는 왼손이 위로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포개어 잡는다. 흉사에는 반대로 한다.
- 공수할 때 위로가는 손바닥으로 아래손의 손등을 덮어서 포개어 잡으며 두 엄지손가락이 교차되게 한다.

나. 읊(揖)

- 공수후 다리를 편한 자세로 벌린다. 고개를 숙여 발끝을 본다. 공수한 손이 무릎 아래에 오도록 허리를 굽힌다. 허리를 세우며 공수한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며 팔뚝이 수평이 되게 올린다.
- 읊은 상읍, 중읍, 하읍의 세 가지가 있다.
 - 상읍: 손의 위치가 눈높이이며 큰절을 해야하는 대상
 - 중읍: 손의 위치가 입높이이며 평절을 해야하는 대상
 - 하읍: 손의 위치가 가슴높이이며 반절을 해야하는 대상

다. 절

- 절의 기본동작
 - 공수한 자세로 선다.
 -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
 - 오른쪽 무릎을 가지런히 꿇는다.
 - 왼발이 앞이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
 -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조아린다. (엉덩이를 붙인다)
 -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왼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은다.
- 절의 종류
 - 계수배 : 남자의 큰절이며 이마를 붙이고 잠시 머문다. 직계존속이나 웃세대의

근친, 의식행사에 행함

- 돈수배 : 평절로 머리를 숙였다가 바로 일어난다. 나이로 어른, 선생님, 상급자, 서로 정중히 맞절을 할 때
- 공수배 : 반절도 머리가 손에 닿기 전에 일어난다.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례할 때 하는 절.
- 숙배 : 여자의 큰절. 신하가 임금에게 陣中에서 군례로 행하는 절.
- 고두배 : 손을 벌리고 땅을 짚고 머리로 땅을 두드리는 절인 데 오늘날은 이런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절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다.
- 흥배 : 흥사시의 절도 공수를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 절하는 횟수

- 보통 生者에게는 기본회수 死者에게는 기본회수의 배(제사, 문상)로 한다.
- 석전대제와 같은 의식은 남녀 공히 네 번 절 한다.

• 악수

-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손을 잡고 상하로 몇 번 가볍게 흔들어 부드러우면서 기분 좋게 교감한다.
- 웃어른이 먼저 청하고 아랫사람이 응한다.
- 여자가 먼저 청하고 남자가 응한다.
- 윗사람과 악수할 때는 약간 윗몸을 굽히거나 목례를 한다.
- 상대와 시선을 마주한다.

라. 예절의 方位

- 自然의 方位는 해 뜨는 쪽이 東. 해 지는 쪽이 西이지만 예절의 방위는 자연의 방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 神位를 모신 곳이 북쪽이다.
- 혼인예식은 주례가 衽席한 곳이 북쪽이다.
- 강의자가 있는 곳, 상급자가 있는 곳, 재판장이 있는 곳, 지휘관이 임석하고 있는 곳
- 묘지는 북쪽에서 남향한 곳으로 본다.
- 男東女西, 男左女右

- 양단과 중앙은 중앙이 상이다.
- 높은 곳이 상, 앞쪽이 상, 편리한 곳이 상, 안쪽과 바깥쪽은 안쪽이 상, 안전한 곳 이상.
- 남자가 상이다.
- 이와 같이 행사의 좌석 배치는 대체로 상기한 것을 참고로 하면 될 것입니다.

마. 호칭에 대한 몇 가지 예

- 잘못쓰거나 좋지 않은 말의 예
- 남편을 아빠, 아저씨, 오빠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 또한 남편을 ㅇㅇ씨라 지칭함은 자신을 공대하는 말로 실례가 된다. 남편의 이야기를 가시고, 오시고 등등
- 아내에 대한 '해라' 말은 일본말을 닮은 좋지 않은 말이다.
- 삼촌 대신에 '작은아버지', '숙부님', '아재' 라 부르고 형수가 시동생을 삼촌이라 하는 것은 삼촌을 홀대하는 말이다.
- 조카, 질녀, 조카딸: 형제자매의 아들은 조카, 딸은 질녀라 성구별을 해야 한다. 조카딸은 조카의 딸 곧, 종손녀이다.
- 매형(妹兄): 누님의 남편은 姊兄이고, 부를 때 호칭은 '매형' 이라고도 한다. 누이동생의 남편은 妹夫이고 'ㅇ서방'이라고 호칭한다.
- 손주, 손주딸 : 아들의 아들은 孫子이고, 아들의 딸은 孫女이다. 손주, 손주딸은 쓰지 않는다.

이상으로 몇 가지 예절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參考文獻

예절개요 -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우리의 전통예절 -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동아대백과 사전

【漢詩】

臘暮雪雱 外



文化柳氏 忠/少, 進士公宗中會長(大丞公32世) 柳 永 熙

臘暮雪雱

寂寞三更雪覆簷	고요한 밤중 눈 덮인 처마에
凍氷季節酷寒嚴	결빙 계절 흑한이 엄하네.
書齋獨坐經書讀	서재에 홀로 앉아 경서를 탐독하니
德化賢人行實霑	현인의 덕화가 행실에 두루 미치고
克服平生投歲月	평생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세월을 보내지
親交衆友樂心添	많은 벗들과 친교가 즐거운 마음을 더하고
寸陰臘暮如金用	세밀 촌음을 황금처럼 쓴다면
白髮歡呼孰可嫌	백발 환호를 누가 싫어하겠는가?

館谷瑞色

村落坊坊絮雪東	마을 곳곳에 버들개지 봄이요
山陵德載古松同	덕재 산릉에 고송의 무리로다
珪璋碩學交流處	고상한 석학들이 교류하던 곳
講讀吟詩熱氣中	강독 음시의 열기가 집중되고
後苑梅花華麗發	후원 매화 화려하게 피어
比巖好景士林宮	비암정 좋은 경치 사림의 궁이로다.
遺風教化長承繼	유풍으로 교화하고 길이 승계하여
傳統繩繩總力窮	전통 끊이지 않게 총력을 다 함이로다.

燃燈節

街路燃燈赫越窓 가로 연등 창 너머에 빛나고
 春陽夜景麗無雙 봄철 야경 들도 없이 곱구나.
 樹林葉葉增青綠 숲은 잎마다 청록이 짙어지니
 各色塵塵擲涉缸 각양각색 세진을 다리건너 던져버리세.
 好日江山興瑞氣 호시절 강산에 서기가 일어나고
 今宵到處輝煌紅 오늘밤 도처에 등불이 휘황찬란하네.
 民生竭力繁昌繼 민생은 갈력으로 번창이 이어지니
 萬事高揚發展邦 만사를 고양시켜 나라를 발전시키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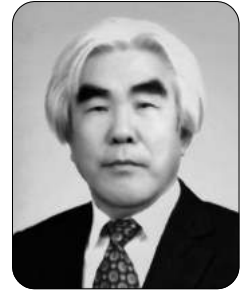
麟後公園有感

麟後公園空氣清 인후공원 공기는 맑기만 하고
 都堂頂上八方明 도당산 정상은 팔방이 밝구나.
 山河西北涼風起 산하서북쪽엔 서늘한 바람이 일고
 峻嶺東南樹木驚 준령동남쪽 수목엔 꾀꼬리 소리로다
 孤鵲喧喧求配匹 까치는 짝을 구하려 喧喧히 울고
 斑鳩呶呶索新萌 산비둘기는 새싹 찾으며 지저귀네.
 景光綽約心機泰 경광이 아름다우니 심기가 태평하고
 八角亭牀擲柶爭 팔각정 마루에선 윷놀이로 다투도다.

秋蟬

西北涼風一蝶微 서북 시원한 바람에 나비 숨고
 東南峻嶺白雲飛 동남 준령에 백운이 나는구나.
 深深寺刹僧經讀 심심 사찰에는 승려들이 경독하고
 處處松林庶類肥 처처 송림에는 서류가 살을 찌우네.
 豐盛營農村落滿 풍성한 농사에 촌락이 넉넉하고
 人心樸厚葛藤稀 인심이 박후하여 갈등이 적네.
 江邊樹木蟬聲亂 강가 수목엔 매미소리 요란하고
 洞口溪川蟋蟀歸 동구 계천엔 귀뚜라미 돌아드네.

孤雲 崔致遠 詩 外



文化柳氏 忠/少, 醒谷公大邱宗會長 柳 成 烈

孤雲 崔致遠 詩(고운 최치원 시)

題伽倻山讀書堂(제가야산독서당)

狂噴疊石吼重巒 (광분첩석후중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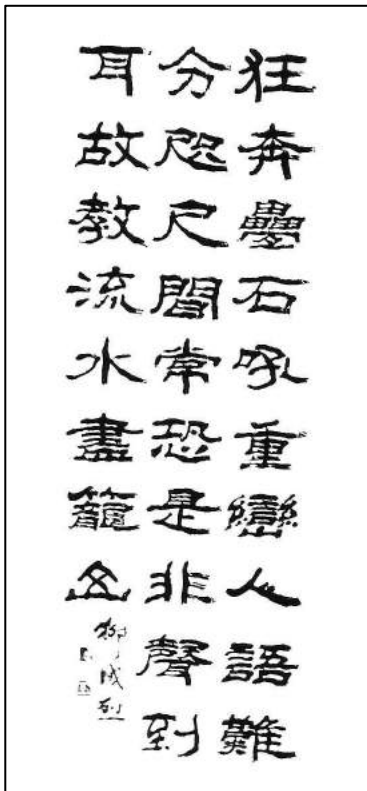
겁겁이 쌓인 돌 사이로 미친듯이 흐르며 물 즐기는
산 봉우리를 거둬 올리는데

人語難分咫尺間 (인어난분지척간)

사람의 말 소리는 가까이서도 알아듣기가 어렵구나
常恐是非聲到耳 (상공시비성도이)

웅고 그름을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웠는데
故教流水盡龍山 (고교유수진룡산)

그래서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하였겠지



草廬 李惟泰 詩(초려 이유태 시)

藥山東臺(약산동대)

藥石千年在 (약석천년재)

약산의 바위는 천년동안 변함 없고

晴江萬里長 (청강만리장)

맑은 강은 만리 길 흘러간다

出門一大笑 (출문일대소)

문을 나와 크게 한번 웃어보고

獨立倚斜陽 (독립의사양)

홀로 서서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본다



朝鮮朝 漢詩科擧大典(乙科 及第)



文化柳氏 忠/少尹公宗中 監事 柳種烈

2019. 10. 19. 서울특별시 주최로 昌德宮 仁政殿에서 열린 제26회 朝鮮朝 科擧大典은 전국 각지에서 250여명의 科試生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는데, 世宗朝에 시행된 과거시험을 모델로 再現된 행사는 임금의 친림 행사, 만조백관의 배열, 군사들의 호위, 태평무를 비롯한 宮中 公演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漢詩로 치러진 科擧試驗의 詩題는 '원환경보존(願環境保存)'이었고, 운(韻)자는 현장에서 추첨하여 天, 懸, 愆, 宣, 連으로 주어졌으며, 조선조의 大科試驗 관례대로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이 급제자를 발표하였다.

평소 좋아하여 공부하던 漢詩로 열리는 대회라서 용감하게 응시하였더니 乙科에 급제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앵삼(鶯衫 : 급제자가 입는 도포)을 입고 복두(幘頭 : 급제자가 쓰는 관모)에 어사화를 꽃고 급제를 증명하는 紅牌 교지를 받고 나서, 임금이 하사하는 어사주와 다과상을 받아 요기를 하여 漢文과 漢詩를 공부한 보람을 만끽하였다.

평소 漢學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漢詩를 짓곤 하였는데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20여회 수상을 하였지만 이번 科擧大典에서의 乙科 급제는 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漢文 공부에 틈틈이 도움을 준 漢學에 조애가 깊은 滄鉉 전 大宗會常任副會長과 본인은 科擧大典에 혼자 참석한 관계로 사진촬영 기회가 없었으나 受賞 장면을 촬영하여 귀한 자료를 보내 준 金烈 左相公派會長께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본 科擧大典에서 乙科 及第한 漢詩를 다음과 같이 揭載한다.

願環境保存

錦繡江山得自天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懇望碧昊日高懸 푸른하늘에 해가 높이 떠있기 간절히 바라네
 黃砂蓋地千秋罪 누런 모래가 대지를 덮으니 천추의 죄업이요
 灰粉遮空百歲愆 잿빛 가루가 하늘을 가리니 백세의 허물이라
 經世塵消良策遂 경세에는 티끌이 없도록 좋은 정책 수행하고
 濟民水淨善謀宣 제민에는 물이 맑도록 좋은 대책을 베풀어라
 各其節用吾垂範 저마다 소비 절약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環境澄清永保連 환경이 맑고 맑게 영원히 보호하여 이어지리



급제 교지를 받는 모습(種烈)

追慕 望菴 邊以中先生 逝去 400週年 外



文化柳氏 忠/前天安公會長, 大宗會理事 柳 在 豊

追慕 望菴 邊以中先生 逝去 400週年

2011年 長城鳳巖書院(白日場)

公逝今迎四百年 공의 서거 금년으로 사백년을 맞았는데
 彬彬偉業頌連天 빈빈한 위업의 칭송이 하늘에 연해있네
 尊師篤學崇先聖 존사 독학하여 선성을 숭앙했고
 愛國揚名效古賢 애국 양명함은 선현을 본 받았지요
 製箭作車倭賊破 제전하고 작거하여 왜적을 대파했고
 募兵運米戰功全 모병하고 운미하여 전공을 세우셨네
 儒林再現當時史 유림이 당시 역사를 재현하니
 追慕同參敬軸傳 추모에 동참해서 축시를 전합니다

追慕 毅菴 柳麟錫先生 倡義

2011年 堤川義兵(白日場)

叔世危邦欲固持 말세 위태로운 나라를 꼭 지키려고
 講箴告檄衆相隨 잠을 강하고 격문을 보내 대중이 따랐다오
 儒源孔孟明倫宅 유도는 공맹을 근원했으니 명륜택이요
 道本程朱性理基 도는 정주를 근본했으니 성리학의 터입니다
 救國起兵千古帥 구국하려 기병했으니 천고의 장수요
 養材選士萬年師 인재 길러 선비 뽑았으니 만년 스승이라
 繼先導後懷吟席 선인 이어 후생 계도하는 회고의 음석에
 祈願名聲百代熙 명성이 백대에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追慕 高峯 奇大升先生

2012年 光州月峯書院(白日場)

追慕高翁紙上詩 고봉선생을 추모하는 백일장 시를
 開催誕地大名期 선생의 탄지에서 개최하니 대명을 기약하겠소
 精研性理超賢哲 성리학을 정연하여 현철을 초월했고
 廣讀經書入聖知 경서를 광독하여 성지에 들었습니다
 壽僅中身人泣早 수는 겨우 중신이니 사람들이 일찍죽음을 울었고
 官登提學孰云遲 관은 제학에 올랐으니 누가 더디다고 하겠는가
 月峯雨霽清風洽 월봉서원에 비개이고 청풍이 흠족하니
 全國儒生起敬思 전국의 유생들 존경하는 생각 일어나네.

追慕 忠毅公 鄭起龍將軍

2013年 河東松林吟社(白日場)

戰史由來第一豪 전사가 있는 후에 제일 호걸이시니
 六三勝利孰能高 63회 전승을 누가 능히 앞서겠는가?
 滅倭氣魄如巍岳 왜구를 쫓은 기백은 높은 산 같고
 救國精神恰怒濤 나라를 구할 정신은 성난 파도 같으셨네
 宣祖賜名初志貫 선조가 내린 이름으로 초지를 관철하였고
 明皇除職大恩遭 명황제가 제수한 직책은 큰 은혜를 만남이네
 牧民統使任期殉 목민관을 거쳐 통제사 재임시에 순직하시니
 仰慕儒林盡讚騷 앙모하는 유림들은 모두 칭찬소를 올리네

和翠石新年賀章

癸巳歲初

平素心交似水清 평소 마음으로 사귀어 물과 같이 맑거니,
 敦宗好學倍多情 종친 돈목 학문 애호 갑절 다정하다오.
 迎新送舊而章賀 새해 맞고 묵은해 보내며 글로 하례하는 바,
 先後奚論重與輕 선후로서 어찌 중하고 경함을 논하겠는가.

陝川海印寺 外



文化柳氏大宗會 前常任副會長 柳淙鉉

陝川海印寺 • 乙酉季春廿四日

합천 해인사, 을유(2005) 음 3월 24일.

海印名區初夏到 해인사 명승 구역을 초여름에 다다르니,
萬山影子蔽蒼空 모든 산 그림자가 푸른 하늘을 가렸도다.
孤雲遺躅今何在 고운선생이 머문 유적 지금 어디 있는가.
佇望谿聲岳色中 시내소리 산 빛만 우두커니 바라보도다.

求禮華嚴寺 • 乙酉季春廿五日

구례 화엄사, 을유(2005) 음 3월 25일.

三韓古刹脫紅塵 삼한의 옛 사찰이 거친 세상을 벗어났거니.
四面溪山一色新 사방으로 시내와 산이 한 빛으로 새롭도다.
遍歷兩南名勝地 경상 전라도 명승지를 두루 밟으니,
快哉今作葛天民 상쾌하다! 갈천씨 때 백성이 되었도다.

求禮五美洞 • 乙酉季春廿五日

구례 오미동, 을유(2005) 음 3월 25일.

曾聞五美洞名區 일찍이 오미동을 명승 구역이라 들었는데,
果是湖南最上呼 과연 호남에서 가장 으뜸이라 부르겠도다.
况到同宗遺蹟地 더군다나 같은 일가의 유적지에 이르러,
那無感興一辭于 어찌 감흥의 한마디 말이 없겠는가.

慶州石窟庵・遵義會觀光乙酉初夏

경주 석굴암, 준의회 관광, 을유(2005) 음 4월.

老少觀光訪嶠南 노소간에 관광으로 경상도를 찾았는데,
 千山萬樹似靑藍 모든 산 많은 나무가 푸른 쪽빛 같도다.
 儼然石佛無言立 엄연한 돌부처가 말없이 서 있는바,
 可謂三韓一等庵 가히 우리나라 으뜸 암자라 이르겠도다.

慶州佛國寺・乙酉初夏

경주 불국사, 을유(2005) 음 4월.

滿山松檜蔽蒼穹 온 산에 소나무 전나무는 푸른 하늘 가렸고,
 觀客肩摩似市中 관람객들 어깨를 비비대며 저자와 같도다.
 石塔雲橋如許美 돌탑과 구름다리가 저 같이 아름답거니,
 疑非人作是神工 인작이 아니고 신의 작품인가 의심되도다.

讀書感吟

글을 읽다가 느낌을 읊음,

讀書爲業靜中囚 독서로 업을 삼아 고요한 속에 갇히니,
 頓却塵間萬般愁 문득 속세의 모든 근심이 물러나도다.
 忘我光陰何是速 나를 잊은 세월이 어찌 이리 빠른가,
 專心聖學益追求 성인 학문에 전심하여 더욱 추구해야지.

七旬感吟・壬辰元旦

칠순에 느낌을 읊음, 임진(2012) 설날 아침.

愧吾賤齒已稀年 부끄러운 내 천한 나이 이미 70인데,
 知行毫釐不得焉 지식이나 실행을 조금치도 얻지 못했도다.
 榮落人生天所定 인생의 성하고 쇠함은 하늘이 정한 바이니,
 誓兮守分畢無愆 분수 지켜 허물없이 생을 마치기 맹서하노라.

三陟幻仙洞窟 • 甲午陽八月十四日

삼척 환선동굴, 갑오(2014) 양 8. 14.

會聞洞窟到今時 일찍이 동굴을 들었으나 이제야 다다른 바,
奇且妙兮不可思 기이하고 또 신묘함 가히 생각을 못하겠네.
如此壯觀何處睹 이같이 웅장한 경치를 어디서 보겠는가,
却疑造化有誰尸 조화를 누가 주관하는지 문득 의심되도다.

忘年會詩題臘梅 • 乙未大寒節

망년회에서 시제 납매, 을미(2015) 선달.

寒梅雪裏喜逢春 겨울 매화가 눈 속에 반갑게 봄을 만나,
無上清香日益新 더없이 맑은 향기 날로 더욱 새롭도다.
吾會忘年遊興席 우리 망년의 모임 흥겹게 노는 자리에,
效斯時趣作芳隣 시의 취지 본받아 좋은 이웃 지어보세.

雨後 • 戊戌陽四月念日

비가 그친 뒤에, 무술(2018) 양 4. 20.

雨歇春風獨上樓 비 그친 봄바람에 홀로 누대 오르니,
山花野草自搖頭 산꽃과 들풀이 스스로 머리를 흔드네.
晴天一色真愉快 일색으로 갠 하늘 참으로 유쾌한데,
遠聞禽聲漫興幽 멀리 들리는 새소리에 흥이 그윽하네.

移居太平洞感吟 • 己亥十二月

태평동에 이거하여 느낌을 읊음, 기해(2019) 12월.

生來始寓高層屋 태어나서 처음 고층 집으로 이주했는데,
昇降梯車自待如 오르내림에 제거가 스스로 기다림 같네.
散策有時郊外路 때때로 교외 길을 한가로이 거니노라면,
慙歎漫興俗愁虛 은근한 흥취에 속된 근심이 사라진다오.

疫疾一九 • 庚子三月

역질 코로나19, 경자(2020) 3월.

怪疾縱橫世界類 괴질이 종횡무진 세계를 무너뜨리고,
 死生頃刻可天災 죽고 삶이 잠깐이니 가히 천재로다.
 是無銃砲之連戰 이는 총포 없는 연속의 전쟁이니,
 自肅人人守分哉 사람마다 자숙하고 본분을 지킬진저.

賀清軒族叔在萬宗事 • 庚子端陽

청헌족속재만의 종사를 하례함, 경자(2020) 음 5. 5.

偉祖文興君肖裔 위대한 조상 문흥군의 훌륭한 후손으로,
 律身檢行守家風 몸 닦고 행동을 점검하여 가풍 지키셨네.
 尤其繼述無人及 더욱 계지술사 누구도 따를 수 없었으니,
 可謂宗中不朽功 이르되 종중에 불후의 영원한 공적이네.

賀朗惠族叔志世宗事 • 庚子端陽

낭혜족속지세의 종사를 하례함, 경자(2020) 음 5. 5.

華閥吾東霽嶠孫 우리나라 훌륭한 문벌 제교공 후손으로,
 承先裕後導宗門 선업 계승 후손 계도로 종문을 이끄셨네.
 特揚世蹟仁明事 특히 대대로 유적 천양 어질고 밝은 일,
 擬是靈芝厥有根 신령한 지초 그 뿌리가 있음에 비하겠네.

前大宗會長益山柳公輓 • 庚子初秋

전대총회장 익산류공에 만사, 경자(2020) 음 7월.

時中動止百夫規 때에 알맞은 행동거지는 많은 장부의 규범이셨고,
 宗事純誠世共知 종사에 순수한 정성은 세상이 함께 아는 바외다.
 左顧之恩奚敢忘 평소 사랑해 주신 은혜를 어찌 감히 잊으리오.
 橫前熱淚不成辭 더운 눈물이 앞을 가려 글을 이루지 못하나이다.

次忠義薦揚韻 • 己亥穀雨節

충의천양운에 차운함, 기해(2019) 음 3.

回憶當年己未春 당시 기미년 봄을 돌이켜 생각하건대,
掀天動地喊聲新 하늘과 땅을 뒤흔든 함성이 새롭도다.
抗爭外內惟匡復 안 밖에서 항쟁함은 오직 광복이었고,
萬歲京鄉滌島塵 경향에서 만세부름은 왜적 척결이었네.
耿耿忠情無上下 나라 걱정한 충정이 위아래가 없었으니,
堂堂正氣豈疎親 위엄스런 정기가 어찌 성글고 친했으랴.
薦其義舉今吾責 그 의거 천양함은 지금 우리 책임이니,
奮發誠心國步伸 성심을 분발하여 국운을 신장합시다.

瑞石諷詠 • 庚子初夏

서석풍영, 경자(2020) 음 4월.

快哉雅會日尤晴 유쾌하다 고상한 모임 날도 더욱 맑거니,
遠近嘉賓到武城 원근 훌륭한 손님이 무진성에 다다랐네.
屹屹瑞山千古勢 높다랗게 솟은 서석산은 천고의 형세요,
滔滔滎水萬秋聲 길게 흐르는 영산강은 만추의 소리로세.
酒逢知己心同醉 술은 지기를 만나 마음이 함께 취하고,
詩得勝區志自明 시는 승구를 얻어 뜻이 절로 밝아지네.
莫說當今塵世事 지금 어지러운 세상일을 말하지 말게.
樂吾諷詠養眞情 우리 풍영을 즐기며 참된 마음 기르세.

夏日讀書 • 風詠契庚子夏至節

여름날 독서, 풍영계, 경자(2020) 음 5월.

仄聞四野久移秧 들으니 사방들에 모를 심은 지 오래인데,
盛夏閒窓日影長 한 여름 한가한 창가에 해 그림자 길도다.
候鳥爭鳴如耳熟 철새가 다투어 우는데 귀에 익은 것 같고,
庭花欲動似心涼 뜰 꽃 움직임에 마음이 시원한 것 같도다.
毋追亂世風雲急 어지러운 세상에 풍운의 급함을 따르지 말고,
莫負芳年歲月忙 젊은 나이에 세월의 빠름을 저버리지 말라.

學問之功書讀已 학문을 이루는 공은 책을 읽는 것뿐이니,
惜茲寸刻不離床 잠깐이라도 아껴서 책상을 떠나지 않아야.

祝列仙樓重建 • 寶城鄉校山陽會庚子立秋節

열선루 중건 축시 • 보성향교 산양회, 경자(2020) 음 7월.

偉哉重建列仙樓 훌륭하도다! 열선루 누각을 중수함이며,
大廈翬飛聖廟頭 큰 집이 성묘 앞에 날을 듯 아름답도다.
遐邇諸峯山北向 멀고 가까운 여러 봉우리 산 북쪽을 향하고,
低昂衆水海南流 높고 낮은 많은 물은 바다 남쪽으로 흐르네.
講磨學問良風起 학문을 익히고 닦아야 양풍을 일으키고,
扶植綱常善政收 강상을 돕고 키워야 선정을 거둔다오.
尤是觀光人所貴 더군다나 관광을 사람이 귀히 여기는바,
四來賓客樂優遊 사방에서 온 손님들이 즐겁게 놀리라.

瞻仰衛正斥邪塔 • 辛丑歲初

盧翁義氣至高淸 노사선생의 의로운 기상 지극히 높고 맑거니,
衛正斥邪赤手擎 정의 호위 사특 배격을 맨손으로 떠받쳤네.
臨塔當今無限感 탑에 다다른 지금에 감회가 다함이 없고,
省墳此日不勝情 산소에 살피는 이 날에 정을 이기지 못하겠네.
通天理學生前業 하늘을 통한 이학은 생전에 사업이었고,
經世持論死後明 세상을 다스릴 지론은 사후에 밝혀졌도다.
教化吾東功莫大 우리나라를 교화한 공이 더없이 크거니,
令名宇內萬年聲 온 세상에 훌륭한 명예 만년토록 기리리라.

【漢詩解釋】

한글世대를 위한 漢文과 漢詩의 해석방법



慕省會 監事 柳志世

어느 門中에서나 先祖님들의 詩文集 등을 이미 발간하여 배포하였거나, 앞으로 다른 門中에서도 이와 같은 문집 등을 발간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 보았다.

그러나 漢學에 造詣가 깊으신 일부의 賢宗 외의 한글世대들은 거의 대다수가 장식물로 책장에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唐詩 300首 등에서 뽑아 낸 가장 기본이 되는 四字語句와 五言推句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 옛 先賢들의 漢詩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물론 노력들을 해서 作詩의 경지에 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한글世대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는 바 참고가 되셨으면 한다.

어느 漢學者의 설명을 빌리자면

“나는 小學童子, 나랏일을 어찌 알겠는가?”

『小學』은 조선시대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朱熹의 정치철학에 따라 만들어진 이 책은 일종의 국민교육 교과서라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

누구든 여덟 살이 되면 『小學』을 배워야 한다는 朱熹의 指針을 充實히 따른 것은 朝鮮이었다. 그런데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小學』의 모든 것을 實踐하여 小學의 화신이 되고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자칭 “소학동자(小學童子)” 金宏弼

(1454~1504)이다.

士林의 계보로 보자면, 金宗直(1431~1492)의 제자이자 趙光祖(1482~1519)의 스승인 그를, 동갑내기 南孝溫(1454~1492)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死六臣과 生六臣을 규정한 것으로 유명한 南孝溫은 그가 지은 「사우명행록」에 첫 번째로 김굉필을 수록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師友란 스승과 벗이라는 뜻으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을 말하며, 名行이란 名節(명분과 절의)과 行實(일상생활에서 실지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을 가리킨다고 했다.

환언하면 南孝溫의 입장에서 배울 만한 사람들의 뛰어난 절의와 행실을 기록한 정도가 될 것이다. 아마도 南孝溫이 보기에 金宏弼이 명절과 행실에서 당시에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하고 생각해 본다.

이 글에는 2가지 서사 구조가 있다. 하나는 金宏弼의 행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金宗直과의 관계이다.

金宏弼은 오직 『小學』만 공부하고 또 그대로 실천한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 '小學童子'라고 부르며, 오로지 『小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현하려고 한다.

이런 실천적 자세를 스승인 金宗直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金宗直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제자인 金宏弼이 이를 비판하였고, 결국엔 둘 사이가 갈리고 만다. 그런데 이 2가지 서사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완성된다.

“나야 小學童子이니 정치를 모르지만, 당신은 吏曹參判이니 제대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傳統時代 통치 이데올로기인 儒敎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修身 이후에 齊家해야 하고, 齊家 이후에 治國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修身이 안 된 사람은 齊家나 治國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매우 당연한 듯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나에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부터 발라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小學』으로 도덕과 행실이 갖추어진 金宏弼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金宗直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판하기에 앞서 자연스레 자기를 검열하게 되고, 또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도리어 비판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는 희한한 지경에 빠지게도 된다. 이리 보면 金宏弼의 “小學童子가 무엇을 알겠는가.”는 언제든 “내 알바

아님”으로 흐를 소지가 원천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다.

글쓴이 : 서정문 •韓國古典翻譯院 首席研究委員 윤길

“食”字와 같이 글자 하나가 한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문이기도 하다.

“君君臣臣父父子子”(論語)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二字~八字]

恩高 순서대로 풀이한다. 반대로 하고 싶으면 高恩이라 하여야 한다.

앞에 있는 글자가 뒤의 글자를 꾸며준다. (주어+술어)

靑山은 되나 山靑은 아니 되는 것은 아니나 좋지 않다.

深夜택시(O) 이를 이해하려면 앞뒤로 훈련이 필요하다. 夜深택시(X)

疾行 병이 진행된다. 行疾은 내용이 좋지 않다.

天高(推句).春來(推句).徐行(童蒙先習).黃菊(推句).白雲(推句).必去(論語).秋^{추지연날}之葉落

日月 해와달.牛馬(啓蒙篇).蟲魚(啓蒙篇).古今(擊蒙要訣).父子.貴賤(孟子).

衣服(擊蒙要訣).朋友(擊蒙要訣)~類似(병렬)관계

亂蟬 어지러운 매미, 매미가 어지럽게 운다(순서대로나 반대로도 될 수 있다.)

亂蟬飛 아주 어지러운 매미들이 날아갔다.

入山亂蟬 산에 들어가니 매미소리가 어지럽다.

好學(論語). 飽我(四字小學). 뒤의 글에 따라 다르다.

有信(孟子). 無恥(論語). 以食飽我.好文主 글을 좋아하는 왕

在位(孟子). 如矢(論語)(뒤로부터) *醬如矢 된장이 똥 같다.(矢=똥)

在位三十年 재위 삼십년 汝在位者尊也 네가 있는 자리는 높다

花落. 山高(推句). 庭梅. 鳥飛. 種梧. 種梧落

孔子聖人也. 孔子는 聖人이다(술어가 없으면 “이다”를 붙여준다).

我少年. 나는 少年이다. 吾鼻三尺 내 코가 석자이다. “是”字생략

惻隱之心 / 仁之端也(孟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仁의 단서이다.

君子/憂/道(論語)君子는 道를 근심한다. (주+술+보)

君子/不憂/貧(孟子)君子는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勞心者/治/人(孟子)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千里至行/始/於足下(道德經) 천리 길은 발아래에서 시작된다.

良藥/ 苦/ 於口(說苑) 좋은 약은 입에 쓰다(於字 앞에는 서술어가 온다).

仁者樂山.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兄弟/ 投金/ 於水(高麗史節要) 형제는 금을 물에 던지다.

葉公 /問/ 孔子/ 於子路 (論語)

忠言返於耳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

世人/ 謂/ 粟谷/ 大學者. 세상 사람들은 울곡을 대학자라 부른다.

談虎/ 虎至/ 談人/ 人至. 호랑이를 말하니 호랑이가 오고, 사람을 말하니 사람이 오다.

不足之足每有餘足/ 而不足常不足(宋翼弼)

부족한 것을 만족하다하면 매번 남음이 있고/ 만족함에도 부족하다고 하면 항상 부족한 것이다.

[三字~八字(100文)]

1. 貧與賤 (論語) 가난함과 천함.
2. 予及女(汝) 나와 너 王/ 及/ 妓
3. 富潤屋(大學)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한다. 白屋 = 초가집
4. 臣事君(論語)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 事 字는 ~섬기다.
5. 民弗從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弗=不 같이 쓰인다.
6. 道不行 도를 행하지 않는다.
7. 得民心 백성의 마음을 얻다.
8. 無恒心 늘 똑같은 마음이 없다.
9. 滿四澤 사방 못에 가득하다.
10. 鳴高枝 높은 가지에서 울다.
11. 送香氣 향기를 보내다.
12. 梅花落 매화꽃이 떨어지다.
13. 樹葉青 나뭇잎이 푸르다.
14. 父心寬 부모님의 마음이 너그럽다.
15. 千年鏡 천년의 거울이다.
16. 爲人謨 남을 위하여 꾀하다. 人 字는 대부분 남을 말한다. 爲 字의 용도 중요
17. 能好人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能 字는 ~를 할 수 있다.

[四字文]

18. 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 성장한다.
19. 顏色美麗 얼굴색이 아름답고 곱다. 好色漢
20. 人性本善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하다. 性善說
21. 父生我身 아버지는 나의 몸을 나으셨다.<四字小學>
22. 兄無衣服兄은 옷이 없다. <四字小學>
23. 人生世間 사람들은 世上에서 살아간다.
24. 物有本末 萬物은 본과末이 있다(有. 無字는 다음 말을 서술한다)
25. 受之父母 父母로부터 그 것을 받았다 (之=代名詞 이외 용도가 많다)
26. 博我以文 孔子 글로서 나를 博識하게 된다(以 뒤 명사~로서)
27. 諸侯忍之 諸侯는 그것을 忍耐한다(之字가 글 後尾에 오면 代名詞)
28. 民德歸厚 百姓의 德은 두터운 곳으로 돌아간다.
29. 君子憂道 君子는 道를 두려워한다. 君子不憂貧
30. 以財發身 (만덕이야기)財物로서 나의 몸을 發展시킨다.(以財發財)
31. 誦詩三百 시경 삼백 편(首)를 외우다.(시경 현재305편)
32. 至其子孫 그 자손 대에 이르다. 其字 앞에는 서술어가 온다.
33. 患不知人 남을 알아주지 않을 것을 근심하다.
34. 從心所欲 하고자 하는 마음을 쫓다. 所字 용도를 많이 익혀야한다.
35. 善與人交 남과 사귀기를 잘했다. 與=如
36. 敎以禮樂 예락으로서 가르치다.
37. 近墨者黑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다.
38. 逆天者亡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39. 與朋友交 친구와 더불어 교유하다. 朋友 = 병렬관계로 같은 말이다.
40. 與善人居 착한 사람과 함께 살다.
41. 兄愛弟敬 事有終始 / 約我以禮 / 敎以詩書 /

[五字文 (3字, 2字)]

42. 子孫爲小吏 자손이 낮은 벼슬아치가 되다.
43. 父在觀其志 아버지가 그 자식의 뜻을 관찰하다.

44. 子路問事君 자로가 임금 섬기는 것에 대하여 물었다.
45. 夫子與之遊 부자가 그와 같이 교유(놀다)하다.
46. 瓜田不納履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
47. 一日不念善 하루라도 착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48. 日出於東方/日沒於西方 於字 앞에는 술어가 온다.
 해는 동쪽에서 솟아오른다. / 해는 서쪽으로 진다.
49. 命生於和暢 사람의 생명은 和暢(조화.펼치다)에서 생긴다.
50. 人有三不祥 / 權不十年
 사람에게에는 세 가지 상서러움이 있다. 권력은 십년이 갈 수 없다
51. 馬行千里路 / 牛耕百畝田 말은 천리 길을 간다. 소는 백무의 밭을 간다.
52. 月爲宇宙燭 달은 우주의 촛불이다.
53. 山吐孤輪月 (栗谷作) 산은 외로운 둥근달을 토해낸다.
54. 親常有未安 양친은 항상 미안함이 있다.
55. 彼陷溺其民 그 백성을 토탄(익사)에 빠트리다(陷溺동격)
56. 忠可移於君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
57. 物非義不取 의롭지 않은 것은 취하지 말라
58. 民無信不立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서지 않는다.
59. 勞心者治人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60. 保生者寡慾 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다.
61. 惡似而非者 비슷하나 아닌 것(似而非) 사람을 미워하다.
62. 畏聖人至言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다.
63. 春來梨花白/夏來樹葉青 봄아 오니 배꽃이 희구나/ 여름이 오니 나뭇잎이 푸르다.
64. 子孝雙親樂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한다.
65. 鷄來哺其兒 어미닭이 와서 새끼(병아리)에게 먹이다.
66. 父怒又逐之 아버지가 노하시고 또 그를 쫓아내다.
67. 入山擒虎易 산에 들어가서 범을 생포하기는 쉽다.
68. 騎馬欲率奴 말을 타게 되면 率奴부리고 싶어진다.
 開口告人難 남에게 입을 열개하는 것은 어렵다.
 何人將白筆 / 乙字寫江波
 天報之以福 하늘은 복으로서 보답한다.

一日不念善 하루라도 착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萬事分己定 만사가 이미 정해진 것을 나눈다.

禍不可幸免 화는 다행으로 면하기 불가하다.

[六字文 六字는 詩文이 아니다]

69.弟子孰爲好學 제자 중에 누가(孰)배우기를 좋아 했습니까?

70.天下皆知其孝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효도를 알게된다.

71.君子教人有序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순서가 있다.

72.學者如禾如稻 배운자는 벼와 같고 稻과 같다 (벼=도=도정).

73.一日克己復禮 하루(짧은 시간)라도 자기(욕심)를 극복하고 禮로 돌아가다.

74.夫妻相敬如賓 夫妻가 서로 존경하기를 손님과 같이한다.

75.君子食無求飽 君子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76.去言美來言美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77.出必告反必面 나갈 때는 필히 아뢰(곡)고 돌아와서는 뵈어라.

78.看晨月坐自夕 새벽 달을 보려고 저녁부터 앉아있다.

79.狡兔死良狗烹 교활한 토끼가 죽자 좋은 개도 삶아지다. 兔死狗烹

80.兄弟同氣之人 兄弟는 同氣(=-氣 같은 기운)의 사람이다.

[七字文]

81.隣國之民不加少 이웃나라의 백성은 더 적어지지 않는다.

82.少年易老學難成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83.堂狗三年吟風月 서당 개(아직 성장덜된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84.人生何處不相逢 인생은 어느 곳에서든 만나지 않겠는가? <何~의문>

85.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 어느 세월에 다 할까?

86.古之人與民偕樂 옛날의 사람은 백성과 함께 즐겼다.

87.老萊子孝奉二親 老萊子는 兩親을 孝로서 奉養하였다.

88.明智可以涉危難 총명함은 위기의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

89.天子有爭臣七人(爭.諍.諫) 천자는 간쟁하는 일곱 신하가 있다.

90.王子有其母死者 왕자 중에는 그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 있다.

91.平生不作皺眉事 평생 살면서 눈살 찌푸릴 일을 하지 않는다.

平生不作切齒事 평생 살면서 이(齒) 갈기를 하지 않는다.

92.七十者衣帛食肉 칠십된 사람은 비단옷을 입고 육식을 하여야한다.

[八字文]

今之樂由古之樂也 지금의 音樂이 옛날의 音樂과 같다(也=).

齊景公問政於孔子 ※(齊제. 齋제) 齊景公~固有名詞

始習文字字畫諧正(畫=劃) 처음에 문자를 익히려면 글자의 획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三歲之習至于八十 (于=於) 習字는 새 새끼들이 홀로 날기 위하여 날개 짓을 할 때 겨드랑털이 흰 것에서 시작되어왔다 한다.

天網恢恢疎而不漏(疎=疏소)

하늘에 쳐진 그물이 넓고 넓지만 성글 듯 하나 새지는 않는다.

己所不欲勿施於人

“所”字는 뒤에서 大部分 꾸밈을 받는다. 나는 앞으로 禁慾을 하겠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시키지) 말라

“於”字 앞에는 述語가 온다.

欲下稼於上部高氏 “下”字는 밑의 집안을 말한다.

上部高氏에 출가하고자 한다. 王不食言 왕은 말을 먹지 않는다.

三人行必有我師焉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필히 나의 스승이 있다.(師=두 사람)

文章 第一 앞에 오면 어찌. 焉 끝에 오면 “.”

農夫餓死枕厥種子 (厥=其)(枕=베개)

農夫는 굶어죽는 한이 있다하여도 그 種子를 베고 있게 된다.

讀書百遍義自見 백편의 독서를 하면 뜻은 저절로 나타난다.(義=뜻)

君子務本/本立/而道生 군자가 근본에 힘쓰면 근본이 서며 도가 생긴다.

太公曰 勤爲無價之寶/慎是護身之符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되고 삼가함은 길조가 몸을 보호한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한자 사용법]

※(爲=作).以.而.如.(與?=似).及.則.亦.事.不.有.無.莫.能.者.自.之.焉.於.非.勿.易.用.安~乎.

兮.于.也.矣.所.何.可.舉.(弟=悌)沐=머리.浴=몸. 必.其.是

五言推句(240句)

天高日月明 地厚草木生 月出天開眼 山高地舉頭 東西幾萬里 南北不能尺
天傾西北邊 地卑東南界 春來梨花白 夏至樹葉青 秋涼黃菊發 冬寒白雪來
日月千年鏡 江山萬古屏 東西日月門 南北鴻雁路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峯
秋月揚明輝 冬嶺秀孤松 日月籠中鳥 乾坤水上萍 白雲山上蓋 明月水中珠
月爲宇宙燭 風作山河鼓 月爲無柄扇 星作絕纓珠 雲作千層峰 虹爲百尺橋
秋葉霜前落 春花雨後紅 春作四時首 人爲萬物靈 水火木金土 仁義禮智信
天地人三才 君師父一體 天地爲父母 日月似兄弟 夫婦二姓合 兄弟一氣連
父慈子當孝 兄友弟亦恭 父母千年壽 子孫萬世榮 愛君希道泰 憂國願年豐
妻賢夫禍少 子孝父心寬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思家清宵立 憶弟白日眠
家貧思賢妻 國亂思良相 綠竹君子節 青松丈夫心 人心朝夕變 山色古今同
江山萬古主 人物百年賓 世事琴三尺 生涯酒一盃 山靜似太古 日長如少年
靜裏乾坤大 閒中日月長 耕田埋春色 汲水斗月光 西亭江上月 東閣雪中梅
飲酒人顏赤 食草馬口青 白酒紅人面 黃金黑吏心 老人扶杖去 小兒騎竹來
男奴負薪去 女婢汲水來 洗硯魚吞墨 煮茶鶴避煙 松作延客蓋 月爲讀書燈
花落憐不掃 月明愛無眠 月作雲間鏡 風爲竹裡琴 掬水月在手 弄花香滿衣
五夜燈前晝 六月亭下秋 歲去人頭白 秋來樹葉黃 雨後山如沐 風前草似醉
人分千里外 興在一杯中 春意無分別 人情有淺深 花落以前春 山深然後寺
山外山不盡 路中路無窮 日暮蒼山遠 天寒白屋貧 小園鶯歌歇 長門蝶舞多
風窓燈易滅 月屋夢難成 日暮鷄登埭 天寒鳥入簷 野曠天低樹 江清月近人
風驅群飛雁 月送獨去舟 細雨池中看 微風木末知 花笑聲未聽 鳥啼淚難看
白鷺千點雪 黃鶯一片金 桃李千機錦 江山一畫屏 鳥宿池邊樹 僧敲月下門
棹穿波底月 船壓水中天 高山白雲起 平原芳草綠 水連天共碧 風與月雙清
山影推不出 月光掃還生 水鳥浮還沒 山雲斷復連 月移山影改 日下樓痕消
天長去無執 花老蝶不來 初月將軍弓 流星壯士矢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鳥逐花間蝶 鷄爭草中蟲 鳥喧蛇登樹 犬吠客到門 高峯撐天立 長江割地去
碧海黃龍宅 青松白鶴樓 月到梧桐上 風來楊柳邊 群星陣碧天 落葉戰秋山
潛魚躍清波 好鳥鳴高枝 雨後澗生瑟 風前松奏琴 馬行千里路 牛耕百畝田
馬行駒隨後 牛耕犢臥原 狗走梅花落 鷄行竹葉成 竹筍黃犢角 蕨芽小兒拳
天清一雁遠 海闊孤帆遲 花發文章樹 月出壯元峰 柳色黃金嫩 梨花白雪香

綠水鷗前鏡 青松鶴後屏 雨磨菖蒲刀 風梳楊柳髮 鳧耕蒼海去 鷺割青山來
 花紅黃蜂鬧 草綠白馬嘶 山雨夜鳴竹 草蟲秋入牀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露凝千片玉 菊散一叢金 白蝶紛紛雪 黃鶯片片金
 洞深花意懶 山疊水聲幽 水解魚初躍 風和雁欲歸 林風涼不絕 山月曉仍明
 竹筍尖如筆 松葉細似針 魚戲新荷動 鳥散餘花落 琴潤絃猶響 爐寒火尚存
 春北秋南雁 朝西暮東虹 柳幕鶯爲客 花房蝶作郎 日華川上動 風光草際浮
 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 青松夾路生 白雲宿簷端 荷風送香氣 竹露滴清響
 谷直風來急 山高月上遲 蟋蟀鳴洞房 梧桐落金井 山高松下立 江深沙上流
 花開昨夜雨 花落今朝風 大旱得甘雨 他鄉逢故人 畫虎難畫骨 知人未知心
 水去不復回 言出難更收 學文千載寶 貪物一朝塵 文章李太白 筆法王羲之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花有重開日 人無更少年 白日莫虛送 青春不再來



【詩歌】

봄 오는 소리 外



文化柳氏 大宗會理事(大丞公28世) 柳 相 議

봄 오는 소리

높은 산 봉 잔설 녹아
산골짜기 졸졸졸 흐르는 물
개구리 겨울잠 깨우는 소리
봄 오는 소리

뒷동산 진달래 꽃망을
분홍빛 웃는 미소에
처녀 가슴 설레는 소리
봄 오는 소리

앞 냇가 수양버들
살며시 흔들며
살랑살랑 부는 바람소리
봄 오는 소리

아지랑이 가물거리는
새싹 돋는 언덕에 나물 캐며
부르는 봄 처녀 콧노래 소리
봄 오는 소리

봄이 오고 있네요

겨우내 얼었던 산 중턱
 낙엽더미 밑에서 복수 초
 노오란 꽃 잎 하나 빠끔히 내밀며
 봄이 오고 있네요.

무등산 높은 봉에 쌓였던 눈
 녹아내려 증심사 골짜기 물
 즐 즐 즐 소리 커지면서
 봄이 오고 있네요.

설화 만발하며 겨울 풍경
 자랑했던 영취산 진달래
 꽃망울이 커지면서
 봄이 오고 있네요.

추운 겨울 숲속 숨어 살던 산새들
 새싹 돋는 나무 가지에 앉아
 임 찾아 부르는 노래 소리에
 봄이 오고 있네요.

기니 긴 겨울 방학 끝나고
 새 학기 시작하는 학생들
 발랄한 발걸음과 교문 앞 대화 속에
 봄이 오고 있네요.

식영정(息影亭)

무등산이 발원한 중암천
물 광주호수에 모여
봄 햇살이 호수위에 반짝이고
힘차게 뺏어 내린
성산(星山) 줄기 끝자락
푸르게 우거진 숲 숲속
분홍빛 진달래 피어
만발한 언덕에 자리한 식영정

병풍처럼 아름다운 석벽 그림자
벗 삼은 산새 노래 들으며
봄 꽃 만발한 무릉도원
정자 마루에 걸터앉아
새 풀 냄새 스민 봄바람 마시며
옛 선비 청빈한 삶
머릿속에 그려보는 식영정

호남의 삼정(三亭)중 하나
남도의 문화유산
조선중기 선비대표
정철, 김성원, 임억령, 고경명
네 분 어울려 시 짓고 노래하던
가사문학 무대였던 식영정

사백 살 나이든 노송은
몸뚱이가 승천하는 용처럼
뒤틀어 수문장같이 서있고
송강의 "성산별곡"이 새겨진 돌비는

조선의 역사를 더듬으며
가사문학 향기 풍기면서
광주 호수를 바라보는 식영정

*식영정: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조선 중기에 김성원이 지은 정자

순천만 갈대밭

끝없이 드넓은 갈대 밭
 사랑살랑 부는 가을바람에
 흔들며 춤추는 갈대 꽃
 불타는 석양 노을 바라보는
 관광객 환성이 바닷물 위에 깔린다.

갈대밭 사이사이 구불구불
 물 빠진 펄 밭길엔
 옆걸음 치다 관광객 발소리에
 놀란 게들 굴속에 숨고
 풀벌레는 구슬프게 노래한다.

멀리서 찾아 온 관광객 태우고
 갈대 사이로 떠가는 유람선 위로
 날아 오른 갈매기 떼들
 관광객이 던져준 먹이를
 날개 펴고 낚아채간다.

멀리 흑두루미 갯벌에 앉아
 먹이 찾아 걷다 외다리 딛고 서면
 순간 포착한 사진작가 망원 카메라
 짹 짹 셔터 누르는 소리
 재밌게 들리는 순천만 갈대 밭

산으로 가자

이글거리는 여름 태양
불볕 막아 시원한 그늘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
손짓하는 푸른 숲속
계곡물 소리 장단 맞춰
산새들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오색 단풍 곱게 물들여 놓고
소슬바람에 하늘하늘
억새꽃 춤출 때
머루 다래 익히면서
따 가라 부르는 풍성한
산으로 가자

엄동설한 밤새도록
찬바람에 눈 내려도
춥다는 한마디 불평 없이
등산객 즐겨 감상하라
가지마다 설화 피워 놓은
산으로 가자

올 때 어서 오라 웃음 짓고
갈 때 잘 가라 손 흔들며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반겨주는 어머니 품 같은
산으로 가자

등엔 배낭 들쳐 매고
머리에 등산모 눌러쓰고
함께 모인 다정한 친구들
도란도란 정답게 얘기하며
산으로 가자

생각나는 어린시절



文化柳氏 左/文原君宗中 顧問 柳 在 珪

어느 봄날 등산에 올라
철쭉꽃 따서 열손가락
물드린 그 시절
또다시 생가가나네

어느여름 삼복 더위에
풍덩풍덩 물소리
헤엄치든 그 시절
또다시 생각나네

어느여름 긴긴 장마철
폭우내린 황토물에
물장구 치든 그 시절
또다시 생각나네

어느겨울 추운 엄동설한
뒷동산에 뛰어 올라
썰매타든 그 시절
또다시 생각나네

四君子 外



文化柳氏 忠/典祀令公宗中, 名文博 柳 志 卓

사군자

(국화분재 동호회에 붙여)

고결함이
군자와 갔다하여
옛 선비들은 매 란 국 죽을
사 군자라 칭하고
수묵의 짙고 묽음으로 표현 했지요.

여기계신 국화재배 동호인
여러분도 선비 못지않은
국화의 꽃말처럼
청순 정조 평화 절개가 있는
한결같이 고결한분들입니다.

오뉴월 더위 목이 마를 때
샘물 맛이 시원한 찰나처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동우회 여러분의 아릿한 정감
오래토록 맛보고 나누며 누리게 하시고,

여기 한증막 같은 하우스 안에서

땀 흘리시며 열강하신 최수락 교수님의
 열정에 힘입어 회원님들의 작품마다
 시월 유림공원 국화 전시회장에서
 빛을 내어 오래오래 희열 느끼게 하소서.

무논을 보며

벼 마디가 새 개 가 생겨
 벼 나이가 새 살 먹는다는 말복에
 들녘 무논의 풍경을 보았다.

연초록 제복 입은 훈련병의 열병식 하는 모습 이었다.

햇빛 달빛 받고
 비바람 이겨낸 벼들의 품 새가
 바짝 군기든 싹싹한 훈련병이다.

땀 배인 재복입고
 대열을 갖춘 벼들의 곧게 서있는 모습
 이삭이 곧 나올 것 같다.

천고마비 추수 절기엔 농민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리다.

아름다운 조국강산

오색이 영롱한 아침햇살 가슴에 안고
철따라 고운 옷 갈아입고 금수강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굽이굽이
아름다운 조국강산

큰 꿈을 펼치고 우뚝 서라 대한민국
청산이 좋다구나 해야 솟아 라

동방에 아롱진 아침이슬 가슴에 닿아
산 따라 맑은 물 노래하는 금수강산
서해에서 동해까지 굽이굽이
아름다운 조국강산

큰 꿈을 펼치고 우뚝 서라 대한민국
청산이 좋다구나 해야 솟아 라

사념(思念)

아주 가끔은
가로등처럼 서있고 싶다.
눈 오고
비 내리는 날 이어도 좋고
눈부시게
햇빛 쏟아지는 날도 좋다.

나도 한번 저렇게 서서
어둠과 앞으로 가야할 날들을 밝히고 싶고

아주 가끔은
 팔 벌려 그림자 드리우는
 공원 정자나무가 되어
 지나가는 길손
 쉬터가 되고 싶다.

자양분(滋養分)

시골길 가다보면
 분(거름) 냄새가 난다
 계분
 돈분
 우분
 분(똥)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 동네마다
 딸기마을
 수박마을
 포도마을 등
 작목반으로 이름이 나있다

분(거름)과
 분(똥)은
 맛있는 과일을 살찌우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
 자양분 이었다

여 유

우리 집 베란다
조그만 함지박에
우렁이
미꾸라지
물방개가 산다.

부레옥잠
연분홍 꽃이 피고
개구리밥
동동
배 띄워 놓았다.

돌섬에 청 거북이
한 마리
신선처럼 있다.

세평가(世評歌) 外



文化柳氏 判/正郎公會長 柳 昌 鉉

세평가(世評歌)

한가위 보름달이 온누리 비추는데
우리네 살림살이 팔부능선 오르네
세상사 남 탓하기에 반성할줄 모른다.

저높은 가을하늘 흰구름 두리둥실
이몸은 코로나로 새장안 신세로다
민생은 시국타령에 나라걱정 쌓이네

노인송(老人頌)

해마다 오는 봄이 같은듯 다르구나
사귀온 옛친구는 순서없이 떠나가고
세월은 재촉않아도 훌훌총총 가더라

천시는 시월이라 단풍으로 물들었고
인생사 팔십세에 흰서리 내려왔네
삶의길 긴줄알아도 일장춘몽 같더라.

삶이란 外



文化柳氏 侍/宣傳官公宗中會長(大丞公34世) 柳 鳳 九

삶이란

진정 여유있는 삶이란 가진 만큼
만족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 것이며
그 누구 하나 마음 아프게 아니하고

남의 눈에 슬픈 눈물 흐르게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슴에 담고
물 흐르듯 구름 가듯 그냥 그렇게

남들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없이
그 사람 나름대로 고통과 근심이
있음을 표현 없이 삶을 살아갈 뿐

욕에도 티가 있듯 이 세상에는
완벽이라는 말 존재하지 않음에
이름은 남지 않더라도 참되게 살자.

마 음

사람은 그 누구나 본인 나름대로
간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음의 생각은 탐지할 방법 없고

마음이란 좁히면 좁힐수록
바늘 하나 꽃을 틈이 없으며
넓히면 세계를 품어도 남는다

사랑이란 마음에서 샘솟는 무한대
넉넉한 마음과 아름다운 미소로
늘 행복함과 즐거움 되어 생애 동반한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
사랑 애정과 용서 화해와 같은 배려
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옴이라.

말 말 말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천 냥 빛도
재치와 유머 감각도 불만 해소를
긍정적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들

부정(不正) 제거하는 정직한 심리
직설적으로 참됨을 강조하는 선인
요점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양념을

알찬 설명에는 진실과 소박함 들이
재미있고 감칠맛 나는 인생길 등불
참삶을 시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노을은 水平線 너머로 外



文化柳氏 貞肅公派 大宗會理事 柳濟福

노을은 水平線 너머로

내 눈동자에 바다가 있어
선유도 선녀봉에 홀로 앉아
수평선 너머로 노을 꽃을 바라보니

어느덧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간다
인생은 참으로 슬프다
마음은 항상 얽매여 있고

생각은 젊으나 내 행동은 늙이고
늙은이 병마와 씨름하고
쓸쓸히 홀로 방에 앉아 한기가 들고

등불은 꺼져갈 때
창 너머로 밝아오는 불빛을
달 밝은 달님을 벗 삼아

이내 심정 말할 길이 없어
홀로 음을 따서
詩 한 수를 지어본다.

청주와 막걸리

추소정 정자에 홀로 앉아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하늘과 달님이 술을 좋아하였네

술을 좋아하는 것 부끄럽지 않아
청주는 성인을 견주고
막걸리는 나를 견주네

청주와 막걸리는 이미 마셨으니
어찌 정자에 앉아 술과 벗하니
신선이 되기를 바랄까.

석 잔술로 청주와 달님과 통하고
한잔 술을 마시면 또 한잔을 마시니
어느 때에 마시면 자연으로 돌아갈까

이 모든 게 술에 취한 중에 얻는 것
술 깬 사람들은
나 모름 새로 떠나가네

詩를 벗 삼아

가난한 마음 어디다
詩집 짓고 살았으면
앞산 뒷산 강바닥 깎는 대신

연필 깎으면서
詩人처럼 신선처럼
은은하게 살았으면
자연과 자유 안에서
詩를 벗 삼아 지내 왔다

멀고 오랜 유랑을 멈추고
돌아온 여기는 환산(環山) 자락
산골 마을 추동(楸洞)
웅달샘 산새 울음소리 자연이 숨 쉬는 곳

야생화 꽃으로 안겨주며 반겨주니
여기는 구름공원
詩를 벗 삼아 神仙이 된다.

옥천시사(沃川詩史)

옥천에 하늘 열면 환산(環山)에 꽃이 피어
시간은 산 능선 따라 꽃 술탄 환산은 음계(音階)
문화 류씨 조상 얼 추동(楸洞)마을
사백년 노래의 뼈들 차곡차곡 쌓였네

숲 건반 읊어 대던 피꼬리 새들 풍류 띄워
추소팔경(楸沼八景) 산기슭에 詩 짓던 글 벗님들
길 끊겨가고 없어도 새 물길이 열리네

옥천 이지당(二止堂) 긴 어둠에
문을 젖혀 추소정에 들어서니
추소정 아래 서화 천 띄운 사랑 삼사조(三四調) 가락 풀어

서화 천으로 흘러오는 윗대에 핀 노래
70미터 병풍바위 風光들인 竹林에 들어서니
절정의 詩史 文化 잉태한 조선조에
조상님들 옥천시사(沃川詩史)가 백전(白戰)의 꽃을 꽃 피웠네
물오른 해의 외출 꽃 버들 향기 풀어
詩文연 옥천 시천시사 맥을 이어 열리네

柳氏 조상 얼 깊은 윗대 시사 펼쳐낸 추동의 향
꽃그늘 풀어헤쳐 질푸른 서화 천
오늘도 詩문학 서화 천으로 끊임없이 흐르네

【散文漫筆】

朱子十悔訓



文化柳氏 忠/少, 大宗會理事(大丞公34世) 柳 景 化

宋나라때의 巨儒 朱子(朱熹)가 後代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람이 一生 동안 살아 가면서 하기 쉬운 後悔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뽑아 제시한 것이다.

흔히 朱子의 10가지 가르침이라 하여 “朱子10訓”, 朱子의 10가지 後悔라 하여 “朱子十悔”라고도 한다. “이를 “朱子訓”이라고 줄여 쓰기도 한다.

1. 불효부모사후회(不孝父母死後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뉘우친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이미 늦으니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風樹之嘆과 같다.

2. 불친가족소후회(不親家族疏後悔)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가까이 있을 때 가족에게 잘 해야지, 멀어진 뒤에는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3. 소불근학노후회(少不勤學老後悔)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젊음은 오래 가지 않고, 배우기는 어려우니, 젊을 때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少年易老學難成과 같은 말이다.

4. 안불사난패후회(安不思難敗後悔)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 편안할 위험에 대비

해야 한다는 居安思危와 같은 뜻이다.

5. 부불검용빈후회(富不儉用貧後悔)

재산이 풍족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뒤에 뉘우친다. 쓰기는 쉽고 모으기는 어려우니 근검절약해야 한다는 말이다.

6. 춘불경종추후회(春不耕種秋後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도 거들 곡식이 없다는 뜻이다.

7. 불치원장도후회(不治垣牆盜後悔)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뒤에 뉘우친다. 도둑을 맞고 난 뒤에는 고쳐도 소용없다는 속담 “도둑맞고 사립문 고친다”와 같다는 말이다.

8. 색불근신병후회(色不謹慎病後悔)

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뒤에 뉘우친다. 여색을 밝히다 건강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니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9. 취중망언성후회(醉中妄言醒後悔)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고 술 깬뒤에 뉘우친다.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되니 항상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10. 부접빈객거후회(不接賓客去後悔)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 뒤에 뉘우친다. 손님이 왔을 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대접하지 않다가 가고 난 뒤에 후회해 보았자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이상 10가지 모두 일에는 항상 때가 있고, 때를 놓치면 뉘우쳐도 소용없음을 강조한 말들이다. 死後清心丸, 死後藥方文, 有備無患, 亡羊補牢, 實事求是 등과 통한다.

삼의 香氣



文化柳氏 崑山君派(大丞公38世) 柳子孝

求禮 雲鳥樓가 주는 感動

(雲鳥樓·柳爾胄의 저택)

전라북도 남원에는 경상남도 하동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 내려가다 전라남도 구례 땅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운조루(雲鳥樓)란 표지(標識)가 나옵니다.

朝鮮 英祖52년(1776 乙未). 삼수부사를 지낸 류이주(柳爾胄)가 세운 것으로 99간(현존 73간)의 대규모 저택입니다.

대구 출신의 무장 류이주는 낙안군수로 재직할 때 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운조루란 宅號는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란 뜻과 함께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사는 빼어난 집'이란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귀거래혜사(歸去來兮辭)에서 따온 것입니다. "雲無心以出軸(무심한 골짜기에서 피어오르고) 鳥倦飛而知還(날기에 지친 새는 돌아올 줄을 안다)"에서 두 글자를 따왔습니다.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돼 있고 2016년에는 유물 전시관이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운조루가 특히 빛나는 것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운조루에는 행랑채에 쌀이 세 가마 들어가는 원통형 나무 뒤주가 있는데 아랫부분에 쌀을 꺼내는 마개가 있고 그 위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씌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수 있다'란 뜻이죠. 운조루 주인은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푼 쌀은 수확량의 20%가 됐다고 합니다.

가뭄과 洪水가 번갈아 오던 시절, 구례 일대의 주민들은 운조루 德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기슭인 이곳은 여순반란사건과 6·25동란 그리고 지리산 공비 토벌의 무대였습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운조루가 멀쩡했던 것은 오랜 積善과

救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운조루는 그런 점에서 진정한 明堂입니다.

지난해 말, 저는 서울에서 열린 걸스카우트 아태 지역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걸스카우트는 세계적인 자원봉사단체지요.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걸스카우트 대원들의 열정과 봉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 기획에서 준비, 대회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어머니들의 강인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가 끝난 뒤 과로로 앓아눕지나 앓을지 염려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끌었을까요?

積善과 救恤이 진정한 明堂
한국을 지켜온 어머니들의 힘
寄附할수록 더 잘되는 사업

역시 세계적인 자원봉사단체인 국제 로타리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세계를 소아마비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전 세계 120만명의 로타리 안들이 수십년 동안 기금을 모으고, 열악한 지역의 아동 25억명에게 예방백신을 투여하는 활동으로 이제 소아마비는 최후 박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人種과 國境을 초월해서 로타리라는 단체에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인류의 難題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는 것을 보며 세계 평화의 큰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인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거액을 기부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최대의 기부자는 다이너마이트로 큰돈을 번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 인류 복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人物들에게 매년 賞을 주도록 했지요. 노벨賞은 인류의 정신적 향상에도 기여하는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부자는 李鍾煥 삼영화학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2000년 6월, 10억 원의 私財를 들여 재단을 만들었고 2년 후에 '冠廷李鍾煥教育財團'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계속 기부를 늘려 현재는 1조원으로 장학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 재산의 97%에 해당합니다.

自敍傳 원고를 감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정 선생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회장실에는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고, 얘기를 나누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를 데리고 근처 중국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우동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

습을 보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冠廷 선생의 寄附 철학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이 나면 재단에 보내는데, 그럴수록 사업이 더 잘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엇이 가장 보람 있느냐는 물음에는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장학생의 편지를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冠廷 장학생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새해 97세. 그의 꿈은 푸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감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감동적인 삶. 그것은 나보다 남을 위한 봉사, 寄附하는 삶입니다.

중앙일보2020.01.14.

※ 류자효 : 서울대학교 불문과 2학년 때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등단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운조루 입향
조이, 자주, 삼수공의 6대손 구환의 손자



【공 트】

純 愛 記



文化柳氏 忠/天安公宗中 總務 柳 仁 杰

대전역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열차가 도착하기 30분 전이다. 먼저 도착한 열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왔다. 30분이면 상행, 하행 합쳐 이렇게 몇 번은 더 쏟아져 나와야 할 것 같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무료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여 출영 인파에 섞여 계단을 오르다 문득 그녀를 처음 만났던 때를 잠시 회상했다.

정말 엇그제 같은 기억인데 무심한 세월은 어느새 50년이나 흘렀고 잊고 싶은 열적은 일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곱게 포장되어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옥희와 만난 건 기차통학을 하던 고교생 시절, 김천행 통근열차에서다. 대전에서 출발하여 김천까지 갔던 그 통근열차는 오후 6시에 출발하였다. 통근열차를 놓치면 통학생들은 차표를 따로 사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했다. 대전역이 시발역이라서 일찍 승차하면 열차 안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다. 그날도 철식은 늘 하던 대로 열차에 올라 중간쯤 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플랫폼을 내려다보다 책을 꺼냈다. 대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문제집을 풀곤 했다.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다가 문 앞쪽에 앉은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곤색 교복에 뽀족한 흰색칼라가 C여고생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무슨 병이 있었는지 가끔씩 볼 때마다 늘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묻곤 괴로워하였다. 그날도 예상대로 많이 피곤해 보였다. 별로 가까이하는 친구도 없는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보였다.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을 열차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철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다. 선반에 올려놓은 가방을 내려 그녀의 옆자리로 옮겼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에 가방을 올려놓고 엎드려 있었다. 잠시 고개를 들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간 다시 고개를 파묻곤 하였다. 철식은 얼른 밖에 나가 홍익회에서 물 한 컵을 얻어다 주었다.

“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 물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받아드는 작은 손이 참 예뻐다. 가느다란 손가락, 핏기 없는 얼굴, 약간 헝클어진 머리, 하얀 피부, 짙은 눈썹, 오뚝한 코, 그리고 작은 입, 귀여운 인형 같았다. 물을 마시고 나서 정신이 좀 들었는지, 옆에 철식이 있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똑바로 앉아보려고 노력했다. 철식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을 걸었다.

“저, 옥천에서 내리시지요?”

“네? 아, 예, 옥천이요. 그런데 제가 옥천에서 내리는 걸 어떻게.....”

“언젠가 옥천에서 내리시는 걸 한 번 봤습니다.”

“저도 기차 안에서 뵈 적은 있는데.....”

철식은 그녀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의 가방을 포개어 주고 옆드리게 해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묻고 고단한 몸을 두 개의 가방위에 맡겼다.

옥천은 대전에서 열차로 30분밖에 안 걸렸다. 열차에서 내리자 철식은 그녀의 가방을 들고 옆에서 걸었다. 가방 2개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부축을 해 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내를 기로질러 구읍으로 넘어가는 문정리 고개에서 잠시 쉬었다. 길가 상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함께 마셨다. 거기서부터는 띄엄띄엄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길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한 손으로 부축을 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온 몸이 전율했다. 긴장을 해서인지 두 개의 가방을 들고 부축하며 가는 일이 힘이 들었는지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녀의 집은 교동리였다. 정지용 시인의 생가가 있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동네였다. 옥천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는 죽향초등학교를 지나 옥천 여중·고 쪽으로 접어들자 다시 길이 밝아졌다.

“고맙습니다. 이젠 저 혼자 갈게요.”

“아, 예,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집이 어디세요?”

“추풍령입니다.”

“네? 저는 옥천인 줄 알았는데..... 어찌지요?”

“괜찮습니다. 다음 열차로 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가 골목을 돌아 안보이고서도 한참 동안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녀는 골목을 꺾어 돌아갈 때 잠시 고개를 돌리고 힘없이 손을 한 번 흔들며 주곤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철식은 그 후 그녀의 동네 건너편 대성리에 사는 통학생 친구를 통해 그녀의 이름이 ‘옥희’라는 것과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늘 몸이 안 좋다는 것과 그런데도 공부 잘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열차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날처럼 옆 자리에 앉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둘이서 사귄다는 소문도 슬슬 번지려할 때 둘 다 졸업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철식은 간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하였고, 장교로 임관된 후 월남전에 자원하였었다. 옥희는 D시에 있는 보육대학에 진학을 하고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를 하다 졸업 후 서울의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다. 휴가를 나왔을 때, 그리고 파병되기 전, 몇 번 만났고, 편지도 자주 주고받았지만 월남에 가 있을 때는 서로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다. 이제 귀국하면 맨 먼저 옥희를 찾아가 청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작심하고 있을 때,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옥희의 결혼 소식 편지를 받았다.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는 옥희에 대한 미련을 접기로 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옥희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옥희씨를 생각할 때면 행복했습니다. 옥희씨가 결혼을 하신다는 편지를 읽고 종착역까지 가보지 않고 간이역에서 내리시려 하는 옥희씨가 참 야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심이 옥희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좋은 분을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옥희씨가 그리울 때마다 우리 둘이 지내온 아름다웠던 시간을 들춰보며 길목마다 물어 둔 이야기들을 꺼내 추억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먼 훗날 어디에선가 다시 만난다면 서로 마주보며 그냥 웃지요.’ 그것이 끝이었다.

얼마 전 지리산으로 여행을 하다 어느 산골마을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가 우

연히 잡지에서 '純愛記'라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까마득히 있고 있던 풋풋했던 우리들의 어설픈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글쓴이를 보고는 더 놀랐다. 시인 김옥희였다. '아, 시인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정말 보고 싶었다. 철순을 앞 둔 늙은이들인데 무에 그리 따질 게 있을까? 보고 싶으면 만나면 되지. 출판사로 전화를 해서 가까스로 김옥희 시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서울행 열차의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철식은 소년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가냘픈 몸매일까? '내가 연애의 밑당을 할 줄 몰랐어. 아니 용기가 없었어. 순진한 것이 아니라 바보였어. 우리 둘이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자유롭게 번져나갔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잊지 않고 간간이 그려보던 얼굴이라 금방 알아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무리지어 오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오늘 못 오는 건 아닐까? 나와 만나는 걸 남편이 알고 막은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만큼서 전동휠체어를 탄 여인이 천천히 오고 있었다. 가름한 얼굴, 반백의 생머리가 잘 어울렸다. '저런 몸으로 보호자도 없이 혼자 기차여행이라니.....'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그 여인이 말을 건넸다.

"혹시, 철식씨가 아니신지요?"

"아니, 옥희씨?"

"네, 맞아요. 옥희....."

순간,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맞췄다. 철식도 옥희도 눈물이 핑 돌았다. 철식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는 옥희를 뜨겁게 포옹했다. 철식을 끌어안은 옥희의 가는 팔이 파르르 떨어왔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잠시 잊었다. 옥희가 먼저 철식을 끌어안은 팔을 풀었다. 옥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둘은 택시를 타고 동학사로 향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실었다. 매표소 앞에서 내려 철식이 휠체어를 밀었다. 아직은 고운물이 들지 않았지만 가을 내음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학사 절을 못가서 길옆에 숨어있는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다. 어둔 실내를 많은 촛불들이 밝히고 있었다. 철식은 옥희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서로 마주보며 차를 마실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찾집에서 들은 옥희의 이야기는 철식을 서럽게 했다.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옥희는 역시 건강문제로 유치원 교사를 접고 어느 조그만 암자에 들어가 세상과 연을 끊고 살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詩作에 전념하여 시인이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다시 야간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하다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쓰는 장애인이 되었다.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엄마가 되는 일은 자신에겐 사치라고 생각했었다.

‘바보, 그것도 모르고. 행복하기를 빌었었구나.’

그때 왜 한 번 찾아볼 생각을 안했었는지 철식은 후회만 되었다. 사방에 켜놓은 촛불이 날름거리며 철식을 약 올리고 있었다.

둘은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고 자연스레 손을 마주잡았다. 50년 전에 잡았을 때처럼 그런 뜨거움은 아니지만 또 다른 뜨거움이 온 몸을 달궜다. 옥희는 지금도 역시 손가락이 가늘었다. 곤색 교복에 뾰족했던 흰색칼라의 인형같던 여학생 옥희가 여기 있다.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紀行文】

日本の 教育·文化 視察記



文化柳氏 서울권宗親會長 柳 柱 善

1977년도에 '콜롬보 플랜'의 일환으로 정밀측지연구차 일본에서 연구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연구에 동참했던 친지의 초청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08년 주간지 'News in'에 실렸던 원고를 儒州春秋에 투고 해 본다.

지난날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명쾌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갈등 속에서, '서울특별시 교장회의 교육·문화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나가노(長野)현과 시즈오카(靜岡)현을 다녀왔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수많은 문화와 역사 교류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될 수도 있으나,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문제가 깔려있으므로 국민 대다수의 마음속엔 그늘진 적대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시찰 중에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는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특히 도서관에 걸려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시한 일본 지도는 우리 시찰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은 물론, 망언과 도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혼돈된 역사 의식과 견강부회가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시찰단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 국영방송(NHK)까지 동원하고, 여타 융숭한 대접을 해준 일본 당국의 성의는 고마웠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시찰단 전체의 분위기였다.



(서울특별시 교장단과 나가노(長野)현 임직원 일동)

이 같은 그릇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우리는 날선 비판의식을 갖고, 이에 걸맞은 대응책을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준비해야 되겠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참고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었고, 이러한 점들은 과감히 반영하여 우리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등 4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다.

지각이 매우 불안정하고 환태평양 조산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 화산지형이며 지진이 잦고 온천이 많다. 일본의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1.7배이고 인구는 1억 3천여만명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불이 넘는다.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흡사하다.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치의대는 6년)의 과정으로 되어있으며,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되어있다.

의무교육 기간은 9년이며 신학기는 4월에 시작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으로 3학기제이며, 고등학교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보통과와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방문했던 나가노의 동해(東海)대학 제3부속고등학교는 문과 이과로 구분하

여 주입식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명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지방 명문고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설립한 부속고등학교의 숫자가 적은데 반해, 일본은 수십 개의 부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재단이 기업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수업료는 공·사립 차이가 있으며 사립의 경우 수업료 이외에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공립보다 비쌀 뿐 아니라 학교운영비도 별도로 징수함은 물론, 정부의 지원도 공립 못지않게 받는다하니, 사립학교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을 듯싶었다.

우리를 안내하고 학교 현황을 설명해 주던 교직원에게 따르면, 학생층원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는 했지만, 중학교에 가서 학생층원 홍보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니 다소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았다.

이번 시찰 중 핵심적인 분야는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과 분석이었다. 일본이 근대적 장애아동 교육을 도입한지는 100년이 조금 넘었고, 교토의 '맹아원'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일본은 1947년도에 학교교육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특수교육도 일반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학교와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4~5명으로 국어,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배우고 기타 과목은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배우는 통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방별 교육위원회 산하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설치돼 있거나 특수학교가 지역의 특수교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縣)별로 장애자 교육기관이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1977년도에 일본 연구생활을 통하여 느꼈던 바, 한·일간의 생활문화 차이점도 몇 가지 있었음을 밝혀 두고자한다. 일본인은 물건을 살 때 흥정이 거의 없는데, 한국인은 흥정할 때가 많은 편이다. 일본인은 술 먹고 흥청거리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지만, 한국인은 자주 눈에 뜨인다. 대부분의 일본여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한국여성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일본인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한국인은 간섭할 때가 종종 있으며, 일본의 길거리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본자

동차는 좌측통행이므로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일본어는 상스러운 용어가 많지 않는데 한국은 많은 편이다. 일본인은 검소하나 한국인은 과욕의 사치가 만연돼 있고(?), 일본인은 시간약속을 철저히 지키는데 반하여 한국인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며칠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일본의 두 도시를 다녀오며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네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니 여전히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꽤나 있음은 간과 할 수가 없었다.

지난 역사를 놓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과오를 자주 거론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사회문화와 교육제도를 모조리 무시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자세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기성세대는 이웃나라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관찰해 우리 문화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려내고, 후대들에게 떳떳하고 알찬 교육을 시켜야 함은 책임이며 임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자는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은 그 나라 발전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잘못된 역사관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군국주의와 일방통행 식 외교적 태도는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 제도와 생활문화는 우리가 가깝게 여기기에 부족함이 별로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讀後感】

삶의 智慧



文化柳氏大宗會 理事(大丞公28世) 柳 相 議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온통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광주시내 삼복서점에 갔다. 이책 저책을 뒤적이다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지혜」 헤민스님 지음, 책 한 권을 사 들고 와 읽었다.

헤민스님은 따뜻한 疏通法으로 많은 이들에게 慰勞와 勇氣를 전달하는 동네스님으로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외 여러 권의 책을 내셨으며, 이 책들은 모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미국 하바드대 종교학석사, 프린스턴대 종교학박사를 받고, 햄프셔대에서 종교학교수로 7년간 재직하시다 2000년 봄 귀국, 海印寺에서 사미계, 2008년 직지사 에서 비구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되신 분입니다.

제가 읽었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책은 “내게로 돌아가는 길” 이란 주제로 책을 열기 시작하여 5장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어 感銘이 깊었던 것들을 책에 있는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이니 삶의 지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第1章. 나에게 집중하는 時間

○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

사람에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와 ‘욕망하는 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욕망하는 나를 남들이 알까 봐 무조건 억누르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편안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나 진정으로 도전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쉽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있는 사람을 여러 이유로 폄훼하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 착한 사람보단 단단한 사람이 되시고, 단단한 사람보단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보단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덕을 갖춘 사람이 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 나아가시길...

第2章. 家族이라 부르는 膳物

- 꼬마 아이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 엄마에게 선물하면 엄마는 그것이 무엇이던, 아이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점에 감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 초월자는 祈禱 내용보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情 때문에 인간을 축복합니다.
-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後悔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 본인 원하는 대로 살게 놓아 줄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인생을 부모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누구도 幸福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後悔를 한 대요.
- 살다 보면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파도에 같이 휩쓸려 울고불고하지 말고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나의 침착한 눈빛이 相對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兄弟 간에 父母님의 遺産을 나눌 때 잘못하면 큰 傷處와 誤解를 받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함께하시어 餘生을 혼자 아닌 형제들과 함께하시길...
아무리 財産이 많아도 서로 다투면 부족하다 느끼고, 反對로 딱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나누면 남습니다.
*불교사상 가운데 이것이 자비무적(慈悲無敵)입니다.
- 父母님을 나의 부모가 아닌, 失手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보며 이해할 때가 우린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 어머니라는 職業은 출퇴근이라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잘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나를 成熟시키면서도 큰 보람이 있는 尊貴한 일입니다.

○ 다른 사람을 容恕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내가 내 자신을 容恕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요. 특히 어렸을 때 받은 傷處로 아직도 憤怒하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둔 나 자신을 容恕하고 治癒하는 일, 과거 기억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일이 참 힘들어요.

○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내 가슴 한가운데에 놓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변방에 놓고 다른 즐거운 일에 몰두하세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할수록 결국 나만 손해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세요.

第3章. 삶을 感想하는 法

○ 나의 소확행-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작고도 확실한 幸福에 집중하는 것을 「소확행」이라 합니다.

○ 길을 걷다가 코로 스치는 라일락 향기, 미세먼지 없이 鮮明히 보이는 푸르른 산 모습,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書店 의자, 생각에서 멀어져 있던 친구에게서 온 安否 문자, 하루 일이 일찍 끝나 모처럼 생긴 餘裕,

*여러분은 언제 소소한 幸福을 느끼세요?

○ 幸福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감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소유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친구의 友情, 내 아이의 웃음소리, 음악이 선물하는 평온한 리듬,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우승, 새벽 하늘에 붉은 太陽이 솟아오르는 日出 光景, 서쪽 바다 地平線 위의 아름다운 노을, 다 幸福으로 다가옵니다.

○ 사람이란 마음에 餘裕가 있으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좋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는지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아름다운 봄꽃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밝고 깨끗하지만, 부정적인 대상에 자꾸 마음을 두면 마음은 어둡게 변해갑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두는 대상을 신중히 고르세요.

○ 우리는 삶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行爲(doing)중심의

삶, 다른 하나는 存在(being)중심의 삶입니다. 行爲 중심의 삶은 큰 뭔가를 이루어 냈을 때야 비로소 내 삶의 가치가 생긴다고 보며, 存在 중심의 삶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성스럽고 지혜롭고 우주와 연결된 사랑 속에 있다고 봅니다.

- 욕심을 내려놓으면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이 돌아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 사람이 청정한 자연이나 아름다운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자신도 소중하게 느껴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깨끗한 自然이나 아름다운 空間을 자주 경험하지 못해서 점점 각박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 저버린 느낌입니다.
- 幸福해지고 싶다면 마음의 변화에 민감하게 肯定的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幸福해집니다.

第4章. 友情의 여러 가지면

- 세상에서 정말로 幸福한 순간 중 하나는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밤새도록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 세상의 친구들 親睦 모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 자리에 없는 남의 이야기를 주로하는 모임과 그 자리에 참석한 자기들의 속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
- 다른 사람의 흥이나 단점을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존재하는 똑 같은 단점이 말하는 도중에 더 강화됩니다.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하기 쉬운 일 중 하나는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스스로 자기의 잘 못을 살피는 것이다.
- 친구들 모임에 가서는 남 이야기보다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친구들이 당신과 紐帶感을 느낄수 있어요. 완벽한 모습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친구들과 친해집니다.
-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힘든 것 빨리 털어내고 일어나” 하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도 힘든거 털고 싶은데 못하니까 힘든거잖아요. 대신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라도 힘들 것 같아”라고 共感해 주세요.

○ 순수하게 자기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因緣 같아요. 우리는 책이나 학교 수업보다 사람을 만나면서 큰 배움을 얻고 人生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변화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을 찾아 만나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돈을 빌려준 나는 甲에서 乙이 된다. 義理 때문에 불공평한 去來를 계속하지 마세요. 相對도 義理가 있다면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바꿔주거나 내가 납득 할 만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義理도 돈도 다 잃게 됩니다.

第5章. 외로움에 관한 생각

○ 외롭다 했더니 원래 다 외롭단다. 그 말을 들으려 말한 것이 아닌데 말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졌네.

○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共感을 받을 때 타인과 연결감을 느낍니다. 내가 던진 이야기를 아무도 共感하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도 속이 허한 것이 ' 외롭다 ' 느낌이다.

○ 우리 마음은 幸福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이라는 틀을 만듭니다. 내 주변 상황과 사람이 그 틀에 맞으면 幸福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틀이 있는 한 幸福할 수 없어요. 내가 붙인 條件 내가 만든 틀이 나를 不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 외로움과 홀로 있는 것. 외로움은 혼자 있지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것이 平溫한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불행으로 느끼고, 홀로 있음은 평안하다고 느껴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면 홀로 있음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똑같은 상태가 곧바로 외로움으로 변해 버린다.

○ 우리에게 괴로움은 주어진 현실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이 가져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의 해석에 따라 艱難을 수도 있고 엄청난 마음의 傷處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나를 거듭나게 하는 변화의 轉換點으로 여기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 마음 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더 나쁠 수 도 있었는데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이젠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생 의미 있게 잘 살겠습니다”

○ 神은 우리를 여러 方式으로 외롭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든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중에서)

○ 진정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에게 지혜를 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새로운 세상도 만나게 되고 人生의 轉換점도 생깁니다. 삶의 지혜를 연마하세요.

* 헤민 스님과 함께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이란 책에 있는 것을 발췌하여 독후록에 썼음을 밝힙니다.



【年例報告】

文化柳氏大宗會 任員錄

2020.12.15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1	고문	柳興洙	충/판	3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아크로빌 A동 2303호	06292
2	"	柳暎烈	검	32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6길 11 도산빌딩 4층(독산동)	08548
3	"	柳瑢鎭	충/판	33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21길 16 두산A 521동 601호 (북동20)	02023
4	"	柳來鉉	충/전	34	대구시 북구 한강로 17 금호서한이다음 A 106동 1702호 (사수동)	41599
5	"	柳三男	충/소	34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길 27 금호한신희플러스A 102동 1406호	04724
6	"	柳浩燾	하	35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2가, ㈜아이템플)	04783
7	"	柳濟求	정	35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24-1 (이백리 346번지)	29000
10	명예장	柳箕桓	정	36	日本 東京都 大田區 南雪谷 2-6-13. F棟	145-0066
1	회장	柳三鉉	좌	34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87 두산A 111동 702호(은천동)	08750
2	부회장	柳在殷	시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80, 행정타운코아루휴티스 101동 1501호	28542
3	"	柳在英	문	33	충북 충주시 금성2길 14(교현동)	27380
4	"	柳秀澤	하	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41번길 13, 장안타운 건영122-1203	13583
5	"	柳秉鉉	장	34	경남 합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 1609	50252
6	"	柳秦春	곤	40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85 선수촌A 103동 902호(율하동)	41107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7	부회장	柳台紀	평	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5번길 80(봉명2동)	28475
8	"	柳石鉉	중	3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당산푸르지오A 106동 1701호	07226
9	"	柳金烈	좌	32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56(마산리)	11164
10	"	柳台烈	검	32	전북 부안군 하서면 운암길 65 (석상리494)	56333
11	"	柳濟求	정	35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24-1(이백리 346번지)	29000
12	"	柳鍾烈	판	32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5길 26-9	42025
13	"	柳在萬	부	33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63가길 43 대우A103동 202호(창동)	01465
14	"	柳在寬	충	33	인천시 동구 새천년로 38번길 11 동산휴먼시아 208동 102호(송림동)	22574
15	"	柳在廣	충/판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33 (영웅동.유인당한약방)	28738
16	"	柳在仲	충/부	33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1길 44-22	32911
17	"	柳愚翔	충/소	3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98번길 17 (신성동, 방현빌라 401호)	34116
18	"	柳周永	하	30	경기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167 (회현리)	12563
19	"	柳民城	"	32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 463 (용천리)	12506
20	"	柳在聖	좌	33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96번길 21-12 (신곡동)	11778
21	"	柳正雄	검	31	전북 김제시 공덕면 유강로 185-26 (황산리)	54321
22	"	柳柱善	충/전	34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로 155번길 27(건평리)	23056
23	"	柳奘烈	충/전	32	대전시 중구 계룡로 852 (오류동 삼성아파트 28동 307호)	34907
24	"	柳金丸	하	33	광주시 남구 봉선중앙로 46 삼익1차A 104동 1301호(봉선동)	61685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25	부회장	柳益鉉	총/전	34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 동아솔레시티 A 106-1504	16903
26	"	柳志誠	하	33	52-32 Leith PL. Little Neck, New York 11362 U.S.A	
27	"	柳濟奉	총/전	35	42-41 191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U.S.A	
1	자 위 문 원	柳景植	판	31	대구시 북구 매천로 220 우방타운 101동 1309호	41459
2	"	柳在振	총/부	33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로445 (흘산리)	54526
1	이 사	柳桓植	시	31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49 대원A 902동 302호	28795
2		柳在坪	"	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3 진흥2차A 204동 202호	28145
3	"	柳鳳九	"	34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1 1층	04096
4		柳在珪	문	33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26길 22(남촌동)	27172
5	"	柳寅培	"	31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15길 38 현대A 103동 1403호 (하소동)	27162
6	"	柳寅培	"	31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83-20 고암오네뜨A 103-1205(고암동)	27145
7	"	柳寅祥	"	31	충북 제천시 고암로 70(청전동)	27146
8	"	柳成烈	"	32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 21길 121-18	27207
9	"	柳喆鉉	하	3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4번길 11 (운천동)	28469
10	"	柳寅澤	"	31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49-24	01695
11	"	柳仁吉	"	33	전남 여수시 울촌면 증개길 20 (조화리)	59602
12	"	柳在均	"	33	광주시 북구 군왕로141번길 24-11 (두암동)	61196
13	"	柳濟榮	"	35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4길 32. 301호 (시흥동)	08563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14	이사	柳浩燮	하	35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북로 12번길 58-23	22164
15	"	柳鎔海	장	33	경남 합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1570	50252
16	"	柳亢永	"	32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43-30, 나동 301호(옥산연립)	50232
17	"	柳完赫	평	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94번길 12 (용암동) 3층	28766
18	"	柳志元	"	33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흥로 5번길 28-3	28045
19	"	柳在朋	"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63번길 33, 우성A 101동 803호	28521
20	"	柳東烈	"	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9번길 40 (봉명2동)	28475
21	"	柳穆烈	"	3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14번길 부영A 110-406(산남동)	28628
22	"	柳政烈	"	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233번길 8 (1층)	28560
23	"	柳用鉉	중	34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77 금호베스트빌2차 501동 806호(수택동)	11948
24	"	柳在光	"	3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취적안길 28(행정리)	27828
25	"	柳鎭性	"	36	전남 담양군 창평면 해곡내동길19	57374
26	"	柳永桓	"	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78번길 22-23 (광명동)	14266
27	"	柳貞用	"	31	충남 부여군 장암면 남성로 908번길 19	33181
28	"	柳勝善	"	34	경북 군위군 효령면 오천1길 10-45	39026
29	"	柳志泰	"	3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101번길 19 (심곡본1동)	14747
30	"	柳益烈	좌	32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123-4 (중정리)	33164
31	"	柳点烈	"	32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11길 42-15 (상동)	42167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32	이사	柳希烈	좌	32	경기 포천시 중앙로78번길 51 (신읍동)	11145
33	"	柳五鉉	"	34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227 (태성리)	28018
34	"	柳福壽	"	32	울산시 북구 호수2로 35	44229
35	"	柳在澍	"	33	경남 김해시 가락로222, 구산제1주공A 103동 206호	50908
36	"	柳國鉉	검	34	인천시 계양구 양지말 1길 12 신세계드림빌라 301호	21018
37	"	柳在憲	"	33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35 금호1차A 4동 604호(온의동)	24429
38	"	柳相議	"	28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566번 나길 4 (방림동)	61679
39	"	柳光烈	"	32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 439-5 (백용리)	58133
40	"	柳寅明	"	31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39번길 42-4 (호산리 2구)	31457
41	"	柳在河	"	33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5길 24 한효A 3동 605호(고척동)	08224
42	"	柳健永	"	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00 현대성우A 292동 1401호(상현동)	16936
43	"	柳貞勳	"	32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441	58133
44	"	柳洪永	"	30	전북 김제시 도작로 33 부영A 308-1605	54403
45	"	柳濟福	정	35	대전시 중구 보문로 288번길 7, 해오름A 501호	34839
46	"	柳尙賢	"	37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36	32736
47	"	柳晟鉉	판	34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10, 아이프라이미지지 102동 309호(시지동)	42254
48	"	柳源植	"	30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 22길 20, 현대맨션 102동 1103호(지산동)	42214
49	"	柳鶴善	부	3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78길 2 (불광동)	03351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50	이사	柳昌秀	부	3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5번길 60, 세종그랑시아 105동 310호	16952
51	"	柳志權	충/전	33	충남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488	32909
52	"	柳鶴善	"	34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길 15(부암동)	03020
53	"	柳瑩爽	충/판	33	대전시 유성구 구즉로 52번길 25 302호 (송강동)	34009
54	"	柳根暢	"	3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당산길 26-1	57544
55	"	柳正坤	"	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34 (행주내동,성실화원)	10439
56	"	柳根熙	"	3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84, 문촌마을A 115동 505호(주엽동)	10371
57	"	柳在旭	"	33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92길 36, 102	08554
58	"	柳昌範	"	3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포산로 76번길 52 (휴암동)	28374
59	"	柳在禹	충/부	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94 평화그린A 104동 1401호(평화동)	55126
60	"	柳在日	"	33	전북 익산시 선화로 17 배산제일 오투그란데 102동 1704호(모현동2가)	54653
61	"	柳在洙	"	33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111-1 마곡엠벨리5단지 502동 1216호(마곡동)	07599
62	"	柳在新	"	33	전북 익산시 무왕로 32길 85, 기안파인골드빌A 106-806(팔봉동)	54582
63	"	柳元福	충/부	33	전북 익산시 낭산면 가산1길 23	54526
64	"	柳憲烈	충/소	32	충남 부여군 흥수로 878 부여휴엔하임A 204동 303호(규암면 반산리)	33125
65	"	柳玉鉉	"	34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412-5 (신유리)	31554
66	"	柳命順	"	34	대전시 동구 산내로 1375 오투그란데A 103동 203호(남월동)	34698
67	"	柳泰寬	"	32	대구시 북구 구암로16길 7 현대A 104동 807호(태전동)	41460

연번	직책	성명	파	세수	주소	우편번호
68	이사	柳寅權	충/소	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관동마을길79 (도장리)	31225
69	"	柳在斗	"	33	세종시 소정면 대사동길 127 (대곡리)	30001
70	"	柳淸烈	"	3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삼성A 133동 1203호(서현동)	13588
71	"	柳恒輔	"	32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125-5 (대정리)	29002
72	"	柳在豊	"	33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 1길 10-5 (원북리)	32925
73	"	柳明俊	"	32	충북 영동군 학산면 죽촌리길 28 (황산리)	29165
74	"	柳景化	"	34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33, 이편한세상A 105동 1703호	06603
75	"	柳在復	"	3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4길 16 (석곡리)	31247
76	"	柳在成	"	33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53력키하나아파트 105동 602호	34119
1	홍이사	柳朱桓	충/전	36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엑스포A 508동 1301호 (전민동)	34049
1	감사	柳志燕	하	33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131(대조동, 4층)	03393
2	"	柳在休	좌	33	광주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 25. 한국이텔리움A 202동 701호 (임동)	61253
1	사총무장	柳承鉉	충/소	34	대전시 중구 유천로 10-2 (유천2동)	34971

慕省會 任員錄

2020.10.31

직 위	성 명	파	주 소	우편번호
고 문	柳璫鎭	총/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21길16 두산A 521동601호 (목동20)	02023
"	柳來鉉	총/전	대구시 북구 한강로 17(사수동, 금호세한이다음A 106동 1702호)	41493
"	柳濟求	정숙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24-1(이백리)	29000
"	柳浩倓	하정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2가, ㈜ 아이템플)	04783
"	柳朝浩	진주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4번길 16-11 (철산동 428) 삼희빌딩 4층	14240
회 장	柳三鉉	좌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87 (은천동, 두산A 111-702)	08750
부회장	柳台紀	문평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5번길 80 (봉명2동)	28475
"	柳秀澤	하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41번길 13, 장안타운건영 122-1203	13583
"	柳淙鉉	좌상	대전시 중구 태평로 15 버드내마을A 106동 601호	34890
"	柳聖奎	진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0, 1동 808호 (불광동, 미성A)	06294
전 레 위 원 장	柳金烈	좌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356(마산리)	11164
전 레 위 원	柳健永	검한성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00 현대성우A 292동 1401호 (상현동)	16936
"	柳台烈	검한성	전북 부안군 하서면 운암길 65(석상리496)	56333
"	柳在振	총/부	전북 익산시 함열읍 흘산로 445(흘산리)	54526
"	柳在復	총/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4길 16(석곡리)	31247
"	柳在聖	좌상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296번길 21-12(신곡동)	11778
이 사	柳在殷	시랑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38 (영동, 평화A 마-301)	28544

직 위	성 명	파	주 소	우편번호
이 사	柳在坪	시랑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3, 진흥2차A 204동 202호	28145
"	柳在英	문숙	충북 충주시 금성2길 14(교현동)	12956
"	柳志燕	하정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72-1(4층)	03393
"	柳秉鉉	장령	경남 합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 1609	50252
"	柳泰春	곤산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85. 103동 902호 (율하동, 선수촌A)	41107
"	柳石鉉	중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당산푸르지오A 106-1701	07226
"	柳在澍	좌상	경남 김해시 가락로222, 구산제1주공A 103동 206호	50908
"	柳福鉉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91104동 902호 (삼가동,우남아파트)	17017
"	柳鐘烈	판사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5길 26-9	42025
"	柳昌鉉	판사	대구시 남구 대명복개로 1길 12-4	42477
"	柳在萬	부윤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43. 103동 202호 (창동,대우A)	01465
"	柳志瓚	총/전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63번길 32	32909
"	柳在寬	총/판	인천시 동구 새천년로 38번길 11, 동산휴먼시아 208-102	22574
"	柳在廣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33 (영웅동·유인당한약방)	28738
"	柳在仲	총/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1길 44-22	32911
"	柳愚翔	총/소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98번길 17 (신성동, 방현빌라 401호)	34116
"	柳命順	"	대전시 동구 산내로 1375 오뚜그란데A 103동 203호 (낭월동)	34698
"	柳載仲	진주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울곡A 349동 1703호	15864

직 위	성 명	파	주 소	우편번호
유 사	류훈렬	좌상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145(미아동) 은진스톤하우스 21차 402호	01133
"	柳在金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28 복컨걸팅(신읍동)	11142
"	柳浩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81-40 202동 901호	12043
"	柳浩彬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65	11136
관 리 위 원	柳昌烈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양지말1길 74	11136
감 사	柳志世	중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23(당산동 3가)	07261
"	柳柱善	총/전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로 155번길 27 (건평리)	23056
사 총 무 장	柳承鉉	총/소	대전시 중구 유천로 10-2 (유천2동)	34971

主要宗務報告

2019년

- 01월 10일 : 신년하례식 90여명 참석
- 02월 13일 : 대종회 건물 소방점검 : (주)금호소방 김덕수 과장)
- 02월 15일 : 고문·부회장·감사 등 간담회 20명 참석
- 02월 27일 : 고문·부회장·감사 등 간담회 13명 참석
- 03월 15일 : 대종회 유선전화 교체(KT. 3대 설치)
- 03월 15일 : 법조빌딩(둔산동) 정기 관리단 회의 10명 참석
- 03월 18일 : 대종회 정기감사 10명 참석
- 03월 21일 : 대동사 제향 200여명 참석(류삼현 회장 초헌관 봉행)
- 03월 22일 : 光海主(378週忌) 文城郡夫人文化柳氏 제향 50여명 참석
(류우상 회장 아헌관 봉행)
- 04월 04일 : 춘계 이사회 42명 참석
- 04월 14일 : 死六臣追慕祭 563週忌 春享祭 30여명 참석
(류삼현 대종회장 초헌관 봉행)
- 04월 15일 : 대종회 건물 정화조 하수라인 보수 및 지하실 방수 공사
(대운종합건축 김익덕)
- 04월 18일 : 춘계총회 230여명 참석
- 04월 19일 : 동계사 대승공제향 40~50여명 참석
- 05월 23일 : 파종회장 간담회 21명 참석
- 05월 31일 : 대종회 건물 옥상 방수(대운종합건축 김익덕)
- 07월 09일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8명 참석
- 07월 23일 : 장학생증서와 장학금 수여식, 한 학생에 100만원씩 12명에게
총 1,200만원 수여(학생, 학부모, 파종회장 등 50여명 참석)
- 08월 08일 : 전례위원회 10명 참석
- 08월 30일 : 파종회장 간담회 19명 참석
- 09월 19일 : 모성회 감사(지세, 주선 감사)
- 09월 26일 : 모성회 이사회
- 09월 28일 : 제11회 뿌리공원효문화축제 문중 퍼레이드 참석

- 10월 03일 : 정신공 향사 참석
- 10월 13일 : 모성사 현판식, 시조대승공(휘 차달) 위패 봉안식 및 5대단 향사, 모성회 정기총회
- 10월 18일 : 상서공 향사 참석(충북 청주시 내수면)
- 11월 07일 : 대종회 추계이사회
- 11월 19일 : 대종회 추계총회

2020년

- 01월 09일 : 신년하례식 95명 참석
- 03월 05일 : 모성사입구 표지석 설치(총/부령공부회장 류원복 기증)
- 03월 09일 : 대동사 향사(대동사임원만 참석)
- 03월 11일 : 대종회 정기감사(류지연, 류재휴감사)
- 04월 01일 : 대종회 명판교체(총/부령공부회장 류원복 기증)
- 04월 07일 : 동계사 향사(숙모회임원만 참석)
- 05월 14일 : 모성사 표지석 제막식 50여명 참석
- 06월 10일 : 대종회관 지하1층 수증모터 교체(한일펌프상사 박희태)
- 07월 15일 :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4명 참석
- 07월 31일 :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씩 8명에게 총 800만원 수여 (우편발송, 계좌이체)
- 08월 03일 : 대종회 건물 소방점검 : (주)금호소방 김덕수 과장)
- 09월 17일 : 춘계이사회 회의자료 발송(회의 대체)
- 10월 21일 : 정신공 향사(임원과 소수종원 참석)
- 10월 15일 : 모성사 감사(류지세, 류주선감사)
- 10월 31일 : 모성사 향사(60여명 참석) 및 모성회 정기총회
- 11월 30일 : 추계이사회 회의자료 발송(회의 대체)

文化柳氏大宗會 沿革

구 분	주 요 내 용
1974년 03월 22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종친회 건물에서 文化柳氏大宗會를 창립. 초대 회장에 根榮宗장을 추대하고, 당일 종중규약을 제정함과 아울러 修譜를 결의
1976년 08월	大同譜(丙辰大譜 : 17권 1질)를 完刊
1983년 04월 26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 301-43 소재 신축 文化柳氏宗親會館(지하 1층 지상 4층 건평 300평)에서 800여 종인의 참석리에 회관준공식 거행
1984년 02월	회관건립성금 납입자를 등재한 文化柳氏世系譜(5권 1질)를 완간
1986년 03월	文化柳氏寶鑑 편찬 착수
1989년 04월 19일	根榮會長 사임
"	寅範會長 취임
1989년 09월	文化柳氏通史 審議確定
1990년 03월	文化柳氏寶鑑(3권 1질) 完刊
1991년 05월	宗報『儒州春秋』 創刊
1997년 04월 20일	『文化柳氏大同行列』還元을 議決 公表
1997년 08월 16일	寅範會長 逝去
1998년 04월 10일	忠烈會長 취임
2003년 08월	文化柳氏大同譜 간행규정 제정, 보사착수
2003년 02월 14일	貞肅公派 濟求회장 장학금 1억원 대종회에 출연
2004년 02월 04일	韓國氏族總聯合會에 「韓國姓氏總鑑」 文化柳氏 登載資料 제출
2004년 08월 11일	車門의 柳氏先系 날조 및 편취에 따른 시정촉구문 발송
2005년 02월 15일	忠烈會長 퇴임
2005년 04월 22일	浩倓會長 취임
2007년 05월 28일	車柳大宗會 해체
2007년 09월	大法院 戶籍例規에 의하여 姓 「류」字 國文表記 認可

구 분	주 요 내 용
2008년 05월	大同譜(戊子大譜 23권 1집) 完刊
2008년 08월 02일	大丞獎學會 재창립
2008년 08월	大宗會 홈페이지 개설, 柳朱桓教授에게 위임
2008년 09월 26일	在日僑胞 柳箕桓씨 九月山 始祖 墓所 最初省掃
2008년 10월	대전시 중구 침산동 소재 뿌리공원에 文化柳氏由來碑 조형물설치
2009년 04월 09일	浩燠會長 퇴임
"	濟求會長 취임
2010년 05월 30일	北韓 朝鮮中央通信『柳陵 保存遺蹟指定』報道
2010년 09월	抱川 慕省祠 (五代壇) 祭享 大宗會에서 主管
2011년 03월 25일	中門祗候使公派 兪正公宗中 獎學金 1億원 大宗會에 寄託
2012년 04월	柳朱桓教授 『大虎下淚 .. 僞書와 家門史』刊行
2013년 10월	柳陵聖域化事業 完工
2014년 04월 13일	濟求會長 퇴임
"	大賢會長 취임
2014년 06월 20일	柳陵聖域化頌祝詩 公募依頼書, 全國 儒林 800 餘處 發送
2014년 11월 30일	『柳陵聖域化頌祝詩集』刊行, 儒林有數大學文化機關·後孫 등에 配布
2014년 12월 14일	柳箕桓씨에게 崇祖大賞 授與 및 賞與金 3千萬원 傳達
"	大賢會長 사임
"	來鉉會長 취임
2015년 07월 10일	忠景公派 獎學金 1億원 大宗會에 寄託
2017년 04월 10일	來鉉會長 퇴임
"	三鉉會長 취임
2018년 11월 30일	慕省祠에 始祖 大丞公(諱 車達) 位牌奉安키로 慕省會總會에서 議決
2019년 10월 13일	慕省祠에 始祖 大丞公(諱 車達) 位牌奉安 및 慕省祠 懸板式 舉行
2020년 04월 01일	文化柳氏大宗會 名板(石製) 交替
2020년 05월 14일	慕省祠標識石 除幕式 舉行

慕省會 沿革

※ 始祖 大丞公 (諱 車達) 位牌 奉安 (2019. 10. 13)
※ 5 代 位 : 2世 孝金 3世 金丸 4世 盧一 5世 寶春 6世 寵
※ 8代10位 : (윗先祖분과) 7世 公權 8世 彥沉 8世 澤 9世 淳 9世 璫

구 분	주 요 내 용
高宗年間(1875) 龍西 基一公 自家에서 24년간 5代位 祭享	
1899	종중에서 5代位 세향으로 계승
1910	왜정 강점기 35년
1945	8.15 광복
1950	6.25 한국동란
1960	4.19 학생의거
1961	5.16 군사혁명
1965	5代壇 설립시 건립기금 10만원 출연 晉州柳門 柳漢九 (당시 壇碑는 1972년 중수시 壇下에 매안하였음)
1966	류인룡 종친 柳根昌將軍 방문 5代壇 重修 건의함. 16평 재실창건 및 연못 준설 柳根昌 將軍 주관, 晉州柳門 柳漢九 건축비 20만원 출연 (당시 재실은 현재 위치에 이전 증건하였음)
1972	5代壇 重修사업 柳忠烈 위원장(2만원), 柳根昌(3만원), 柳根實(추모비 헌납), 柳洪烈(비문찬술), 柳炳賢(2만원)(당시 중수단비는 2003년 정화사업시에 단하에 매안하였음) 柳景植(명예회장) 柳根哲(2만원) 柳炳權(2만원) 柳寅植(추모비 글씨) 柳志漢(총무) 柳浩應(유사)
1989	진입로 포장공사 정부지원 (사무총장 柳暎烈)
1990	모성재 증건사업 柳忠烈 위원장(300만원) 柳根昌(200만원) 柳根桓(100만원) 柳達永(50만원 재실현판) 柳纘佑(1,000만원) 柳和烈(합산 1,000만원) 柳炳權(150만원) 8명의 종친 및 종중 (각 100만원) 柳暎烈(사무총장)
1993	8代 10位 모성재에 봉안 (柳根秀 고문의 제안을 종중 결의함) 모성회 구성함.
2000	柳浩弼 회장 취임

구 분	주 요 내 용
2003	柳浩弼 회장 재임 (柳文冀 사무총장) 柳氏 5代壇 事蹟碑 건립 및 경내 정화사업 慕省齋를 慕省祠로 格上 改稱함.
2010. 11. 5	柳濟求 慕省會長 就任(柳文冀 사무총장 재선임)
2011.	5代壇 慕省祠 重修 (4월 1일 ~ 6월 30일) 공사비 : 34,955,830원 출연금 : 3450만원 文化柳氏大宗會 (20,000,000), 晉州柳氏大宗會 (10,000,000) 靈光柳氏大宗會 (2,500,000), 僉正公宗中 柳石鉉 (2,000,000)
2014. 04. 13	柳大賢 慕省會長 취임(柳億烈 사무총장)
2014. 12. 14	柳來鉉 慕省會長 취임(柳愚翔 사무총장)
2017. 04. 10	柳三鉉 慕省會長 취임(柳愚翔 사무총장)
2017. 11. 16	柳三鉉 慕省會長 (柳承鉉 사무총장)
2018. 10. 12	金冠祭禮服 구입
2018. 10. 23	慕省會 定款개정
2019. 08. 21	祭器, 祭祀床 구입
2019. 08. 30	水洗式 화장실 신축
2019. 10. 13	慕省祠 懸板 새단장(慕省齋→慕省祠)
2019. 10. 13	始祖 大丞公(諱 車達) 位牌 奉安
2019. 12.	慕省祠 입구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2020. 03. 05	文化柳氏 慕省祠標識石 立石(모성사 입구)
2020. 05. 14	文化柳氏 慕省祠標識石 除幕式 忠景公派 部令公宗中부회장 柳元福 寄贈(제작비 1,500여만원)
2020. 10. 20	金冠祭禮服 구입
2020. 10. 31	慕省會 定款개정

2020年度 文化柳氏大宗會 誠金錄

2020.1.1 ~ 2020.12.31

(단위 : 원)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 액	비 고
1	검/영광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인팔
2	검/요은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흥묵
3	검/회인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정웅
4	검한성공파	개인	100,000	교수 근섭
5	검한성공파	개인	100,000	회장 인팔
6	곤/성곡공종중	개인	300,000	총무 근옥
7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대걸
8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응렬
합 계			1,300,000	

2020年度 慕省祠享祀 誠金錄

2020.10.31

(단위 : 원)

연번	파	개인 or 단체	금 액	비 고
1	문화류씨대종회	종중	2,000,000	회장 삼현
2	진주류씨대종회	종중	1,000,000	회장 조호
3	시랑공파	개인	200,000	사무국장 재평
4	시랑공파	마산종중	200,000	회장 을렬
5	시랑공파	개인	100,000	서연
6	문숙공파	종중	100,000	회장 재영
7	하정공파	개인	100,000	재균
8	하정공파	종중	200,000	회장 수택
9	하/고양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민성
10	하/안숙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주영
11	곤산군파	종중	200,000	회장 진춘
12	곤산군파	개인	50,000	태주
13	곤산군파	개인	200,000	영명
14	문/감찰공종중	종중	100,000	청주회장 재명
15	문/참봉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태기
16	문/장연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17	문평군파	개인	100,000	회장 태기
18	문평군파	개인	100,000	지원
19	중문지후사공파	종중	100,000	회장 용현
20	중문지후사공파	종중	100,000	회장 석현
21	중/안산종친회	종친회	100,000	회장 지태

(단위 : 원)

연번	과	개인 or 단체	금 액	비 고
22	중/군자종친회	종친회	200,000	회장 호승
23	증문지후사공파	개인	200,000	회장 호승
24	좌상공파	개인	200,000	부산 흥렬
25	좌상공파	개인	50,000	지욱
26	좌상공파	종중	300,000	회장 금렬
27	좌/찬성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재성
28	좌상공파	개인	100,000	재준
29	좌상공파	개인	100,000	유사 훈렬
30	좌/서산공종중	개인	200,000	회장 복수
31	좌/서산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복수
32	좌/서산공후	참판공종중	100,000	회장 재휴
33	좌/서산공후	평양공종중	100,000	회장 재휴
34	좌/서산공후	감찰공종중	100,000	회장 재휴
35	좌상공파	개인	200,000	
36	좌상공파	개인	100,000	명신
37	좌상공파	개인	100,000	호성
38	좌/찬성공종중	개인	100,000	회장 재성
39	좌/신곡공종중	울산종중	100,000	회장 주열
40	좌/신곡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주열
41	좌/서산공후	평간공종중	100,000	회장 학현
42	좌/문성군종중	개인	100,000	김해 재주

(단위 : 원)

연번	과	개인 or 단체	금 액	비 고
43	좌/찬성공종중	개인	100,000	부여 인근
44	좌상공파	개인	200,000	회장 금렬
45	좌/찬성공종중	개인	200,000	명렬
46	좌/문성군종중	개인	50,000	은상
47	좌/총재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복현
48	좌/문성군종중	종중	100,000	회장 재흥
49	좌/문성군종중	개인	100,000	영식
50	좌/찬성공종중	개인	300,000	춘천 인흥
51	좌/우후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총렬
52	좌/문성군종중	개인	50,000	연환
53	좌/찬 사복시정공	종중	100,000	회장흥렬
54	좌/찬성공종중	개인	100,000	좌열
55	좌/문희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호창
56	좌/서산공후	목사공종중	100,000	회장 순기
57	좌상공파	개인	100,000	경렬
58	좌/문성군종중	개인	100,000	회장 재흥
59	좌/문정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왕현
60	검한성공파	종중	200,000	회장 태열
61	검/함안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인구
62	검/창평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길수
63	검/영광공후	요은공종중	100,000	회장 흥묵

(단위 : 원)

연번	과	개인 or 단체	금 액	비 고
64	검/영광공후	회인공종중	100,000	회장 정응
65	검/영광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인팔
66	검/영광공종중	개인	100,000	인팔
67	검/판서공종중	연천종중	100,000	회장건영
68	검/판서공종중	개인	100,000	건영
69	정속공파	개인	50,000	제복
70	판사공파	종중	200,000	회장 종렬
71	부윤공파	종중	300,000	회장 재만
72	총경공파	개인	100,000	
73	총경공파	종중	300,000	회장 재관
74	총경공파	개인	100,000	병선
75	총경공파	개인	100,000	
76	총/전사령공종중	종중	300,000	회장 지찬
77	총/판윤공종중	개인	200,000	회장 택열
78	총/판윤공종중	종중	100,000	대종회고문 용진
79	총/판윤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재광
80	총/판윤공종중	개인	100,000	대종회고문 흥수
81	총/부령공종중	종중	300,000	회장 재중
82	총/부령공종중	개인	200,000	원복
83	총/부령공종중	개인	200,000	회장 재중
84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재복

(단위 : 원)

연번	과	개인 or 단체	금 액	비 고
85	총/소윤공종중	개인	50,000	방열
86	총/소윤공종중	봉사공종중	100,000	회장 지한
87	총/소윤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우상
88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근하
89	총/소윤공종중	천안공종중	100,000	회장 항보
90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청열
91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형선
92	총/소윤공종중	개인	100,000	인권
93	총/송암공종중	종중	200,000	회장 학선
94	정신공종중	종중	100,000	회장 재진
95	광주전남종친회	종친회	300,000	회장 금환
96	대전권종친회	종친회	100,000	회장 장렬
97	서울권종친회	종친회	200,000	회장 주선
98		개인	50,000	제찬
99		개인	20,000	인탁
100		개인	50,000	정남
101		개인	100,000	성열
102		개인	100,000	형렬
합 계			16,120,000	

【編輯後記】

儒州春秋 第23輯 編輯을 마치면서



文化柳氏大宗會 事務總長 柳承鉉

1년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冬至가 지나고, 2021 辛丑年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節候입니다.

2020 庚子年 한 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우리의 日常에 불편이 많았던 해 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儒州春秋 제23집 편집을 마치면서 所懷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文化柳氏 大宗會는 지난 1991년부터 宗報(儒州春秋)를 창간하여 2020년에 제23집까지 발간하기에 이르렀는 바, 그동안 玉稿를 보내주신 有志宗親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종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先世의 遺文과 遺筆, 壯竭, 傳記와 함께 여러 宗中の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하여 漢詩, 紀行, 動靜, 德談 등 여러 기록들이 수록된 儒州春秋 제23집 편집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玉稿를 보내주신 종친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내주신 자료중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부득이 게재되지 못한 것은 2021년 儒州春秋에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관계 종친들의 협조와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儒州春秋는 先祖의 德業을 崇慕宣揚하고 종친 상호간의 親睦과 함께 族誼를 진작토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 “宗論의 廣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과옥조(金科玉條)의 내용이 수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읽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 2021년부터는 老.少 종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편집(漢文을 한글로 더 많이 혼용)함과 아울러 우리 祖國과 文化柳氏를 빛내 주면서 국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종친들(예 : 柳賢振 야구선수, 골든벨을 올린 柳承鉉, 柳한나 학생 등)의 관련 주요 동정들도 이번 儒州春秋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같은 국내외 종친들의 동정 코너와 해외 종친회 활동의 면면들도 게재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함은 극히 소수(少數)만이 宗報를 읽는 것 보다는 가능한 한 老. 少 종친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현대적 시대감각에 맞게끔 편집계획을 수립토록 宗論도 모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儒州春秋 23집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발견치 못한 오기(誤記) 등의 미숙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면들은 차후에 교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宗報를 편집하는데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柳在均 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거듭 표하면서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일



儒州春秋 원고투고 안내

『儒州春秋』는 先世의 遺德을 천양하고 宗族의 敦睦을 진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년 간행하는 文化柳氏의 宗報입니다. 宗親 제위께서는 先世의 遺文, 遺筆, 狀碣, 傳記와 宗中の 事業, 行事 와 紀行, 隨筆, 提言 등 다양한 기록을 해당 사진과 본인 사진을 매년 6월말까지 한글파일을 작성하여 <mhryu0779@hanmail.net>로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투고는 우편(동봉)으로 대종회에 보내셔도 됩니다.

儒州春秋 第二十三輯

二〇二〇年 陽十二月二十四日 印刷
二〇二〇年 陽十二月二十八日 發行

發行人 柳 三 鉉

編輯人 柳 承 鉉

發行所 文化柳氏大宗會

大田廣域市中區階伯路

一五六六번길 二四 (柳川洞)

電話(〇四二) 五八二·〇七七二

電送(〇四二) 五八二·〇七七九

印刷所 瑞進印刷出版社

代表 白 鐘 欽

大田廣域市東區宣化路 一八七 (三省洞)

電話(〇四二) 二五六·九〇二二三

複製不許